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자 욕구조사

• 책임연구원

김 여 진 _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박 란 이 _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 부장

• 연구지원

김 연 아 _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 차장

차 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자 욕구조사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현황	7
제1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 및 돌봄수요	9
1. 대전광역시 돌봄 방향	9
2. 대전광역시 돌봄 수요	9
제2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현황	17
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7
2.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21
제3장 아동의 돌봄현황 및 욕구	31
제1절 조사 방법	33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
2. 조사 분석	34
3. 조사 내용	34
제2절 분석 결과	36
1. 응답자 특성	36
2.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40
3. 가정에서의 돌봄현황	47
4. 돌봄 어려움 경험	50
5. 대전광역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68
6. 다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82
7.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85
제3절 소결	87

차 례

제4장 노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91
제1절 조사 방법	93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3
2. 조사 분석	94
3. 조사 내용	94
제2절 분석 결과	95
1. 응답자 특성	95
2. 일상생활	98
3. 건강관리	115
4. 사회적 관계 : 가족 및 이웃관계	126
5. 돌봄 서비스 현황	131
6. 건강 상태	149
7. 대전광역시 노인관련 서비스	162
제3절 소결	168
 제5장 장애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171
제1절 조사 방법	173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73
2. 조사 분석	174
3. 조사 내용	174
제2절 분석 결과	175
1. 응답자 특성	175
2. 의료 및 건강	179
3. 일상생활	186
4. 주거 및 취업지원	199
5. 소득 및 경제적지원	202



6. 안전	204
7. 노후 준비	207
8. 돌봄 및 서비스	214
제3절 소결	263
제6장 결론 및 제언	267
제1절 주요 결과	269
제2절 제언	274
참고자료	280
부록: 설문지	282

표 차례

〈 표 2-1-1 〉 대전광역시 아동 인구	10
〈 표 2-1-2 〉 자치구별 초등학생 현황	10
〈 표 2-1-3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인구 추이	11
〈 표 2-1-4 〉 대전광역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11
〈 표 2-1-5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12
〈 표 2-1-6 〉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12
〈 표 2-1-7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돌봄수요자 현황	12
〈 표 2-1-8 〉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현황	13
〈 표 2-1-9 〉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현황	13
〈 표 2-1-10 〉 저소득 노인 돌봄 서비스 현황	14
〈 표 2-1-11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노인들이 느끼는 고충	14
〈 표 2-1-12 〉 대전광역시 치매노인 현황	15
〈 표 2-1-13 〉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현황	16
〈 표 2-1-14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50세 이상 장애인 현황	16
〈 표 2-1-15 〉 대전광역시 장애인돌봄 어려움	17
〈 표 2-2-1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연차별 로드맵	19
〈 표 2-2-2 〉 대전광역시 통합돌봄 3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단계	20
〈 표 2-2-3 〉 대전광역시 온정나눔 기부플랫폼 추진 단계	20
〈 표 2-2-4 〉 동구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	21
〈 표 2-2-5 〉 동구 노인 복지서비스 선호도	22
〈 표 2-2-6 〉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23
〈 표 2-2-7 〉 서구 노인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	24
〈 표 2-2-8 〉 서구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	24
〈 표 2-2-9 〉 서구 행정별 노인 및 장애인 현황	24
〈 표 2-2-10 〉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26
〈 표 2-2-11 〉 유성구 행정동별 노인 및 장애인, 기초수급자 현황	27
〈 표 2-2-12 〉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28
〈 표 2-2-13 〉 대덕구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	28
〈 표 2-2-14 〉 대덕구 독거노인 및 맞춤형 급여 현황	29

〈 표 2-2-15 〉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내용	30
〈 표 3-1-1 〉 다함께돌봄센터 조사 대상	33
〈 표 3-1-2 〉 지역아동센터 조사 대상	34
〈 표 3-1-3 〉 아동 대상 조사 내용	35
〈 표 3-2-1 〉 응답자 특성(아동)	36
〈 표 3-2-2 〉 응답자 특성(학부모)	37
〈 표 3-2-3 〉 권역별 응답자 특성	39
〈 표 3-2-4 〉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40
〈 표 3-2-5 〉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41
〈 표 3-2-6 〉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43
〈 표 3-2-7 〉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 도움 정도	43
〈 표 3-2-8 〉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44
〈 표 3-2-9 〉 연령별·시설 유형별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45
〈 표 3-2-10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필요사항	46
〈 표 3-2-11 〉 시설유형별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 필요사항(1순위)	46
〈 표 3-2-12 〉 자녀 등하교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47
〈 표 3-2-13 〉 자녀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	47
〈 표 3-2-14 〉 자녀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_기타 내용	48
〈 표 3-2-15 〉 자녀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_등교 시	48
〈 표 3-2-16 〉 자녀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_하교 시	49
〈 표 3-2-17 〉 하교 이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자녀 돌봄 방법	50
〈 표 3-2-18 〉 돌봄 정책 인지도	51
〈 표 3-2-19 〉 권역별 돌봄정책 인지도	51
〈 표 3-2-20 〉 학년별 돌봄정책 인지도	52
〈 표 3-2-21 〉 가족유형별 돌봄정책 인지도	53
〈 표 3-2-22 〉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54
〈 표 3-2-23 〉 돌봄 공백 여부	55
〈 표 3-2-24 〉 돌봄 공백에 따른 지원 필요 정도	56
〈 표 3-2-25 〉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처	56

표 차례

〈 표 3-2-26 〉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 프로그램	57
〈 표 3-2-27 〉 자녀 양육 어려움	58
〈 표 3-2-28 〉 자녀 양육 어려움_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	59
〈 표 3-2-29 〉 자녀 양육 어려움_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 참여	59
〈 표 3-2-30 〉 자녀 양육 어려움_자녀의 안전관리	60
〈 표 3-2-31 〉 자녀 양육 어려움_지역의 아동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60
〈 표 3-2-32 〉 자녀 양육 어려움_돌봄비용 부담	61
〈 표 3-2-33 〉 자녀 양육 어려움_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봄 시간 부족	61
〈 표 3-2-34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	62
〈 표 3-2-35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자녀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63
〈 표 3-2-36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감염병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63
〈 표 3-2-37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보육돌봄기관의 휴원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64
〈 표 3-2-38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64
〈 표 3-2-39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64
〈 표 3-2-40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주말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65
〈 표 3-2-41 〉 휴직/사직 경험	65
〈 표 3-2-42 〉 휴직/사직 경험_현재 육아휴직 중	66
〈 표 3-2-43 〉 휴직/사직 경험_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음	66
〈 표 3-2-44 〉 휴직/사직 경험_육아휴직 사용할 계획이 있음	67
〈 표 3-2-45 〉 휴직/사직 경험_아이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적이 있음	67
〈 표 3-2-46 〉 휴직/사직 경험_아이 양육 때문에 사직하려고 계획 중	68
〈 표 3-2-47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69
〈 표 3-2-48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_기타 내용(1+2순위)	69
〈 표 3-2-49 〉 공동돌봄 공간 추천 연령대	70
〈 표 3-2-50 〉 돌봄 공백 해소에 적합한 공동돌봄 공간	71
〈 표 3-2-51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	72
〈 표 3-2-52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_기타 내용(1+2+3순위)	72
〈 표 3-2-53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_1순위	73
〈 표 3-2-54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여부	74

〈 표 3-2-55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내용	75
〈 표 3-2-56 〉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	76
〈 표 3-2-57 〉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_기타 내용	77
〈 표 3-2-58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	77
〈 표 3-2-59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_기타 내용	78
〈 표 3-2-60 〉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 형태	78
〈 표 3-2-61 〉 각 상황별 자녀 주양육자	79
〈 표 3-2-62 〉 주양육자_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	80
〈 표 3-2-63 〉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81
〈 표 3-2-64 〉 자녀 수	82
〈 표 3-2-65 〉 자녀 연령_평균	83
〈 표 3-2-66 〉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상황_주 이용 돌봄 기관	83
〈 표 3-2-67 〉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상황_돌보는 사람	84
〈 표 3-2-68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	84
〈 표 3-2-69 〉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85
〈 표 4-1-1 〉 조사 대상	93
〈 표 4-1-2 〉 조사 내용	94
〈 표 4-2-1 〉 응답자 특성	95
〈 표 4-2-2 〉 권역별 응답자 특성	97
〈 표 4-2-3 〉 식사준비 주로 준비하는 사람	98
〈 표 4-2-4 〉 식사준비 주로 준비하는 사람_기타 내용	99
〈 표 4-2-5 〉 영양관리 방법	100
〈 표 4-2-6 〉 생활비 마련 방법	101
〈 표 4-2-7 〉 지출 항목 순위	102
〈 표 4-2-8 〉 지출 항목 순위_1순위	103
〈 표 4-2-9 〉 주된 활동	104
〈 표 4-2-10 〉 주된 활동_기타 내용(1+2순위)	104
〈 표 4-2-11 〉 주된 활동_1순위	105
〈 표 4-2-12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106

표 차례

〈 표 4-2-13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107
〈 표 4-2-14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건강상의 문제	108
〈 표 4-2-15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장애 등 신체활동 어려움	108
〈 표 4-2-16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주거환경	110
〈 표 4-2-17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가족갈등문제	110
〈 표 4-2-18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여가활용 등 사회참여	111
〈 표 4-2-19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외로움	112
〈 표 4-2-20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식사준비	113
〈 표 4-2-21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일시적인 주거시설	114
〈 표 4-2-22 〉 일상생활 불편 정도	115
〈 표 4-2-23 〉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부분	117
〈 표 4-2-24 〉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119
〈 표 4-2-25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120
〈 표 4-2-26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_기타 내용	121
〈 표 4-2-27 〉 건강 행태	121
〈 표 4-2-28 〉 건강 행태_음주	122
〈 표 4-2-29 〉 음주하는 경우 마시는 술 종류 및 평균 잔	122
〈 표 4-2-30 〉 건강 행태_운동	123
〈 표 4-2-31 〉 건강 행태_식사	124
〈 표 4-2-32 〉 건강 행태_건강교육 및 검진	124
〈 표 4-2-33 〉 건강 행태_사회활동	125
〈 표 4-2-34 〉 자녀 여부	126
〈 표 4-2-35 〉 자녀 수	126
〈 표 4-2-36 〉 자녀와의 연락 빈도	127
〈 표 4-2-37 〉 가족 또는 이웃과의 대화 정도	129
〈 표 4-2-38 〉 이웃과의 관계	130
〈 표 4-2-39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131
〈 표 4-2-40 〉 지역사회 도움 신청 경로 인지	133
〈 표 4-2-41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34

〈 표 4-2-42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	136
〈 표 4-2-43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36
〈 표 4-2-44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	137
〈 표 4-2-45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퇴원환자 지원사업)	138
〈 표 4-2-46 〉 돌봄 서비스 만족도	140
〈 표 4-2-47 〉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40
〈 표 4-2-48 〉 경로식당 또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141
〈 표 4-2-49 〉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	142
〈 표 4-2-50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	144
〈 표 4-2-51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참여 서비스	145
〈 표 4-2-52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1	146
〈 표 4-2-53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2	148
〈 표 4-2-54 〉 그 외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	149
〈 표 4-2-55 〉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	150
〈 표 4-2-5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151
〈 표 4-2-57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_기타	152
〈 표 4-2-58 〉 지난 1년간 진료를 못 받은 경험	153
〈 표 4-2-59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154
〈 표 4-2-60 〉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155
〈 표 4-2-61 〉 입퇴원시 도움 유형	156
〈 표 4-2-62 〉 가족 또는 돌봄 서비스 충분성	157
〈 표 4-2-63 〉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158
〈 표 4-2-64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159
〈 표 4-2-65 〉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160
〈 표 4-2-66 〉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160
〈 표 4-2-67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안 한 이유	161
〈 표 4-2-68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안 한 이유_1순위	162
〈 표 4-2-69 〉 노인관련 서비스 충분성	163
〈 표 4-2-70 〉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	164

표 차례

〈 표 4-2-71 〉 충분한 환경 제공	164
〈 표 4-2-72 〉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66
〈 표 4-2-73 〉 노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67
〈 표 5-1-1 〉 조사 대상	173
〈 표 5-1-2 〉 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	174
〈 표 5-2-1 〉 응답자 특성	175
〈 표 5-2-2 〉 권역별 응답자 특성	177
〈 표 5-2-3 〉 응답자 특성별 장애유형	178
〈 표 5-2-4 〉 장애 발생 원인	179
〈 표 5-2-5 〉 평소 본인 건강	181
〈 표 5-2-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181
〈 표 5-2-7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_기타 내용	182
〈 표 5-2-8 〉 만성질환 치료 여부	183
〈 표 5-2-9 〉 만성질환 치료하지 않은 이유	183
〈 표 5-2-10 〉 만성질환 치료하지 않은 이유_1순위	183
〈 표 5-2-11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184
〈 표 5-2-12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_1순위	185
〈 표 5-2-13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186
〈 표 5-2-14 〉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여부	187
〈 표 5-2-15 〉 주로 도와주는 사람	189
〈 표 5-2-16 〉 일상생활 도움 충분성	190
〈 표 5-2-17 〉 도움 부족한 이유	191
〈 표 5-2-18 〉 도움이 필요한 영역	191
〈 표 5-2-19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92
〈 표 5-2-20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193
〈 표 5-2-21 〉 집밖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194
〈 표 5-2-22 〉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195
〈 표 5-2-23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196
〈 표 5-2-24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196

〈 표 5-2-25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197
〈 표 5-2-26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198
〈 표 5-2-27 〉 주거안정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분야	199
〈 표 5-2-28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200
〈 표 5-2-29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201
〈 표 5-2-30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	202
〈 표 5-2-31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_1순위	203
〈 표 5-2-32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205
〈 표 5-2-33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205
〈 표 5-2-34 〉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	206
〈 표 5-2-35 〉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_1순위	206
〈 표 5-2-36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207
〈 표 5-2-37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_1순위	208
〈 표 5-2-38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	209
〈 표 5-2-39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	209
〈 표 5-2-40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선정	210
〈 표 5-2-41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커뮤니티 등 공동체 생활 준비	210
〈 표 5-2-42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주거 등 환경적 준비	211
〈 표 5-2-43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재활훈련 및 취업준비	212
〈 표 5-2-44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협동조합,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준비	212
〈 표 5-2-45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213
〈 표 5-2-46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_1순위	214
〈 표 5-2-47 〉 희망 거주형태	215
〈 표 5-2-48 〉 희망 거주형태 선택 이유	216
〈 표 5-2-49 〉 혼자 살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 여부	218
〈 표 5-2-50 〉 혼자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218
〈 표 5-2-51 〉 필요 서비스	220
〈 표 5-2-52 〉 필요 서비스_1순위	220
〈 표 5-2-53 〉 서비스 정보습득경로	221

표 차례

〈 표 5-2-5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	224
〈 표 5-2-5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연금	225
〈 표 5-2-5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경증장애수당	226
〈 표 5-2-5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동수당	226
〈 표 5-2-5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 보육료 지원	227
〈 표 5-2-5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28
〈 표 5-2-6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아동양육수당	228
〈 표 5-2-6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의료비 지원	229
〈 표 5-2-6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230
〈 표 5-2-63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231
〈 표 5-2-6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검사비 지원	232
〈 표 5-2-6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재활서비스	233
〈 표 5-2-6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언어발달지원서비스	233
〈 표 5-2-6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34
〈 표 5-2-6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보조기 정부보조금 지원	235
〈 표 5-2-6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36
〈 표 5-2-7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7
〈 표 5-2-7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가족양육지원	239
〈 표 5-2-7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39
〈 표 5-2-73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240
〈 표 5-2-7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241
〈 표 5-2-7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일자리 사업	242
〈 표 5-2-7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고용서비스	244
〈 표 5-2-7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공공요금 감면	245
〈 표 5-2-7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각종 세제혜택	246
〈 표 5-2-79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	247
〈 표 5-2-80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_1순위	247
〈 표 5-2-81 〉 도움신청 경로	249
〈 표 5-2-82 〉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도	250

〈 표 5-2-83 〉 통합돌봄 서비스 충분성	250
〈 표 5-2-84 〉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251
〈 표 5-2-85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	252
〈 표 5-2-86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253
〈 표 5-2-87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주거환경개선	254
〈 표 5-2-88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시설	254
〈 표 5-2-89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가사지원	255
〈 표 5-2-90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도시락 등 식사지원	256
〈 표 5-2-91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건강관리	256
〈 표 5-2-92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이용	257
〈 표 5-2-93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	257
〈 표 5-2-94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우울 등 심리정서 상담	258
〈 표 5-2-95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 퇴원지원	258
〈 표 5-2-96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간병 등 돌봄 서비스	259
〈 표 5-2-97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자립생활 등 정보 안내소	259
〈 표 5-2-98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자원 연계	260
〈 표 5-2-99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관계형성 프로그램	260
〈 표 5-2-100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거주지 인근의 쉼터	261
〈 표 5-2-101 〉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262

그림 차례

〈 그림 3-2-1 〉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41
〈 그림 3-2-2 〉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42
〈 그림 3-2-3 〉 방과후 돌봄 기관 만족도	44
〈 그림 3-2-4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필요사항	45
〈 그림 3-2-5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정책 인지도	50
〈 그림 3-2-6 〉 자녀 양육 어려움	58
〈 그림 3-2-7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69
〈 그림 4-2-1 〉 지출 항목 순위	102
〈 그림 4-2-2 〉 주된 활동	104
〈 그림 4-2-3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106
〈 그림 4-2-4 〉 일상생활 불편 정도	115
〈 그림 4-2-5 〉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118
〈 그림 4-2-6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120
〈 그림 4-2-7 〉 자녀와의 연락 빈도	127
〈 그림 4-2-8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131
〈 그림 4-2-9 〉 지역사회 도움 신청 경로 인지	132
〈 그림 4-2-10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34
〈 그림 4-2-11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	136
〈 그림 4-2-12 〉 돌봄 서비스 만족도	139
〈 그림 4-2-13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사회참여 서비스)	143
〈 그림 4-2-14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돌봄 서비스)	143
〈 그림 4-2-15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가족관계 서비스)	144
〈 그림 4-2-16 〉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	149
〈 그림 4-2-17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154
〈 그림 4-2-18 〉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155
〈 그림 4-2-19 〉 도움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158
〈 그림 4-2-20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안 한 이유	161
〈 그림 4-2-21 〉 노인관련 서비스 충분성	163
〈 그림 5-2-1 〉 나이 분포	175

〈 그림 5-2-2 〉 장애유형	178
〈 그림 5-2-3 〉 평소 본인 건강	181
〈 그림 5-2-4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184
〈 그림 5-2-5 〉 주로 도와주는 사람	188
〈 그림 5-2-6 〉 도움 부족한 이유	190
〈 그림 5-2-7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92
〈 그림 5-2-8 〉 집밖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194
〈 그림 5-2-9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197
〈 그림 5-2-10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200
〈 그림 5-2-11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	202
〈 그림 5-2-12 〉 장애유형별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_1순위	203
〈 그림 5-2-13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207
〈 그림 5-2-14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	209
〈 그림 5-2-15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213
〈 그림 5-2-16 〉 희망 거주형태	215
〈 그림 5-2-17 〉 필요 서비스	219
〈 그림 5-2-1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연금수당)	222
〈 그림 5-2-1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보육·교육)	222
〈 그림 5-2-2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의료 및 재활지원)	223
〈 그림 5-2-2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돌봄지원)	223
〈 그림 5-2-2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일자리 및 기타)	223
〈 그림 5-2-23 〉 도움신청 경로	249
〈 그림 5-2-24 〉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251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18년 정부는 국가 돌봄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과 보편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발표하였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통합돌봄 보편화를 위한 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선도사업은 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의 리빙랩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의 정주성 향상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과 기관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체계로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도 선도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대전형 돌봄 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대전복지재단, 2019) 및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매뉴얼」(대전복지재단, 2020)을 기반으로 2020년 9월부터 유성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2025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0년 2개 자치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대덕구, 유성구, 동구, 서구의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7월 이후 중구를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돌봄을 위한 주민력 강화를 위해 거점복지관을 활용한 동-거점복지관 연계·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개 자치구와 81개 행정동 및 거점복지관을 매칭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마을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거점복지관과 연계·협력하는 마을돌봄은 동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돌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간의 연계-협업-통합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¹⁾

그동안 돌봄에 대한 욕구 조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주민 욕구 조사 및 자치

1)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0)

구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위해 선도사업 매뉴얼²⁾을 활용한 돌봄욕구 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보장조사(2021)의 경우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욕구조사는 위생관리, 가사 활동, 이동 및 외출, 재난대처, 건강 관련 응급상황대처, 돌봄 비용 등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동 돌봄은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시설 서비스 부족, 양육 시간 부족, 양육기술 부족, 아동 발달 또는 장애아동 돌봄 부담의 어려움에 대해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회보장 욕구조사는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회보장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활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사회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 욕구조사이다. 따라서 대상별 돌봄현황과 특성에 대한 세밀한 욕구 조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매뉴얼(2020) 욕구조사의 경우에도 행정동의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개별 방문을 통한 건강 및 복지상담 등과 관련된 기초 조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돌봄 대상자나 수요자의 차별화된 욕구 파악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은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 개별적인 역량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지역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 던 곳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 자원, 서비스 공급량, 돌봄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사실 돌봄의 문제는 특정한 계층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주거, 보건·의료, 건강, 영양,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과 직능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종합적 차원의 욕구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맞벌이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 가정 양립 수요확대 등 아동돌봄 환경의 변화는 아동 돌봄의 공백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는 상황이며, 대전시의 경우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과후 돌봄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보편적 돌봄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욕구 조사를 통해 돌봄의 지역사회 통합성 구현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노인) 매뉴얼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³⁾ 제5조에서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의 수립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 및 환경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 수요자의 돌봄현황과 필요서비스 등의 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연차별 확대 (2019년~2022년)로 돌봄 수요자에 대한 돌봄체계구축이 필요해 지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돌봄의 주 대상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현황 및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돌봄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욕구조사를 통해 대전의 돌봄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돌봄 서비스 현황과 전달체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예방에 필요한 돌봄 및 서비스를 파악한다.

셋째, 분석된 돌봄현황 및 욕구를 바탕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3) 2021년 12월 29일 제정

제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 및 돌봄수요

제2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현황

제2장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 및 돌봄수요

1. 대전광역시 돌봄 방향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 및 신사회적 위험에 따라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돌봄체계가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AIP(Aging In Place)를 위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돌봄의 연속선(Continuum of care)상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이 당사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및 사회적 관계망의 악화, 1인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내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돌봄 친화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2. 대전광역시 돌봄 수요

2021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452,251명으로 2017년 1,502,227명에서 2018년 1,289,936명, 2019년 1,474,870명, 2020년 1,463,88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서구는 473,365명으로 대전광역시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351,277명으로 24.1%, 중구 229,903명으로 15.8%, 동구 222,222명으로 15.3%, 대덕구가 175,484명인 12%이다.

1) 아동 돌봄 수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아동 인구는 14.5%이며, 대전광역시는 15.1%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 아동 인구는 219,070명으로 서구가 73,768명, 유성구 63,342명, 중구 30,114명, 동구 29,247명, 대덕구 22,599명이며 유성구가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의 18.0%로 가장 높고 서구가 15.6%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성구와 서구가 우리나라 아동인구 평균 및 대전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표 2-1-1 〉 대전광역시 아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인구	1,452,251	222,222	230,341	473,365	351,277	175,484
아동 인구	219,070	29,247	30,114	73,768	63,342	22,599
비율	15.1%	13.1%	13.1%	15.6%	18.0%	12.9%

대전광역시 인구현황(<https://daejeon.go.kr>)

대전광역시 아동인구 중 초등학교 인구는 2021년 기준 77,884명이다. < 표 2-1-2>를 보면 초등학교 인구 중 남학생이 40,070명(51.4%)이고 여학생이 37,814명(48.6%)으로 구별 현황을 보면 서구가 25,744명(33.1%)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22,560명(29.0%), 중구 11,185명(14.4%), 동구 10,459명(13.4%), 대덕구 7,936명(10.2%)이며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많다.

〈 표 2-1-2 〉 자치구별 초등학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남	40,070	5,378	5,669	13,280	10,530	4,172
여	37,814	5,081	5,516	12,464	10,989	3,764
계	77,884	10,459	11,185	25,744	22,560	7,936

2021년 대전교육통계연보 재구성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인구는 2010년 109,013명에서 2019년 82,743명, 2021년 77,8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31년에는 5만 1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표 2-1-3 〉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인구 추이

(단위: 명,%)

연도	초등학생 인구			초등학생 인구 추이	
	계	남	여	증감	증감율
2010	109,013	56,876	52,137	-5,608	-4.9
2011	103,852	54,106	49,746	-5,161	-4.7
2012	98,665	51,261	47,404	-5,187	-5.0
2013	93,398	48,611	44,787	-5,267	-5.3
2014	91,599	47,431	44,168	-1,799	-1.9
2015	89,464	46,177	43,287	-2,135	-2.3
2016	85,939	44,360	41,579	-3,525	-3.9
2017	84,240	43,405	40,835	-1,699	-2.0
2018	83,453	42,992	40,461	-787	-0.9
2019	82,743	42,568	40,175	-710	-0.9
2020	79,807	41,043	38,764	-2,936	-3.55
2021	77,884	40,070	37,814	-1,923	-2.41

2021년 대전교육통계연보 재구성

2021년 기준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공급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2-1-4>처럼 초등돌봄교실이 149개 학교 502개 교실에서 9,536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가 가장 많은 40개 학교에서 153개 교실(2,937명), 유성구 38개 학교, 134개 교실(2,564명), 중구 27개 학교, 78개 교실(1,557명), 동구 23개 학교, 71개 교실(1,348명), 대덕구가 21개 학교, 66개 교실(1,130명)에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1-4 〉 대전광역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학교수	149	23	27	40	38	21
교실수	502	71	78	153	134	66
돌봄아동수	9,536	1,348	1,557	2,937	2,564	1,130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1-5>와 같이 총 14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3,771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에 가장 많은 37개 기관에서 952명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서구에 30개 기관 758명, 대덕구에 27개 기관 761명, 동구에 26개 기관 714명, 유성구가 22개 기관 586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

〈 표 2-1-5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센터수	142	26	37	30	22	27
돌봄아동수	3,771	714	952	758	586	761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은 아래의 <표 2-1-6>처럼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개소가 더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에 가장 많은 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구 4개, 유성구 3개, 대덕구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정원은 현재 348명이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165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

〈 표 2-1-6 〉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센터수	13	5	0	4	3	1
돌봄아동수	165	86	0	48	20	11

앞에서 살펴본 통계에 따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방과후 돌봄 등 향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돌봄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되는 돌봄 수요자를 자치구별로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2-1-7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돌봄수요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인구수	1,452,251	222,222	229,903	473,365	351,277	175,484
수요자 계	341,774	69,229	71,404	111,024	70,792	48,331
노인인구	221,207	44,157	47,147	64,348	36,061	29,494
장애인 인구	72,489	14,613	13,072	20,932	12,171	10,901
초등학생 인구	77,884	10,459	11,185	25,744	22,560	7,936
비율	23.5	31.2	31.5	23.5	20.2	27.5

2021 대전광역시 자치구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2) 노인 돌봄 수요

대전광역시의 고령인구 비중은 15.2%(221,207명)로 전국 평균(17.2%)보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아직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구 20.5%(47,147명), 동구 19.9%(44,157명), 대덕구 16.8%(29,494명)로 구도심 지역은 대전광역시 고령인구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며 서구 13.6%(64,348명), 유성구 13.3%(36,061명)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고 고령화 속도도 상이하다.

〈 표 2-1-8 〉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인구	1,452,251	222,222	230,341	473,365	351,277	175,484
노인인구	221,207	44,157	47,147	64,348	36,061	29,494
비율	15.2	19.9	20.5	13.6	13.3	16.8

대전광역시 인구현황(<https://daejeon.go.kr>)재구성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은 49,502명이며 노인인구의 22.4%이다. 자치구별 독거노인현황은 동구가 33.9%로 가장 높고 대덕구가 30.2%, 중구가 28.6%, 유성구 22.9%로 4개의 자치구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며 서구는 6.1%이다.

〈 표 2-1-9 〉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노인인구	221,207	44,157	47,147	64,348	36,061	29,494
독거노인	49,502	14,957	13,483	3,894	8,270	8,898
비율	22.4%	33.9%	28.6%	6.1%	22.9%	30.2%

대전광역시 인구현황(<https://daejeon.go.kr>)재구성

다음의 <표 2-1-10>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맞춤형 급여 대상은 16,116명이며,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15,631명, 독거 및 중증장애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8,104명, 식사배달을 받고 있는 거동 불편한 노인은 971명이다. 구별 돌봄현황을 보면 동구가 11,324명으로 전체 노인의 25.6%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중구가 18.2%, 서구 14%, 유성구 9.1%, 대덕구 26.8%가 식사배달, 응급안전안심, 노인맞춤돌봄, 맞춤형급여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노인이다.

〈 표 2-1-10〉 저소득 노인 돌봄 서비스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식사배달	971	398	155	125	53	240
응급안전안심	8,104	2,539	1,141	1,129	677	1,884
노인맞춤돌봄	15,631	3,725	3,727	3,837	1,080	3,262
맞춤형 급여	16,116	4,662	3,569	3,894	1,484	2,507
계	40,088	11,324	8,592	8,985	3,294	7,893
비율	18.1	25.6	18.2	14.0	9.1	26.8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재구성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를 보면 아래의 <표 2-1-11>과 같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33.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 문제 29.4%, 외로움과 고독, 사회적 소외가 26.8%로이며, 소일거리 부족이 7.5%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2019년 36.8%, 2020년 32.9%였으며, 건강문제는 2019년 25.1%, 2020년 32.9%로 코로나 19의 영향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로움과 고독, 사회적 소외는 2019년 28.5%, 2020년 24.9%였으며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이 겪는 어려움의 순위는 매년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 외로움과 소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대덕구 42.6%, 유성구 38.9%, 동구 38.1%로 대전광역시 평균 33.6%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문제는 서구가 35.6%, 동구가 32.8%로 대전광역시 평균 29.4%보다 높았다. 외로움과 고독은 유성구가 31.6%, 대덕구가 29.0%, 중구 27.2%로 대전광역시 평균 26.8%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 볼 때 대전광역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고독의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표 2-1-11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노인들이 느끼는 고통

(단위: 명, %)

구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경제적 문제	33.6	38.1	27.0	27.5	38.9	42.6
건강 문제	29.4	32.8	28.7	35.6	21.7	24.4
외로움, 고독	26.8	23.9	27.2	23.7	31.6	29.0
소일거리 부족	7.5	3.1	14.7	9.0	5.5	3.3
자녀와의 갈등	2.7	2.2	2.4	4.1	2.3	0.7

2021 대전의 사회지표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중 치매 노인은 21,313명으로 9.9%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치매 인구로 보면 서구가 가장 많은 6,031명이며, 중구가 4,757명, 동구가 4,342명 순이다. 자치구별 인구 대비 유병률은 중구가 10.3%로 가장 높고 동구 10.0%, 유성구 9.8% 순이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동구가 대전광역시 평균 유병률보다 9.9% 보다 높고 유성구, 대덕구, 서구는 0.1p~ 0.2p 차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표 2-1-12 〉 대전광역시 치매노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총인구	1,452,251	222,222	230,341	473,365	351,277	175,484
노인인구비율	15.2	19.9	20.5	13.6	13.3	16.8
치매인구	21,313	4,342	4,757	6,031	3,394	2,787
치매유병률	9.9	10.0	10.3	9.7	9.8	9.8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

2) 장애인 돌봄 수요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72,489명으로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중 남성은 42,447명으로 58.6%이며, 여성은 32,542명으로 41.6%이다. 구별 장애 인구는 동구가 14,613명(20.2%), 중구 13,072명(19.3%), 서구 20,832명(28.7%), 유성구 12,171명(16.8%), 대덕구 10,901명(15%)이다.

장애유형별 인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31,992명, 시각장애 6,942명, 청각 10,142명, 언어 603명, 지적 6,845명, 뇌병변 7,193명, 자폐 1,130명, 정신 3,221명, 신장 2,931명, 심장 111명, 호흡기 284명, 간 358명, 안면 75명, 장루요루 407명, 뇌전증 255명으로 대전지역은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전체 장애인구 증가 경향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 정도별은 심한 장애가 28,303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44,186명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39.4%인 것으로 파악되며,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의 경우가 심한 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모두 심한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등록장애인의 나이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성인이 69,985명이며, 이 중 50세 이상이 55,609명, 18세 미만 아동이 2,504명이다.

〈 표 2-1-13 〉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발달장애	정신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등록인구	31,992	7,193	6,942	10,142	603	75	6,845	1,130	3,221
구분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등록인구	2,931	111	284	358	407	255			

e나라지표(통계청)

50세 이상의 장애인이 55,609명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구의 76.7%를 차지한다. 장애인의 경우 고령이 되면 고령과 장애라는 중복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고령의 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욕구가 더 클 수 있으며, 고령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데, 자치구별 50세 이상 장애인 현황을 보면 동구가 79.3%, 중구 85.1%, 서구 75.1%, 유성구 71.9%, 대덕구 77.3%이며 모든 자치구에서 50세 이상 장애인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1-14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50세 이상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장애인	72,489	14,613	13,072	20,932	12,171	10,901
50세 이상	55,609	11,583	11,126	15,725	8,751	8,424
50세 이상(남)	31,063	6,569	6,237	8,718	4,782	4,757
50세 이상(여)	24,546	5,014	4,889	7,007	3,969	3,667
비율	76.7	79.3	85.1	75.1	71.9	77.3

2021년 대전의 통계 재구성

대전광역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을 보면 장애아동 돌봄부담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44.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이동 및 외출 어려움 43.1%, 신체 및 정신적 돌봄부담 42.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15 〉 대전광역시 장애인돌봄 어려움

(단위: 점)

구분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대처 어려움		돌봄부담			
	위생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재난	건강	신체, 정신	비용	서비스 부족	장애아동 돌봄부담
대전광역시	37.5	40.4	43.1	36.8	39.7	42.2	40.1	39.8	44.2
동구	27.6	30.2	31.0	22.4	25.0	25.0	25.9	28.4	
중구	35.7	31.3	42.0	33.0	30.4	38.0	40.2	37.5	50.0
서구	43.1	51.0	50.5	50.5	54.4	53.9	51.0	49.0	50.0
유성구	39.0	42.6	47.1	36.0	44.9	45.2	39.0	39.7	31.3
대덕구	37.5	38.3	39.1	32.0	32.0	39.4	36.7	37.5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영역에서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 31.0점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가사활동의 어려움 30.2점이며, 중구는 장애아동 돌봄부담 50.0점,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42.0점 순이다. 서구는 건강에 대한 긴급상황대처가 54.4점으로 가장 높고 신체적 정신적 돌봄부담 53.9점 순이며, 유성구는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47.1%, 신체적 정신적 돌봄부담 45.2점 순이다. 대덕구는 신체적 정신적 돌봄부담 39.4점,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9.1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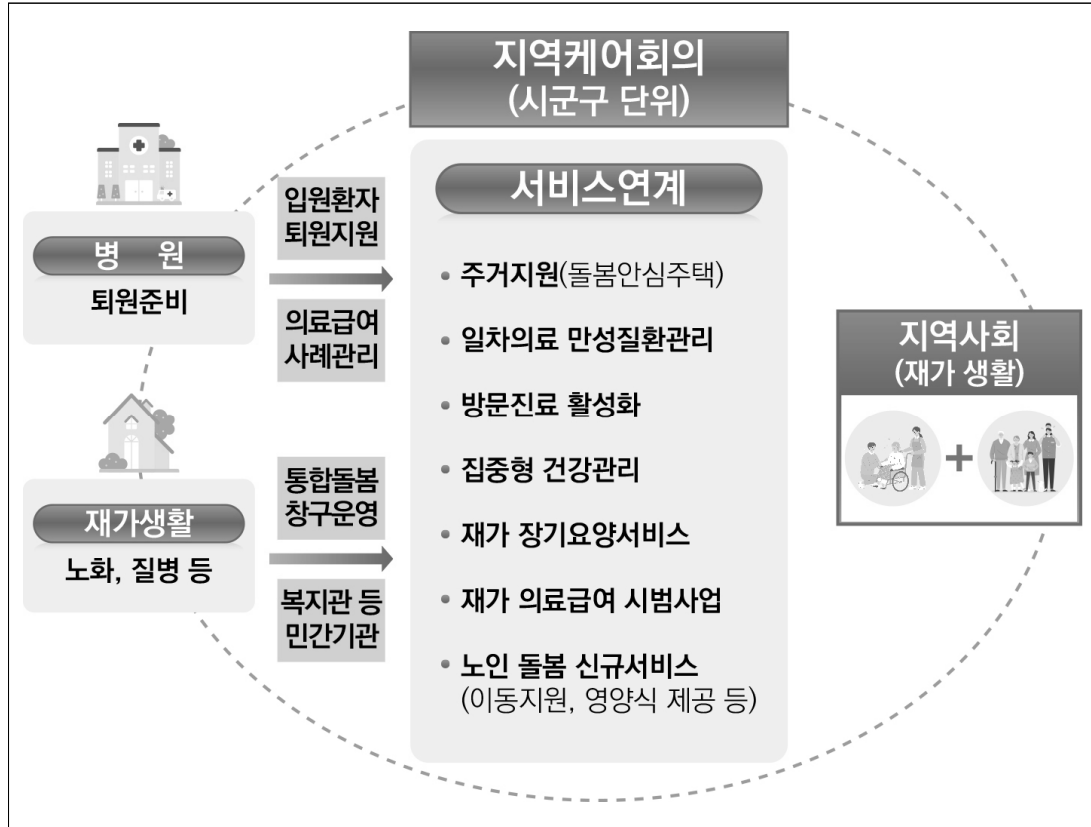
제2절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현황

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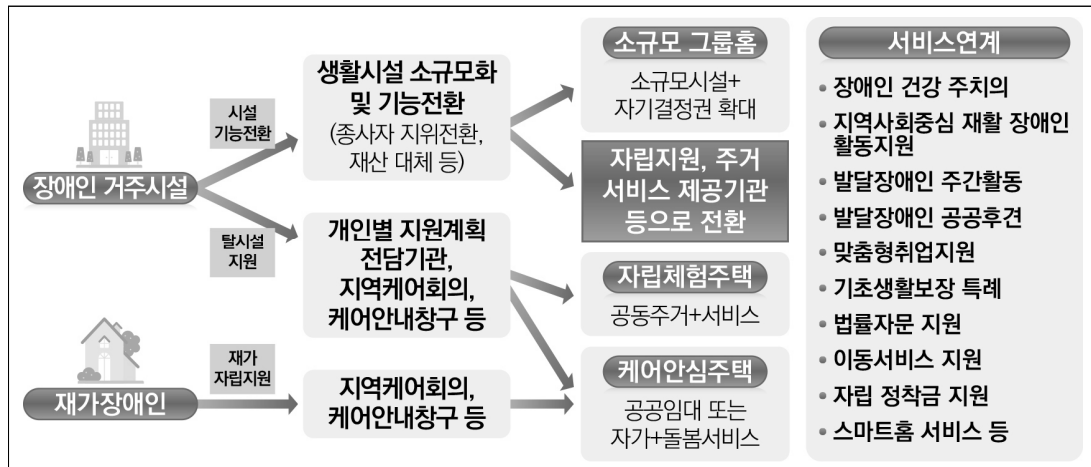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발맞추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통합돌봄 보편화를 위한 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대전광역시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노인인구는 2020년 14%에 진입했고 돌봄이 필요한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인구의 38%가 넘으면서 지역 내 돌봄의 사회화 및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유성구와 대덕구를 비롯해 2021년부터는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4개 자치구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2-1 〉 대전광역시 노인 시범사업 개요



〈 그림 2-2-2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시범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각 구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치구의 복지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를 활용하고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며 노인 외에 돌봄이 필요한 다른 연령대의 시민까지 통합돌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19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를 토대로 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자치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제적 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표 2-2-1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연차별 로드맵

차시	연도	내용
1차	2020~2022 (시범사업)	· 자치구별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자치구 공모) ·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공모 준비 · 법 제도 정비: 관련 조례 제정 등
2차	2023~2025 (본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장기요양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및 안착 ·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3차	2026~	·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

대전형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2019)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복지의 3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동 케어회의, 구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하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주민력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공동체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각 공동체가 공통의 돌봄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돌봄 서비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형 돌봄 서비스가 동의 인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은 3가지 모델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건강-돌봄 연계강화형으로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과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 모델로 지역내 보건의료기관이 주도성을 발휘한다. 둘째, 마을 복지-돌봄연계강화형 모델로 지역복지사업과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

사업으로 지역복지기관이 주도성을 발휘한다. 셋째, 마을공동체-돌봄 연계 결합형 모델로 마을 리빙랩, 공유공간, 로컬푸드 네트워크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돌봄 모델로 마을 공동체 주도성이 발휘되는 모델이다. 대전광역시는 2020년부터 공모를 통해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차 년도 사업이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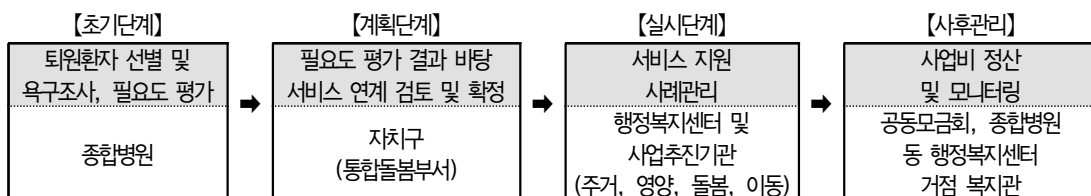
〈 표 2-2-2 〉 대전광역시 통합돌봄 3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참 여 기 관 확 대
· 지역 내 제공기관 현황 파악 - 3대 서비스(건강의료, 영양, 돌봄, 주거복지) - 영역별 제공기관 파악	· 영역별 거점기관 선정 - 지역 내 대표성, 네트워킹 역량, 서비스포괄성 고려	· 영역별 컨소시엄 구성 - 거점기관 중심 협업 체계 구축 - 지역적 범위는 권역(건강의료, 영양돌봄) 또는 광역(주거지원)	

대전형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2019)

또한 2021년 12월 부터는 대전형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온정나눔 기부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정나눔 기부플랫폼이란 지역화폐 포인트를 이용한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홀몸노인이나 장애인이 퇴원할 경우 재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광역시는 관내 대학병원 중 충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의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퇴원환자를 진행하는데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퇴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욕구를 파악하여 퇴원 계획을 수립 후 5개 자치구로 연계하면 사업에 협약한 14개 기관에서 주거안심, 돌봄, 영양급식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주거안심의 경우 LH공사와 광역자활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가 집수리 등 퇴원환자의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관협회와 노인복지관협회는 도시락 등 영양급식을 제공하게 되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영양 및 돌봄을 제공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및 거점복지관은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퇴원환자를 돌봄의 공백없이 지원하는 체계이며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형 돌봄조직인 복지만두레는 각각의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며 퇴원 직후의 초기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 표 2-2-3 〉 대전광역시 온정나눔 기부플랫폼 추진 단계



2.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대전광역시 시범사업 2차 년도인 2021년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8%로 초고령 사회의 코앞에 직면한 상태로 16개 전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구의 경우 인구 대비 초고령 비율이 30%가 넘는 동이 대청동 37.3%, 중앙동 36.0%, 판암2동 35.3%로 3개 동이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행정동이 전체의 50%가 넘는 9개 지역이다.

〈 표 2-2-4 〉 동구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행정동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계	남	여	
동구	223,727	42,811	18,659	24,152	19.8
대청동	2,415	901	400	501	37.3
중앙동	4,545	1,636	771	865	36.0
판암2동	8,517	3,007	1,187	1,820	35.3
삼성동	14,088	3,393	1,515	1,878	24.1
신인동	11,997	2,739	1,206	1,533	22.8
판암1동	12,393	2,776	1,150	1,626	22.4
성남동	11,954	2,621	1,128	1,493	21.9
가양1동	13,687	2,982	1,334	1,648	21.8
자양동	10,652	2,032	922	1,110	19.1
가양2동	18,244	3,389	1,489	1,900	18.6
홍도동	11,065	2,032	878	1,154	18.4
산내동	20,586	3,748	1,644	2,104	18.2
대동	14,919	2,656	1,184	1,472	17.8
용운동	21,942	3,488	1,567	1,921	15.9
용전동	20,496	3,093	1,342	1,751	15.1
효동	24,722	3,664	1,585	2,079	14.8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시급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동구는 전체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36.7%(16,199명)로 높고, 이 중 맞춤형 급여대상자도 28.5%인 4,613명으로 생계·의료·주거 문제에 취약한 노인 비율이 높으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4,137명으로 치매유병률은 10.07%인데 이는 대전광역시 전체 유병률 9.96%보다 높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또한 22.6%로 대전광역시 유병률 22.5% 보다 높아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중요한 상황이다.

동구의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우선순위를 계획하였으며 의료서비스 확대 33.9%, 노인 일자리 제공 41.5%, 소외 노인 지원강화 14.6%로 나타나 노인 대상 보건·복지 및 돌봄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2-5 〉 동구 노인 복지서비스 선호도

(단위: %)

구분	노인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강화 (가사, 밀반찬)	여가취미 프로그램확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평생교육 기회제공
비율	41.5	33.9	14.6	6.4	2.0	1.7

2021 대전의 사회지표 조사

동구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으로 사람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의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긴급하고 심각한 의료 대상자 뿐 아니라 돌봄욕구가 있는 대상을 포함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구축지원사업과 어르신 안심주거지원 사업, 영양 밀반찬 지원사업, 동구형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맞춤형 가정간호 연계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구축지원사업은 65세 이상 퇴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적급여 신청부터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며 사례관리와 보건소 방문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르신 안심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일상 수행 능력이 어려운 노인에게 낙상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영양 밀반찬 지원사업은 퇴원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 생활 유지를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동구형 인공지능(AI) 돌봄 서비

스는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의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구호가 가능한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해주는 안심앱 서비스와 우울감이 있는 독거노인의 정서·심리적 외로움을 경감시켜 주는 스마트 토이봇을 지원하여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방문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가정간호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 표 2-2-6 〉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사업연도	분야	사업명	내용
2021 ~ 2022	주거	안심 주거지원	·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집 개보수 · 낙상사고 예방 및 안전한 주거 여건 조성
	건강의료	맞춤형 가정간호 연계	·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 계층에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및 기초의약품 제공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구축지원	· 퇴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사회 돌봄 통합 안내 · 사례관리, 방문 서비스 연계
	요양돌봄	영양 밀반찬 지원	· 퇴원환자 및 복합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 지원 · 재가 생활 유지를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스마트 돌봄	동구형 인공지능 돌봄	· 인공지능(AI) 활용한 돌봄 서비스 · 안심 서비스 앱으로 비상 연락, 스마트 토이봇으로 정서적 지지 도모

2)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업사업 주요 내용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동구와 함께 대전광역시 시범사업 2차 년도인 2021년 시작하였다. 서구는 둔산 3동, 월평 2동, 관저 2동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유성구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노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공급기관별, 사업별, 획일적·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구는 2020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기반하여 노인들의 고충에서 순위가 높은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고독 등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조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주민 욕구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 중 장애인 돌봄, 노인돌봄 등 돌봄 영역의 어려움을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역주민 욕구조사결과 서구주민은 사회보장 영역인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등 돌봄 영역의 어려움을 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노인의 경우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에서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재난 관련 대처, 서비스 부족 순으로 나타나 일생 생활의 어려움 중 이동 및 외출,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2-7 〉 서구 노인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

(단위: 점)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대처 어려움		돌봄부담		
위생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재난대처	응급상황대처	신체, 정신	비용	서비스 부족
28.2	37.7	39.1	37.5	29.0	24.7	27.7	31.6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정신적 부담, 장애아동 돌봄 부담, 가사활동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2-8 〉 서구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

(단위: 점)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대처 어려움		돌봄부담			
위생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재난대처	응급상황대처	신체, 정신	비용	서비스 부족	장애아동 돌봄부담
43.1	51.0	50.5	50.5	54.4	53.9	46.7	44.7	52.8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1차 년도에는 저소득 노인이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3개 동에서 돌봄이 시급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차 년도에는 서구 관내 23개 전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면서 장애인 돌봄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장애아동 돌봄 부담, 가사 활동의 어려움 등 욕구가 높게 조사된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서구의 인구는 473,365명으로 대전광역시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인구는 64,745명(1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거노인은 15,097명(23.4%)이다.

〈 표 2-2-9 〉 서구 행정별 노인 및 장애인 현황

(단위: 명)

동 명	전 체 인구수	저소득층 (수급자)	노인 인구수	독거 노인 수			장애인		
				계	저소득층	일반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 계	87,138	4,653	16,825	4,400	944	3,456	5,061	1,854	3,207
복수동	22,354	600	2,945	559	83	476	948	364	584
도마1동	15,318	1,137	3,537	1,030	271	759	1,028	380	648
도마2동	17,328	1,189	3,920	1,034	191	843	1,082	393	689
정림동	16,123	550	3,161	887	134	753	950	330	620
변동	16,015	1,177	3,262	890	265	625	1,053	387	666

〈 표 2-2-9 〉 서구 행정별 노인 및 장애인 현황

(단위: 명)

동 명	전 체 인구수	저소득층 (수급자)	노인 인구수	독거 노인 수			장애인		
				계	저소득층	일반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용문동	12,267	830	2,184	639	102	537	682	243	439
탄방동	27,284	951	2,856	280	140	140	875	315	560
둔산1동	16,784	41	1,849	210	5	205	398	117	281
둔산2동	35,669	209	3,290	502	23	479	994	344	650
둔산3동	19,761	1,027	3,239	796	245	551	904	376	528
과정동	19,227	1,445	2,205	660	187	473	755	299	456
가장동	11,775	473	2,307	459	95	364	582	210	372
내동	23,750	731	3,901	717	116	601	1,021	389	632
갈매1동	21,613	1,005	2,976	697	161	536	876	317	559
갈매2동	24,860	1,109	2,435	599	149	450	859	328	531
월평1동	11,234	741	1,393	479	200	279	468	170	298
월평2	14,706	2,274	3,307	1,401	969	432	1,462	716	746
월평3	21,196	94	2,635	273	17	256	727	252	475
만년	12,758	263	1,182	318	36	282	351	106	245
가수원	44,248	865	4,148	936	114	822	1,471	526	945
관저1	15,563	284	1,937	420	41	379	644	215	429
관저2	49,843	1,269	4,234	852	279	573	1,733	665	1,068
기성	3,689	219	1,445	459	71	388	938	680	258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행정동별 노인 인구는 전체 23개 동 중 10개 이상이 노인 인구 3천명 이상이며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이 20% 이상인 행정동은 전체의 69.6%, 16개 동으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노인인구 수가 많은 동에 중증 장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현황을 보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4.39%인 20,801명으로 심한 장애는 8,122명으로 39.0%, 심하지 않은 장애는 12,679명인 60.9%이며,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는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역의 복지시설 및 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보건·의료자원,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이 많은 것이 지역사회의 특성이다.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주거안정 지원사업, 건강·의료 지원사업, 요양·돌봄 지원사업이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장애나 질병으로 거이 불편하고 주거상태가 열악한 노인가구에게 일상생활

기능향상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건강·의료 지원사업은 상해 및 수술로 인해 지활 조기구가 필요한 노인에게 보행 보조기 등을 지원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 고위험군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돕는 사업이며, 요양·돌봄 사업은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지원하고,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주거안정, 건강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 안의 정주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내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표 2-2-10 〉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사업연도	분야	사업명	내용
2021 ~ 2022	주거	주거안정 지원	· 장애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건강·의료	건강·의료 지원	· 재활 보조기구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보행 보조기 등 지원 · 복합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및 통합 재가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요양·돌봄	· 신체적 불편으로 영양식 제공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 건강 및 영양 상태에 식생활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 제공

3)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진잠동을 시범으로 선정하여 1차 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낮은 편이며 취약 계층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낮은편이나 유성구 11개 행정 중 진잠동에 독거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비율이 높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이 제약이 많고 도·농복합 지역으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2차 년도에는 “돌봄경제모델”로 노은 3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지역은 노인 및 등록 장애인 인구가 많고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높으며, 복지 관련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보건소, 복지관 등의 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3차 년도는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3동의 3개 동으로 확대하였는데 노인 9,932명, 장애인 3,493명, 기초수급자는 3,654명으로 유성구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 표 2-2-11 〉 유성구 행정동별 노인 및 장애인,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명, %)

동명	총 인구 수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비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351,277	36,061	10.2	12,176	3.4	9,157	2.6	
진잠동	25,118	3,820	15.2	1,437	5.7	1,119	4.4	
학하동	17,045	1,738	10.1	728	4.2	275	1.6	
원신흥동	27,697	2,785	10	1,018	3.6	1,197	4.3	
상대동	22,014	1,920	8.7	680	8.7	508	2.3	
온천1동	26,734	3,596	13.4	1,213	4.5	1,374	5.1	
온천2동	40,014	4,487	11.2	1,155	2.8	843	2.1	
노은1동	21,827	2,204	10	684	3.1	489	2.2	
노은2동	24,367	2,735	11.2	871	11.2	542	2.2	
노은3동	37,318	3,551	9.5	1,262	3.3	1,083	2.9	
신성동	26,086	2,011	7.7	540	2	208	0.7	
전민동	27,016	2,328	8.6	616	2.2	223	0.8	
구죽동	27,291	3,024	11	1,352	4.9	1,170	4.2	
관평동	28,750	1,862	6.4	616	2.1	126	0.4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 시범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협업을 통한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주민주도의 복지문제 발굴 및 주민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1차 년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제공 및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및 치매노인을 돌보는 건강의료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 방문건강관리 사업, 로컬푸드 영양보충식 배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차 년도에는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사업인 “우리동네 돌봄사업”과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굿바이 싱글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3차 년도에는 지역사회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1차 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확장하며 AI와 IOT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성구의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표 2-2-12 〉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 사업

사업연도	분야	사업명	내용
2020~2022	주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청소 및 정리정돈 서비스 · 에어컨, 냉장고 등 청소
	건강의료	우리동네 돌봄	·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사업으로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 통합돌봄 연구조사
	요양돌봄	영양보충식 배달지원	· 로컬푸드를 이용한 밀키트 배달 지원 · 주1회
	스마트 돌봄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 AI와 IOT 활용한 돌봄 서비스 · 장비 설치 및 시스템 구축과 유지

4)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대덕구형 동네돌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법1동과 법2동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1차 년도 시범사업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개 시범동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년도 사업은 2개의 시범 동에서 대덕구 전 지역의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3차 년도 사업인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대덕구는 인구의 16.9%인 29,717명이 노인 인구로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동 중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중리동 3,346명, 오정동 3,031명, 법2동 3,004명이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행정동은 전체 13개 동 중 회덕동 23.4%, 대화동 23.1%, 오정동 20.9%으로 독거노인 비율은 30.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은 28.17%인 2,507명이다.

대덕구 치매 노인 현황은 2,618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9.78%이다. 대전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2-2-13 〉 대덕구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행 정 동	동전체 인구수	노인수	동별 노인비율
대덕구	175,484	29,717	16.9
오정동	14,499	3,031	20.9
대화동	6,896	1,596	23.1
회덕동	12,209	2,853	23.4
비래동	16,163	2,980	18.4

〈 표 2-2-13 〉 대덕구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행 정 동	동전체 인구수	노인수	동별 노인비율
송촌동	27,122	2,901	10.7
중리동	19,531	3,346	17.1
법1동	13,075	2,511	19.2
법2동	15,933	3,004	18.9
신탄진동	13,667	2,637	19.3
석봉동	16,259	1,766	10.9
덕암동	13,680	2,330	17.0
목상동	6,450	752	11.7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대덕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커뮤니티케어 전담팀 신설 등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케어안내 창구 개설, 돌봄 인프라 확충,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 기반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표 2-2-14 〉 대덕구 독거노인 및 맞춤형 급여 현황

(단위: 명, %)

연도	65세 이상 노인수	독거노인		
		합계 (독거노인비율)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주거)	일 반
2017년	23,832	6,057(25.4%)	1,381	4,676
2018년	24,797	6,325(25.5%)	1,381	4,944
2019년	26,039	6,914(26.6%)	1,525	5,384
2020년	26,864	7,368(27.4%)	1,763	5,605
2021년	29,494	8,898(30.2%)	2,507	6,391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그리고 언택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구체적으로는 ICT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과 퇴원환자 중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돌봄,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과 스스로 건강 관리가 어려운 복합 만성질환자에게 혈압·혈당계를 대여하고 혈액 및 체성분을 검사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돕거나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비대면 안부 확인 및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반려 식물 키우기 등을 제공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안에 건강 리더를 양성하여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건강유지를 지원하며 건강의료 및 요양돌봄 등의 욕구 대상자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2-15 〉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내용

사업연도	분야	사업명	내용
2020~2022	주거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	· 만성질환 등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방문의료 및 지역사회 건강리더 등을 통해 건강유지 및 건강악화를 예방
	건강의료	퇴원환자 돌봄사업	· 퇴원환자 중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방문의료, 일상재가, 식사, 심리지원 등
	요양돌봄	만성질환자 건강돌봄 사업	· 만성질환자 건강상담 및 교육 · 혈압계·혈당계 대여
	스마트 돌봄	스마트홈 사업	· 독거노인 등에게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 · 법 제도 정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3장

아동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3장 아동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전광역시 내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현황을 파악하면서 돌봄공백 및 추가 돌봄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전광역시 내의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의 전체이용자와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8개소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표 3-1-1>과 <표 3-1-2>와 같이 목표 부수를 정하고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3-1-1 〉 다함께돌봄센터 조사 대상

자치구	시설 현황				조사 대상
	시설 개수	정원	현원	종사자 수	
동구	5개소	144명	86명	10명	86명
중구	-	-	-	-	-
서구	4개소	113명	48명	8명	48명
유성구	3개소	65명	20명	6명	20명
대덕구	1개소	26명	11명	2명	11명
총합계	13개소	348명	165명	26명	165명

〈 표 3-1-2 〉 지역아동센터 조사 대상

자치구	시설 현황			조사 대상
	시설 개수	시설별 목표할당	컨택인원	
동구	3개소	30부	10명	10명
중구	10개소	50부	45명	45명
서구	3개소	30부	30명	30명
유성구	5개소	20부	16명	16명
대덕구	27개소	30부	22명	22명
총합계	48개소	160부	123명	123명

2) 자료수집방법

설문의 수행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협조를 통해 각 시설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시설명단을 취합 후 조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조사기관 측에서 각 시설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동의 돌봄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부모가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취합하여 조사 항목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설문 누락 등 확인하여 응답시설에 설문 보완을 요청하고, 데이터 정제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원인 규명 및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검증이 모두 완료된 설문지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 288명 중 71.9%의 응답률로 총 20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조사 분석

최종 검증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ANOVA 분석 및 t-검증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표 3-1-3>과 같다.

〈 표 3-1-3 〉 아동 대상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A.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 초등학교 재학중 자녀 여부, 아동 일반적 사항(성별, 학년, 연령, 장애유무) -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 돌봄시간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 도움 정도 - 돌봄 기관 등원시간, 돌봄 기관 하원시간, 방과후 돌봄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필요사항
B. 가정에서의 돌봄현황	- 자녀 등교시간, 하교시간, 학교에 머무는 시간 - 자녀 등하교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 - 하교 이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자녀 돌봄 방법
C. 돌봄 어려움 경험	- 돌봄 정책 인지도,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돌봄 공백 여부 - 돌봄 공백에 따른 지원 필요 정도, 돌봄 공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처 -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 프로그램 - 자녀 양육 어려움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 - 휴직/사직 경험
D. 대전광역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 공동돌봄 공간 추천 연령대 - 공동돌봄 공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 -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 형태 - 주양육자 -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E. 다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 자녀 수 - 자녀 출생년도 -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자녀 외 다른 자녀 돌봄 형태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어려움 경험사항
F. 기타	-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바라는 점 - 부모 연령, 맞벌이 여부, 최종 학력, 자녀 연령, 가족 유형 - 월평균 가구소득(세전), 자녀 방과후 돌봄 서비스로 지출되는 비용 - 근무형태, 근무일수, 출퇴근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종사상 지위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아동) 207명의 특성은 <표 3-2-1>과 같다. 응답자 중 53.6%(111명)이 8세 이하이며, 9세 이상-10세 이하는 30.0%, 11세 이상은 16.4%이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1-3학년)은 63.8%, 고학년(4학년 이상)은 36.2%으로 저학년의 비중이 조금 높다. 맞벌이 가정 아동은 62.8%, 외벌이 가정 아동은 35.3%이며, 가족의 유형으로 보면, 부모+자녀 가정이 77.8%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정 아동 15.0%과 조손가정 아동 6.3%도 20% 이상이다.

< 표 3-2-1 > 응답자 특성(아동)

(단위: 명, %)

구분		N	%
합계		207	100.0
성별	남자	95	45.9
	여자	112	54.1
학년	1학년	55	26.6
	2학년	45	21.7
	3학년	32	15.5
	4학년	35	16.9
	5학년	21	10.1
	6학년	19	9.2
연령	8세 이하	111	53.6
	9~10세	62	30.0
	11세 이상	34	16.4
장애유무	있음	6	2.9
	없음	201	97.1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35.3
	맞벌이	130	62.8
	무응답	4	1.9
자녀수	1명	50	24.2
	2명	113	54.6
	3명 이상	44	21.3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77.8
	한부모	31	15.0
	조손가정	13	6.3
	무응답	2	1.0

〈 표 3-2-1 〉 응답자 특성(아동)

(단위: 명, %)

구분		N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33.8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40.1
	600만원 이상	49	23.7
	무응답	5	2.4
시설유형	다함께돌봄센터	111	53.6
	지역아동센터	96	46.4
권역	동구	49	23.7
	중구	34	16.4
	서구	73	35.3
	유성구	26	12.6
	대덕구	25	12.1

아동의 학부모의 특성은 <표 3-2-2>와 같다. 학부모의 연령을 보면 아버지의 연령 54.6%가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 46.9%가 40대로 가장 많으며, 아버지 30대 이하 23.2%, 어머니 30대 이하 44.0%, 그리고 아버지 50대 이상 7.2%, 어머니 50대 이상 2.4%의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학력은 아버지는 66.7%가, 어머니는 71.0%가 전문대 졸 이상이다. 아버지의 60.4%, 어머니의 56.5%가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녀돌봄비용에 대해서는 30.4%가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무응답이 35.7%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표 3-2-2 〉 응답자 특성(학부모)

(단위: 명, %)

구분		N	%
합계		207	100.0
부 연령	30대 이하	48	23.2
	40대	113	54.6
	50대 이상	15	7.2
	무응답	31	15.0
모 연령	30대 이하	91	44.0
	40대	97	46.9
	50대 이상	5	2.4
	무응답	14	6.8

〈 표 3-2-2 〉 응답자 특성(학부모)

(단위: 명, %)

구분		N	%
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	18.8
	전문대(2,3년제) 졸	47	22.7
	4년제 대졸	67	32.4
	대학원 졸	24	11.6
	무응답	30	14.5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	20.8
	전문대(2,3년제) 졸	60	29.0
	4년제 대졸	65	31.4
	대학원 졸	22	10.6
	무응답	17	8.2
자녀평균 돌봄비용	10만원 미만	63	30.4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9	18.8
	30만원 이상	31	15.0
	무응답	74	35.7
부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25	60.4
	불규칙하게 출퇴근	48	23.2
	출퇴근하지 않음	1	0.5
	휴직중	2	1.0
	무직(주부 포함)	1	0.5
	무응답	30	14.5
모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17	56.5
	불규칙하게 출퇴근	30	14.5
	출퇴근하지 않음	6	2.9
	휴직중	14	6.8
	무직(주부 포함)	20	9.7
	무응답	20	9.7
부 종사상 지위	고용주	10	4.8
	자영업자	33	15.9
	상용근로자	97	46.9
	임시근로자	5	2.4
	일용근로자	21	10.1
	무직(주부, 학생 포함)	1	0.5
	무응답	40	19.3
모 종사상 지위	고용주	2	1.0
	자영업자	19	9.2
	상용근로자	98	47.3
	임시근로자	16	7.7
	일용근로자	14	6.8
	무급가족종사자	3	1.4
	무직(주부, 학생 포함)	23	11.1
	무응답	32	15.5

권역별 아동의 특성은 <표 3-2-3>과 같다. 중구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되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동이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표 3-2-3 〉 권역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9	23.7	34	16.4	73	35.3	26	12.6	25	12.1
학년	1학년	55	10	20.4	8	23.5	22	30.1	13	50.0	2	8.0
	2학년	45	12	24.5	3	8.8	18	24.7	5	19.2	7	28.0
	3학년	32	11	22.4	3	8.8	14	19.2	2	7.7	2	8.0
	4학년	35	10	20.4	10	29.4	8	11.0	1	3.8	6	24.0
	5학년	21	5	10.2	4	11.8	5	6.8	2	7.7	5	20.0
	6학년	19	1	20.0	6	17.6	6	8.2	3	11.5	3	12.0
연령	8세 이하	111	25	51.0	12	35.3	45	61.6	19	73.1	10	40.0
	9~10세	62	20	40.9	13	38.2	20	27.4	2	7.7	7	28.0
	11세 이상	34	4	8.2	9	26.5	8	11.0	5	19.2	8	32.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8	16.3	20	58.8	22	30.1	8	30.8	15	60.0
	맞벌이	130	39	79.6	14	41.2	51	69.9	18	69.2	8	32.0
	무응답	4	2	4.1	-	-	-	-	-	-	2	50.0
자녀 수	1명	50	9	18.4	10	29.4	14	19.2	7	26.9	10	40.0
	2명	113	31	63.3	18	52.9	42	57.5	12	46.2	10	40.0
	3명 이상	44	9	18.4	6	17.6	17	23.3	7	26.9	5	20.0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44	89.8	17	50.0	58	79.5	25	96.2	17	68.0
	한부모	31	2	4.1	13	38.2	9	12.3	1	3.8	6	24.0
	조손가정	13	3	6.1	4	11.8	4	5.5	-	-	2	8.0
	무응답	2	-	-	-	-	2	2.7	-	-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7	14.3	19	55.9	22	30.1	9	34.6	13	52.0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29	59.2	10	29.4	27	37.0	9	34.6	8	32.0
	600만원 이상	49	13	26.5	3	8.8	21	28.8	8	30.8	4	16.0
	무응답	5	-	-	2	5.9	3	4.1	-	-	-	-
시설유형	다함께돌봄센터	111	42	85.7	-	-	47	64.4	14	53.8	8	32.0
	지역아동센터	96	7	14.3	34	100.0	26	35.6	12	46.2	17	68.0

2.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4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원(5.3%)’, ‘초등돌봄교실(1.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아동의 53.6%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46.4%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한 답변으로 센터에서 가장 오랜 시간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학년까지의 저학년의 경우 50.0%~62.2%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은 60.0%~94.7%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11세 이상의 85.3%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분포가 높은 집단은 외벌이 가정(65.8%), 한부모 가정(80.6%), 조손가정(69.2%), 그리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정(80.0%)인데 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56.9%)과 부모+자녀 가정(53.4%)이 이용분포가 높았다.

〈 표 3-2-4 〉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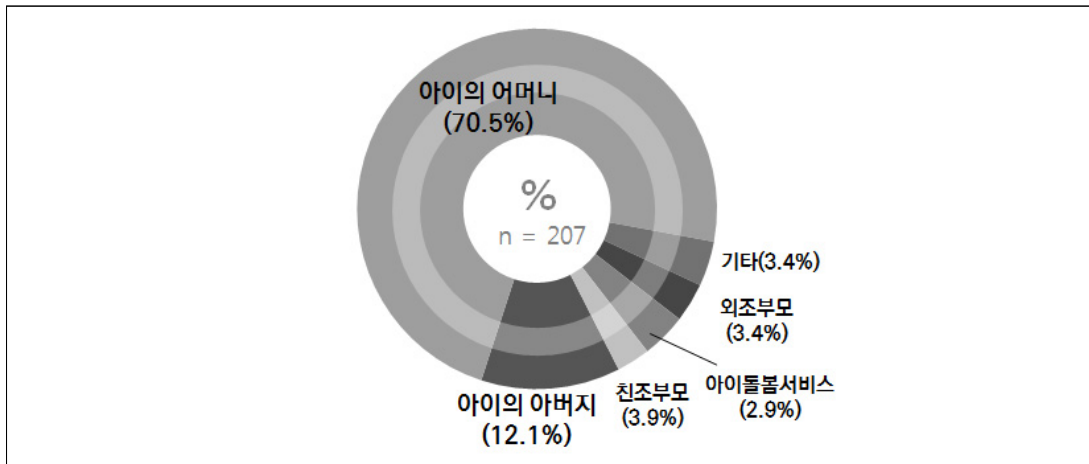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학원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95	45.9	95	45.9	4	1.9	1	0.5	11	5.3	1	0.5
학년	1학년	55	33	60.0	12	21.8	4	7.3	-	-	6	10.9	-	-
	2학년	45	28	62.2	15	33.3	-	-	1	2.2	-	-	1	2.2
	3학년	32	16	50.0	15	46.9	-	-	-	-	1	3.1	-	-
	4학년	35	12	34.3	21	60.0	-	-	-	-	2	5.7	-	-
	5학년	21	5	23.8	14	66.7	-	-	-	-	2	9.5	-	-
	6학년	19	1	5.3	18	94.7	-	-	-	-	-	-	-	-
연령	8세 이하	111	66	59.4	33	29.8	4	3.6	1	0.9	6	5.4	1	0.9
	9~10세	62	25	49.3	33	53.2	-	-	-	-	4	6.5	-	-
	11세 이상	34	4	11.8	29	85.3	-	-	-	-	1	2.9	-	-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0	27.4	48	65.8	1	1.4	-	-	3	4.1	1	1.4
	맞벌이	130	74	56.9	44	33.8	3	2.3	1	0.8	8	6.2	-	-
	무응답	4	1	25.0	3	75.0	-	-	-	-	-	-	-	-
자녀 수	1명	50	20	40.0	23	46.0	3	6.0	-	-	4	8.0	-	-
	2명	113	54	47.8	49	43.4	1	0.9	1	0.9	7	6.2	1	0.9
	3명 이상	44	21	47.7	23	52.3	-	-	-	-	-	-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86	53.4	61	37.9	3	1.9	1	0.6	9	5.6	1	0.6
	한부모	31	5	16.1	25	80.6	1	3.2	-	-	-	-	-	-
	조손가정	13	3	23.1	9	69.2	-	-	-	-	1	7.7	-	-
	무응답	2	1	50.0	-	-	-	-	-	-	1	50.0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12	17.1	56	80.0	1	1.4	-	-	1	1.4	-	-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52	62.7	27	32.5	1	1.2	-	-	2	2.4	1	1.2
	600만원 이상	49	29	59.2	10	20.4	2	4.1	1	2.0	7	14.3	-	-
	무응답	5	2	40.0	2	40.0	-	-	-	-	1	20.0	-	-

2)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으로는 ‘아이의 어머니’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이의 아버지(12.1%)’, ‘아이의 친조부모(3.9%)’, ‘아이혼자(3.9%)’ 등이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이의 아버지(13.8%)가 외벌이 가구(9.6%)보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의 아버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1 〉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 표 3-2-5 〉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어머니		아이의 친조부모		아이의 외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혼자		아이의 형제자매		학원 선생님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5	12.1	146	70.5	8	3.9	7	3.4	1	0.5	6	2.9	8	3.9	2	1.0	3	1.4	1	0.5
지역	동구	49	5	10.2	36	73.5	-	-	2	4.1	-	-	2	4.1	2	4.1	-	-	2	4.1	-	-
	중구	34	8	23.5	21	61.8	4	11.8	-	-	-	-	-	-	-	-	1	2.9	-	-	-	-
	서구	73	8	11.0	54	74.0	2	2.7	3	4.1	-	-	4	5.5	1	1.4	-	-	1	1.4	-	-
	유성구	26	2	7.7	19	73.1	-	-	1	3.8	-	-	-	-	3	11.5	1	3.8	-	-	-	-
	대덕구	25	2	8.0	16	64.0	2	8.0	1	4.0	1	4.0	-	-	2	8.0	-	-	-	-	1	4.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7	9.6	53	72.6	6	8.2	2	2.7	1	1.4	-	-	2	2.7	1	1.4	-	-	1	1.4
	맞벌이	130	18	13.8	90	69.2	1	0.8	5	3.8	-	-	6	4.6	6	4.6	1	0.8	3	2.3	-	-
	무응답	4	-	-	3	75.0	1	25.0	-	-	-	-	-	-	-	-	-	-	-	-	-	-

〈 표 3-2-5 〉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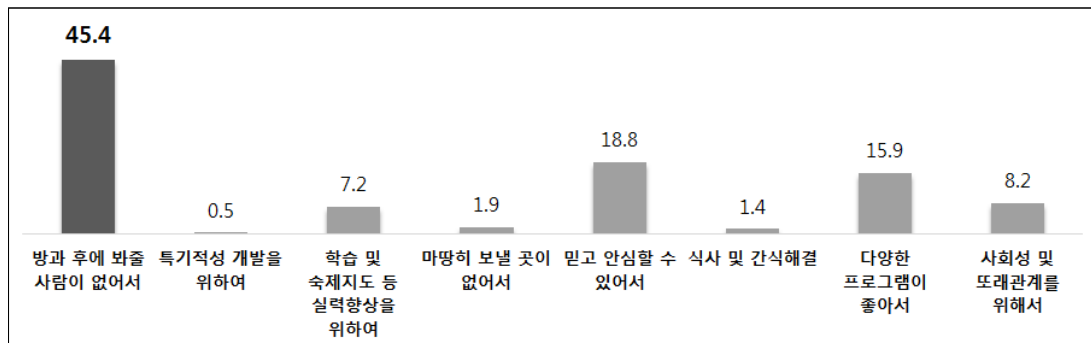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어머니		아이의 친조부모		아이의 외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혼자		아이의 형제자매		학원 선생님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 수	1명	50	3 6.0	34 68.0	4 8.0	3 6.0	1 2.0	1 2.0	3 6.0	3 6.0	1 2.0	3 6.0	1 2.0	3 6.0	1 2.0	3 6.0	1 2.0	3 6.0	1 2.0	3 6.0	1 2.0
	2명	113	17 15.0	79 69.9	3 2.7	2 1.8	-	-	3 2.7	5 4.4	1 0.9	3 2.7	-	-	3 2.7	-	-	3 2.7	-	-	-
	3명 이상	44	5 11.4	33 75.0	1 2.3	2 4.5	-	-	2 4.5	-	-	2 4.5	-	-	1 2.3	-	-	-	-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20 12.4	118 73.3	2 1.2	5 3.1	1 0.6	4 2.5	7 4.3	1 0.6	3 1.9	-	-	1 0.6	3 1.9	-	-	-	-	-	-
	한부모	31	3 9.7	26 83.9	-	-	-	-	-	-	-	-	-	1 3.2	-	-	-	-	1 3.2	-	-
	조손가정	13	2 15.4	2 15.4	5 38.5	2 15.4	-	-	1 7.7	-	-	1 7.7	-	-	1 7.7	-	-	-	-	-	-
	무응답	2	-	-	1 50.0	-	-	-	-	1 50.0	-	-	-	-	-	-	-	-	-	-	-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0	5 7.1	50 71.4	7 10.0	2 2.9	1 1.4	-	-	1 1.4	-	-	1 1.4	2 2.9	2 2.9	-	-	-	-	-	-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10 12.0	63 75.9	-	-	2 2.4	-	-	3 3.6	3 3.6	-	-	1 1.2	1 1.2	-	-	-	-	-	-
	600만원 이상	49	9 18.4	30 61.2	1 2.0	3 6.1	-	-	2 4.1	4 8.2	-	-	-	-	-	-	-	-	-	-	-
	무응답	5	1 20.0	3 60.0	-	-	-	-	1 20.0	-	-	-	-	-	-	-	-	-	-	-	-

3)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로는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4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18.8%)’,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15.9%)’ 등으로 방과후의 돌봄 기관의 중요성이 두각되면서 아울러 기관의 신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공통적으로 ‘방과후에 봐 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연령이 높을 경우(11세 이상),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이유는 ‘학습 및 숙제지도 등 실력향상을 위하여(20.9%)’로 응답하였다.

〈 그림 3-2-2 〉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단위: %, 무응답 제외)



〈 표 3-2-6 〉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방과후에 보낼 사람이 없어서		특기적성 개발을 위하여		학습 및 숙제지도 등 실력 향상을 위하여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식사 및 간식해결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회성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94	45.4	1	0.5	15	7.2	4	1.9	39	18.8	3	1.4	33	15.9	17	8.2	1	0.5
권역	동구	49	31	63.3	-	-	3	6.1	-	-	5	10.2	-	-	6	12.2	4	8.2	-	-
	중구	34	9	26.5	-	-	6	17.6	1	2.9	5	14.7	2	5.9	8	23.5	2	5.9	1	2.9
	서구	73	35	47.9	-	-	2	2.7	2	2.7	15	20.5	-	-	10	13.7	9	12.3	-	-
	유성구	26	8	30.8	1	3.8	3	11.5	1	3.8	7	26.9	1	3.8	3	11.5	2	7.7	-	-
	대덕구	25	11	44.0	-	-	1	4.0	-	-	7	28.0	-	-	6	24.0	-	-	-	-
연령	8세 이하	111	51	45.9	-	-	6	5.4	3	2.7	23	20.7	-	-	18	16.2	9	8.1	1	0.9
	9~10세	62	31	50.0	1	1.6	2	3.2	-	-	10	16.1	2	3.2	13	21.0	3	4.8	-	-
	11세 이상	34	12	35.3	-	-	7	20.9	1	2.9	6	17.6	1	2.9	2	5.9	5	14.7	-	-
맞벌이 여부	와벌이	73	27	37.0	1	1.4	7	9.6	-	-	11	15.1	1	1.4	18	24.7	7	9.6	1	1.4
	맞벌이	130	65	50.0	-	-	7	5.4	4	3.1	27	20.8	2	1.5	15	11.5	10	7.7	-	-
	무응답	4	2	50.0	-	-	1	25.0	-	-	1	25.0	-	-	-	-	-	-	-	-
자녀 수	1명	50	30	60.0	-	-	3	6.0	1	2.0	8	16.0	2	4.0	3	6.0	3	6.0	-	-
	2명	113	50	44.2	1	0.9	5	4.4	1	0.9	24	21.2	1	0.9	23	20.4	7	6.2	1	0.9
	3명 이상	44	14	31.8	-	-	7	15.9	2	4.5	7	15.9	-	-	7	15.9	7	15.9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73	45.3	1	0.6	9	5.6	3	1.9	32	19.9	2	1.2	28	17.4	13	8.1	-	-
	한부모	31	17	54.8	-	-	4	12.9	-	-	4	12.9	-	-	3	9.7	3	9.7	-	-
	조손가정	13	3	23.1	-	-	2	15.4	1	7.7	2	15.4	1	7.7	2	15.4	1	7.7	1	7.7
	무응답	2	1	50.0	-	-	-	-	-	-	1	50.0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23	32.9	1	1.4	10	14.3	-	-	11	15.7	2	2.9	11	15.7	11	15.7	1	1.4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47	56.6	-	-	3	3.6	2	2.4	13	15.7	-	-	13	15.7	5	6.0	-	-
	600만원 이상	49	22	44.9	-	-	2	4.1	2	4.1	13	26.5	1	2.0	9	18.4	-	-	-	-
	무응답	5	2	40.0	-	-	-	-	-	-	2	40.0	-	-	-	-	1	20.0	-	-

4)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 도움 정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혀 없고 97.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돌봄 서비스 기관이 아동 및 부모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표 3-2-7 〉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 도움 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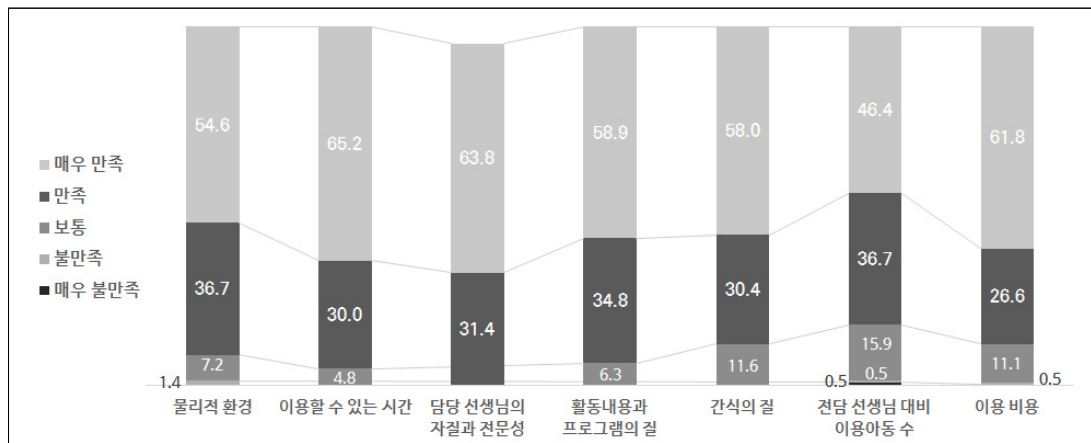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44	69.6	58	28.0	5	2.4	-	-	-	-

5)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아동이 다니고 있는 방과후 돌봄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4점 이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시간(4.60점)’, ‘담당 선생님의 자질과 전문성(4.59점)’, ‘활동내용과 프로그램의 질(4.53점)’ 등의 순으로 높으나, ‘전담 선생님 대비 이용 아동 수(4.28점)’, ‘물리적 환경(4.44점)’ 순으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2-3 〉 방과후 돌봄 기관 만족도

(단위: %, 무응답 제외)



〈 표 3-2-8 〉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물리적 환경	207	113	54.6	76	36.7	15	7.2	3	1.4	-	-	4.4
2)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7	135	65.2	62	30.0	10	4.8	-	-	-	-	4.6
3) 담당 선생님의 자질과 전문성	207	132	63.8	65	31.4	-	-	-	-	-	-	4.6
4) 활동내용과 프로그램의 질	207	122	58.9	72	34.8	13	6.3	-	-	-	-	4.5
5) 간식의 질	207	120	58.0	63	30.4	24	11.6	-	-	-	-	4.5
6) 전담 선생님 대비 이용아동 수	207	96	46.4	76	36.7	33	15.9	1	0.5	1	0.5	4.3
7) 이용 비용	207	128	61.8	55	26.6	23	11.1	1	0.5	-	-	4.5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돌봄기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고, 시설유형에 따라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간식의 질의 만족도와 이용 비용에 대한 만족도로 두 기관 유형 모두 불만족/매우 불만족의 응답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 센터의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았다.

〈 표 3-2-9 〉 연령별·시설 유형별 방과후 돌봄기관 만족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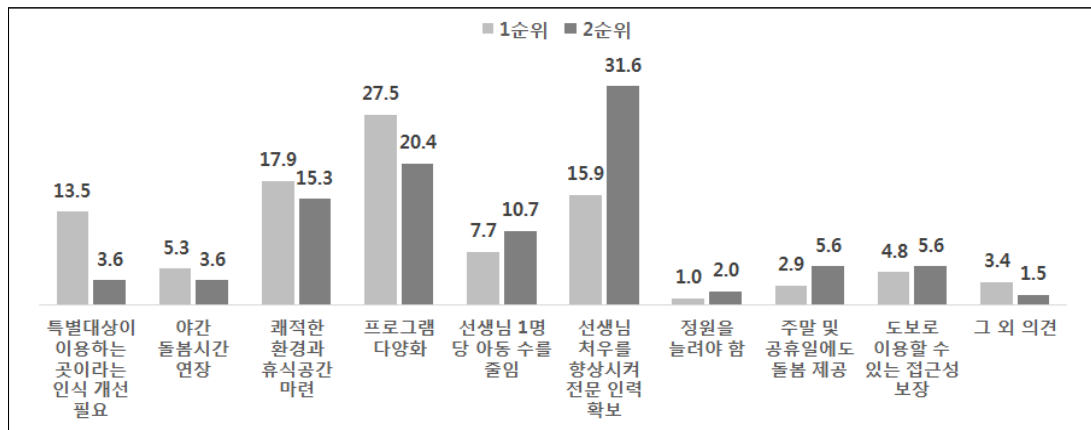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5점 만점)	t/F값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물리적 환경	8세 이하	111	59	53.2	42	37.8	7	6.3	3	2.7	-	-	4.41	3.098*
	9~10세	62	29	46.8	26	41.9	7	11.3	-	-	-	-	4.36	
	11세 이상	34	25	73.5	8	23.6	1	2.9	-	-	-	-	4.71	
간식의 질	다함께돌봄센터	111	57	51.4	35	31.5	19	17.1	-	-	-	-	4.34	-2.74**
	지역아동센터	96	63	65.6	28	29.2	5	5.2	-	-	-	-	4.60	
이용 비용	다함께돌봄센터	111	56	50.5	33	29.7	21	18.9	-	-	-	-	4.30	-4.57***
	지역아동센터	96	72	75.0	22	22.9	2	2.1	-	-	-	-	4.73	

※ 유의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 p(0.05), **: p(0.01), ***: p(0.001))

대전광역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1순위 기준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이라는 의견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17.9%)’, ‘선생님 처우를 향상 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15.9%)’, ‘특별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함(1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의 응답 중에는 ‘선생님 처우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31.6%)’,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20.4%)’,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15.3%)’ 순으로 응답하여 프로그램, 선생님의 처우, 그리고 환경과 공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만족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과도 유사한 내용이다.

〈 그림 3-2-4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필요사항

(단위: %, 무응답 제외)



〈 표 3-2-10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필요사항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196	100.0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	57	27.5	40	20.4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	37	17.9	30	15.3
선생님 처우(급여수준 포함)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33	15.9	62	31.6
특별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28	13.5	7	3.6
선생님 1명 당 아동 수를 줄여야 함	16	7.7	21	10.7
야간 돌봄시간을 더 연장해야 함	11	5.3	7	3.6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10	4.8	11	5.6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해야 함	6	2.9	11	5.6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야 함	2	1.0	4	2.0
그 외 의견	7	3.4	3	1.5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자 특성 중 시설유형별 차이가 보이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응답자가 프로그램 개선(24.0%) 외에 선생님의 처우 향상(21.9%)을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특별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19.8%)’ 하다는 응답률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응답자(8.1%)보다 높았다.

〈 표 3-2-11 〉 시설유형별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개선 필요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특별 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크므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야간 돌봄 시간을 더 연장해야 함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		선생님 1명 당 아동 수를 줄여야 함		선생님 처우 (급여수준 포함)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야 함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해야 함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 외 의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8	13.5	11	5.3	37	17.9	57	27.5	16	7.7	33	15.9	2	1.0	6	2.9	10	4.8	7	3.4
시설 유형	다함께 돌봄센터	111	9	8.1	6	5.4	20	18.9	34	30.6	12	10.8	12	10.8	1	0.9	5	4.5	8	7.2	4	3.6
	지역아동 센터	96	19	19.8	5	5.2	17	17.7	23	24.0	4	4.2	21	21.9	1	1.0	1	1.0	2	2.1	3	3.1

3. 가정에서의 돌봄현황

1) 자녀 등학교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자녀 등학교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도보’가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가용(13.0%)’, ‘기타(3.9%)’ 등이다.

〈 표 3-2-12 〉 자녀 등학교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통학차량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67	80.7	27	13.0	1	0.5	4	1.9	8	3.9
권역	등구	49	36	73.5	12	24.5	1	2.0	-	-	-	-
	중구	34	29	85.3	4	11.8	-	-	-	-	1	2.9
	서구	73	62	84.9	6	8.2	-	-	1	1.4	4	5.5
	유성구	26	20	76.9	1	3.8	-	-	3	11.5	2	7.7
	대덕구	25	20	80.0	4	16.0	-	-	-	-	1	4.0

2) 자녀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

자녀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로는 등교 시에는 ‘아이 어머니’ 또는 ‘기타’가 각각 41.5%로 가장 높으며, 하교 시에는 ‘기타’가 62.3%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에서 아이가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등학교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보호자가 함께할 시에는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함께하고 그 외에는 혼자 또는 친구와 등학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13 〉 자녀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

(단위: 명, %)

구분	등교 시		하교 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207	100.0
아이 어머니	86	41.5	48	23.2
아이 아버지	20	9.7	12	5.8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담	11	5.3	13	6.3
조부모	4	1.9	5	2.4
친인척	-	-	-	-
기타	86	41.5	129	62.3

〈 표 3-2-14 〉 자녀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_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등교 시		하교 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6	41.5	129	62.3
학원선생님	2	1.0	25	12.1
지역아동센터	1	0.5	13	6.3
아이의 형제자매	11	5.3	5	2.4
돌봄도우미	-	-	1	0.5
없음/혼자 등하교함/친구와 등하교함	54	26.1	65	31.4
무응답	18	8.7	20	9.7

응답자의 특성별로 볼때에도 아동의 어머니가 등교시 함께 하는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으나 자녀 수가 3명 이상일때 기타의 비율(59.1%)이 높거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비율(58.1%)이 다른 가족 유형보다 높고, 조손가정의 경우는 기타의 비율(61.5%)이 가장 높았다.

〈 표 3-2-15 〉 자녀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_등교 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이 어머니		아이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담		조부모		친인척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86	41.5	20	9.7	11	5.3	4	1.9	-	-	86	41.5
학년	1학년	55	27	49.1	7	12.7	6	10.9	2	3.6	-	-	13	23.6
	2학년	45	20	44.4	3	6.7	3	6.7	1	2.2	-	-	18	40.0
	3학년	32	16	50.0	3	9.4	-	-	-	-	-	-	13	40.6
	4학년	35	9	25.7	6	17.1	1	2.9	1	2.9	-	-	18	51.4
	5학년	21	10	47.6	-	-	-	-	-	-	-	-	11	52.4
	6학년	19	4	21.1	1	5.3	1	5.3	-	-	-	-	13	68.4
연령	8세 이하	111	52	46.8	10	9.0	9	8.1	3	2.7	-	-	37	33.3
	9~10세	62	24	38.7	9	14.5	1	1.6	1	1.6	-	-	27	43.5
	11세 이상	34	10	29.4	1	2.9	1	2.9	-	-	-	-	22	64.7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35	47.9	7	9.6	3	4.1	2	2.7	-	-	26	35.6
	맞벌이	130	49	37.7	13	10.0	8	6.2	2	1.5	-	-	58	44.6
	무응답	4	2	50.0	-	-	-	-	-	-	-	-	2	50.0
자녀 수	1명	50	25	50.0	5	10.0	1	2.0	2	4.0	-	-	17	34.0
	2명	113	50	44.2	12	10.6	7	6.2	1	0.9	-	-	43	38.1
	3명 이상	44	11	25.0	3	6.8	3	6.8	1	2.3	-	-	26	59.1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64	39.8	17	10.6	10	6.2	2	1.2	-	-	68	42.2
	한부모	31	18	58.1	2	6.5	1	3.2	-	-	-	-	10	32.3
	조손가정	13	2	15.4	1	7.7	-	-	2	15.4	-	-	8	61.5
	무응답	2	2	100.0	-	-	-	-	-	-	-	-	-	-

전반적으로 하교시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하교 하는 등 기타 (62.3%)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응답자별 특성으로 볼 때 1학년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는 분담을 하든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응답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고, 외벌이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하교하는 비율이 34.2%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16.2%)보다 높았다. 그 외 자녀 수, 가족 유형,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표 3-2-16 〉 자녀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_하교 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이 어머니		아이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담		조부모		친인척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8	23.2	12	5.8	13	6.3	5	2.4	-	-	129	62.3
학년	1학년	55	18	32.7	6	10.9	8	14.5	2	3.6	-	-	21	38.2
	2학년	45	12	26.7	1	2.2	1	2.2	2	4.4	-	-	29	64.4
	3학년	32	4	12.5	1	3.1	3	9.4	1	3.1	-	-	23	71.9
	4학년	35	5	14.3	3	8.6	1	2.9	-	-	-	-	26	74.3
	5학년	21	6	28.6	-	-	-	-	-	-	-	-	15	71.4
	6학년	19	3	15.8	1	5.3	-	-	-	-	-	-	15	78.9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5	34.2	6	8.2	3	4.1	2	2.7	-	-	37	50.7
	맞벌이	130	21	16.2	6	4.6	9	6.9	3	2.3	-	-	91	70.0
	무응답	4	2	50.0	-	-	1	25.0	-	-	-	-	1	25.0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36	22.4	10	6.2	11	6.8	3	1.9	-	-	101	62.7
	한부모	31	11	35.5	1	3.2	2	6.5	-	-	-	-	17	54.8
	조손가정	13	-	-	1	7.7	-	-	2	15.4	-	-	10	76.9
	무응답	2	1	50.0	-	-	-	-	-	-	-	-	1	50.0

3) 하교 이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자녀 돌봄 방법

하교 이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자녀 돌봄 방법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이 44.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부모 중 한명이 함께 있음(27.5%)’, ‘학원 수강(9.7%)’ 등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조손가정은 센터 외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38.5%)’의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부모의 돌봄(20.4%)과 학원 수강(20.4%)이 같은 응답률로 두 번째로 많았다.

〈 표 3-2-17 〉 하교 이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자녀 돌봄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있음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		아이돌보미가 돌봄		유료 돌봄 인력이 돌봄		학원(학습지 등 포함) 수강		아이 혼자 기다림		형제자매와 함께 있음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57	27.5	11	5.3	3	1.4	-	-	20	9.7	12	5.8	12	5.8	92	44.4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5	34.2	5	6.8	2	2.7	-	-	4	5.5	6	8.2	2	2.7	29	39.7
	맞벌이	130	30	23.1	6	4.6	1	0.8	-	-	16	12.3	5	3.8	10	7.7	62	47.7
	무응답	4	2	50.0	-	-	-	-	-	-	-	-	1	25.0	-	-	1	25.0
자녀 수	1명	50	10	20.0	5	10.0	1	2.0	-	-	9	18.0	6	12.0	-	-	19	38.0
	2명	113	30	26.5	4	3.5	2	1.8	-	-	9	8.0	6	5.3	6	5.3	56	49.6
	3명 이상	44	17	38.6	2	4.5	-	-	-	-	2	4.5	-	-	6	13.6	17	38.6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48	29.8	5	3.1	2	1.2	-	-	18	11.2	6	3.7	10	6.2	72	44.7
	한부모	31	8	25.8	-	-	1	3.2	-	-	2	6.5	5	16.1	1	3.2	14	45.2
	조손가정	13	1	7.7	5	38.5	-	-	-	-	-	-	1	7.7	1	7.7	5	38.5
	무응답	2	-	-	1	50.0	-	-	-	-	-	-	-	-	-	-	1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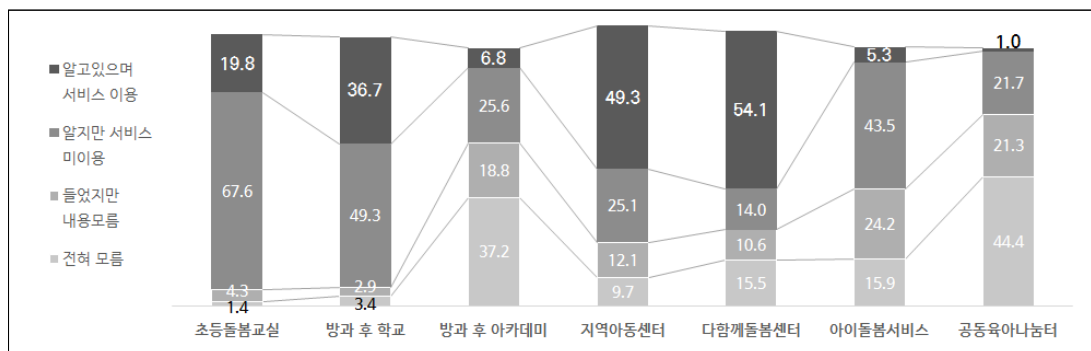
4. 돌봄 어려움 경험

1) 돌봄 정책 인지도

방과후 돌봄 정책 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알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응답자 아동이 두 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알지만 서비스 미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전혀 모름’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 중, 권역, 학년, 가족유형별 인지도는 <표 3-2-19>, <표 3-2-20>, 그리고 <표 3-2-21>과 같다.

〈 그림 3-2-5 〉 대전광역시 방과후 돌봄정책 인지도

(단위: %)



〈 표 3-2-18 〉 돌봄 정책 인지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지만 서비스 미이용		알고있으며 서비스 이용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돌봄교실	207	3	1.4	9	4.3	140	67.6	41	19.8	14	6.8
방과후 학교	207	7	3.4	6	2.9	102	49.3	76	36.7	16	7.7
방과후 아카데미	207	77	37.2	39	18.8	53	25.6	14	6.8	24	11.6
지역아동센터	207	20	9.7	25	12.1	52	25.1	102	49.3	8	3.9
다함께돌봄센터	207	32	15.5	22	10.6	29	14.0	112	54.1	12	5.8
아이돌봄 서비스	207	33	15.9	50	24.2	90	43.5	11	5.3	23	11.1
공동육아나눔터	207	92	44.4	44	21.3	45	21.7	2	1.0	24	11.6

〈 표 3-2-19 〉 권역별 돌봄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지만 서비스 미이용		알고있으며 서비스 이용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돌봄교실	동구	49	-	-	1	2.0	35	71.4	13	26.5	-	-
	중구	34	-	-	2	5.9	23	67.6	7	20.6	2	5.9
	서구	73	3	4.1	3	4.1	44	60.3	14	19.2	9	12.3
	유성구	26	-	-	1	3.8	19	73.1	4	15.4	2	7.7
	대덕구	25	-	-	2	8.0	19	76.0	3	12.0	1	4.0
방과후 학교	동구	49	-	-	-	-	30	61.2	19	38.8	-	-
	중구	34	1	2.9	-	-	21	61.8	9	26.5	3	8.8
	서구	73	3	4.1	2	2.7	30	41.1	29	39.7	9	12.3
	유성구	26	-	-	2	7.7	8	30.8	12	46.2	4	15.4
	대덕구	25	3	12.0	2	8.0	13	52.0	7	28.0	-	-
방과후 아카데미	동구	49	14	28.6	15	30.6	14	28.6	3	6.1	3	6.1
	중구	34	12	35.3	7	20.6	12	35.3	-	-	3	8.8
	서구	73	32	43.8	6	8.2	16	21.9	6	8.2	13	17.8
	유성구	26	10	38.5	3	11.5	6	23.1	3	11.5	4	15.4
	대덕구	25	9	36.0	8	32.0	5	20.0	2	8.0	1	4.0
지역아동센터	동구	49	4	8.2	9	18.4	26	53.1	7	14.3	3	6.1
	중구	34	-	-	-	-	-	-	34	100.0	-	-
	서구	73	10	13.7	10	13.7	18	24.7	30	41.1	5	6.8
	유성구	26	6	23.1	4	15.4	3	11.5	13	50.0	-	-
	대덕구	25	-	-	2	8.0	5	20.0	18	72.0	-	-
다함께돌봄센터	동구	49	3	6.1	3	6.1	1	2.0	42	85.7	-	-
	중구	34	9	26.5	7	20.6	14	41.2	1	2.9	3	8.8
	서구	73	10	13.7	2	2.7	9	12.3	47	64.4	5	6.8
	유성구	26	2	7.7	6	23.1	1	3.8	14	53.8	3	11.5
	대덕구	25	8	32.0	4	16.0	4	16.0	8	32.0	1	4.0
아이돌봄 서비스	동구	49	6	12.2	10	20.4	29	59.2	1	2.0	3	6.1
	중구	34	6	17.6	11	32.4	10	29.4	4	11.8	3	8.8
	서구	73	13	17.8	12	16.4	31	42.5	5	6.8	12	16.4
	유성구	26	6	23.1	9	34.6	7	26.9	-	-	4	15.4
	대덕구	25	2	8.0	8	32.0	13	52.0	1	4.0	1	4.0
공동육아나눔터	동구	49	16	32.7	10	20.4	18	36.7	2	4.1	3	6.1
	중구	34	18	52.9	6	17.6	7	20.6	-	-	3	8.8
	서구	73	38	52.1	13	17.8	9	12.3	-	-	13	17.8
	유성구	26	11	42.3	6	23.1	5	19.2	-	-	4	15.4
	대덕구	25	9	36.0	9	36.0	6	24.0	-	-	1	4.0

〈 표 3-2-20 〉 학년별 돌봄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지만 서비스 미이용		알고있으며 서비스 이용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돌봄교실	1학년	55	-	-	4	7.3	32	58.2	15	27.3	4	7.3
	2학년	45	2	4.4	-	-	35	77.8	6	13.3	2	4.4
	3학년	32	-	-	-	-	24	75.0	7	21.9	1	3.1
	4학년	35	-	-	1	2.9	24	68.6	8	22.9	2	5.7
	5학년	21	-	-	3	14.3	14	66.7	4	19.0	-	-
	6학년	19	1	5.3	1	5.3	11	57.9	1	5.3	5	26.3
방과후 학교	1학년	55	2	3.6	1	1.8	23	41.8	26	47.3	3	5.5
	2학년	45	3	6.7	2	4.4	21	46.7	16	35.6	3	6.7
	3학년	32	1	3.1	-	-	18	56.3	10	31.3	3	9.4
	4학년	35	1	2.9	-	-	18	51.4	14	40.0	2	5.7
	5학년	21	-	-	2	9.5	13	61.9	5	23.8	1	4.8
	6학년	19	-	-	1	5.3	9	47.4	5	26.3	4	21.1
방과후 아카데미	1학년	55	28	50.9	8	14.5	7	12.7	7	12.7	5	9.1
	2학년	45	21	46.7	7	15.6	13	28.9	1	2.2	3	6.7
	3학년	32	12	37.5	3	9.4	10	31.3	1	3.1	6	18.8
	4학년	35	9	25.7	9	25.7	10	28.6	3	8.6	4	11.4
	5학년	21	6	28.6	5	23.8	7	33.3	2	9.5	1	4.8
	6학년	19	1	5.3	7	36.8	6	31.6	-	-	5	26.3
지역아동센터	1학년	55	13	23.6	12	21.8	14	25.5	15	27.3	1	1.8
	2학년	45	6	13.3	6	13.3	15	33.3	16	35.6	2	4.4
	3학년	32	1	3.1	3	9.4	8	25.0	17	53.1	3	9.4
	4학년	35	-	-	-	-	12	34.3	22	62.9	1	2.9
	5학년	21	-	-	3	14.3	3	14.3	14	66.7	1	4.8
	6학년	19	-	-	1	5.3	-	-	18	94.7	-	-
다함께돌봄센터	1학년	55	3	5.5	4	7.3	3	5.5	43	78.2	2	3.6
	2학년	45	4	8.9	7	15.6	4	8.9	30	66.7	-	-
	3학년	32	6	18.8	1	3.1	6	18.8	17	53.1	2	6.3
	4학년	35	10	28.6	5	14.3	3	8.6	14	40.0	3	8.6
	5학년	21	5	23.8	2	9.5	7	33.3	7	33.3	-	-
	6학년	19	4	21.1	3	15.8	6	31.6	1	5.3	5	26.3
아이돌봄 서비스	1학년	55	10	18.2	15	27.3	22	40.0	3	5.5	5	9.1
	2학년	45	9	20.0	6	13.3	26	57.8	2	4.4	2	4.4
	3학년	32	2	6.3	9	28.1	14	43.8	1	3.1	6	18.8
	4학년	35	4	11.4	8	22.9	18	51.4	1	2.9	4	11.4
	5학년	21	6	28.6	6	28.6	7	33.3	1	4.8	1	4.8
	6학년	19	2	10.5	6	31.6	3	15.8	3	15.8	5	26.3
공동육아나눔터	1학년	55	29	52.7	9	16.4	12	21.8	-	-	5	9.1
	2학년	45	18	40.0	12	26.7	11	24.4	1	2.2	3	6.7
	3학년	32	13	40.6	6	18.8	7	21.9	-	-	6	18.8
	4학년	35	15	42.9	8	22.9	7	20.0	1	2.9	4	11.4
	5학년	21	9	42.9	6	28.6	5	23.8	-	-	1	4.8
	6학년	19	8	42.1	3	15.8	3	15.8	-	-	5	26.3

〈 표 3-2-21 〉 가족유형별 돌봄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지만 서비스 미이용		알고있으며 서비스 이용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돌봄교실	부모+자녀	161	3	1.9	8	5.0	117	72.7	25	15.5	8	5.0
	한부모	31	-	-	1	3.2	14	45.2	12	38.7	4	12.9
	조손가정	13	-	-	-	-	9	69.2	3	23.1	1	7.7
	무응답	2	-	-	-	-	-	-	1	50.0	1	50.0
방과후 학교	부모+자녀	161	4	2.5	5	3.1	86	53.4	54	33.5	12	7.5
	한부모	31	2	6.5	1	3.2	10	32.3	15	48.4	3	9.7
	조손가정	13	1	7.7	-	-	6	46.2	5	38.5	1	7.7
	무응답	2	-	-	-	-	-	-	2	100.0	-	-
방과후 아카데미	부모+자녀	161	60	37.3	29	18.0	43	26.7	12	7.5	17	10.6
	한부모	31	13	41.9	7	22.6	7	22.6	-	-	4	12.9
	조손가정	13	4	30.8	3	23.1	3	23.1	1	7.7	2	15.4
	무응답	2	-	-	-	-	-	-	1	50.0	1	50.0
지역아동센터	부모+자녀	161	20	12.4	22	13.7	48	29.8	65	40.4	6	3.7
	한부모	31	-	-	1	3.2	2	6.5	28	90.3	-	-
	조손가정	13	-	-	1	7.7	2	15.4	9	69.2	1	7.7
	무응답	2	-	-	1	50.0	-	-	-	-	1	50.0
다함께돌봄센터	부모+자녀	161	23	14.3	15	9.3	16	9.9	100	62.1	7	4.3
	한부모	31	7	22.6	4	12.9	10	32.3	6	19.4	4	12.9
	조손가정	13	2	15.4	3	23.1	3	23.1	4	30.8	1	7.7
	무응답	2	-	-	-	-	-	-	2	100.0	-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자녀	161	28	17.4	38	23.6	75	46.6	4	2.5	16	9.9
	한부모	31	4	12.9	7	22.6	11	35.5	5	16.1	4	12.9
	조손가정	13	1	7.7	5	38.5	3	23.1	2	15.4	2	15.4
	무응답	2	-	-	-	-	1	50.0	-	-	1	50.0
공동육아나눔터	부모+자녀	161	67	41.6	35	21.7	40	24.8	2	1.2	17	10.6
	한부모	31	16	51.6	7	22.6	4	12.9	-	-	4	12.9
	조손가정	13	8	61.5	2	15.4	1	7.7	-	-	2	15.4
	무응답	2	1	50.0	-	-	-	-	-	-	1	50.0

2)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습득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정통신문 등 학교알리미를 통해서(22.7%)’,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13.0%)’ 등이다. 대체로 다수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 유형과 달리 ‘가정통신문 등 학교 알리미를 통해서(35.5%)’의 응답수가 가장 많았다.

〈 표 3-2-22 〉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육아종합 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가정통신문 등 학교 알리미를 통해서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92	44.4	18	8.7	27	13.0	18	8.7	47	22.7	2	1.0	3	1.4
학년	1학년	55	31	56.4	5	9.1	8	14.5	5	9.1	5	9.1	-	-	1	1.8
	2학년	45	20	44.4	4	8.9	3	6.7	4	8.9	12	26.7	1	2.2	1	2.2
	3학년	32	12	37.5	3	9.4	3	9.4	5	15.6	8	25.0	-	-	1	3.1
	4학년	35	10	28.6	2	5.7	9	25.7	1	2.9	12	34.3	1	2.9	-	-
	5학년	21	9	42.9	3	14.3	2	9.5	2	9.5	5	23.8	-	-	-	-
	6학년	19	10	52.6	1	5.3	2	10.5	1	5.3	5	26.3	-	-	-	-
권역	동구	49	20	40.8	3	6.1	8	16.3	4	8.2	12	24.5	1	2.0	1	2.0
	중구	34	19	55.9	-	-	3	8.8	5	14.7	7	20.6	-	-	-	-
	서구	73	31	42.5	7	9.6	9	12.3	5	6.8	20	27.4	-	-	1	1.4
	유성구	26	11	42.3	7	26.9	1	3.8	4	15.4	3	11.5	-	-	-	-
	대덕구	25	11	44.0	1	4.0	6	24.0	-	-	5	20.0	1	4.0	1	4.0
	외별이	73	29	39.7	5	6.8	9	12.3	9	12.3	19	26.0	1	1.4	1	1.4
	맞별이 여부	130	60	46.2	13	10.0	18	13.8	9	6.9	28	21.5	1	0.8	1	0.8
	무응답	4	3	75.0	-	-	-	-	-	-	-	-	-	-	1	25.0
자녀 수	1명	50	24	48.0	6	12.0	5	10.0	2	4.0	11	22.0	2	4.0	-	-
	2명	113	50	44.2	10	8.8	19	16.8	9	8.0	22	19.5	-	-	3	2.7
	3명 이상	44	18	40.9	2	4.5	3	6.8	7	15.9	14	31.8	-	-	-	-
	부모+자녀	161	76	47.2	16	9.9	21	13.0	13	8.1	32	19.9	1	0.6	2	1.2
	한부모	31	9	29.0	1	3.2	4	12.9	4	12.9	11	35.5	1	3.2	1	3.2
	조손가정	13	7	53.8	-	-	2	15.4	1	7.7	3	23.1	-	-	-	-
	무응답	2	-	-	1	50.0	-	-	-	-	1	50.0	-	-	-	-

3) 돌봄 공백 여부

현재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돌봄 공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8.4%가 ‘돌봄 공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구(28.8%)와 유성구(19.2%), 맞벌이가정(23.8%), 자녀가 2명인 가정(24.8%), 조손가정(23.1%), 그리고 소득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1.7%) 및 600만원 이상(22.4%) 가정에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공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23 〉 돌봄 공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38	18.4	169	81.6
권역	동구	49	4	8.2	45	91.8
	중구	34	5	14.7	29	85.3
	서구	73	21	28.8	52	71.2
	유성구	26	5	19.2	21	80.8
	대덕구	25	3	12.0	22	88.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7	9.6	66	90.4
	맞벌이	130	31	23.8	99	76.2
	무응답	4	-	-	4	100.0
자녀 수	1명	50	6	12.0	44	88.0
	2명	113	28	24.8	85	75.2
	3명 이상	44	4	9.1	40	90.9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31	19.3	130	80.7
	한부모	31	4	12.9	27	87.1
	조손가정	13	3	23.1	10	76.9
	무응답	2	-	-	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8	11.4	62	88.6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18	21.7	65	78.3
	600만원 이상	49	11	22.4	38	77.6
	무응답	5	1	20.0	4	80.0

4) 돌봄 공백에 따른 지원 필요 정도

돌봄 공백이 있다는 응답자(38명)의 다양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한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 ‘방학기간’이 4.69점으로 가장 필요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아플 때나 병원 입원 또는 아픈 가족 간호 시(4.53점)’, ‘야근으로 퇴근이 늦을 때(4.45점)’, ‘긴급출장/회의 등 긴급상황 시(4.42점)’ 등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돌봄 공백 상황으로 ‘다자녀 양육 시 한 아이가 아플 때 다른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있었다.

〈 표 3-2-24 〉 돌봄 공백에 따른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아침출근~자녀 등교까지	11	28.9	9	23.7	7	18.4	2	5.3	2	5.3	7	18.4	2.2
학교정규수업 이후 학원 이동시까지 공백	5	13.2	5	13.2	9	23.7	8	21.1	5	13.2	6	15.8	3.1
학원과 학원사이 남는 시간	4	10.5	7	18.4	7	18.4	9	23.7	4	10.5	7	18.4	3.1
학원 또는 돌봄 이후 부모 귀가시간 전까지	2	5.3	-	-	5	13.2	13	34.2	13	34.2	5	13.2	4.1
아근으로 퇴근이 늦을 때	1	2.6	-	-	1	2.6	12	31.6	19	50.0	5	13.2	4.5
방학기간	-	-	-	-	-	-	11	28.9	24	63.2	3	7.9	4.7
주말근무 시	1	2.6	1	2.6	2	5.3	9	23.7	17	44.7	8	21.1	4.3
간급출장/회의 등 긴급상황 시	-	-	-	-	5	13.2	8	21.1	18	47.4	7	18.4	4.4
아플 때나 병원 입원 또는 아픈 가족 간호 시	-	-	-	-	4	10.5	7	18.4	21	55.3	6	15.8	4.5

5)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처

돌봄 공백이 있다는 응답자가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 희망처로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23.7%)’, ‘초등돌봄교실에서(10.5%)’ 등이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 학원이라는 응답이 1건 있었다. 시설유형별로 볼 때,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에서 계속 제공받는 것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3-2-25 〉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돌봄 교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동돌봄 서비스로		지역아동 센터에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8	4	10.5	22	57.9	1	2.6	9	23.7	2	5.3
권역	동구	4	-	-	4	100.0	-	-	-	-	-	-
	중구	5	2	40.0	1	20.0	-	-	1	20.0	1	20.0
	서구	21	1	4.8	13	61.9	1	4.8	5	23.8	1	4.8
	유성구	5	1	20.0	2	40.0	-	-	2	40.0	-	-
	대덕구	3	-	-	2	66.7	-	-	1	33.3	-	-
시설유형	다함께돌봄센터	25	2	8.0	21	84.0	-	-	1	4.0	1	4.0
	지역아동센터	13	2	15.4	1	7.7	1	7.7	8	61.5		7.7

6)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 프로그램

돌봄 공백이 있다는 응답자가 추가로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1순위 기준) ‘숙제지도’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간식 및 급식(23.7%)’, ‘체험학습(13.2%)’ 등 순이다

〈 표 3-2-26 〉 돌봄 서비스 제공희망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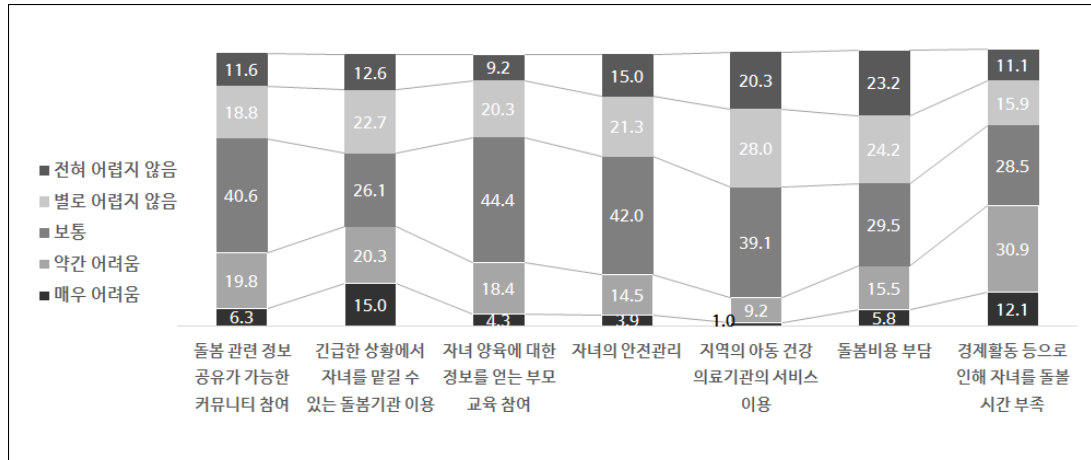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8	100.0	36	100.0
숙제지도	12	31.6	6	16.7
인성교육	4	10.5	3	8.3
예·체능프로그램	4	10.5	6	16.7
체험학습	5	13.2	6	16.7
자유놀이	1	2.6	1	2.8
간식 및 급식	9	23.7	3	8.3
문화 활동	1	2.6	4	11.1
특기적성	1	2.6	3	8.3
건강 및 운동	1	2.6	4	11.1

7)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5점 척도에서 평균 2.4점에서 3.2점으로 응답하여 그 어려움이 평균적으로 보통이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항목별로 적게는 10.2%에서 많게는 43.0%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항목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이 3.2점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이용(3.0점)’, ‘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2.9점)’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3-2-6 〉 자녀 양육 어려움

(단위: %, 무응답 제외)



〈 표 3-2-27 〉 자녀 양육 어려움

(단위: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	24	11.6	39	18.8	84	40.6	41	19.8	13	6.3	6	2.9	2.9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이용	26	12.6	47	22.7	54	26.1	42	20.3	31	15.0	7	3.4	3.0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 참여	19	9.2	42	20.3	92	44.4	38	18.4	9	4.3	7	3.4	2.9
자녀의 안전관리	31	15.0	44	21.3	87	42.0	30	14.5	8	3.9	7	3.4	2.7
지역의 아동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42	20.3	58	28.0	81	39.1	19	9.2	2	1.0	5	2.4	2.4
돌봄비용 부담	48	23.2	50	24.2	61	29.5	32	15.5	12	5.8	4	1.9	2.6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23	11.1	33	15.9	59	28.5	64	30.9	25	12.1	3	1.4	3.2

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평균적으로 2.9점 수준으로 경험하는데, 특히 아동연령 11세 이상인 응답자는 3.3점 수준의 어려움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가정에서는 3.1점 수준의 어려움을, 즉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은 30%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28 〉 자녀 양육 어려움_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4	11.6	39	18.8	84	40.6	41	19.8	13	6.3	6	2.9	2.9
연령	8세 이하	111	13	11.7	19	17.1	50	45.0	20	18.0	5	4.5	4	3.6	2.9
	9~10세	62	8	12.9	16	25.8	25	40.3	10	16.1	3	4.8	-	-	2.7
	11세 이상	34	3	8.8	4	11.8	9	26.5	11	32.4	5	14.7	2	5.9	3.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0	5	7.1	11	15.7	30	42.9	14	20.0	7	10.0	3	4.3	3.1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10	12.0	14	16.9	33	39.8	22	26.5	3	3.6	1	1.2	2.9
	600만원 이상	49	7	14.3	13	26.5	20	40.8	4	8.2	3	6.1	2	4.1	2.6
	무응답	5	2	40.0	1	20.0	1	20.0	1	20.0	-	-	-	-	2.2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이용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평균 3.0점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항목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포로 35.3%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의 참여에서의 어려움의 수준은 평균 2.9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외벌이의 경우 3.0점의 수준으로, 그리고 조손가정은 3.3점의 수준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29 〉 자녀 양육 어려움_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9	9.2	42	20.3	92	44.4	38	18.4	9	4.3	7	3.4	2.9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6	8.2	11	15.1	32	43.8	18	24.7	4	5.5	2	2.7	3.0
	맞벌이	130	13	10.0	30	23.1	58	44.6	19	14.6	5	3.8	5	3.8	2.8
	무응답	4	-	-	1	25.0	2	50.0	1	25.0	-	-	7	3.4	3.0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17	11.0	35	22.6	76	49.0	21	13.5	6	3.9	6	3.7	2.8
	한부모	31	1	3.2	6	19.4	13	41.9	10	32.3	1	3.2	-	-	3.1
	조손가정	13	1	8.3	1	8.3	2	16.7	6	50.0	2	16.7	1	7.7	3.3
	무응답	2	-	-	-	-	1	50.0	1	50.0	-	-	-	-	3.5

아동학대, 폭력, 유괴 등 자녀의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평균 2.7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녀가 1명인 가정의 경우, 어려움의 수준이 2.9점으로 24.0%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여 이는 3명 이상 가정의 4.5%보다 비교적 높은 분포이다.

〈 표 3-2-30 〉 자녀 양육 어려움_자녀의 안전관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31	15.0	44	21.3	87	42.0	30	14.5	8	3.9	7	3.4	2.7
자녀 수	1명	50	6	12.0	10	20.0	20	40.0	8	16.0	4	8.0	4	8.0	2.9
	2명	113	17	15.0	23	20.4	48	42.5	20	17.7	4	3.5	4	3.5	2.7
	3명 이상	44	8	18.2	11	25.0	19	43.2	2	4.5	-	-	4	9.1	2.4

지역의 아동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관련 어려움에 대해서는 평균 2.4점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덕구(3.0점)와 중구(2.5점),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2.7점), 그리고 300만원 미만 소득의 가정(2.7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3-2-31 〉 자녀 양육 어려움_지역의 아동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2	20.3	58	28.0	81	39.1	19	9.2	2	1.0	5	2.4	2.4
권역	동구	49	13	26.5	9	18.4	22	44.9	5	10.2	-	-	-	-	2.4
	중구	34	7	20.6	8	23.5	14	41.2	5	14.7	-	-	-	-	2.5
	서구	73	16	21.9	27	37.0	22	30.1	4	5.5	1	1.4	3	4.1	2.2
	유성구	26	5	19.2	8	30.8	12	46.2	-	-	-	-	1	3.8	2.3
	대덕구	25	1	4.0	6	24.0	11	44.0	5	20.0	1	4.0	1	4.0	3.0
자녀 수	1명	50	6	12.0	13	26.0	20	40.0	9	18.0	1	2.0	1	2.0	2.7
	2명	113	24	21.2	33	29.2	45	39.8	9	8.0	1	0.9	1	0.9	2.4
	3명 이상	44	12	27.3	12	27.3	16	36.4	1	2.3	-	-	3	6.8	2.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8	11.4	19	27.1	32	45.7	7	10.0	2	2.9	2	2.9	2.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83	22	26.5	22	26.5	29	34.9	9	10.8	-	-	1	1.2	2.3
	600만원 이상	49	10	20.4	17	34.7	18	36.7	2	4.1	-	-	2	4.1	2.3
	무응답	5	2	40.0	-	-	2	40.0	1	20.0	-	-	-	-	2.4

교육비, 돌봄 서비스 비용 포함한 돌봄비용 부담 관련 어려움은 평균적으로 2.6점의 수준으로 조손가정(3.2점) 및 한부모가정(2.9점), 그리고 300만원 미만 소득의 가구(3.0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32 〉 자녀 양육 어려움_돌봄비용 부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8	23.2	50	24.2	61	29.5	32	15.5	12	5.8	4	1.9	2.6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39	24.2	43	26.7	48	29.8	21	13.0	6	3.7	4	2.5	2.4
	한부모	31	5	16.1	5	16.1	10	32.3	9	29.0	2	6.5	-	-	2.9
	조손가정	13	3	23.1	1	7.7	3	23.1	2	15.4	4	30.8	-	-	3.2
	무응답	2	1	50.0	1	50.0	-	-	-	-	-	-	-	-	1.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0	11	15.7	13	18.6	22	31.4	14	20.0	9	12.9	1	1.4	3.0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17	20.5	22	26.5	24	28.9	16	19.3	3	3.6	1	1.2	2.6
	600만원 이상	49	17	34.7	15	30.6	13	26.5	2	4.1	-	-	2	4.1	2.0
	무응답	5	3	60.0	-	-	2	40.0	-	-	-	-	-	-	1.8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것과 관련된 어려움의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어려움의 항목 중 가장 높은 항목으로 서구(3.5점), 대덕구(3.3점) 및 중구(3.2점)와 300만원 미만(3.3점) 및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3.2점)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33 〉 자녀 양육 어려움_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3	11.1	33	15.9	59	28.5	64	30.9	25	12.1	3	1.4	3.2
권역	동구	49	9	18.4	9	18.4	17	34.7	12	24.5	2	4.1	-	-	2.8
	중구	34	5	14.7	3	8.8	10	29.4	12	35.3	4	11.8	-	-	3.2
	서구	73	3	4.1	10	13.7	22	30.1	24	32.9	12	16.4	2	2.7	3.5
	유성구	26	4	15.4	6	23.1	6	23.1	7	26.9	3	11.5	-	-	3.0
	대덕구	25	2	8.0	5	20.0	4	16.0	9	36.0	4	16.0	1	4.0	3.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0	7	10.0	10	14.3	19	27.1	18	25.7	14	20.0	2	2.9	3.3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8	9.6	12	14.5	22	26.5	33	39.8	7	8.4	1	1.2	3.2
	600만원 이상	49	8	16.3	10	20.4	16	32.7	11	22.4	4	8.2	-	-	2.9
	무응답	5	-	-	1	20.0	2	40.0	2	40.0	-	-	-	-	3.2

8)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

다양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가 3.3점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육·돌봄기관의 휴원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3.2점)’, ‘집안일 등 긴급 상황 시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3.2점)’ 등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가장 낮은 평균점수의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2.8점)’의 항목에서도 27.1%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34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

(단위: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집안 일 등 긴급 상황 시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28	13.5	37	17.9	40	19.3	60	29.0	36	17.4	6	2.9	3.2
자녀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25	12.1	32	15.5	41	19.8	63	30.4	41	19.8	5	2.4	3.3
감염병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33	15.9	32	15.5	51	24.6	50	24.2	35	16.9	6	2.9	3.1
보육·돌봄기관의 휴원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22	10.6	38	18.4	50	24.2	58	28.0	34	16.4	5	2.4	3.2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38	18.4	48	23.2	59	28.5	36	17.4	20	9.7	6	2.9	2.8
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애로	28	13.5	47	22.7	46	22.2	55	26.6	24	11.6	7	3.4	3.0
주말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47	22.7	47	22.7	45	21.7	31	15.0	32	15.5	5	2.4	2.8

돌봄 공백 상황 중 집안일 등 긴급 상황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에 관해서는 평균 3.2점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다. 응답자의 46.4%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분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보인 것은 자녀의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3.3점)로 응답자의 50.2%로 절반 이상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구(3.6점)에서 어려움의 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정(3.6점)이 높는데, 서구에 맞벌이 가정이 69.9%인 것이 서구의 높은 평균점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표 3-2-35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자녀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5	12.1	32	15.5	41	19.8	63	30.4	41	19.8	5	2.4	3.1
권역	동구	49	8	16.3	6	12.2	10	20.4	14	28.6	11	22.4	-	-	3.2
	중구	34	5	14.7	7	20.6	5	14.7	12	35.3	5	14.7	-	-	3.2
	서구	73	4	5.5	10	13.7	13	17.8	25	34.2	18	24.7	3	4.1	3.6
	유성구	26	3	11.5	3	11.5	10	38.5	5	19.2	5	19.2	-	-	3.2
	대덕구	25	5	20.0	6	24.0	3	12.0	7	28.0	2	8.0	2	8.0	2.7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4	19.2	15	20.5	18	24.7	15	20.5	8	11.0	3	4.1	2.8
	맞벌이	130	11	8.5	16	12.3	23	17.7	45	34.6	33	25.4	2	1.5	3.6
	무응답	4	-	-	1	25.0	-	-	3	75.0	-	-	-	-	3.5

감염병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와 관련된 어려움은 평균 3.1점으로 41.1%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특히 맞벌이 가정(3.3점)이 48.4%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외벌이 가정(27.4%)보다 높은 비율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표 3-2-36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감염병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33	15.9	32	15.5	51	24.6	50	24.2	35	16.9	6	2.9	3.1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5	20.5	13	17.8	22	30.1	13	17.8	7	9.6	3	4.1	2.8
	맞벌이	130	18	13.8	17	13.1	29	22.3	35	26.9	28	21.5	3	2.3	3.3
	무응답	4	-	-	2	50.0	-	-	2	50.0	-	-	-	-	3.0

보육·돌봄기관의 휴원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에 대해서 평균 3.2점 수준의 어려움을 느껴 방학 등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맞벌이 가정(3.4점)과 자녀가 1명인 가정(3.4점)에서 특히 어려움을 평균 수준보다 높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52.3%,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54.0%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표 3-2-37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보육돌봄기관의 휴원으로 맡길 곳이 없어서 겪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2	10.6	38	18.4	50	24.2	58	28.0	34	16.4	5	2.4	3.2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0	13.7	18	24.7	21	28.8	16	21.9	6	8.2	2	2.7	2.9
	맞벌이	130	12	9.2	19	14.6	28	21.5	40	30.8	28	21.5	3	2.3	3.4
	무응답	4	-	-	1	25.0	1	25.0	2	50.0	-	-	-	-	3.3
자녀 수	1명	50	2	4.0	12	24.0	8	16.0	19	38.0	8	16.0	1	2.0	3.4
	2명	113	12	10.6	19	16.8	28	24.8	31	27.4	22	19.5	1	0.9	3.3
	3명 이상	44	8	18.2	7	15.9	14	31.8	8	18.2	4	9.1	3	6.8	2.8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평균 2.8점으로 다른 돌봄 공백 상황에 비해 낮지만, 맞벌이 가정(3.0점)에서는 33.8%가 이와 관련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38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38	18.4	48	23.2	59	28.5	36	17.4	20	9.7	6	2.9	2.8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3	31.5	18	24.7	19	26.0	6	8.2	4	5.5	3	4.1	2.3
	맞벌이	130	15	11.5	29	22.3	39	30.0	28	21.5	16	12.3	3	2.3	3.0
	무응답	4	-	-	1	25.0	1	25.0	2	50.0	-	-	-	-	3.3

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애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평균 3.0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지만, 앞서 이른 출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3.2점)에서 어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 표 3-2-39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28	13.5	47	22.7	46	22.2	55	26.6	24	11.6	7	3.4	3.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9	26.0	17	23.3	14	19.2	13	17.8	6	8.2	4	5.5	2.6
	맞벌이	130	9	6.9	29	22.3	31	23.8	40	30.8	18	13.8	3	2.3	3.2
	무응답	4	-	-	1	25.0	1	25.0	2	50.0	-	-	-	-	3.3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2.8점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맞벌이 가정(3.0점)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40 〉 돌봄 공백 상황 어려움_주말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7	22.7	47	22.7	45	21.7	31	15.0	32	15.5	5	2.4	2.8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3	31.5	19	26.0	11	15.1	11	15.1	6	8.2	3	4.1	2.4
	맞벌이	130	24	18.5	28	21.5	31	23.8	19	14.6	26	20.0	2	1.5	3.0
	무응답	4	-	-	-	-	3	75.0	1	25.0	-	-	-	-	3.3

9) 휴직/사직 경험

휴직/사직 경험으로는 어머니의 경우 ‘아이 양육 때문에 사직하려고 계획 중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23.7%는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은 3.9%(‘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로 남성의 양육관련 휴직/사직 경험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다만, 해당사항 없다는 응답이 63.8%~92.8%임을 보면 휴직/사직의 경험 또는 계획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표 3-2-41 〉 휴직/사직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현재 육아휴직 중	207	15	7.2	3	1.4	189	91.3
2)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	207	49	23.7	8	3.9	150	72.5
3) 육아휴직 사용할 계획이 있다	207	13	6.3	3	1.4	191	92.3
4) 아이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207	71	34.3	4	1.9	132	63.8
5) 아이 양육 때문에 사직하려고 계획 중이다	207	12	5.8	3	1.4	192	92.8

해당사항 없음의 응답을 제외하고 볼 때,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머니’가 7.2%로 아버지에게 비해 높으며 특히 외벌이 가정에서 어머니(17.8%)가 아버지(2.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표 3-2-42 〉 휴직/사직 경험_현재 육아휴직 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5	7.2	3	1.4	189	91.3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3	17.8	2	2.7	58	79.5
	맞벌이	130	-	-	1	0.8	129	99.2
	무응답	4	2	50.0	-	-	2	50.0
자녀 수	1명	50	2	4.0	1	2.0	47	94.0
	2명	113	13	11.5	2	1.8	98	86.7
	3명 이상	44	-	-	-	-	44	100.0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11	6.8	3	1.9	147	91.3
	한부모	31	3	9.7	-	-	28	90.3
	조손가정	13	1	7.7	-	-	12	92.3
	무응답	2	-	-	-	-	2	100.0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인 있다는 응답률이 전체 27.6%로 휴직이나 사직 관련 응답중에서 해당사항 없음의 응답률이 두 번째로 낮은 편으로, 아버지(3.9%)보다는 어머니(23.7%)의 응답률이 높으며,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서 어머니(31.0%), 아버지(5.3%)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표 3-2-43 〉 휴직/사직 경험_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49	23.7	8	3.9	150	72.5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2	16.4	-	-	61	83.6
	맞벌이	130	36	27.7	8	6.2	86	66.2
	무응답	4	1	25.0	-	-	3	75.0
자녀 수	1명	50	9	18.0	1	2.0	40	80.0
	2명	113	35	31.0	6	5.3	72	63.7
	3명 이상	44	5	11.4	1	2.3	38	86.4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44	27.3	8	5.0	109	67.7
	한부모	31	3	9.7	-	-	28	90.3
	조손가정	13	1	7.7	-	-	12	92.3
	무응답	2	1	50.0	-	-	1	50.0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의 비율(92.3%)이 매우 높으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인 자녀 가정(어머니, 8.0%, 아버지 2.7%)이다.

〈 표 3-2-44 〉 휴직/사직 경험_육아휴직 사용할 계획이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3	6.3	3	1.4	191	92.3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6	8.2	-	-	67	91.8
	맞벌이	130	6	4.6	3	2.3	121	93.1
	무응답	4	1	25.0	-	-	3	75.0
자녀 수	1명	50	1	2.0	-	-	49	98.0
	2명	113	9	8.0	3	2.7	101	89.4
	3명 이상	44	3	6.8	-	-	41	93.2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10	6.2	3	1.9	148	91.9
	한부모	31	2	6.5	-	-	29	93.5
	조손가정	13	1	7.7	-	-	12	92.3
	무응답	2	-	-	-	-	2	100.0

자녀의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26.2%로 휴직/사직 경험 항목중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 그 중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39.2%) 그리고 자녀 2명의 가정의 어머니(42.5%)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 표 3-2-45 〉 휴직/사직 경험_아이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적이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71	34.3	4	1.9	132	63.8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19	26.0	1	1.4	53	72.6
	맞벌이	130	51	39.2	3	2.3	76	58.5
	무응답	4	1	25.0	-	-	3	75.0
자녀 수	1명	50	12	24.0	-	-	38	76.0
	2명	113	48	42.5	1	0.9	64	56.6
	3명 이상	44	11	25.0	3	6.8	30	68.2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61	37.9	4	2.5	96	59.6
	한부모	31	6	19.4	-	-	25	80.6
	조손가정	13	3	23.1	-	-	10	76.9
	무응답	2	1	50.0	-	-	1	50.0

자녀의 양육 때문에 사직할 계획의 여부에 대해서는 92.8%가 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하여 직장이 있는 부모의 경우, 다수가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3-2-46 〉 휴직/사직 경험_아이 양육 때문에 사직하려고 계획 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해당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2	5.8	3	1.4	192	92.8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5	6.8	1	1.4	67	91.8
	맞벌이	130	6	4.6	2	1.5	122	93.8
	무응답	4	1	25.0	-	-	3	75.0
자녀 수	1명	50	1	2.0	-	-	49	98.0
	2명	113	9	8.0	2	1.8	102	90.3
	3명 이상	44	2	4.5	1	2.3	41	93.2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9	5.6	2	1.2	150	93.2
	한부모	31	2	6.5	-	-	29	93.5
	조손가정	13	1	7.7	1	7.7	11	84.6
	무응답	2	-	-	-	-	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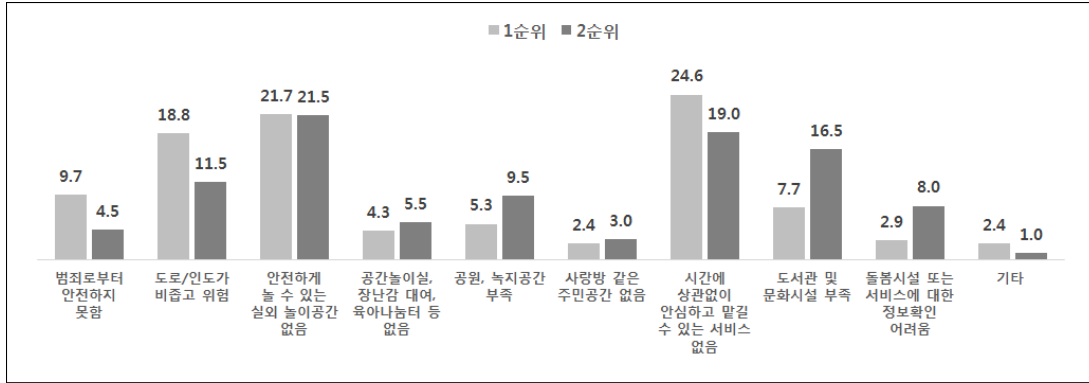
5. 대전광역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1)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1순위 기준)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 시간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의견이 2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외 놀이 공간이 없다(21.7%)’, ‘아이들이 다니기에 도로/인도가 비좁고 위험하다(18.8%)’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외 놀이공간이 없다(21.5%)’,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 시간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19.0%)’의 응답이 높아 돌봄 공백에 대한 욕구와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의견은 <표 3-2-48>와 같다.

〈 그림 3-2-7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 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 표 3-2-47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200	100.0
골목길이 많고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20	9.7	9	4.5
아이들이 다나기에 도로/인도가 비좁고 위험하다	39	18.8	23	11.5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외 놀이공간이 없다	45	21.7	43	21.5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놀이실, 장난감 대여, 육아나눔터 등이 없다	9	4.3	11	5.5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11	5.3	19	9.5
부모들이 육아정보도 나누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주민공간이 없다	5	2.4	6	3.0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 시간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51	24.6	38	19.0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16	7.7	33	16.5
돌봄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6	2.9	16	8.0
기타	5	2.4	2	1.0

〈 표 3-2-48 〉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_기타 내용(1+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	3.4
주 양육자의 경제활동 고용 안정화 및 관련 근로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2	1.0
체험센터 확충	1	0.5
교육비 지원 확대	1	0.5
다자녀 혜택 확대	1	0.5
인력 확충	1	0.5
무응답	1	0.5

2) 공동돌봄 공간 추천 연령대

지역 내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돌봄 공간을 마련할 경우, 그러한 공간을 어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영유아와 초등아동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3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모든 연령의 자녀 이용(31.9%)’, ‘초등 1-3학년 이용(27.1%)’ 등으로 응답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30% 이상이 ‘초등 1-3학년’이 좋겠다고 응답하고, 아동 연령 11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모든 연령의 자녀’가 좋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표 3-2-49 〉 공동돌봄 공간 추천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유아 이용		초등 1~3학년 이용		초등 4~6학년 이용		영유아와 초등아동 모두 이용		모든 연령의 자녀 이용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7	3.4	56	27.1	6	2.9	70	33.8	66	31.9	2	1.0
학년	1학년	55	2	3.6	17	30.9	3	5.5	27	49.1	5	9.1	1	1.8
	2학년	45	2	4.4	16	35.6	1	2.2	15	33.3	10	22.2	1	2.2
	3학년	32	2	6.3	10	31.3	-	-	9	28.1	11	34.4	-	-
	4학년	35	-	-	6	17.1	2	5.7	12	34.3	15	42.9	-	-
	5학년	21	1	4.8	4	19.0	-	-	5	23.8	11	52.4	-	-
	6학년	19	-	-	3	15.8	-	-	2	10.5	14	73.7	-	-
연령	8세 이하	111	5	4.5	36	32.4	4	3.6	46	41.4	18	16.2	2	1.8
	9~10세	62	2	3.2	14	22.6	2	3.2	19	30.6	25	40.3	-	-
	11세 이상	34	-	-	6	17.6	-	-	5	14.7	23	67.6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6	3.7	46	28.6	5	3.1	55	34.2	47	29.2	2	1.2
	한부모	31	1	3.2	5	16.1	1	3.2	10	32.3	14	45.2	-	-
	조손가정	13	-	-	4	30.8	-	-	4	30.8	5	38.5	-	-
	무응답	2	-	-	1	50.0	-	-	1	50.0	-	-	-	-

3) 공동돌봄 공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내의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돌봄을 마련한다면 공동돌봄 공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주거지역(아파트 등) 내’가 40.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내(22.7%)’,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내(15.9%)’ 등 순으로 응답하여 본인의 주거지역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내’에 대한 선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동 연령 11세 이상(38.2%)은 가장 많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내를 꼽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초등학교보다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15.9%)’이나 ‘지역 내 작은 도서관 활용(15.9%)’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주거지역의 선호 비율이 50%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표 3-2-50 〉 돌봄 공백 해소에 적합한 공동돌봄 공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행정부지센터 등 관공서 내		초등학교 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내		주거지역 (아파트 등) 내		지역 내 작은 도서관 활용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7	8.2	47	22.7	33	15.9	84	40.6	24	11.6	2	1.0
연령	8세 이하	111	9	8.1	18	16.2	13	11.7	62	55.9	8	7.2	1	0.9
	9~10세	62	5	8.1	22	35.5	7	11.3	17	27.4	10	16.1	1	1.6
	11세 이상	34	3	8.8	7	20.6	13	38.2	5	14.7	6	17.6	-	-
권역	동구	49	3	6.1	17	34.7	3	6.1	17	34.7	9	18.4	-	-
	중구	34	1	2.9	8	23.5	7	20.6	9	26.5	9	26.5	-	-
	서구	73	4	5.5	14	19.2	10	13.7	39	53.4	4	5.5	2	2.7
	유성구	26	2	7.7	2	7.7	5	19.2	16	61.5	1	3.8	-	-
	대덕구	25	7	28.0	6	24.0	8	32.0	3	12.0	1	4.0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13	8.1	34	21.1	25	15.5	73	45.3	16	9.9	-	-
	한부모	31	4	12.9	9	29.0	5	16.1	6	19.4	5	16.1	2	6.5
	조손가정	13	-	-	4	30.8	3	23.1	3	23.1	3	23.1	-	-
	무응답	2	-	-	-	-	-	-	2	100.0	-	-	-	-

4)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

자녀의 보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돌봄 공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로는 ‘학교/학원에 데려다주거나, 학교/학원 시간에 아이를 공동돌봄 공간으로 데려오기(등하원/등학교 서비스)’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24.6%)’, ‘아침, 저녁식사 제공(8.7%)’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간식제공(31.4%)’,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26.2%)’, ‘아침, 저녁식사 제공(13.6%)’의 순으로 3순위에서는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25.0%)’, ‘간식제공(19.0%)’, ‘돌봄기관 시간에 맞추어 차량 태워 보내기(17.0%)’의 순으로 응답하여 등하원, 등학교, 학습, 그리고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3-2-51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191	100.0	100	100.0
학교/ 학원에 데려다주거나, 하교/하원 시간에 아이를 공동돌봄 공간으로 데려오기	97	46.9	24	12.6	6	6.0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	51	24.6	50	26.2	25	25.0
준비물 챙겨주기	1	0.5	4	2.1	4	4.0
간식 제공	14	6.8	60	31.4	19	19.0
아침, 저녁식사 제공	18	8.7	26	13.6	13	13.0
돌봄기관 시간에 맞추어 차량 태워 보내기	3	1.4	11	5.8	17	17.0
아픈 아이 병원에 데려가기	15	7.2	13	6.8	15	15.0
부모가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보살핌 외에는 특별한 요구 없음	7	3.4	-	-	-	-
기타	1	0.5	3	1.6	1	1.0

〈 표 3-2-52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_기타 내용(1+2+3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	2.4
이용아동에게 정서적 지원	2	1.0
다양한 체험	1	0.5
또래와의 실외활동	1	0.5
돌봄시설 연장 운영	1	0.5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1학년의 경우 특히 등하교, 등하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으며 (70.9%), 중구의 경우, 3순위에 아침, 저녁 식사 제공에 대한 욕구(20.6%)로 타 지역보다 높았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도 등하교, 등하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희망을 50%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손가정은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 주기’에 대한 응답률이 61.5%로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3-2-53 〉 공동돌봄 공간 희망 서비스_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교/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학교/하원 시간에 아이를 공동돌봄 공간으로 데려오기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		준비물 챙겨주기		간식 제공		아침, 저녁식사 제공		돌봄기관 시간에 맞추어 차량 태워 보내기		아픈 아이 병원에 데려가기		부모가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보살핌 외에는 특별한 요구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97	46.9	51	24.6	1	0.5	14	6.8	18	8.7	3	1.4	15	7.2	7	3.4	1	0.5
학년	1학년	55	39	70.9	8	14.5	-	-	2	3.6	2	3.6	1	1.8	1	1.8	1	1.8	1	1.8
	2학년	45	20	44.4	14	31.1	-	-	4	8.9	3	6.7	-	-	1	2.2	3	6.7	-	-
	3학년	32	12	37.5	7	21.9	-	-	5	15.6	2	6.3	1	3.1	5	15.6	-	-	-	-
	4학년	35	14	40.0	9	25.7	1	2.9	-	-	5	14.3	1	2.9	3	8.6	2	5.7	-	-
	5학년	21	8	38.1	6	28.6	-	-	2	9.5	2	9.5	-	-	3	14.3	-	-	-	-
	6학년	19	4	21.1	7	36.8	-	-	1	5.3	4	21.1	-	-	2	10.5	1	5.3	-	-
권역	동구	49	26	53.1	10	20.4	-	-	3	6.1	2	4.1	2	4.1	4	8.2	2	4.1	-	-
	중구	34	15	44.1	9	26.5	-	-	-	-	7	20.6	-	-	3	8.8	-	-	-	-
	서구	73	31	42.5	24	32.9	-	-	6	8.2	3	4.1	-	-	6	8.2	2	2.7	1	1.4
	유성구	26	16	61.5	3	11.5	-	-	3	11.5	2	7.7	1	3.8	-	-	1	3.8	-	-
	대덕구	25	9	36.0	5	20.0	1	4.0	2	8.0	4	16.0	-	-	2	8.0	2	8.0	-	-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8	38.4	23	31.5	-	-	2	2.7	10	13.7	1	1.4	6	8.2	2	2.7	1	1.4
	맞벌이	130	67	51.5	28	21.5	1	0.8	12	9.2	7	5.4	2	1.5	8	6.2	5	3.8	-	-
	무응답	4	2	50.0	-	-	-	-	-	-	1	25.0	-	-	1	25.0	-	-	-	-
자녀 수	1명	50	18	36.0	8	16.0	-	-	9	18.0	6	12.0	-	-	6	12.0	2	4.0	1	2.0
	2명	113	60	53.1	30	26.5	1	0.9	3	2.7	9	8.0	2	1.8	7	6.2	1	0.9	-	-
	3명 이상	44	19	43.2	13	29.5	-	-	2	4.5	3	6.8	1	2.3	2	4.5	4	9.1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85	52.8	34	21.1	1	0.6	13	8.1	11	6.8	3	1.9	8	5.0	5	3.1	1	0.6
	한부모	31	9	29.0	8	25.8	-	-	1	3.2	5	16.1	-	-	6	19.4	2	6.5	-	-
	조손가정	13	2	15.4	8	61.5	-	-	-	-	2	15.4	-	-	1	7.7	-	-	-	-
	무응답	2	1	50.0	1	50.0	-	-	-	-	-	-	-	-	-	-	-	-	-	-

5)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여부

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한 초등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용해 본 유사한 기관 및 서비스 중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7.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다는 118명의 응답 중 도움이 된 서비스로는 ‘돌봄 서비스(17.8%)’, ‘학습지도(15.3%)’, 그리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3-2-54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18	57.0	89	43.0
학년	1학년	55	22	40.0	33	60.0
	2학년	45	24	53.3	21	46.7
	3학년	32	16	50.0	16	50.0
	4학년	35	27	77.1	8	22.9
	5학년	21	17	81.0	4	19.0
	6학년	19	12	63.2	7	36.8
연령	8세 이하	111	54	48.6	57	51.4
	9~10세	62	41	66.1	21	33.9
	11세 이상	34	23	67.6	22	32.4
권역	동구	49	23	46.9	26	53.1
	중구	34	21	61.8	13	38.2
	서구	73	40	54.8	33	45.2
	유성구	26	14	53.8	12	46.2
	대덕구	25	20	80.0	5	20.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47	64.4	26	35.6
	맞벌이	130	70	53.8	60	46.2
	무응답	4	1	25.0	3	75.0
자녀 수	1명	50	29	58.0	21	42.0
	2명	113	61	54.0	52	46.0
	3명 이상	44	28	63.6	16	36.4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89	55.3	72	44.7
	한부모	31	21	67.7	10	32.3
	조손가정	13	8	61.5	5	38.5
	무응답	2	-	-	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48	68.6	22	31.4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39	47.0	44	53.0
	600만원 이상	49	29	59.2	20	40.8
	무응답	5	2	40.0	3	60.0

〈 표 3-2-55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 서비스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18	100.0
돌봄 서비스	21	17.8
학습지도	18	15.3
방과후 돌봄 서비스	16	13.6
식사 제공	8	6.8
간식 제공	7	5.9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7	5.9
체험학습	5	4.2
방학기간내 돌봄 서비스	5	4.2
문화활동	4	3.4
숙제지도	2	1.7
영어교육	1	0.8
독서활동	1	0.8
멘토링학습	1	0.8
디지털학습지원	1	0.8
농구	1	0.8
놀이활동	1	0.8
또래관계향상 캠프	1	0.8
긴급돌봄 서비스	1	0.8
주말 돌봄 서비스	1	0.8
외부강사와 함께 활동	1	0.8
무응답	15	12.7

6)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돌봄시설 접근성’이 4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37.7%)’, ‘돌봄 인력의 전문성(37.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돌봄시설의 접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이, 동구 및 대덕구에서, 부모와 자녀 가구 유형의 가정에서,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가정에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조손가정이 항목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46.2%)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5학년(61.9%)과 한부모가정(45.2%)에서 항목 중 돌봄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3-2-56 〉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돌봄시설 접근성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공공돌봄 대상자 확대		돌봄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돌봄 이용 시간 확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94	45.4	53	25.6	34	16.4	77	37.2	78	37.7	30	14.5	26	12.6	15	7.2
학년	1학년	55	29	52.7	15	27.3	10	18.2	15	27.3	19	34.5	8	14.5	8	14.5	5	9.1
	2학년	45	21	46.7	11	24.4	4	8.9	16	35.6	21	46.7	5	11.1	5	11.1	3	6.7
	3학년	32	17	53.1	6	18.8	5	15.6	10	31.3	10	31.3	4	12.5	8	25.0	3	9.4
	4학년	35	17	48.6	10	28.6	4	11.4	15	42.9	12	34.3	7	20.0	1	2.9	3	8.6
	5학년	21	7	33.3	4	19.0	5	23.8	13	61.9	10	47.6	3	14.3	1	4.8	-	-
	6학년	19	3	15.8	7	36.8	6	31.6	8	42.1	6	31.6	3	15.8	3	15.8	1	5.3
권역	동구	49	28	57.1	14	28.6	2	4.1	21	42.9	21	42.9	4	8.2	5	10.2	1	2.0
	중구	34	8	23.5	11	32.4	10	29.4	15	44.1	7	20.6	4	11.8	6	17.6	2	5.9
	서구	73	34	46.6	13	17.8	12	16.4	23	31.5	28	38.4	14	19.2	10	13.7	10	13.7
	유성구	26	11	42.3	6	23.1	6	23.1	9	34.6	11	42.3	5	19.2	2	7.7	1	3.8
	대덕구	25	13	52.0	9	36.0	4	16.0	9	36.0	11	44.0	3	12.0	3	12.0	1	4.0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83	51.6	40	24.8	24	14.9	60	37.3	63	39.1	19	11.8	19	11.8	11	6.8
	한부모	31	8	25.8	10	32.3	6	19.4	14	45.2	8	25.8	7	22.6	4	12.9	4	12.9
	조손가정	13	3	23.1	3	23.1	4	30.8	3	23.1	6	46.2	4	30.8	2	15.4	-	-
	무응답	2	-	-	-	-	-	-	-	-	1	50.0	-	-	1	50.0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18	25.7	21	30.0	11	15.7	27	38.6	25	35.7	8	11.4	9	12.9	8	11.4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44	53.0	20	24.1	15	18.1	31	37.3	32	38.6	9	10.8	13	15.7	2	2.4
	600만원 이상	49	31	63.3	11	22.4	6	12.2	18	36.7	20	40.8	13	26.5	2	4.1	4	8.2
	무응답	5	1	20.0	1	20.0	2	40.0	1	20.0	1	20.0	-	-	2	40.0	1	20.0
시설유형	다함께돌봄센터	111	66	59.5	23	20.7	13	11.7	42	37.8	45	40.5	19	17.1	13	11.7	6	5.4
	지역아동센터	96	28	29.2	30	31.3	21	21.9	35	36.5	33	34.4	11	11.5	13	13.5	9	9.4

〈 표 3-2-57 〉 돌봄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_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5	7.2
인력 확충	2	1.0
간식 및 식사 제공	2	1.0
지역아동센터 확충	1	0.5
등하원 및 등하교서비스	1	0.5
방학기간 돌봄 서비스 제공	1	0.5
돌봄시설 쾌적성	1	0.5
차량 지원	1	0.5
무응답	6	2.9

7)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해결 방법으로는 ‘가족도움(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 연차 사용(19.3%)’, ‘재택근무 활용(15.9%)’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12명이 응답하여 가족돌봄휴가(13명, 6.3%)와 같은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손가정은 다른 가족 유형과 달리 가족의 도움을 받는 응답 비율(61.5%)이 가장 높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재택근무 활용(25.3%)’이 가장 많았고 ‘가족 도움’과 ‘개인연차 사용’ 둘다 24.1%로 이 방법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58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족도움 (조부모, 외조부모 등)		개인 연차 사용		재택근무 활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63	30.4	40	19.3	33	15.9	13	6.3	25	12.1	33	15.9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4	32.9	9	12.3	6	8.2	5	6.8	11	15.1	18	24.7
	맞벌이	130	36	27.7	31	23.8	27	20.8	7	5.4	14	10.8	15	11.5
	무응답	4	3	75.0	-	-	-	-	1	25.0	-	-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46	28.6	34	21.1	29	18.0	10	6.2	17	10.6	25	15.5
	한부모	31	8	25.8	6	19.4	3	9.7	2	6.5	6	19.4	6	19.4
	조손가정	13	8	61.5	-	-	1	7.7	-	-	2	15.4	2	15.4
	무응답	2	1	50.0	-	-	-	-	1	50.0	-	-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25	35.7	9	12.9	5	7.1	7	10.0	12	17.1	12	17.1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3	20	24.1	20	24.1	21	25.3	2	2.4	13	15.7	7	8.4
	600만원 이상	49	17	34.7	10	20.4	7	14.3	3	6.1	-	-	12	24.5
	무응답	5	1	20.0	1	20.0	-	-	1	20.0	-	-	2	40.0

〈 표 3-2-59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방법_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3	15.9
지역아동센터	12	5.8
육아휴직	4	1.9
가정 돌봄	4	1.9
퇴직/사직	1	0.5
별다른 돌봄없이 아이 스스로 집에서 생활함	1	0.5
없음	2	1.0
무응답	9	4.3

8)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 형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 형태로는 ‘가정 돌봄’이 72.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돌봄교실 등(19.3%)’, ‘기타(5.3%)’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기타 중 8명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응답하였다.

〈 표 3-2-60 〉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정 돌봄		공공서비스 돌봄교실 등		민간서비스 학원 등		돌봄공동체 품앗이 등		아이돌보미 베이비 시터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149	72.0	40	19.3	-	-	1	0.5	6	2.9	11	5.3
권역	동구	49	40	81.6	8	16.3	-	-	-	-	1	2.0	-	-
	중구	34	22	64.7	7	20.6	-	-	1	2.9	2	5.9	2	5.9
	서구	73	51	69.9	14	19.2	-	-	-	-	2	2.7	6	8.2
	유성구	26	18	69.2	4	15.4	-	-	-	-	1	3.8	3	11.5
	대덕구	25	18	72.0	7	28.0	-	-	-	-	-	-	-	-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122	75.8	28	17.4	-	-	-	-	3	1.9	8	5.0
	한부모	31	16	51.6	8	25.8	-	-	1	3.2	3	9.7	3	9.7
	조손가정	13	10	76.9	3	23.1	-	-	-	-	-	-	-	-
	무응답	2	1	50.0	1	50.0	-	-	-	-	-	-	-	-

9) 각 상황별 자녀 주양육자

각 상황별 자녀 주양육자로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부모(84.1%)’, ‘아이의 외조부모(5.8%)’,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기관(5.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의 부모(87.4%)’, ‘아이의 외조부모(4.3%)’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는 ‘아이의 부모(26.1%)’, ‘아이의 외조부모(21.3%)’, ‘아이의 친조부모(16.9%)’ 순으로 응답하여 주로 부모가 돌봄을 주도하지만, 부모가 못할 경우에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3-2-61 〉 각 상황별 자녀 주양육자

(단위: 명, %)

구분	긴급한 상황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207	100.0	207	100.0
아이의 부모	174	84.1	181	87.4	54	26.1
아이의 형제자매	1	0.5	4	1.9	9	4.3
아이의 친조부모	6	2.9	4	1.9	35	16.9
아이의 외조부모	12	5.8	9	4.3	44	21.3
친인척	-	-	1	0.5	14	6.8
이웃	-	-	-	-	8	3.9
아이돌보미	-	-	-	-	1	0.5
유료 돌봄 인력	-	-	-	-	-	-
도움받기 힘들	-	-	2	1.0	19	9.2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기관	11	5.3	3	1.4	17	8.2
돌봐주는 사람 없음	-	-	-	-	2	1.0
무응답	3	1.4	3	1.4	4	1.9

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 조손가정(23.1%)에서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 기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구의 경우 친외조부모 보다 돌봄기관(17.6%)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34.2%)가 가장 많은 반면, 맞벌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친조부모(23.8%)나 외조부모(23.1%)의 비율이 아이의 부모(20.8%)보다 높았다. 또한 약 10% 정도는 도움받기가 힘들(9.2%)과 돌봐주는 사람 없음(1.0%)이라 응답하여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플 때 돌봄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 연령 11세 이상(14.7%),

유성구(19.2%), 대덕구(12.0%), 외벌이 가정(16.4%), 아이가 1명인 가정(14.0%), 한부모 가정(12.9%), 그리고 조손가정(15.4%)에서 10% 이상 도움받기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62 〉 주양육자_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아이의 부모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의 친조부모		아이의 외조부모		친인척		이웃		아이 돌보미		도움받기 힘들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기관		돌봐주는 사람 없음		무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07	54	26.1	9	4.3	35	16.9	44	21.3	14	6.8	8	3.9	1	0.5	19	9.2	17	8.2	2	1.0	4	1.9
연령	8세 이하	111	25	22.5	4	3.6	22	19.8	28	25.2	4	3.6	5	4.5	-	-	11	9.9	9	8.1	1	0.9	2	1.8
	9~10세	62	18	29.0	2	3.2	12	19.4	13	22.6	6	9.7	2	3.2	1	1.6	3	4.8	2	3.2	-	-	2	3.2
	11세 이상	34	11	32.4	3	8.8	1	2.9	2	5.9	4	11.8	1	2.9	-	-	5	14.7	6	17.6	1	2.9	-	-
권역	동구	49	13	26.5	3	6.1	13	26.5	10	20.4	2	4.1	2	4.1	-	-	3	6.1	2	4.1	1	2.0	-	-
	중구	34	10	29.4	2	5.9	4	11.8	4	11.8	3	8.8	1	2.9	1	2.9	2	5.9	6	17.6	-	-	1	2.9
	서구	73	18	24.7	3	4.1	10	13.7	17	23.3	7	9.6	4	5.5	-	-	6	8.2	5	6.8	-	-	3	4.1
	유성구	26	3	11.5	1	3.8	5	19.2	8	30.8	1	3.8	1	3.8	-	-	5	19.2	2	7.7	-	-	-	-
	대덕구	25	10	40.0	-	-	3	12.0	5	20.0	1	4.0	-	-	-	-	3	12.0	2	8.0	1	4.0	-	-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	25	34.2	3	4.1	4	5.5	14	19.2	4	5.5	-	-	1	1.4	12	16.4	7	9.6	-	-	3	4.1
	맞벌이	130	27	20.8	6	4.6	31	23.8	30	23.1	10	7.7	8	6.2	-	-	7	5.4	9	6.9	1	0.8	1	0.8
	무응답	4	2	50.0	-	-	-	-	-	-	-	-	-	-	-	-	-	-	1	25.0	1	25.0	-	-
자녀 수	1명	50	9	18.0	-	-	8	16.0	11	22.0	4	8.0	4	8.0	-	-	7	14.0	5	10.0	1	2.0	1	2.0
	2명	113	39	34.5	2	1.8	19	16.8	22	19.5	7	6.2	4	3.5	1	0.9	9	8.0	7	6.2	1	0.9	2	1.8
	3명 이상	44	6	13.6	7	15.9	8	18.2	11	25.0	3	6.8	-	-	-	-	3	6.8	5	11.4	-	-	1	2.3
가족 유형	부모+자녀	161	40	24.8	6	3.7	32	19.9	36	22.4	11	6.8	8	5.0	-	-	13	8.1	10	6.2	2	1.2	3	1.9
	한부모	31	11	35.5	2	6.5	1	3.2	5	16.1	2	6.5	-	-	1	3.2	4	12.9	4	12.9	-	-	1	3.2
	조손가정	13	2	15.4	1	7.7	2	15.4	2	15.4	1	7.7	-	-	-	-	2	15.4	3	23.1	-	-	-	-
	무응답	2	1	50.0	-	-	-	-	1	50.0	-	-	-	-	-	-	-	-	-	-	-	-	-	-

10)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으로 ‘전문인력 필요(7명)’, ‘돌봄 이용시간 확대(5명)’, ‘대상자 확대(4명)’, ‘인력 확충(4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4명)’,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3명)’, ‘차량지원(3명)’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 3-2-63 〉 대전광역시사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전문인력 필요	7	3.4
돌봄 이용시간 확대	5	2.4
없음	5	2.4
대상자 확대	4	1.9
인력 확충	4	1.9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1.9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3	1.4
차량 지원	3	1.4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2	1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2	1
돌봄 센터 이용료 지원해줬으면	2	1
정원인원 수 확대	1	0.5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1	0.5
선생님 한 명 당 이용아동 수 축소	1	0.5
신청기간을 상시로 변경해 줬으면	1	0.5
방학기간에도 돌봄 서비스제공	1	0.5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1	0.5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 제공	1	0.5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서비스 제공	1	0.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확대	1	0.5
형제자매와 연령이 달라도 같은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1	0.5
방학기간 식사 제공	1	0.5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으면	1	0.5
아이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도 해줬으면	1	0.5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1	0.5
프로그램 지원	1	0.5
프로그램 질적 향상	1	0.5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	0.5
체험학습과 연계했으면	1	0.5
학교근거리에 문화공간 설치	1	0.5
학년별 학습지를 지원해 줬으면	1	0.5
다양한 놀이용품이 구비되어 있었으면	1	0.5
안전한 시설 제공	1	0.5
놀이시설 확충	1	0.5
쾌적한 환경 제공	1	0.5

〈 표 3-2-63 〉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아동센터가 1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면	1	0.5
장애아동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1	0.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1	0.5
셔틀버스 운영	1	0.5
아이들이 방과후 자유롭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마련	1	0.5
학교근거리에 충분한 돌봄 공간 설치	1	0.5
교육비 지원바람	1	0.5
간식비 지원해줬으면	1	0.5
한부모 아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1	0.5
모든 초등학생 지원해 줬으면	1	0.5
아파트 내 돌봄 센터 지원 확대	1	0.5
모름/무응답	131	63.3

6. 다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응답자 163명 중 157명이 다음과 같이 다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1) 자녀 수

응답자의 자녀 수는 ‘2명(72.0%)’, ‘3명(23.6%)’, ‘4명(4.5%)’의 순이었다.

〈 표 3-2-64 〉 자녀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2명	113	72.0
3명	37	23.6
4명	7	4.5
합계	157	100.0

2) 자녀 연령

자녀 연령은 첫째의 경우 평균 11.5세, 둘째는 평균 8.6세, 셋째는 평균 7.4세, 넷째는 평균 8.0세로 나타났다. 첫째에서는 28.7%, 둘째에서는 9.5%, 셋째에서는 6.8%가 13세 이상이다.

〈 표 3-2-65 〉 자녀 연령_평균

(단위: 명, 세)

구분	빈도	평균연령	표준편차
첫째	157	11.5	4.0
둘째	157	8.6	3.7
셋째	44	7.4	3.9
넷째	7	8.0	2.9

3)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상황

앞선 조사의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도 주로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선 조사의 해당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하여 해당이 없거나, 첫째나 둘째의 경우 연령이 높아서 해당이 없거나, 아니면, 셋째, 넷째의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무응답의 비율이 높다.

〈 표 3-2-66 〉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상황_주 이용 돌봄 기관

(단위: 명, %)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100.0	157	100.0	44	100.0	7	100.0
어린이집	-	-	14	8.9	8	18.2	2	28.6
유치원	-	-	11	7.0	4	9.1	-	-
아이돌봄 서비스	1	0.6	1	0.6	3	6.8	-	-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	75	47.8	75	47.8	17	38.6	4	57.1
초등돌봄교실	1	0.6	2	1.3	-	-	-	-
방과후 학교/교실	3	1.9	1	0.6	-	-	-	-
방과후 아카데미	-	-	-	-	-	-	-	-
공동육아나눔터	-	-	-	-	-	-	-	-
학원	13	8.3	1	0.6	1	2.3	-	-
무응답	64	40.8	52	33.1	11	25.0	-	-

〈 표 3-2-67 〉 방과후 돌봄 이용 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상황_돌보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100.0	157	100.0	44	100.0	7	100.0
아이의 아버지	1	0.6	9	4.3	4	9.1	1	14.3
아이의 어머니	18	11.5	22	10.6	4	9.1	-	-
아이의 친조부모	3	1.9	1	0.5	-	-	-	-
아이의 외조부모	-	-	2	1.0	-	-	-	-
친인척	-	-	-	-	-	-	-	-
이웃	-	-	-	-	-	-	-	-
아이돌보미	-	-	2	1.0	2	4.5	-	-
베이비시터	-	-	-	-	-	-	-	-
가사도우미	-	-	-	-	-	-	-	-
아이혼자	10	6.4	5	2.4	-	-	-	-
기타(무응답)	125	79.6	116	56.0	34	77.3	6	85.7

4)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초등자녀와 미취학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이용해야 한다(5명)’, ‘미취학 자녀도 돌봄 센터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3명)’, ‘양육자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육공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2명)’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 3-2-68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57	100.0
초등자녀와 미취학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이용해야 한다.	5	3.2
돌봄 기관 휴일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여의치 않다	5	3.2
미취학 자녀도 돌봄 센터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3	1.9
부모 또는 아이가 아플 시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3	1.9
양육자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육 공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2	1.3
영유아 픽업서비스 제공해 줬으면	2	1.3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 맡아줄 사람이 없다	1	0.6
하교 시 성인이 데리러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	0.6
방학기간 때 미취학 자녀는 맡아줄 사람이 없다	1	0.6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선생님 구하기가 어렵다	1	0.6

〈 표 3-2-68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만 3세 이상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1	0.6
고학년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1	0.6
형제자매가 서로 일정이 다를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1	0.6
하교 후 방과후 수업시간과의 텅으로 인해 요일 별로 시간 쟁겨 보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1	0.6
고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1	0.6
간식 및 식사제공이 안될 때 챙겨주기 어렵다	1	0.6
인력이 부족하다	1	0.6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했으면	1	0.6
서비스 신청기간을 상시로 변경해 줬으면	1	0.6
주말에 운영하는 돌봄 기관이 없다	1	0.6
집과 센터와의 거리가 멀다	1	0.6
센터 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다	1	0.6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면	1	0.6
돌봄 기관 확충	1	0.6
없음	14	8.9
무응답	112	71.3

7.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전문인력(인력) 확충(4명)’, ‘인력확충(3명)’,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게 해줬으면(3명)’, ‘안전한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뤄졌으면(2명)’, ‘보호자 없이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이 있었으면(2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 표 3-2-69 〉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07	100.0
전문인력 확충	4	1.9
인력 확충	3	1.4
공휴일에도 이용가능하게 해줬으면	3	1.4
안전한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2	1
보호자 없이 이용가능한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2	1
프로그램 질적 향상	1	0.5
간식 및 식사 제공	1	0.5

〈 표 3-2-69 〉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하교 및 하원 시 돌봄기관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 제공했으면	1	0.5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1	0.5
시간상관없이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이 있었으면	1	0.5
공부는 학원에 맡기고 돌봄센터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1	0.5
돌봄시설 확충했으면	1	0.5
방학기간 중 이용시간 확대	1	0.5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1	0.5
학교 근거리에 문화공간이 있었으면	1	0.5
돌봄기관 확충보다 현재 있는 기관 지원해줬으면	1	0.5
아파트내 돌봄교실 확대	1	0.5
돌봄시간 연장	1	0.5
워킹맘 돌봄휴가 연장	1	0.5
방학 축소	1	0.5
없음	1	0.5
무응답	177	85.5

제3절 소결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0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91.8%가 위의 두 기관 중의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과후 돌봄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5점 만점에서 모두 4.0점을 웃돌 정도이며 불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나온 항목은 ‘물리적 환경(1.4%)’ 정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매우 높은 만족도는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와 만족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부모는 아동돌봄에서 아동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선생님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돌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 순으로 응답하였고, 돌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질문 중 만족도가 높은 항목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생의 자질과 전문성’, ‘활동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이었으며, 그에 비해 ‘전담 선생님 대비 아동수’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 ‘선생님 처우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만족도나 개선점의 의견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개선을 바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선 외 ‘선생님의 처우 향상’과 ‘특별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가 10%이 높게 나온 점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는 ‘간식의 질’에서 지역아동센터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온 점 등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기도 하지만, 기관별로도 개선해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돌봄현황 및 욕구는 다음과 같다. 등하교시 아동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등하교시키기는 보호자로는 기타, 즉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등하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등하교시의 아동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교 후에 부모 귀가시까지 자녀의 돌봄방법 중 돌봄기관 이용이 44.4%로 돌봄시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돌봄의 어려움과 관련한 현황과 욕구는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볼 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반면,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약 50% 이상이 잘 모르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고학년의 돌봄이 가능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보공유 등이 가능한 돌봄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44.4%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는 것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담당 기관이나 부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인지, 돌봄공백이 있다는 응답률은 18.4%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돌봄기관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공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이다. 이들의 욕구는 방학 기간이나 아플 때, 야근 등 비정기적인 돌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다. 가장 많이 선호하고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는 학습, 간식, 체험학습 등 앞서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나, 만족도에서 나오는 응답과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경험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보통이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 정도인데, 특히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돌봄의 정보 습득 순으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시간과 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데,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항목이 여럿 있었다.

다양한 돌봄공백 상황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볼 때, 방학 중에 자녀를 맡길 곳, 긴급한 상황에서 맡길 곳이 없는 것 등 앞서 돌봄 공백이 있다고 하는 가정의 어려움과 유사하였다. 돌봄공백 상황에서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 여러 항목에서 외벌이 가정보다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결과를 보였다.

휴직 또는 사직 경험에서는 아이 양육으로 휴직 중이거나 휴직 및 사직 계획은 90% 이상 해당 사항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아이 양육으로 휴직 사용이나 사직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그 사직을 한 부모 중 어머니의 그렇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육아휴직 23.7%, 사직 34.3%). 이는 돌봄기관 외 시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대전광역시의 돌봄 서비스 개선사항과 관련된 현황과 욕구는 다음과 같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하며, 도로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앞서 다른 항목에서 응답한 것과 일관성이 있다. 즉,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곳이 안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수 도보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돌봄공간으로 주거지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학교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건물도 응답한 것으로 보아 믿을수 있고 안전한 공간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돌봄공간에서 희망하는 것은 아동들이 다수 등하교를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등하원/등하교 서비스 지원을 다수 희망함을 밝혔다.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돌봄시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꼽았는데, 이는 돌봄공간을 주거지역이나 학교를 선호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 외 프로그램과 돌봄인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에서도 질적인 향상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욕구에서 다자녀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두 곳 이상 분리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현황과 욕구를 조사한 결과, 현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을 경험하며, 자녀양육이나 돌봄공백 상황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인 욕구도 있지만, 응답자 특성이나 시설유형에 따른 다른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 개선을 할 필요성을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제4장

노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노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전광역시 내의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긴급돌봄 및 장기요양 대상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그리고 그 외 필요대상자)을 기준으로 한다. 자치구별로 약 100명씩 총 496명을 선정하여 <표 4-1-1>과 같이 조사하였다.

< 표 4-1-1 > 조사 대상

자치구	대상자 구분				조사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긴급돌봄 및 장기요양 대상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기타 필요대상자 (자치구 등)	
동구	8명	9명	74명	9명	100명
중구	-	5명	89명	2명	96명
서구	1명	12명	87명	-	100명
유성구	4명	35명	31명	30명	100명
대덕구	16명	11명	73명	-	100명
총합계	29명	72명	354명	41명	496명

2) 자료수집방법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 전문 면접조사원이 1:1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하여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방역을 철저히 한 후 방문을 하고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은 응답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답하였다. 조사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조사 항목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설문 누락 등 확인하여 응답시설에 설문 보완을 요청하고, 데이터 정제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원인 규명 및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검증이 모두 완료된 설문지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여 496명 중 80.8%의 응답률로 총 4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조사 분석

최종 검증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ANOVA 분석 및 t-검증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노인의 돌봄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표 <4-1-2>와 같다.

〈 표 4-1-2 〉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A.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나이, 장애여부, 종교, 주거형태, 과거의 직업, 배우자 유무, 주거상태
B. 일상생활	-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식사준비, 영양관리, 생활비, 주된 활동 - 생활 속 어려움 정도(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 등)
C. 건강관리	- 일상생활 불편 정도(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동하는 것 등) -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부분 -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D. 사회적 관계: 가족 및 이웃관계	- 자녀 수, 자녀와의 연락 빈도 - 가족 또는 이웃과의 대화 정도 - 이웃과의 관계
E. 돌봄 서비스 현황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 지역사회 도움 신청 경로 인지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한 이유 -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경로식당 또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주관식)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 기타 필요한 내용(주관식)
F.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주관식) - 지난 1년간 진료 여부,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도움받는 대상, 도움받는 유형, 돌봄 충분성, 도움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신청 안 한 이유 - 건강 행태(음주, 운동, 식사, 건강검진, 사교활동 등)
G. 대전시의 노인관련 서비스	-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충분한 환경 제공,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받는 사항 - 월 평균 가구 수입 - 지출 항목 순위 - 통합돌봄 필요 서비스(주관식)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400명의 특성은 표 <4-2-1>과 같다. 응답자 중 73.5%가 여성이며, 연령별로 중기(75세-84세) 노인이 58.8%로 절반 이상이다. 18.5%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93.8%이며, 독거노인이 89.5%로 대전광역시 전체 독거노인의 비율보다 매우 높은 편이지만, 조사 대상자의 96.0%가 정부지원을 받고 현재 돌봄 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과거 직업은 41.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25.5%), 일용직(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4-2-1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N	%
합계		400	100.0
성별	남자	106	26.5%
	여자	294	73.5%
나이	전기 (74세 이하)	66	16.5%
	중기 (75-84세 이하)	235	58.8%
	후기 (85세 이상)	99	24.8%
장애유무	있음	74	18.5%
	없음	326	81.5%
권역	동구	88	22.0%
	중구	79	19.8%
	서구	78	19.5%
	유성구	76	19.0%
	대덕구	79	19.8%
종교	없음	186	46.5%
	불교	100	25.0%
	개신교	83	20.8%
	천주교	30	7.5%
	기타	1	0.3%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17.8%
	다세대/빌라	124	31.0%
	아파트	203	50.8%
	기타	2	0.5%

〈 표 4-2-1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N	%
과거의 직업	농업	13	3.3%
	공무원	7	1.8%
	회사원	42	10.5%
	자영업	102	25.5%
	교사	3	0.8%
	일용직	59	14.8%
	없음	167	41.8%
	기타	7	1.8%
배우자 유무	있음	25	6.3%
	없음	375	93.8%
주거상태	자가	129	32.3%
	전세	49	12.3%
	월세	169	42.3%
	무료	53	13.3%
독거여부	독거	358	89.5%
	비독거	42	10.5%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31.5%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63.0%
	100만원 이상	22	5.5%
정부지원	있음	384	96.0%
	없음	16	4.0%
장기요양등급여부	있음	74	18.5%
	없음	326	81.5%

권역별 응답자의 특성은 <표 4-2-2>와 같고 권역별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덕구에 후기 노인(85세 이상)의 비율이 타구와 달리 17.7%의 분포를 보였고, 유성구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대전광역시 내의 권역 중 높고, 장기요양등급 판정도 35.5%가 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46.5%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권역별로 볼 때, 중구(35.4%)와 서구(41.0%)에서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 수준보다 낮았다. 주거형태에서 전체적으로 50.8% 아파트에 산다고 응답한 반면, 중구 거주 응답자의 46.8%가 다세대/빌라에 산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의 직업에서 동구, 중구, 서구 응답자의 50% 이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유성구(22.4%), 대덕구(19.0%)의 응답자 중 없다는 비율이 낮은 대신 자영업(각 39.5%, 39.2%)을 많이 응답하였다. 주거상태는 유성구의 응답자의 71.1%가 월세로 산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2 〉 권역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88	22.0	79	19.8	78	19.5	76	19.0	79	19.8
성별	남자	106	19	21.6	20	25.3	20	25.6	22	28.9	25	31.6
	여자	294	69	78.4	59	74.7	58	74.4	54	71.1	54	68.4
나이	전기	66	11	12.5	9	15.4	12	21.1	16	21.1	18	22.8
	중기	235	52	59.1	53	55.1	43	52.6	40	52.6	47	59.5
	후기	99	25	28.4	17	29.5	23	26.3	20	26.3	14	17.7
장애유무	있음	74	9	10.2	4	5.1	9	11.5	36	47.4	16	20.3
	없음	326	79	89.8	75	94.9	69	88.5	40	52.6	63	79.7
종교	없음	186	43	48.9	28	35.4	32	41.0	41	53.9	42	53.2
	불교	100	20	22.7	37	46.8	19	24.4	11	14.5	13	16.5
	개신교	83	16	18.2	13	16.5	17	21.8	20	26.3	17	21.5
	천주교	30	9	10.2	1	1.3	9	11.5	4	5.3	7	8.9
	기타	1	-	-	-	-	1	1.3	-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21	23.9	21	26.6	8	10.3	6	7.9	15	19.0
	다세대/빌라	124	22	25.0	37	46.8	19	24.4	28	36.8	18	22.8
	아파트	203	45	51.1	21	26.6	51	65.4	40	52.6	46	58.2
	기타	2	-	-	-	-	-	-	2	2.6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2	2.3	2	2.5	6	7.7	3	3.9	-	-
	공무원	7	-	-	-	-	4	5.1	1	1.3	2	2.5
	회사원	42	4	4.5	7	8.9	7	9.0	10	13.2	14	17.7
	자영업	102	16	18.2	20	25.3	5	6.4	30	39.5	31	39.2
	교사	3	-	-	2	2.5	-	-	1	1.3	-	-
	일용직	59	16	18.2	3	3.8	10	12.8	13	17.1	17	21.5
	없음	167	47	53.4	44	55.7	44	56.4	17	22.4	15	19.0
	기타	7	3	3.4	1	1.3	2	2.6	1	1.3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3	3.4	3	3.8	5	6.4	9	11.8	5	6.3
	없음	375	85	96.6	76	96.2	73	93.6	67	88.2	74	93.7
주거상태	자가	129	37	42.0	35	44.3	29	37.2	1	1.3	27	34.2
	전세	49	12	13.6	6	7.6	11	14.1	12	15.8	8	10.1
	월세	169	26	29.5	31	39.2	32	41.0	54	71.1	26	32.9
	무료	53	13	14.8	7	8.9	6	7.7	9	11.8	18	22.8
독거여부	독거	358	80	90.9	76	96.2	70	89.7	63	82.9	69	87.3
	비독거	42	8	9.1	3	3.8	8	10.3	13	17.1	10	12.7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22	25.0	26	32.9	6	7.7	26	34.2	46	58.2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62	70.5	52	65.8	62	79.5	46	60.5	30	38.0
	100만원 이상	22	4	4.5	1	1.3	10	12.8	4	5.3	3	3.8
정부지원	있음	384	86	97.7	72	91.1	77	98.7	76	100.0	73	92.4
	없음	16	2	2.3	7	8.9	1	1.3	-	-	6	7.6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9	10.2	9	11.4	15	19.2	27	35.5	14	17.7
	없음	326	79	89.8	70	88.6	63	80.8	49	64.5	65	82.3

2. 일상생활

1) 식사준비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식사준비는 주로 본인 스스로 한다(80.8%)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3.0%가 여성이며, 84.1%가 혼자 살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이다. 물론 복지관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주로 누가 하는가의 질문이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응답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장애가 있으면 스스로의 비율(40.5%)보다 기타(41.9%)의 비율이 높았고, <표 4-2-4>의 기타 내용에 주로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로 응답하여 주로 돌봄 종사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유성구의 응답자 중 50.0%만이 스스로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기타(32.9%)로 유성구에 장애가 있는 응답률이 타구에 비해 높은 것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다.

< 표 4-2-3 > 식사준비 주로 준비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배우자		자녀		복지관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23	80.8	12	3.0	10	2.5	10	2.5	45	11.3
성별	남자	106	79	74.5	9	8.5	1	0.9	2	1.9	15	14.2
	여자	294	244	83.0	3	1.0	9	3.1	8	2.7	30	10.2
나이	전기	66	48	72.7	4	6.1	-	-	2	3.0	12	18.2
	중기	235	197	83.8	7	3.0	4	1.7	6	2.6	21	8.9
	후기	99	78	78.8	1	1.0	6	6.1	2	2.0	12	12.1
장애유무	있음	74	30	40.5	8	10.8	4	5.4	1	1.4	31	41.9
	없음	326	293	89.9	4	1.2	6	1.8	9	2.8	14	4.3
권역	동구	88	82	93.2	-	-	1	1.1	-	-	5	5.7
	중구	79	75	94.9	-	-	-	-	-	-	4	5.1
	서구	78	70	89.7	-	-	2	2.6	1	1.3	5	6.4
	유성구	76	38	50.0	8	10.5	3	3.9	2	2.6	25	32.9
	대덕구	79	58	73.4	4	5.1	4	5.1	7	8.9	6	7.6
종교	없음	186	150	80.6	4	2.2	6	3.2	7	3.8	19	10.2
	불교	100	90	90.0	1	1.0	1	1.0	-	-	8	8.0
	개신교	83	60	72.3	5	6.0	2	2.4	2	2.4	14	16.9
	천주교	30	22	73.3	2	6.7	1	3.3	1	3.3	4	13.3
	기타	1	1	100.0	-	-	-	-	-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65	91.5	-	-	2	2.8	-	-	4	5.6
	다세대/빌라	124	102	82.3	3	2.4	3	2.4	-	-	16	12.9
	아파트	203	155	76.4	9	4.4	5	2.5	10	4.9	24	11.8
	기타	2	1	50.0	-	-	-	-	-	-	1	50.0

〈 표 4-2-3 〉 식사준비 주로 준비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배우자		자녀		복지관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거의 직업	농업	13	12	92.3	-	-	-	-	-	-	1	7.7
	공무원	7	7	100.0	-	-	-	-	-	-	-	-
	회사원	42	32	76.2	2	4.8	-	-	5	11.9	3	7.1
	자영업	102	70	68.6	7	6.9	4	3.9	2	2.0	19	18.6
	교사	3	1	33.3	1	33.3	-	-	-	-	1	33.3
	일용직	59	49	83.1	2	3.4	2	3.4	1	1.7	5	8.5
	없음	167	146	87.4	-	-	4	2.4	2	1.2	15	9.0
	기타	7	6	85.7	-	-	-	-	-	-	1	14.3
배우자 유무	있음	25	10	40.0	12	48.0	1	4.0	-	-	2	8.0
	없음	375	313	83.5	-	-	9	2.4	10	2.7	43	11.5
주거상태	자가	129	120	93.0	2	1.6	1	0.8	1	0.8	5	3.9
	전세	49	40	81.6	2	4.1	1	2.0	1	2.0	5	10.2
	월세	169	121	71.6	7	4.1	6	3.6	3	1.8	32	18.9
	무료	53	42	79.2	1	1.9	2	3.8	5	9.4	3	5.7
독거여부	독거	358	301	84.1	-	-	7	2.0	10	2.8	40	11.2
	비독거	42	22	52.4	12	28.6	3	7.1	-	-	5	11.9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02	81.0	3	2.4	6	4.8	6	4.8	9	7.1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203	80.6	7	2.8	3	1.2	4	1.6	35	13.9
	100만원 이상	22	18	81.8	2	9.1	1	4.5	-	-	1	4.5
정부지원	있음	384	310	80.7	10	2.6	9	2.3	10	2.6	45	11.7
	없음	16	13	81.3	2	12.5	1	6.3	-	-	-	-

〈 표 4-2-4 〉 식사준비 주로 준비하는 사람_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5	11.3
요양보호사	37	9.3
활동지원사	5	1.3
이웃	1	0.3
생활지원사	1	0.3
경로당	1	0.3

2) 영양관리 방법

노인의 영양관리 방법은 복수응답으로 응답하여 ‘병원에서 준 치료약만 먹는다(51.3%)’와 ‘식사를 통해 섭취하려고 하고 있다(43.8%)’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16.5%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자노인은 23.6%, 그리고 중구의 34.2%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편, 정부지원을 받지 않거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없어 영양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5 〉 영양관리 방법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병원에서 준 치료약만 먹는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려고 하고 있다		거의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81	20.3	205	51.3	175	43.8	66	16.5	9	2.3
성별	남자	106	11	10.4	50	47.2	44	41.5	25	23.6	3	2.8
	여자	294	70	23.8	155	52.7	131	44.6	41	13.9	6	2.0
권역	동구	88	21	23.9	53	60.2	59	67.0	5	5.7	-	-
	중구	79	12	15.2	30	38.0	19	24.1	27	34.2	1	1.3
	서구	78	24	30.8	53	67.9	22	28.2	14	17.9	4	5.1
	유성구	76	9	11.8	36	47.4	29	38.2	15	19.7	1	1.3
	대덕구	79	15	19.0	33	41.8	46	58.2	5	6.3	3	3.8
종교	없음	186	28	15.1	81	43.5	92	49.5	26	14.0	7	3.8
	불교	100	22	22.0	55	55.0	41	41.0	23	23.0	1	1.0
	개신교	83	19	22.9	51	61.4	32	38.6	13	15.7	1	1.2
	천주교	30	11	36.7	18	60.0	10	33.3	4	13.3	-	-
	기타	1	1	100.0	-	-	-	-	-	-	-	-
주거상태	자가	129	34	26.4	66	51.2	65	50.4	19	14.7	2	1.6
	전세	49	12	24.5	28	57.1	25	51.0	3	6.1	5	10.2
	월세	169	22	13.0	91	53.8	54	32.0	37	21.9	2	1.2
	무료	53	13	24.5	20	37.7	31	58.5	7	13.2	-	-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6	12.7	56	44.4	69	54.8	16	12.7	3	2.4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53	21.0	136	54.0	99	39.3	50	19.8	6	2.4
	100만원 이상	22	12	54.5	13	59.1	7	31.8	-	-	-	-
정부지원	있음	384	73	19.0	196	51.0	168	43.8	66	17.2	9	2.3
	없음	16	8	50.0	9	56.3	7	43.8	-	-	-	-

3) 생활비 마련 방법

생활비의 주된 마련방법은 대부분 정부지원금(73.5%)이다. 두 번째로는 11.5%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세 번째로는 정부지원 일자리(7.3%)라고 응답하였다. 주거상태가 자가일 경우, 정부지원금의 응답률을 56.6%이며 같은 맥락에서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일 때 50.0%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6 〉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해서		퇴직금, 연금		정부지원금		자녀의 도움		이자 및 임대수입		정부지원 일자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0	2.5	17	4.3	294	73.5	46	11.5	1	0.3	29	7.3	3	0.8
권역	동구	88	3	3.4	-	-	63	71.6	11	12.5	-	-	10	11.4	1	1.1
	중구	79	1	1.3	7	8.9	49	62.0	11	13.9	-	-	10	12.7	1	1.3
	서구	78	1	1.3	2	2.6	63	80.8	12	15.4	-	-	-	-	-	-
	유성구	76	1	1.3	1	1.3	66	86.8	6	7.9	-	-	1	1.3	1	1.3
	대덕구	79	4	5.1	7	8.9	53	67.1	6	7.6	1	1.3	8	10.1	-	-
주거상태	자가	129	5	3.9	10	7.8	73	56.6	22	17.1	1	0.8	16	12.4	2	1.6
	전세	49	1	2.0	-	-	36	73.5	7	14.3	-	-	5	10.2	-	-
	월세	169	1	0.6	2	1.2	149	88.2	11	6.5	-	-	5	3.0	1	0.6
	무료	53	3	5.7	5	9.4	36	67.9	6	11.3	-	-	3	5.7	-	-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5	4.0	9	7.1	80	63.5	15	11.9	-	-	16	12.7	1	0.8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4	1.6	5	2.0	203	80.6	25	9.9	-	-	13	5.2	2	0.8
	100만원 이상	22	1	4.5	3	13.6	11	50.0	6	27.3	1	4.5	-	-	-	-
정부지원	있음	384	9	2.3	10	2.6	294	76.6	40	10.4	1	0.3	28	7.3	2	0.5
	없음	16	1	6.3	7	43.8	-	-	6	37.5	-	-	1	6.3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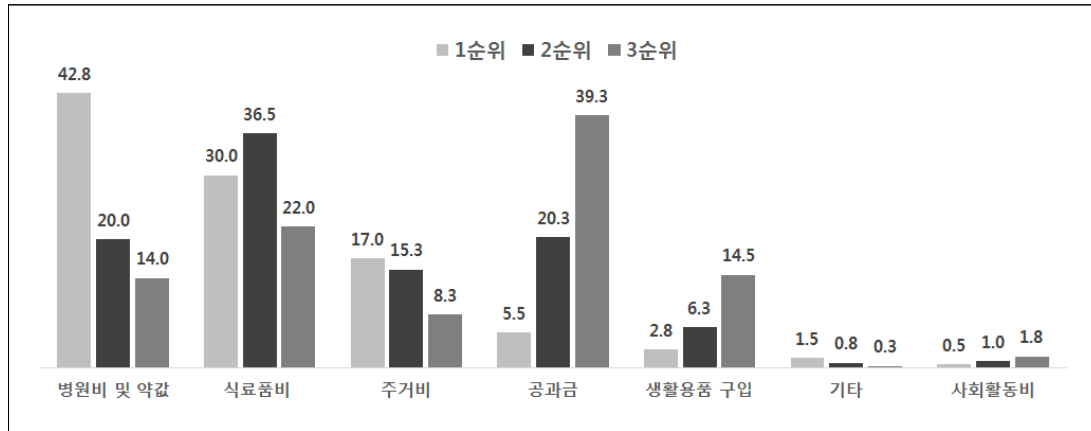
4) 지출 항목 순위

노인의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을 순위로 기입해 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병원비 및 약값(42.8%)’이며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식료품비(36.5%)’이고, 3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전화요금, 전기세 등과 같은 공과금(39.3%)’이다.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식료품비(30.0%)’이며, 2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공과금(20.3%)’과 ‘병원비 및 약값(20.0%)’, 그리고 3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식료품비(22.0%)’로 전반적으로 ‘병원비 및 약값’, ‘식료품비’, 그리고 ‘공과금’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1 〉 지출 항목 순위

(단위: %)



〈 표 4-2-7 〉 지출 항목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병원비 및 약값	171	42.8	80	20.0	56	14.0
식료품비	120	30.0	146	36.5	88	22.0
주거비(월세, 주택대출 등)	68	17.0	61	15.3	33	8.3
공과금(전화요금, 전기세 등)	22	5.5	81	20.3	157	39.3
생활용품 구입	11	2.8	25	6.3	58	14.5
기타	6	1.5	3	0.8	1	0.3
사회활동비(모임회비 등)	2	0.5	4	1.0	7	1.8

응답자별 특성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병원비 및 약값’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고, 월세 거주 노인의 ‘주거비’ 비중이 다른 주거형태 보다 높았다. 서구 거주 노인의 ‘병원비 및 약값’의 비중이 73.1%로 매우 높았고,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주거비’의 비중이 36.5%로 ‘병원비 및 약값(28.4%)’보다 비중이 높았다.

〈 표 4-2-8 〉 지출 항목 순위_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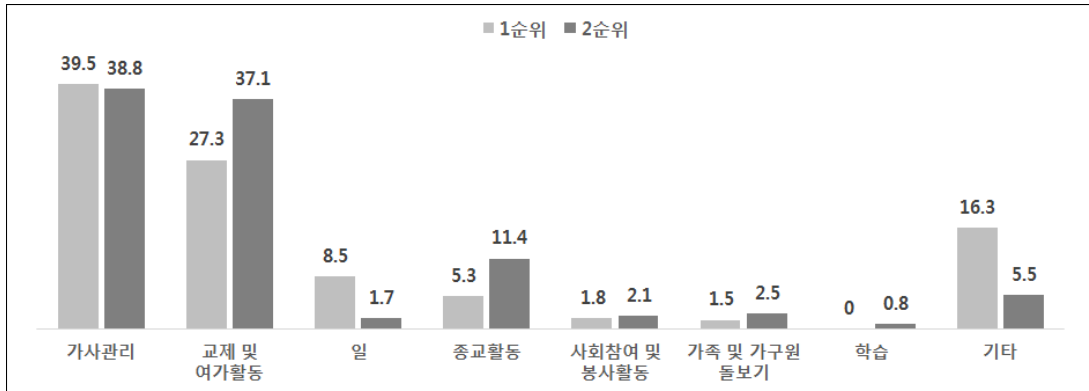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식료품비		공과금		주거비		병원비 및 약값		생활용품 구입		사회 활동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20	30.0	22	5.5	68	17.0	171	42.8	11	2.8	2	0.5	6	1.5
나이	전기	66	18	27.3	1	1.5	17	25.8	25	37.9	1	1.5	1	1.5	3	4.5
	중기	235	72	30.6	14	6.0	45	19.1	95	40.4	6	2.6	1	0.4	2	0.9
	후기	99	30	30.3	7	7.1	6	6.1	51	51.5	4	4.0	-	-	1	1.0
장애유무	있음	74	17	23.0	6	8.1	27	36.5	21	28.4	-	-	-	-	3	4.1
	없음	326	103	31.6	16	4.9	41	12.6	150	46.0	11	3.4	2	0.6	3	0.9
권역	동구	88	27	30.7	1	1.1	14	15.9	42	47.7	-	-	1	1.1	3	3.4
	중구	79	36	45.6	1	1.3	2	2.5	37	46.8	3	3.8	-	-	-	-
	서구	78	11	14.1	3	3.8	6	7.7	57	73.1	-	-	1	1.3	-	-
	유성구	76	22	28.9	9	11.8	25	32.9	16	21.1	3	3.9	-	-	1	1.3
	대덕구	79	24	30.4	8	10.1	21	26.6	19	24.1	5	6.3	-	-	2	2.5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19	26.8	6	8.5	4	5.6	33	46.5	4	5.6	1	1.4	4	5.6
	다세대/빌라	124	41	33.1	9	7.3	16	12.9	53	42.7	4	3.2	-	-	1	0.8
	아파트	203	59	29.1	6	3.0	48	23.6	85	41.9	3	1.5	1	0.5	1	0.5
	기타	2	1	50.0	1	50.0	-	-	-	-	-	-	-	-	-	-
주거상태	자가	129	41	31.8	7	5.4	8	6.2	66	51.2	4	3.1	-	-	3	2.3
	전세	49	12	24.5	3	6.1	3	6.1	27	55.1	2	4.1	1	2.0	1	2.0
	월세	169	50	29.6	7	4.1	47	27.8	58	34.3	4	2.4	1	0.6	2	1.2
	무료	53	17	32.1	5	9.4	10	18.9	20	37.7	1	1.9	-	-	-	-
	50만원 미만	126	32	25.4	9	7.1	23	18.3	52	41.3	8	6.3	-	-	2	1.6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78	31.0	13	5.2	43	17.1	110	43.7	3	1.2	1	0.4	4	1.6
	100만원 이상	22	10	45.5	-	-	2	9.1	9	40.9	-	-	1	4.5	-	-

5) 주된 활동

주요하는 활동으로는 1순위로 꼽은 것은 ‘가사관리(39.5%)’, ‘교제 및 여가활동(27.3%)’ 순이며, 2순위로 꼽은 것 역시 ‘가사관리(38.8%)’, ‘교제 및 여가활동(37.1%)’ 순으로 꼽았다. 1순위와 2순위 통틀어 78건의 기타 응답은 없다(56건)와 운동(걷기 등, 22건)이 있었다.

〈 그림 4-2-2 〉 주된 활동

(단위: %)



〈 표 4-2-9 〉 주된 활동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사관리	158	39.5	92	38.8
교제 및 여가활동	109	27.3	88	37.1
일	34	8.5	4	1.7
종교활동	21	5.3	27	11.4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7	1.8	5	2.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6	1.5	6	2.5
학습	-	-	2	0.8
기타	65	16.3	13	5.5

〈 표 4-2-10 〉 주된 활동_기타 내용(1+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8	19.5
없다	56	14.0
운동(걷기 등)	22	5.5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서구에서는 62.8%가 가사관리를 주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의 노인의 68.2%가 가사관리를 주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을 경우, 기타의 응답률이 45.9%로 높은 편인데, 앞서 기타의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하는 활동이 없거나 걷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표 4-2-11 〉 주된 활동_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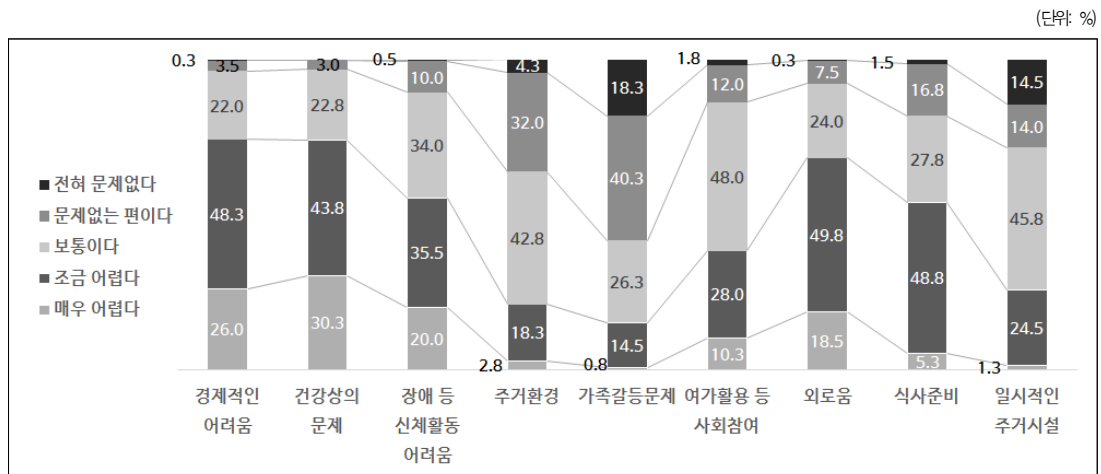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교제 및 여가활동		학습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사관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4	8.5	6	1.5	109	27.3	-	-	7	1.8	21	5.3	158	39.5	65	16.3
장애 유무	있음	74	6	8.1	1	1.4	6	8.1	-	-	1	1.4	10	13.5	16	21.6	34	45.9
	없음	326	28	8.6	5	1.5	103	31.6	-	-	6	1.8	11	3.4	142	43.6	31	9.5
권역	동구	88	10	11.4	-	-	38	43.2	-	-	1	1.1	1	1.1	28	31.8	10	11.4
	중구	79	7	8.9	5	6.3	31	39.2	-	-	6	7.6	2	2.5	23	29.1	5	6.3
	서구	78	2	2.6	1	1.3	4	5.1	-	-	-	-	7	9.0	49	62.8	15	19.2
	유성구	76	6	7.9	-	-	16	21.1	-	-	-	-	6	7.9	20	26.3	28	36.8
	대덕구	79	9	11.4	-	-	20	25.3	-	-	-	-	5	6.3	38	48.1	7	8.9
종교	없음	186	16	8.6	1	0.5	53	28.5	-	-	2	1.1	-	-	84	45.2	30	16.1
	불교	100	7	7.0	5	5.0	35	35.0	-	-	2	2.0	5	5.0	33	33.0	13	13.0
	개신교	83	7	8.4	-	-	13	15.7	-	-	2	2.4	13	15.7	31	37.3	17	20.5
	천주교	30	4	13.3	-	-	7	23.3	-	-	1	3.3	3	10.0	10	33.3	5	16.7
	기타	1	-	-	-	-	1	100.0	-	-	-	-	-	-	-	-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1	7.7	-	-	-	-	-	-	-	-	-	-	9	69.2	3	23.1
	공무원	7	1	14.3	-	-	-	-	-	-	-	-	1	14.3	3	42.9	2	28.6
	회사원	42	9	21.4	-	-	11	26.2	-	-	-	-	2	4.8	15	35.7	5	11.9
	자영업	102	7	6.9	4	3.9	31	30.4	-	-	2	2.0	6	5.9	30	29.4	22	21.6
	교사	3	1	33.3	-	-	1	33.3	-	-	-	-	-	-	-	-	1	33.3
	일용직	59	5	8.5	-	-	15	25.4	-	-	-	-	2	3.4	28	47.5	9	15.3
	없음	167	10	6.0	2	1.2	51	30.5	-	-	5	3.0	8	4.8	70	41.9	21	12.6
	기타	7	-	-	-	-	-	-	-	-	-	-	2	28.6	3	42.9	2	28.6
배우자 유무	있음	25	4	16.0	1	4.0	2	8.0	-	-	-	-	5	20.0	6	24.0	7	28.0
	없음	375	30	8.0	5	1.3	107	28.5	-	-	7	1.9	16	4.3	152	40.5	58	15.5
주거 상태	자가	129	17	13.2	2	1.6	40	31.0	-	-	3	2.3	5	3.9	50	38.8	12	9.3
	전세	49	2	4.1	-	-	13	26.5	-	-	-	-	3	6.1	22	44.9	9	18.4
	월세	169	9	5.3	4	2.4	35	20.7	-	-	3	1.8	9	5.3	68	40.2	41	24.3
	무료	53	6	11.3	-	-	21	39.6	-	-	1	1.9	4	7.5	18	34.0	3	5.7
독거 유무	독거	358	26	7.3	5	1.4	104	29.1	-	-	7	2.0	14	3.9	148	41.3	54	15.1
	비독거	42	8	19.0	1	2.4	5	11.9	-	-	-	-	7	16.7	10	23.8	11	26.2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26	14	11.1	1	0.8	43	34.1	-	-	1	0.8	2	1.6	52	41.3	13	10.3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9	7.5	5	2.0	64	25.4	-	-	6	2.4	17	6.7	91	36.1	50	19.8
	100만원 이상	22	1	4.5	-	-	2	9.1	-	-	-	-	2	9.1	15	68.2	2	9.1

6)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노인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항목 9가지 중 3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항목 중 ‘건강상의 문제(건강 및 질병치료)’에 대해 5점 척도에서 평균 4.0점이 수준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생활비, 부채상환 등)’과 ‘외로움’에서 각각 4.0점과 3.8점 수준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항목 중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것은 ‘가족갈등문제(2.4점)’, ‘주거환경(2.8점)’, 그리고 ‘일시적인 주거시설(2.8점)’이지만 세 분야 모두 20% 이상은 조금 어렵다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4-2-3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 표 4-2-12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인 어려움	1	0.3	14	3.5	88	22.0	193	48.3	104	26.0	4.0
건강상의 문제	1	0.3	12	3.0	91	22.8	175	43.8	121	30.3	4.0
장애 등 신체활동 어려움	2	0.5	40	10.0	136	34.0	142	35.5	80	20.0	3.7
주거환경	17	4.3	128	32.0	171	42.8	73	18.3	11	2.8	2.8
가족갈등문제	73	18.3	161	40.3	105	26.3	58	14.5	3	0.8	2.4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7	1.8	48	12.0	192	48.0	112	28.0	41	10.3	3.3
외로움	1	0.3	30	7.5	96	24.0	199	49.8	74	18.5	3.8
식사준비	6	1.5	67	16.8	111	27.8	195	48.8	21	5.3	3.4
일시적인 주거시설	58	14.5	56	14.0	183	45.8	98	24.5	5	1.3	2.8

생활비, 부채상환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수준은 평균 4.0점으로 74.3%가 ‘조금 어렵다’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노인(4.1점)은 여성노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74세 이하의 전기노인(4.2점)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4.2점)이 없는 노인보다, 주거형태가 월세인 노인(4.2점)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 표 4-2-13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	0.3	14	3.5	88	22.0	193	48.3	104	26.0	4.0
성별	남자	106	-	-	3	2.8	20	18.9	44	41.5	39	36.8	4.1
	여자	294	1	0.3	11	3.7	68	23.1	149	50.7	65	22.1	3.9
나이	전기	66	-	-	1	1.5	13	19.7	27	40.9	25	37.9	4.2
	중기	235	-	-	8	3.4	50	21.3	122	51.9	55	23.4	3.6
	후기	99	1	1.0	5	5.1	25	25.3	44	44.4	24	24.2	3.9
장애유무	있음	74	1	1.4	3	4.1	7	9.5	31	41.9	32	43.2	4.2
	없음	326	-	-	11	3.4	81	24.8	162	49.7	72	22.1	3.9
권역	동구	88	-	-	2	2.3	31	35.2	41	46.6	14	15.9	3.8
	중구	79	1	1.3	3	3.8	5	6.3	48	60.8	22	27.8	4.1
	서구	78	-	-	3	3.8	20	25.6	31	39.7	24	30.8	3.8
	유성구	76	-	-	3	3.9	13	17.1	28	36.8	32	42.1	4.2
	대덕구	79	-	-	3	3.8	19	24.1	45	57.0	12	15.2	3.8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	-	5	38.5	7	53.8	1	7.7	3.7
	공무원	7	-	-	-	-	2	28.6	2	28.6	3	42.9	4.1
	회사원	42	-	-	4	9.5	13	31.0	16	38.1	9	21.4	3.7
	자영업	102	-	-	3	2.9	19	18.6	49	48.0	31	30.4	4.1
	교사	3	-	-	1	33.3	1	33.3	1	33.3	-	-	3.0
	일용직	59	-	-	2	3.4	9	15.3	25	42.4	23	39.0	4.2
	없음	167	1	0.6	4	2.4	37	22.2	91	54.5	34	20.4	3.9
	기타	7	-	-	-	-	2	28.6	2	28.6	3	42.9	4.1
주거상태	자가	129	-	-	7	5.4	42	32.6	62	48.1	18	14.0	3.7
	전세	49	-	-	1	2.0	9	18.4	31	63.3	8	16.3	3.9
	월세	169	1	0.6	6	3.6	18	10.7	74	43.8	70	41.4	4.2
	무료	53	-	-	-	-	19	35.8	26	49.1	8	15.1	3.8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	0.8	4	3.2	33	26.2	63	50.0	25	19.8	3.9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	-	5	2.0	47	18.7	123	48.8	77	30.6	4.1
	100만원 이상	22	-	-	5	22.7	8	36.4	7	31.8	2	9.1	3.3
정부지원	있음	384	1	0.3	11	2.9	82	21.4	188	49.0	102	26.6	4.0
	없음	16	-	-	3	18.8	6	37.5	5	31.3	2	12.5	3.4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의 항목 중 가장 많이 ‘조금 어렵다’ 이상(74.1%)을 응답한 건강상의 문제는 장애가 있으면 어려움의 정도가 높았고(4.5점), 유성구(4.3점), 중구(4.3점), 그리고 서구(4.2점)의 어려움의 정도가 평균(4.0점)보다 높았으며, 월세에 사는 노인의 어려움의 수준(4.2점)이 높았다.

〈 표 4-2-14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건강상의 문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	0.3	12	3.0	91	22.8	175	43.8	121	30.3	4.0
장애유무	있음	74	-	-	3	4.1	4	5.4	20	27.0	47	63.5	4.5
	없음	326	1	0.3	9	2.8	87	26.7	155	47.5	74	22.7	3.9
권역	동구	88	-	-	2	2.3	42	47.7	33	37.5	11	12.5	3.6
	중구	79	-	-	2	2.5	6	7.6	41	51.9	30	38.0	4.3
	서구	78	-	-	-	-	11	14.1	44	56.4	23	29.5	4.2
	유성구	76	-	-	2	2.6	12	15.8	22	28.9	40	52.6	4.3
	대덕구	79	1	1.3	6	7.6	20	25.3	35	44.3	17	21.5	3.8
주거상태	자가	129	-	-	6	4.7	33	25.6	64	49.6	26	20.2	3.9
	전세	49	-	-	-	-	11	22.4	27	55.1	11	22.4	4.0
	월세	169	1	0.6	6	3.6	27	16.0	62	36.7	73	43.2	4.2
	무료	53	-	-	-	-	20	37.7	22	41.5	11	20.8	3.8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의 항목 중 장애 등 신체활동의 어려움의 정도는 평균 3.7점의 수준으로 55.5%가 ‘조금 어렵다’ 이상을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으면 그 어려움의 수준이 높았고, 그 외 일부 특성별 차이를 보였다.

〈 표 4-2-15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장애 등 신체활동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	0.5	40	10.0	136	34.0	142	35.5	80	20.0	3.7
성별	남자	106	2	1.9	8	7.5	26	24.5	44	41.5	26	24.5	4.0
	여자	294	-	-	32	10.9	110	37.4	98	33.3	54	18.4	4.0
장애유무	있음	74	-	-	5	6.8	6	8.1	20	27.0	43	58.1	4.5
	없음	326	2	0.6	35	10.7	130	39.9	122	37.4	37	11.3	3.9

〈 표 4-2-15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장애 등 신체활동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88	-	-	8	9.1	53	60.2	16	18.2	11	12.5	3.3
	중구	79	-	-	7	8.9	31	39.2	32	40.5	9	11.4	3.5
	서구	78	-	-	7	9.0	19	24.4	43	55.1	9	11.5	3.7
	유성구	76	-	-	6	7.9	15	19.7	19	25.0	36	47.4	4.1
	대덕구	79	2	2.5	12	15.2	18	22.8	32	40.5	15	19.0	3.6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3	23.1	4	30.8	4	30.8	2	15.4	3.4
	공무원	7	1	14.3	-	-	-	-	4	57.1	2	28.6	3.9
	회사원	42	1	2.4	7	16.7	10	23.8	16	38.1	8	19.0	3.6
	자영업	102	-	-	7	6.9	24	23.5	46	45.1	25	24.5	3.9
	교사	3	-	-	-	-	2	66.7	-	-	1	33.3	3.7
	일용직	59	-	-	6	10.2	24	40.7	18	30.5	11	18.6	3.6
	없음	167	-	-	17	10.2	71	42.5	51	30.5	28	16.8	3.5
	기타	7	-	-	-	-	1	14.3	3	42.9	3	42.9	4.3
주거상태	자가	129	1	0.8	16	12.4	54	41.9	48	37.2	10	7.8	3.4
	전세	49	-	-	3	6.1	17	34.7	20	40.8	9	18.4	3.7
	월세	169	1	0.6	10	5.9	44	26.0	56	33.1	58	34.3	4.0
	무료	53	-	-	11	20.8	21	39.6	18	34.0	3	5.7	3.3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의 항목 중 주거환경의 어려움의 정도는 평균 2.8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21.1%가 ‘조금 어렵다’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매우 어렵다의 비율은 2.8%이다. 중기 노인(75세-84세)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 연령보다 높았다(2.9점), 중구(3.2점)에 사는 노인의 어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단독주택에 사는 노인(3.0점)과 월세(3.0점)로 생활하는 노인이 주거환경 관련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4-2-16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주거환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7	4.3	128	32.0	171	42.8	73	18.3	11	2.8	2.8
나이	전기	66	3	4.5	23	34.8	31	47.0	8	12.1	1	1.5	2.7
	중기	235	7	3.0	67	28.5	102	43.4	51	21.7	8	3.4	2.9
	후기	99	7	7.1	38	38.4	38	38.4	14	14.1	2	2.0	2.7
권역	동구	88	5	5.7	35	39.8	38	43.2	8	9.1	2	2.3	2.6
	중구	79	-	-	11	13.9	43	54.4	21	26.6	4	5.1	3.2
	서구	78	-	-	29	37.2	39	50.0	10	12.8	-	-	2.8
	유성구	76	5	6.6	27	35.5	25	32.9	15	19.7	4	5.3	2.8
	대덕구	79	7	8.9	26	32.9	26	32.9	19	24.1	1	1.3	2.8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3	4.2	17	23.9	31	43.7	16	22.5	4	5.6	3.0
	다세대/빌라	124	4	3.2	24	19.4	59	47.6	32	25.8	5	4.0	3.1
	아파트	203	10	4.9	86	42.4	80	39.4	25	12.3	2	1.0	2.6
	기타	2	-	-	1	50.0	1	50.0	-	-	-	-	2.5
주거상태	자가	129	6	4.7	53	41.1	57	44.2	13	10.1	-	-	2.6
	전세	49	2	4.1	12	24.5	26	53.1	9	18.4	-	-	2.9
	월세	169	6	3.6	45	26.6	71	42.0	37	21.9	10	5.9	3.0
	무료	53	3	5.7	18	34.0	17	32.1	14	26.4	1	1.9	2.6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족갈등 문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평균 2.4점 (15.3%, 조금 어려움 이상)으로 항목 중 높은 편은 아니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어려움(1.9점)의 정도가 낮았고,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상의 노인의 어려움(1.9점)이 낮았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1인의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종교가 없을 때(2.5점)의 어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 표 4-2-17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가족갈등문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73	18.3	161	40.3	105	26.3	58	14.5	3	0.8	2.4
장애유무	있음	74	31	41.9	25	33.8	12	16.2	5	6.8	1	1.4	1.9
	없음	326	42	12.9	136	41.7	93	28.5	53	16.3	2	0.6	2.5
권역	동구	88	20	22.7	51	58.0	15	17.0	2	2.3	-	-	2.1
	중구	79	10	12.7	11	13.9	36	45.6	22	27.8	-	-	2.9
	서구	78	7	9.0	41	52.6	20	25.6	9	11.5	1	1.3	2.4
	유성구	76	26	34.2	26	34.2	12	15.8	10	13.2	2	2.6	2.2
	대덕구	79	10	12.7	32	40.5	22	27.8	15	19.0	-	-	2.5

〈 표 4-2-17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가족갈등문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교	없음	186	23	12.4	80	43.0	51	27.4	30	16.1	2	1.1	2.5
	불교	100	19	19.0	37	37.0	29	29.0	15	15.0	-	-	2.4
	개신교	83	21	25.3	33	39.8	18	21.7	11	13.3	-	-	2.2
	천주교	30	10	33.3	11	36.7	6	20.0	2	6.7	1	3.3	2.1
	기타	1	-	-	-	-	1	100.0	-	-	-	-	3.0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21	16.7	39	31.0	39	31.0	26	20.6	1	0.8	2.6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47	18.7	107	42.5	64	25.4	32	12.7	2	0.8	2.4
	100만원 이상	22	5	22.7	15	68.2	2	9.1	-	-	-	-	1.9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평균 3.3점의 수준으로 38.3%가 ‘조금 어렵다’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는 노인(3.8점), 정부지원을 받는 노인(3.4점), 월세로 주거하는 노인(3.5점)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참여에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고, 유성구 거주 노인은 32.9%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여 다른 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응답자의 89.5%가 독거 중인데, 사회참여의 어려움은 비독거 중인 노인이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3.7점, 61.9% ‘조금 어렵다’ 이상)고 응답하였다.

〈 표 4-2-18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7	1.8	48	12.0	192	48.0	112	28.0	41	10.3	3.3
장애유무	있음	74	-	-	9	12.2	20	27.0	20	27.0	25	33.8	3.8
	없음	326	7	2.1	39	12.0	172	52.8	92	28.2	16	4.9	3.2
권역	동구	88	2	2.3	8	9.1	56	63.6	17	19.3	5	5.7	3.2
	중구	79	3	3.8	9	11.4	37	46.8	26	32.9	4	5.1	3.2
	서구	78	-	-	12	15.4	52	66.7	10	12.8	4	5.1	3.1
	유성구	76	-	-	8	10.5	19	25.0	24	31.6	25	32.9	3.9
	대덕구	79	2	2.5	11	13.9	28	35.4	35	44.3	3	3.8	3.3
주거상태	자가	129	4	3.1	20	15.5	70	54.3	32	24.8	3	2.3	3.1
	전세	49	-	-	7	14.3	23	46.9	14	28.6	5	10.2	3.4
	월세	169	3	1.8	17	10.1	68	40.2	50	29.6	31	18.3	3.5
	무료	53	-	-	4	7.5	31	58.5	16	30.2	2	3.8	3.3
독거여부	독거	358	7	2.0	42	11.7	182	50.8	94	26.3	33	9.2	3.3
	비독거	42	-	-	6	14.3	10	23.8	18	42.9	8	19.0	3.7
정부지원	있음	384	6	1.6	43	11.2	186	48.4	109	28.4	40	10.4	3.4
	없음	16	1	6.3	5	31.3	6	37.5	3	18.8	1	6.3	2.9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외로움의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8점으로 68.3%가 ‘조금 어렵다’ 이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로움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높았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노인이 외로움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 표 4-2-19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외로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	0.3	30	7.5	96	24.0	199	49.8	74	18.5	3.8
성별	남자	106	1	0.9	6	5.7	18	17.0	58	54.7	23	21.7	3.9
	여자	294	-	-	24	8.2	78	26.5	141	48.0	51	17.3	3.7
권역	동구	88	-	-	6	6.8	33	37.5	42	47.7	7	8.0	3.6
	중구	79	-	-	2	2.5	11	13.9	41	51.9	25	31.6	4.1
	서구	78	-	-	8	10.3	18	23.1	44	56.4	8	10.3	3.7
	유성구	76	-	-	8	10.5	17	22.4	25	32.9	26	34.2	3.9
	대덕구	79	1	1.3	6	7.6	17	21.5	47	59.5	8	10.1	3.7
배우자 유무	있음	25	1	4.0	4	16.0	9	36.0	6	24.0	5	20.0	3.4
	없음	375	-	-	26	6.9	87	23.2	193	51.5	69	18.4	3.8
독거여부	독거	358	-	-	22	6.1	81	22.6	190	53.1	65	18.2	3.8
	비독거	42	1	2.4	8	19.0	15	35.7	9	21.4	9	21.4	3.4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	0.8	2	1.6	32	25.4	69	54.8	22	17.5	3.9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	-	24	9.5	55	21.8	124	49.2	49	19.4	3.8
	100만원 이상	22	-	-	4	18.2	9	40.9	6	27.3	3	13.6	3.4

생활하면서 식사준비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는 평균 3.4점 수준으로 54.1%가 ‘조금 어렵다’ 이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노인(4.1점)이 여자노인보다, 종교가 없는 노인(3.6점)이 다른 종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3.4점)이 있는 노인보다, 독거노인(3.4점)이 비독거노인보다 어려움의 정도는 더 느끼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노인(3.6점)이 다른 소득의 노인보다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20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식사준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6	1.5	67	16.8	111	27.8	195	48.8	21	5.3	3.4
성별	남자	106	1	0.9	15	14.2	17	16.0	65	61.3	8	7.5	4.1
	여자	294	5	1.7	52	17.7	94	32.0	130	44.2	13	4.4	3.9
장애유무	있음	74	2	2.7	25	33.8	16	21.6	25	33.8	6	8.1	3.1
	없음	326	4	1.2	42	12.9	95	29.1	170	52.1	15	4.6	3.5
권역	동구	88	2	2.3	14	15.9	36	40.9	31	35.2	5	5.7	3.3
	중구	79	2	2.5	4	5.1	18	22.8	50	63.3	5	6.3	3.7
	서구	78	-	-	17	21.8	27	34.6	32	41.0	2	2.6	3.2
	유성구	76	-	-	17	22.4	15	19.7	37	48.7	7	9.2	3.5
	대덕구	79	2	2.5	15	19.0	15	19.0	45	57.0	2	2.5	3.4
종교	없음	186	1	0.5	19	10.2	47	25.3	105	56.5	14	7.5	3.6
	불교	100	4	4.0	16	16.0	28	28.0	49	49.0	3	3.0	3.3
	개신교	83	1	1.2	24	28.9	22	26.5	33	39.8	3	3.6	3.2
	천주교	30	-	-	8	26.7	13	43.3	8	26.7	1	3.3	3.1
	기타	1	-	-	-	-	1	100.0	-	-	-	-	3.0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1	1.4	10	14.1	20	28.2	32	45.1	8	11.3	3.5
	다세대/빌라	124	1	0.8	19	15.3	34	27.4	64	51.6	6	4.8	3.4
	아파트	203	4	2.0	38	18.7	57	28.1	98	48.3	6	3.0	3.3
	기타	2	-	-	-	-	-	-	1	50.0	1	50.0	4.5
배우자 유무	있음	25	1	4.0	11	44.0	2	8.0	8	32.0	3	12.0	3.0
	없음	375	5	1.3	56	14.9	109	29.1	187	49.9	18	4.8	3.4
독거여부	독거	358	5	1.4	51	14.2	106	29.6	179	50.0	17	4.7	3.4
	비독거	42	1	2.4	16	38.1	5	11.9	16	38.1	4	9.5	3.1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3	2.4	13	10.3	27	21.4	73	57.9	10	7.9	3.6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3	1.2	47	18.7	78	31.0	114	45.2	10	4.0	3.3
	100만원 이상	22	-	-	7	31.8	6	27.3	8	36.4	1	4.5	3.1

생활하면서 일시적인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평균적으로 2.8점 수준으로 25.8%가 ‘조금 어렵다’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없는 노인(3.0점)이, 종교가 없는 노인(3.1점)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2.9점)이, 혼자 사는 노인(2.9점)이,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노인(3.1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4-2-21 〉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_일시적인 주거시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58	14.5	56	14.0	183	45.8	98	24.5	5	1.3	2.8
장애유무	있음	74	25	33.8	23	31.1	15	20.3	9	12.2	2	2.7	2.2
	없음	326	33	10.1	33	10.1	168	51.5	89	27.3	3	0.9	3.0
권역	동구	88	17	19.3	13	14.8	52	59.1	6	6.8	-	-	2.5
	중구	79	8	10.1	6	7.6	33	41.8	30	38.0	2	2.5	3.2
	서구	78	3	3.8	6	7.7	63	80.8	6	7.7	-	-	2.9
	유성구	76	17	22.4	17	22.4	20	26.3	19	25.0	3	3.9	2.7
	대덕구	79	13	16.5	14	17.7	15	19.0	37	46.8	-	-	3.0
종교	없음	186	17	9.1	19	10.2	86	46.2	61	32.8	3	1.6	3.1
	불교	100	18	18.0	15	15.0	49	49.0	17	17.0	1	1.0	2.7
	개신교	83	16	19.3	16	19.3	34	41.0	17	20.5	-	-	2.6
	천주교	30	7	23.3	6	20.0	13	43.3	3	10.0	1	3.3	2.5
	기타	1	-	-	-	-	1	100.0	-	-	-	-	3.0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7	9.9	7	9.9	37	52.1	19	26.8	1	1.4	3.0
	다세대/빌라	124	14	11.3	17	13.7	55	44.4	36	29.0	2	1.6	3.0
	아파트	203	37	18.2	32	15.8	90	44.3	43	21.2	1	0.5	2.7
	기타	2	-	-	-	-	1	50.0	-	-	1	50.0	4.0
과거의 직업	농업	13	1	7.7	3	23.1	9	69.2	-	-	-	-	2.6
	공무원	7	2	28.6	-	-	4	57.1	1	14.3	-	-	2.6
	회사원	42	8	19.0	5	11.9	12	28.6	17	40.5	-	-	2.9
	자영업	102	18	17.6	20	19.6	31	30.4	31	30.4	2	2.0	2.8
	교사	3	1	33.3	1	33.3	1	33.3	-	-	-	-	2.0
	일용직	59	14	23.7	6	10.2	25	42.4	13	22.0	1	1.7	2.7
	없음	167	12	7.2	18	10.8	99	59.3	36	21.6	2	1.2	3.0
	기타	7	2	28.6	3	42.9	2	28.6	-	-	-	-	2.0
배우자 유무	있음	25	10	40.0	6	24.0	5	20.0	3	12.0	1	4.0	2.2
	없음	375	48	12.8	50	13.3	178	47.5	95	25.3	4	1.1	2.9
독거여부	독거	358	43	12.0	44	12.3	176	49.2	91	25.4	4	1.1	2.9
	비독거	42	15	35.7	12	28.6	7	16.7	7	16.7	1	2.4	2.2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2	9.5	16	12.7	49	38.9	47	37.3	2	1.6	3.1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43	17.1	36	14.3	120	47.6	50	19.8	3	1.2	2.7
	100만원 이상	22	3	13.6	4	18.2	14	63.6	1	4.5	-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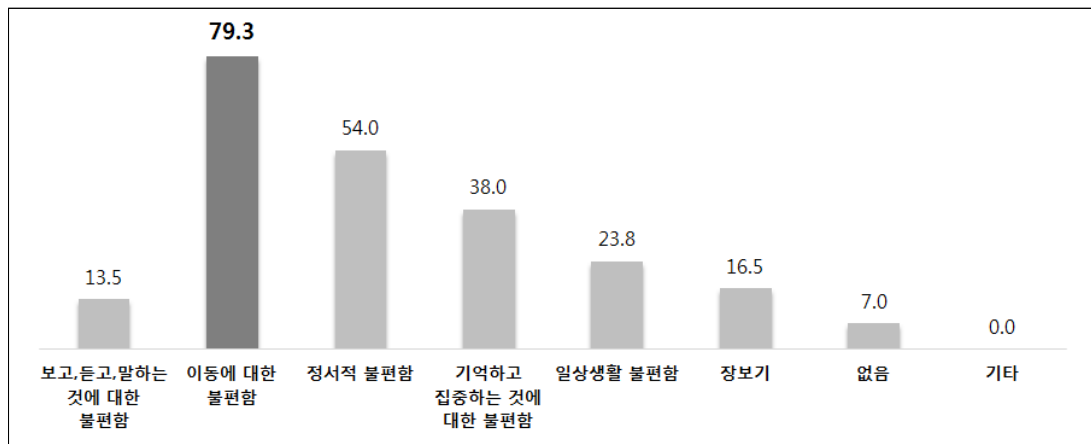
3. 건강관리

1) 일상생활 불편 정도

일상적인 활동 중 불편함을 느끼는 활동에 대해 해당사항을 모두 조사하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다수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79.3%)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등의 정서적 불편함(54.0%), 배우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38.0%), 그리고 옷 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의 일상생활 불편함(2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보기(16.5%),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13.5%)에 대해서도 10% 이상이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4-2-4 〉 일상생활 불편 정도

(단위: %)



〈 표 4-2-22 〉 일상생활 불편 정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동에 대한 불편함		정서적 불편함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일상생활 불편함		장보기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54	13.5	317	79.3	216	54.0	152	38.0	95	23.8	66	16.5	28	7.0	-	-
성별	남자	106	22	20.8	80	75.5	54	50.9	36	34.0	27	25.5	18	17.0	11	10.4	-	-
	여자	294	32	10.9	237	80.6	162	55.1	116	39.5	68	23.1	48	16.3	17	5.8	-	-
나이	전기	66	14	21.2	45	68.2	40	60.6	22	33.3	20	30.3	8	12.1	11	16.7	-	-
	중기	235	23	9.8	189	80.4	125	53.2	91	38.7	53	22.6	42	17.9	13	5.5	-	-
	후기	99	17	17.2	83	83.8	51	51.5	39	39.4	22	22.2	16	16.2	4	4.0	-	-

〈 표 4-2-22 〉 일상생활 불편 정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동에 대한 불편함		정서적 불편함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일상생활 불편함		장보기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 유무	있음	74	31	41.9	66	89.2	39	52.7	23	31.1	37	50.0	13	17.6	5	6.8	-	-
	없음	326	23	7.1	251	77.0	177	54.3	129	39.6	58	17.8	53	16.3	23	7.1	-	-
권역	동구	88	10	11.4	74	84.1	26	29.5	35	39.8	10	11.4	7	8.0	6	6.8	-	-
	중구	79	4	5.1	66	83.5	67	84.8	35	44.3	10	12.7	13	16.5	6	7.6	-	-
	서구	78	15	19.2	68	87.2	36	46.2	25	32.1	17	21.8	26	33.3	5	6.4	-	-
	유성구	76	20	26.3	64	84.2	40	52.6	17	22.4	35	46.1	10	13.2	6	7.9	-	-
	대덕구	79	5	6.3	45	57.0	47	59.5	40	50.6	23	29.1	10	12.7	5	6.3	-	-
종교	없음	186	25	13.4	144	77.4	91	48.9	68	36.6	50	26.9	33	17.7	10	5.4	-	-
	불교	100	10	10.0	79	79.0	65	65.0	40	40.0	16	16.0	14	14.0	9	9.0	-	-
	개신교	83	16	19.3	67	80.7	44	53.0	36	43.4	21	25.3	15	18.1	6	7.2	-	-
	천주교	30	3	10.0	27	90.0	16	53.3	8	26.7	8	26.7	4	13.3	2	6.7	-	-
	기타	1	-	-	-	-	-	-	-	-	-	-	-	-	1	100.0	-	-
주거 형태	단독주택	71	11	15.5	56	78.9	35	49.3	26	36.6	13	18.3	12	16.9	4	5.6	-	-
	다세대/빌라	124	18	14.5	99	79.8	81	65.3	40	32.3	36	29.0	23	18.5	7	5.6	-	-
	아파트	203	25	12.3	160	78.8	100	49.3	86	42.4	44	21.7	31	15.3	17	8.4	-	-
	기타	2	-	-	2	100.0	-	-	-	-	2	100.0	-	-	-	-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10	76.9	4	30.8	5	38.5	3	23.1	2	15.4	3	23.1	-	-
	공무원	7	-	-	5	71.4	5	71.4	3	42.9	3	42.9	3	42.9	1	14.3	-	-
	회사원	42	2	4.8	30	71.4	24	57.1	14	33.3	11	26.2	7	16.7	4	9.5	-	-
	자영업	102	19	18.6	77	75.5	55	53.9	51	50.0	33	32.4	16	15.7	7	6.9	-	-
	교사	3	2	66.7	2	66.7	1	33.3	-	-	1	33.3	-	-	1	33.3	-	-
	일용직	59	7	11.9	49	83.1	31	52.5	22	37.3	12	20.3	12	20.3	1	1.7	-	-
	없음	167	23	13.8	138	82.6	92	55.1	55	32.9	29	17.4	24	14.4	11	6.6	-	-
	기타	7	1	14.3	6	85.7	4	57.1	2	28.6	3	42.9	2	28.6	-	-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9	36.0	19	76.0	6	24.0	11	44.0	11	44.0	7	28.0	4	16.0	-	-
	없음	375	45	12.0	298	79.5	210	56.0	141	37.6	84	22.4	59	15.7	24	6.4	-	-
주거 상태	자가	129	12	9.3	99	76.7	64	49.6	56	43.4	17	13.2	19	14.7	9	7.0	-	-
	전세	49	6	12.2	39	79.6	24	49.0	13	26.5	19	38.8	11	22.4	3	6.1	-	-
	월세	169	33	19.5	140	82.8	98	58.0	65	38.5	49	29.0	30	17.8	13	7.7	-	-
	무료	53	3	5.7	39	73.6	30	56.6	18	34.0	10	18.9	6	11.3	3	5.7	-	-
독거 유무	독거	358	43	12.0	284	79.3	202	56.4	135	37.7	77	21.5	55	15.4	22	6.1	-	-
	비독거	42	11	26.2	33	78.6	14	33.3	17	40.5	18	42.9	11	26.2	6	14.3	-	-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26	8	6.3	90	71.4	76	60.3	58	46.0	30	23.8	19	15.1	5	4.0	-	-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42	16.7	208	82.5	132	52.4	85	33.7	60	23.8	43	17.1	21	8.3	-	-
	100만원 이상	22	4	18.2	19	86.4	8	36.4	9	40.9	5	22.7	4	18.2	2	9.1	-	-
정부 지원	있음	384	52	13.5	305	79.4	204	53.1	147	38.3	93	24.2	64	16.7	26	6.8	-	-
	없음	16	2	12.5	12	75.0	12	75.0	5	31.3	2	12.5	2	12.5	2	12.5	-	-

2) 건강관리시 신경쓰는 부분

평소 건강관리시 신경쓰는 부분에 대해서 복수응답으로 ‘규칙적 운동 (45.8%)’, ‘아침 식사하기 (규칙적인 식사, 34.5%)’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없다(25.3%)’라고 응답한 분포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장애가 있는 노인(41.9%), 유성구 거주 노인(47.4%), 월세에 거주하는 노인(32.0%), 그리고 월소득 50만원 미만 노인(33.3%)이다.

〈 표 4-2-23 〉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부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아침식사하기 (규칙적인 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없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38	34.5	98	24.5	183	45.8	56	14.0	101	25.3	1	0.3
성별	남자	106	31	29.2	20	18.9	50	47.2	14	13.2	29	27.4	-	-
	여자	294	107	36.4	78	26.5	133	45.2	42	14.3	72	24.5	1	0.3
나이	전기	66	25	37.9	14	21.2	30	45.5	11	16.7	16	24.2	-	-
	중기	235	79	33.6	56	23.8	112	47.7	29	12.3	61	26.0	1	0.4
	후기	99	34	34.3	28	28.3	41	41.4	16	16.2	24	24.2	-	-
장애유무	있음	74	24	32.4	4	5.4	26	35.1	6	8.1	31	41.9	-	-
	없음	326	114	35.0	94	28.8	157	48.2	50	15.3	70	21.5	1	0.3
권역	동구	88	36	40.9	47	53.4	58	65.9	20	22.7	11	12.5	1	1.1
	중구	79	16	20.3	2	2.5	38	48.1	6	7.6	25	31.6	-	-
	서구	78	47	60.3	15	19.2	44	56.4	24	30.8	8	10.3	-	-
	유성구	76	16	21.1	9	11.8	26	34.2	4	5.3	36	47.4	-	-
	대덕구	79	23	29.1	25	31.6	17	21.5	2	2.5	21	26.6	-	-
종교	없음	186	59	31.7	47	25.3	77	41.4	23	12.4	52	28.0	-	-
	불교	100	34	34.0	24	24.0	53	53.0	14	14.0	27	27.0	-	-
	개신교	83	31	37.3	18	21.7	41	49.4	14	16.9	17	20.5	1	1.2
	천주교	30	14	46.7	9	30.0	12	40.0	4	13.3	5	16.7	-	-
	기타	1	-	-	-	-	-	-	1	100.0	-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18	25.4	19	26.8	33	46.5	10	14.1	20	28.2	1	1.4
	다세대/빌라	124	42	33.9	30	24.2	51	41.1	7	5.6	31	25.0	-	-
	아파트	203	78	38.4	49	24.1	99	48.8	39	19.2	48	23.6	-	-
	기타	2	-	-	-	-	-	-	-	-	2	100.0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7	53.8	5	38.5	11	84.6	4	30.8	1	7.7	-	-
	공무원	7	3	42.9	-	-	6	85.7	4	57.1	1	14.3	-	-
	회사원	42	15	35.7	8	19.0	10	23.8	7	16.7	13	31.0	-	-
	자영업	102	28	27.5	21	20.6	42	41.2	9	8.8	28	27.5	-	-
	교사	3	1	33.3	-	-	1	33.3	-	-	2	66.7	-	-
	일용직	59	18	30.5	16	27.1	24	40.7	6	10.2	19	32.2	-	-
	없음	167	64	38.3	47	28.1	87	52.1	24	14.4	35	21.0	1	0.6
	기타	7	2	28.6	1	14.3	2	28.6	2	28.6	2	28.6	-	-

〈 표 4-2-23 〉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부분

(단위: 명,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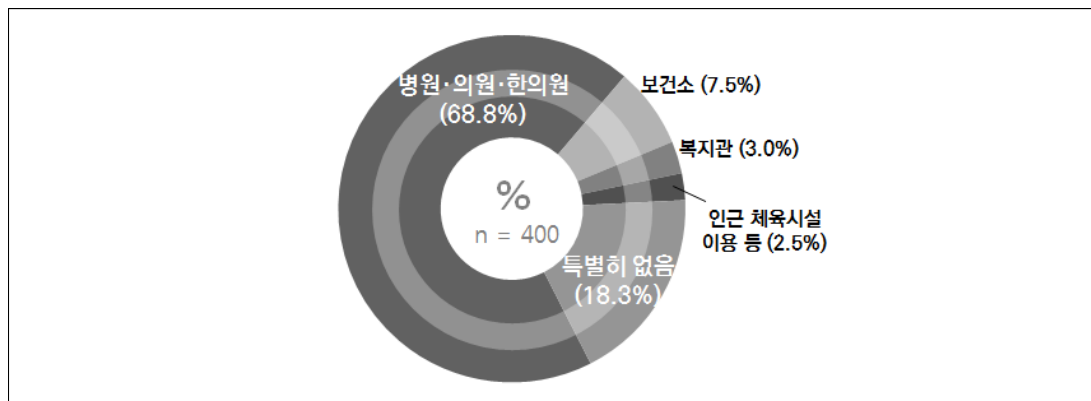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아침식사하기 (규칙적인 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없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배우자 유무	있음	25	7	28.0	1	4.0	13	52.0	3	12.0	7	28.0	-	-
	없음	375	131	34.9	97	25.9	170	45.3	53	14.1	94	25.1	1	0.3
주거상태	자가	129	50	38.8	36	27.9	73	56.6	22	17.1	22	17.1	-	-
	전세	49	15	30.6	19	38.8	17	34.7	6	12.2	13	26.5	-	-
	월세	169	58	34.3	24	14.2	69	40.8	20	11.8	54	32.0	1	0.6
	무료	53	15	28.3	19	35.8	24	45.3	8	15.1	12	22.6	-	-
독거여부	독거	358	124	34.6	95	26.5	165	46.1	52	14.5	89	24.9	1	0.3
	비독거	42	14	33.3	3	7.1	18	42.9	4	9.5	12	28.6	-	-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29	23.0	33	26.2	41	32.5	12	9.5	42	33.3	-	-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98	38.9	58	23.0	128	50.8	39	15.5	58	23.0	1	0.4
	100만원 이상	22	11	50.0	7	31.8	14	63.6	5	22.7	1	4.5	-	-
정부지원	있음	384	132	34.4	98	25.5	177	46.1	53	13.8	97	25.3	1	0.3
	없음	16	6	37.5	-	-	6	37.5	3	18.8	4	25.0	-	-

3)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이용하는 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6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특별히 없다(18.3%)’이다. 유성구 거주 노인은 없다는 응답률이 27.6%로 타구에 비해 높다.

〈 그림 4-2-5 〉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단위: %)



〈 표 4-2-24 〉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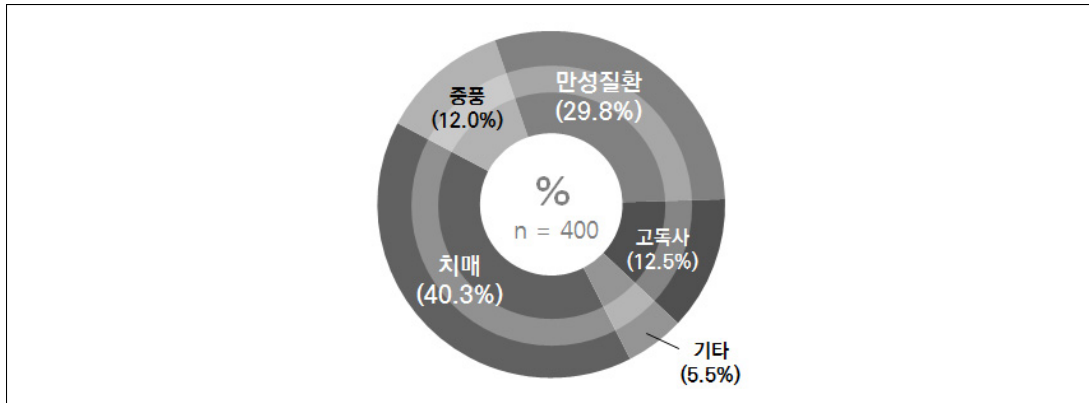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병원·의원·한의원		보건소		복지관		인근 체육시설 이용 등		특별히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75	68.8	30	7.5	12	3.0	10	2.5	73	18.3
장애유무	있음	74	46	62.2	4	5.4	7	9.5	3	4.1	14	18.9
	없음	326	229	70.2	26	8.0	5	1.5	7	2.1	59	18.1
권역	동구	88	64	72.7	3	3.4	3	3.4	2	2.3	16	18.2
	중구	79	64	81.0	-	-	2	2.5	1	1.3	12	15.2
	서구	78	62	79.5	8	10.3	2	2.6	-	-	6	7.7
	유성구	76	45	59.2	5	6.6	4	5.3	1	1.3	21	27.6
	대덕구	79	40	50.6	14	17.7	1	1.3	6	7.6	18	22.8
종교	없음	186	126	67.7	22	11.8	3	1.6	4	2.2	31	16.7
	불교	100	75	75.0	2	2.0	2	2.0	2	2.0	19	19.0
	개신교	83	56	67.5	3	3.6	6	7.2	3	3.6	15	18.1
	천주교	30	18	60.0	3	10.0	1	3.3	1	3.3	7	23.3
	기타	1	-	-	-	-	-	-	-	-	1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45	63.4	5	7.0	1	1.4	4	5.6	16	22.5
	다세대/빌라	124	91	73.4	11	8.9	1	0.8	2	1.6	19	15.3
	아파트	203	139	68.5	14	6.9	10	4.9	4	2.0	36	17.7
	기타	2	-	-	-	-	-	-	-	-	2	100.0

4)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건강관련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치매(40.3%)’이며 ‘만성질환(29.8%)’, ‘고독사(12.5%)’, ‘중풍(12.0%)’ 순으로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서구거주 노인은 ‘고독사(37.2%)’에 대한 걱정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유성구 거주 노인(59.2%)과 대덕구 거주 노인(69.6%)은 ‘만성질환’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 노인도 ‘만성질환(49.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 노인은 치매가 가장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다른 소득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없다(10건)’ ‘허리통증(3건)’, ‘걷는 것(2건)’, ‘암 진단(2건)’ 등의 의견이 있었다.

〈 그림 4-2-6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단위: %)



〈 표 4-2-25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치매		중풍		만성질환		고독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61	40.3	48	12.0	119	29.8	50	12.5	22	5.5
장애유무	있음	74	26	35.1	8	10.8	24	32.4	6	8.1	10	13.5
	없음	326	135	41.4	40	12.3	95	29.1	44	13.5	12	3.7
권역	동구	88	55	62.5	13	14.8	12	13.6	4	4.5	4	4.5
	중구	79	55	69.6	4	5.1	4	5.1	11	13.9	5	6.3
	서구	78	22	28.2	19	24.4	3	3.8	29	37.2	5	6.4
	유성구	76	14	18.4	9	11.8	45	59.2	5	6.6	3	3.9
	대덕구	79	15	19.0	3	3.8	55	69.6	1	1.3	5	6.3
종교	없음	186	58	31.2	21	11.3	75	40.3	25	13.4	7	3.8
	불교	100	56	56.0	13	13.0	17	17.0	11	11.0	3	3.0
	개신교	83	32	38.6	12	14.5	21	25.3	8	9.6	10	12.0
	천주교	30	15	50.0	2	6.7	6	20.0	5	16.7	2	6.7
	기타	1	-	-	-	-	-	-	1	100.0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4	30.8	4	30.8	2	15.4	2	15.4	1	7.7
	공무원	7	2	28.6	2	28.6	1	14.3	-	-	2	28.6
	회사원	42	12	28.6	3	7.1	18	42.9	4	9.5	5	11.9
	자영업	102	39	38.2	10	9.8	46	45.1	5	4.9	2	2.0
	교사	3	-	-	-	-	1	33.3	1	33.3	1	33.3
	일용직	59	18	30.5	8	13.6	20	33.9	9	15.3	4	6.8
	없음	167	82	49.1	21	12.6	28	16.8	29	17.4	7	4.2
	기타	7	4	57.1	-	-	3	42.9	-	-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9	36.0	6	24.0	6	24.0	2	8.0	2	8.0
	없음	375	152	40.5	42	11.2	113	30.1	48	12.8	20	5.3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43	34.1	14	11.1	62	49.2	3	2.4	4	3.2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07	42.5	29	11.5	56	22.2	43	17.1	17	6.7
	100만원 이상	22	11	50.0	5	22.7	1	4.5	4	18.2	1	4.5

〈 표 4-2-26 〉 가장 걱정되는 건강상의 문제 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2	5.5
없다	10	2.5
허리통증	3	0.8
걷는 것	2	0.5
암 진단	2	0.5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것	1	0.3
체장 옆 혹	1	0.3
이가 없음	1	0.3
자궁암	1	0.3
무릎	1	0.3

5) 건강 행태

대전광역시 노인의 건강실천, 즉 건강 행태를 보면, 89.8%가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다른 건강실천활동은 모두 50% 미만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교육이나 검진은 49.5%가,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은 45.8%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는 38.0%, 그리고 다양한 반찬 섭취는 1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27 〉 건강 행태

(단위: 명, %)

구분	예 (안 마신다)		아니오 (마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 술은 몇 잔 정도 마십니까?(음주)	359	89.8	41	10.3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운동: 걷기, 스포츠, 사이클링, 등산 등 모두 포함)	183	45.8	217	54.3
하루 3끼를 먹을 때, 반찬을 다르게 먹는 편입니까?(식사: 밥과 국을 제외한 반찬 의미)	68	17.0	332	83.0
평소에 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교육이나 검진을 받는 편입니까?(건강교육 및 건강 검진: 보건소나 병원 등의 건강교육에 참여하거나 혈압, 당뇨 수치 측정)	198	49.5	202	50.5
평소에 다른 사람과 만나 어울려 지내는 편입니까?(사회활동)	152	38.0	248	62.0

각 건강실천 유형별로 보면, 남자노인 중 음주를 하는 분포가 26.4%로 높고, 전기노인(74세 이하)의 21.2%가, 그리고 권역별로 동구지역이 노인의 19.3%가 음주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28 〉 건강 행태_음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 마신다		마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59	89.8	41	10.3
성별	남자	106	78	73.6	28	26.4
	여자	294	281	95.6	13	4.4
나이	전기	66	52	78.8	14	21.2
	중기	235	214	91.1	21	8.9
	후기	99	93	93.9	6	6.1
권역	동구	88	71	80.7	17	19.3
	중구	79	74	93.7	5	6.3
	서구	78	70	89.7	8	10.3
	유성구	76	70	92.1	6	7.9
	대덕구	79	74	93.7	5	6.3

음주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75.6%가 소주를 마신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3.6잔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29 〉 음주하는 경우 마시는 술 종류 및 평균 잔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평균(잔)
전체	41	100.0	3.6
소주	31	75.6	4.1
막걸리	7	17.1	2.6
맥주	3	7.3	1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노인은 45.8%로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동구 거주 노인의 65.9%의 높은 비율로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덕구의 노인의 21.5%가 운동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노인의 분포가 높았다.

〈 표 4-2-30 〉 건강 행태_운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83	45.8	217	54.3
장애유무	있음	74	26	35.1	48	64.9
	없음	326	157	48.2	169	51.8
권역	동구	88	58	65.9	30	34.1
	중구	79	38	48.1	41	51.9
	서구	78	44	56.4	34	43.6
	유성구	76	26	34.2	50	65.8
	대덕구	79	17	21.5	62	78.5
과거의 직업	농업	13	11	84.6	2	15.4
	공무원	7	6	85.7	1	14.3
	회사원	42	10	23.8	32	76.2
	자영업	102	42	41.2	60	58.8
	교사	3	1	33.3	2	66.7
	일용직	59	24	40.7	35	59.3
	없음	167	87	52.1	80	47.9
	기타	7	2	28.6	5	71.4
주거상태	자가	129	73	56.6	56	43.4
	전세	49	17	34.7	32	65.3
	월세	169	69	40.8	100	59.2
	무료	53	24	45.3	29	54.7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41	32.5	85	67.5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28	50.8	124	49.2
	100만원 이상	17	13	76.5	4	23.5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384	177	46.1	207	53.9
	없음	16	6	37.5	10	62.5

하루 3끼 식사 시 반찬을 다양하게 하는지, 즉 골고루 식사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1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31 〉 건강 행태_식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68	17.0	332	83.0
장애유무	있음	74	19	25.7	55	74.3
	없음	326	49	15.0	277	85.0
권역	동구	88	8	9.1	80	90.9
	중구	79	5	6.3	74	93.7
	서구	78	16	20.5	62	79.5
	유성구	76	19	25.0	57	75.0
	대덕구	79	20	25.3	59	74.7

평소 보건소나 병원 등의 건강교육에 참가하거나 혈압, 당뇨 수치를 측정하는 등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교육이나 검진을 받은가에 대하여 4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동구(75.0%)나 서구(76.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구는 17.7%만이 건강교육 및 건강검진의 실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실천을 하는 노인의 분포가 높았다.

〈 표 4-2-32 〉 건강 행태_건강교육 및 검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98	49.5	202	50.5
장애유무	있음	74	49	66.2	25	33.8
	없음	326	149	45.7	177	54.3
권역	동구	88	66	75.0	22	25.0
	중구	79	14	17.7	65	82.3
	서구	78	60	76.9	18	23.1
	유성구	76	35	46.1	41	53.9
	대덕구	79	23	29.1	56	70.9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31	43.7	40	56.3
	다세대/빌라	124	52	41.9	72	58.1
	아파트	203	115	56.7	88	43.3
	기타	2	-	-	2	100.0
독거여부	독거	358	172	48.0	186	52.0
	비독거	42	26	61.9	16	38.1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47	37.3	79	62.7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32	52.4	120	47.6
	100만원 이상	17	15	88.2	2	11.8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384	191	49.7	193	50.3
	없음	16	7	43.8	9	56.3

평소 다른 사람과 만나 어울려 지내는 편인지에 대하여 동구의 83.0%의 노인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구의 12.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세대나 빌라 거주 노인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26.6%로 다른 주거형태보다 낮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 표 4-2-33 〉 건강 행태_사회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52	38.0	248	62.0
성별	남자	106	28	26.4	78	73.6
	여자	294	124	42.2	170	57.8
장애유무	있음	74	19	25.7	55	74.3
	없음	326	133	40.8	193	59.2
권역	동구	88	73	83.0	15	17.0
	중구	79	10	12.7	69	87.3
	서구	78	35	44.9	43	55.1
	유성구	76	14	18.4	62	81.6
	대덕구	79	20	25.3	59	74.7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29	40.8	42	59.2
	다세대/빌라	124	33	26.6	91	73.4
	아파트	203	90	44.3	113	55.7
	기타	2	-	-	2	100.0
과거의 직업	농업	13	7	53.8	6	46.2
	공무원	7	1	14.3	6	85.7
	회사원	42	10	23.8	32	76.2
	자영업	102	31	30.4	71	69.6
	교사	3	-	-	3	100.0
	일용직	59	26	44.1	33	55.9
	없음	167	74	44.3	93	55.7
	기타	7	3	42.9	4	57.1
주거상태	자가	129	60	46.5	69	53.5
	전세	49	17	34.7	32	65.3
	월세	169	51	30.2	118	69.8
	무료	53	24	45.3	29	54.7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33	26.2	93	73.8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03	40.9	149	59.1
	100만원 이상	17	13	76.5	4	23.5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384	147	38.3	237	61.7
	없음	16	5	31.3	11	68.8

4. 사회적 관계 : 가족 및 이웃관계

1) 자녀 여부 및 자녀 수

응답자의 86.3%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녀 수로는 '2명(34.5%)'이 가장 많았다.

〈 표 4-2-34 〉 자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45	86.3	55	13.8
권역	동구	88	83	94.3	5	5.7
	중구	79	55	69.6	24	30.4
	서구	78	71	91.0	7	9.0
	유성구	76	60	78.9	16	21.1
	대덕구	79	76	96.2	3	3.8
종교	없음	186	162	87.1	24	12.9
	불교	100	79	79.0	21	21.0
	개신교	83	78	94.0	5	6.0
	천주교	30	25	83.3	5	16.7
	기타	1	1	100.0	-	-
주거상태	자가	129	121	93.8	8	6.2
	전세	49	42	85.7	7	14.3
	월세	169	135	79.9	34	20.1
	무료	53	47	88.7	6	11.3
독거여부	독거	358	304	84.9	54	15.1
	비독거	42	41	97.6	1	2.4

〈 표 4-2-35 〉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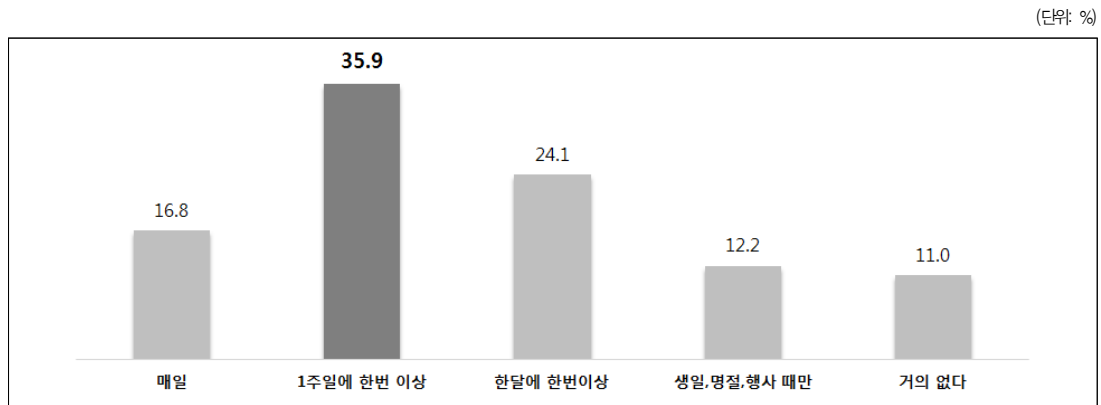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45	52	15.1	119	34.5	101	29.3	39	11.3	34	9.9

2) 자녀와의 연락 빈도

자녀와의 연락은 ‘1주일에 한번 이상(3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한번 이상(24.1%)’, ‘매일(16.8%)’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1.0% 정도였다. 남자 노인의 27.0%,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20.0%, 월세로 사는 노인의 20.7%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후기 노인(85세 이상, 22.2%), 비독거 노인(51.2%), 월소득 100만원 이상 노인(28.6%)이다.

〈 그림 4-2-7 〉 자녀와의 연락 빈도



〈 표 4-2-36 〉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한달에 한번 이상		생일, 명절, 행사 때만		거의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45	58	16.8	124	35.9	83	24.1	42	12.2	38	11.0
성별	남자	89	7	7.9	29	32.6	18	20.2	11	12.4	24	27.0
	여자	256	51	19.9	95	37.1	65	25.4	31	12.1	14	5.5
나이	전기	55	5	9.1	16	29.1	9	16.4	9	16.4	16	29.1
	중기	200	33	16.5	74	37.0	51	25.5	25	12.5	17	8.5
	후기	90	20	22.2	34	37.8	23	25.6	8	8.9	5	5.6
장애유무	있음	65	21	32.3	15	23.1	12	18.5	5	7.7	12	18.5
	없음	280	37	13.2	109	38.9	71	25.4	37	13.2	26	9.3
권역	동구	83	15	18.1	36	43.4	26	31.3	3	3.6	3	3.6
	중구	55	2	3.6	34	61.8	10	18.2	5	9.1	4	7.3
	서구	71	19	26.8	23	32.4	11	15.5	8	11.3	10	14.1
	유성구	60	15	25.0	17	28.3	13	21.7	3	5.0	12	20.0
	대덕구	76	7	9.2	14	18.4	23	30.3	23	30.3	9	11.8

〈 표 4-2-36 〉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한달에 한번 이상		생일, 명절, 행사 때만		거의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교	없음	162	19	11.7	46	28.4	52	32.1	24	14.8	21	13.0
	불교	79	13	16.5	40	50.6	13	16.5	8	10.1	5	6.3
	개신교	78	20	25.6	27	34.6	17	21.8	6	7.7	8	10.3
	천주교	25	6	24.0	11	44.0	1	4.0	4	16.0	3	12.0
	기타	1	-	-	-	-	-	-	-	-	1	100.0
과거의 직업	농업	12	4	33.3	7	58.3	-	-	-	-	1	8.3
	공무원	6	2	33.3	1	16.7	1	16.7	1	16.7	1	16.7
	회사원	35	4	11.4	12	34.3	10	28.6	3	8.6	6	17.1
	자영업	90	11	12.2	23	25.6	28	31.1	16	17.8	12	13.3
	교사	2	1	50.0	1	50.0	-	-	-	-	-	-
	일용직	53	10	18.9	13	24.5	15	28.3	9	17.0	6	11.3
	없음	140	24	17.1	67	47.9	26	18.6	13	9.3	10	7.1
	기타	7	2	28.6	-	-	3	42.9	-	-	2	28.6
주거상태	자가	121	21	17.4	54	44.6	26	21.5	17	14.0	3	2.5
	전세	42	4	9.5	13	31.0	15	35.7	4	9.5	6	14.3
	월세	135	22	16.3	39	28.9	34	25.2	12	8.9	28	20.7
	무료	47	11	23.4	18	38.3	8	17.0	9	19.1	1	2.1
독거여부	독거	304	37	12.2	116	38.2	76	25.0	40	13.2	35	11.5
	비독거	41	21	51.2	8	19.5	7	17.1	2	4.9	3	7.3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13	9	8.0	41	36.3	34	30.1	19	16.8	10	8.8
	50만원~100만원 미만	211	43	20.4	73	34.6	45	21.3	22	10.4	28	13.3
	100만원 이상	21	6	28.6	10	47.6	4	19.0	1	4.8	-	-

4) 가족 또는 이웃과의 대화 정도

함께 사는 자녀 또는 이웃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가 36.3%로 가장 많았으나,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의 응답률도 35.3%로 두 번째로 많다. 남자노인의 50.9%, 장애가 있는 노인의 68.9%,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56.0%, 월세에 거주하는 노인의 49.7%가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37 〉 가족 또는 이웃과의 대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65	16.3	145	36.3	141	35.3	49	12.3
성별	남자	106	14	13.2	30	28.3	54	50.9	8	7.5
	여자	294	51	17.3	115	39.1	87	29.6	41	13.9
장애유무	있음	74	7	9.5	6	8.1	51	68.9	10	13.5
	없음	326	58	17.8	139	42.6	90	27.6	39	12.0
권역	동구	88	14	15.9	44	50.0	16	18.2	14	15.9
	중구	79	21	26.6	42	53.2	8	10.1	8	10.1
	서구	78	14	17.9	12	15.4	42	53.8	10	12.8
	유성구	76	6	7.9	13	17.1	50	65.8	7	9.2
	대덕구	79	10	12.7	34	43.0	25	31.6	10	12.7
종교	없음	186	24	12.9	75	40.3	74	39.8	13	7.0
	불교	100	17	17.0	41	41.0	28	28.0	14	14.0
	개신교	83	18	21.7	24	28.9	27	32.5	14	16.9
	천주교	30	6	20.0	5	16.7	11	36.7	8	26.7
	기타	1	-	-	-	-	1	100.0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2	8.0	3	12.0	14	56.0	6	24.0
	없음	375	63	16.8	142	37.9	127	33.9	43	11.5
주거상태	자가	129	28	21.7	55	42.6	28	21.7	18	14.0
	전세	49	7	14.3	22	44.9	17	34.7	3	6.1
	월세	169	23	13.6	40	23.7	84	49.7	22	13.0
	무료	53	7	13.2	28	52.8	12	22.6	6	11.3
독거여부	독거	358	62	17.3	139	38.8	118	33.0	39	10.9
	비독거	42	3	7.1	6	14.3	23	54.8	10	23.8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22	17.5	63	50.0	37	29.4	4	3.2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37	14.7	74	29.4	98	38.9	43	17.1
	100만원 이상	22	6	27.3	8	36.4	6	27.3	2	9.1

5)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는 49.8%가 ‘말벗 정도로 지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낸다(26.0%)’, ‘잘 모르고 지낸다(1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41.9%가 ‘잘 모르고 지낸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서구에 사는 노인의 55.1%와 비독거 노인의 38.1%가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표 4-2-38 〉 이웃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다		말벗 정도로 지낸다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낸다		잘 모르고 지낸다		이웃이 누구든 관심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40	10.0	199	49.8	104	26.0	55	13.8	2	0.5
성별	남자	106	3	2.8	51	48.1	31	29.2	21	19.8	-	-
	여자	294	37	12.6	148	50.3	73	24.8	34	11.6	2	0.7
나이	전기	66	2	3.0	35	53.0	14	21.2	15	22.7	-	-
	중기	235	28	11.9	116	49.4	63	26.8	28	11.9	-	-
	후기	99	10	10.1	48	48.5	27	27.3	12	12.1	2	2.0
장애유무	있음	74	8	10.8	16	21.6	18	24.3	31	41.9	1	1.4
	없음	326	32	9.8	183	56.1	86	26.4	24	7.4	1	0.3
권역	동구	88	13	14.8	50	56.8	19	21.6	5	5.7	1	1.1
	중구	79	8	10.1	62	78.5	4	5.1	4	5.1	1	1.3
	서구	78	6	7.7	23	29.5	43	55.1	6	7.7	-	-
	유성구	76	7	9.2	22	28.9	16	21.1	31	40.8	-	-
	대덕구	79	6	7.6	42	53.2	22	27.8	9	11.4	-	-
종교	없음	186	7	3.8	98	52.7	56	30.1	25	13.4	-	-
	불교	100	15	15.0	55	55.0	18	18.0	12	12.0	-	-
	개신교	83	12	14.5	37	44.6	17	20.5	15	18.1	2	2.4
	천주교	30	6	20.0	9	30.0	12	40.0	3	10.0	-	-
	기타	1	-	-	-	-	1	100.0	-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7	9.9	41	57.7	15	21.1	8	11.3	-	-
	다세대/빌라	124	8	6.5	68	54.8	25	20.2	22	17.7	1	0.8
	아파트	203	24	11.8	90	44.3	64	31.5	24	11.8	1	0.5
	기타	2	1	50.0	-	-	-	-	1	50.0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3	23.1	4	30.8	4	30.8	2	15.4	-	-
	공무원	7	-	-	2	28.6	4	57.1	1	14.3	-	-
	회사원	42	3	7.1	23	54.8	10	23.8	5	11.9	1	2.4
	자영업	102	11	10.8	48	47.1	24	23.5	19	18.6	-	-
	교사	3	1	33.3	-	-	-	-	2	66.7	-	-
	일용직	59	7	11.9	28	47.5	11	18.6	13	22.0	-	-
	없음	167	13	7.8	93	55.7	49	29.3	11	6.6	1	0.6
	기타	7	2	28.6	1	14.3	2	28.6	2	28.6	-	-
주거상태	자가	129	16	12.4	76	58.9	30	23.3	7	5.4	-	-
	전세	49	3	6.1	28	57.1	9	18.4	8	16.3	1	2.0
	월세	169	17	10.1	66	39.1	50	29.6	35	20.7	1	0.6
	무료	53	4	7.5	29	54.7	15	28.3	5	9.4	-	-
독거여부	독거	358	33	9.2	187	52.2	88	24.6	48	13.4	2	0.6
	비독거	42	7	16.7	12	28.6	16	38.1	7	1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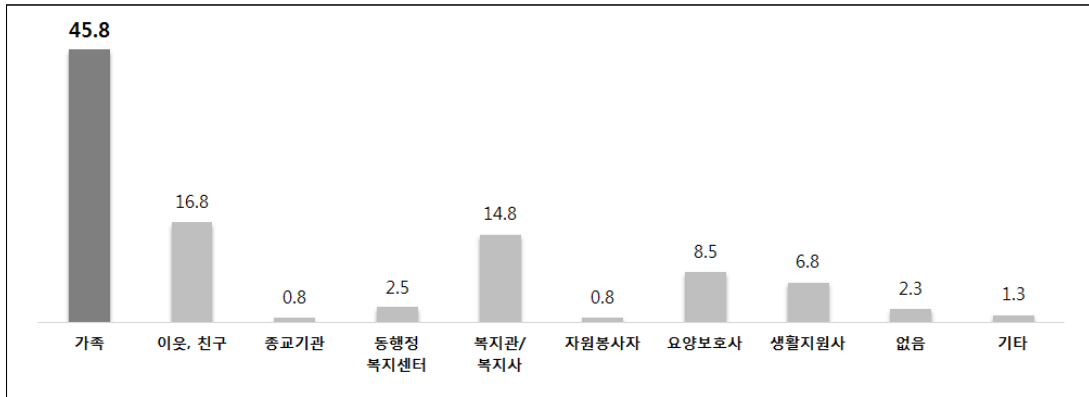
5. 돌봄 서비스 현황

1)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가에 대해 45.8%가 ‘가족’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웃, 친구(16.8%), 복지관/복지사(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2.3%이다. 후기 노인(84세 이상)의 56.6%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다른 연령대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은 복지관/복지사(44.9%)에게 도움을 받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은 가족 다음으로 요양보호사(31.1%)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 그림 4-2-8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단위: %)



〈 표 4-2-39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족		이웃, 친구		종교기관		동행정 복지센터		복지관/ 복지사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83	45.8	67	16.8	3	0.8	10	2.5	59	14.8	3	0.8	34	8.5	27	6.8	9	2.3	5	1.3
성별	남자	106	36	34.0	19	17.9	-	-	4	3.8	18	17.0	-	-	14	13.2	9	8.5	3	2.8	3	2.8
	여자	294	147	50.0	48	16.3	3	1.0	6	2.0	41	13.9	3	1.0	20	6.8	18	6.1	6	2.0	2	0.7
나이	전기	66	22	33.3	15	22.7	-	-	2	3.0	11	16.7	-	-	8	12.1	3	4.5	1	1.5	4	6.1
	중기	235	105	44.7	39	16.6	2	0.9	6	2.6	37	15.7	1	0.4	19	8.1	18	7.7	7	3.0	1	0.4
	후기	99	56	56.6	13	13.1	1	1.0	2	2.0	11	11.1	2	2.0	7	7.1	6	6.1	1	1.0	-	-
장애 유무	있음	74	34	45.9	2	2.7	-	-	3	4.1	8	10.8	-	-	17	23.0	2	2.7	4	5.4	4	5.4
	없음	326	149	45.7	65	19.9	3	0.9	7	2.1	51	15.6	3	0.9	17	5.2	25	7.7	5	1.5	1	0.3

〈 표 4-2-39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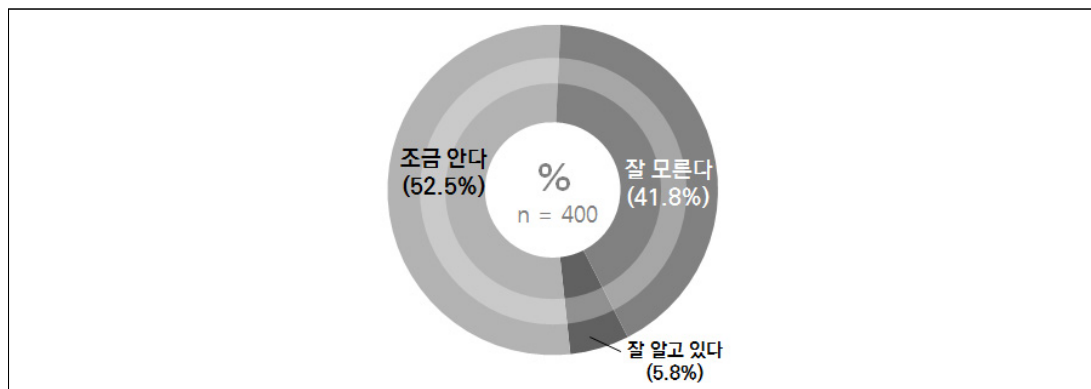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가족		이웃, 친구		종교기관		동행정 복지센터		복지관/ 복지사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88	54	61.4	20	22.7	1	1.1	1	1.1	7	8.0	1	1.1	1	1.1	2	2.3	-	-	1	1.1
	중구	79	34	43.0	11	13.9	1	1.3	2	2.5	8	10.1	-	-	5	6.3	16	20.3	2	2.5	-	-
	서구	78	32	41.0	3	3.8	-	-	1	1.3	35	44.9	-	-	4	5.1	2	2.6	1	1.3	-	-
	유성구	76	36	47.4	14	18.4	1	1.3	2	2.6	1	1.3	-	-	14	18.4	1	1.3	5	6.6	2	2.6
	대덕구	79	27	34.2	19	24.1	-	-	4	5.1	8	10.1	2	2.5	10	12.7	6	7.6	1	1.3	2	2.5
과거의 직업	농업	13	11	84.6	-	-	-	-	-	-	2	15.4	-	-	-	-	-	-	-	-	-	-
	공무원	7	2	28.6	-	-	-	-	1	14.3	3	42.9	-	-	-	-	1	14.3	-	-	-	-
	회사원	42	14	33.3	12	28.6	1	2.4	-	-	4	9.5	-	-	4	9.5	2	4.8	2	4.8	3	7.1
	자영업	102	44	43.1	16	15.7	1	1.0	6	5.9	9	8.8	2	2.0	13	12.7	8	7.8	1	1.0	2	2.0
	교사	3	1	33.3	-	-	-	-	-	-	-	-	-	-	1	33.3	-	-	1	33.3	-	-
	일용직	59	22	37.3	12	20.3	-	-	2	3.4	10	16.9	1	1.7	8	13.6	3	5.1	1	1.7	-	-
	없음	167	86	51.5	27	16.2	-	-	1	0.6	30	18.0	-	-	7	4.2	12	7.2	4	2.4	-	-
	기타	7	3	42.9	-	-	1	14.3	-	-	1	14.3	-	-	1	14.3	1	14.3	-	-	-	-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29	39.2	8	10.8	1	1.4	2	2.7	6	8.1	-	-	23	31.1	3	4.1	1	1.4	1	1.4
	없음	326	154	47.2	59	18.1	2	0.6	8	2.5	53	16.3	3	0.9	11	3.4	24	7.4	8	2.5	4	1.2

2) 지역사회 도움 신청 방법 인지도

어려울 때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금 안다 (52.5%)’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41.8%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8%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지는 않았다. 장애가 있는 노인(64.9%)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64.0%)이, 비독거 노인이(59.5%),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70.3%)이 다수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4-2-9 〉 지역사회 도움 신청 경로 인지

(단위: %)



〈 표 4-2-40 〉 지역사회 도움 신청 경로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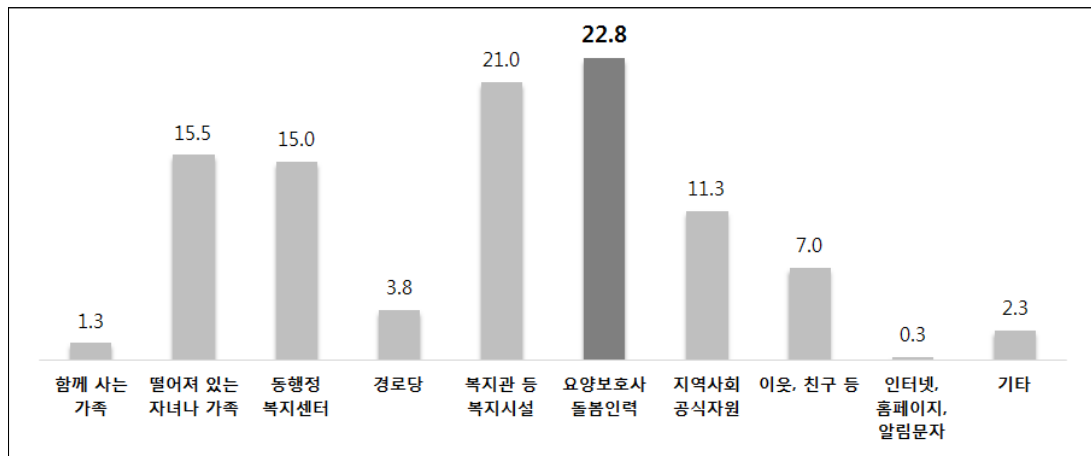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3	5.8	210	52.5	167	41.8
장애유무	있음	74	4	5.4	22	29.7	48	64.9
	없음	326	19	5.8	188	57.7	119	36.5
권역	동구	88	-	-	45	51.1	43	48.9
	중구	79	2	2.5	32	40.5	45	57.0
	서구	78	17	21.8	44	56.4	17	21.8
	유성구	76	2	2.6	33	43.4	41	53.9
	대덕구	79	2	2.5	56	70.9	21	26.6
종교	없음	186	7	3.8	117	62.9	62	33.3
	불교	100	5	5.0	47	47.0	48	48.0
	개신교	83	8	9.6	35	42.2	40	48.2
	천주교	30	3	10.0	11	36.7	16	53.3
	기타	1	-	-	-	-	1	100.0
과거의 직업	농업	13	3	23.1	5	38.5	5	38.5
	공무원	7	2	28.6	3	42.9	2	28.6
	회사원	42	3	7.1	26	61.9	13	31.0
	자영업	102	4	3.9	50	49.0	48	47.1
	교사	3	-	-	1	33.3	2	66.7
	일용직	59	2	3.4	40	67.8	17	28.8
	없음	167	8	4.8	82	49.1	77	46.1
	기타	7	1	14.3	3	42.9	3	42.9
배우자 유무	있음	25	3	12.0	6	24.0	16	64.0
	없음	375	20	5.3	204	54.4	151	40.3
주거상태	자가	129	10	7.8	70	54.3	49	38.0
	전세	49	3	6.1	30	61.2	16	32.7
	월세	169	9	5.3	73	43.2	87	51.5
	무료	53	1	1.9	37	69.8	15	28.3
독거여부	독거	358	19	5.3	197	55.0	142	39.7
	비독거	42	4	9.5	13	31.0	25	59.5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	0.8	80	63.5	45	35.7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9	7.5	119	47.2	114	45.2
	100만원 이상	22	3	13.6	11	50.0	8	36.4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2	2.7	20	27.0	52	70.3
	없음	326	21	6.4	190	58.3	115	35.3

3)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22.8%가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돌봄인력’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복지관 등 복지시설(21.0%)’, ‘떨어져 있는 자녀나 가족(15.5%)’, ‘동행정복지센터(15.0%)’ 순으로 응답하였다. 후기노인(85세 이상)은 ‘떨어져 있는 자녀나 가족(23.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 거주 노인은 ‘이웃, 친구 등(22.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노인은 ‘통반장 등 지역사회 공식자원(22.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노인은 ‘복지관 등 복지시설(24.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그림 4-2-10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 표 4-2-41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함께 사는 가족		떨어져 있는 자녀나 가족		동행정 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돌봄인력		지역사회 공식자원		이웃, 친구 등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문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5	1.3	62	15.5	60	15.0	15	3.8	84	21.0	91	22.8	45	11.3	28	7.0	1	0.3	9	2.3
성별	남자	106	1	0.9	7	6.6	26	24.5	-	-	20	18.9	32	30.2	8	7.5	9	8.5	-	-	3	2.8
	여자	294	4	1.4	55	18.7	34	11.6	15	5.1	64	21.8	59	20.1	37	12.6	19	6.5	1	0.3	6	2.0
나이	전기	66	-	-	8	12.1	13	19.7	-	-	14	21.2	12	18.2	9	13.6	7	10.6	-	-	3	4.5
	중기	235	3	1.3	31	13.2	34	14.5	10	4.3	54	23.0	59	25.1	22	9.4	17	7.2	1	0.4	4	1.7
	후기	99	2	2.0	23	23.2	13	13.1	5	5.1	16	16.2	20	20.2	14	14.1	4	4.0	-	-	2	2.0

〈 표 4-2-41 〉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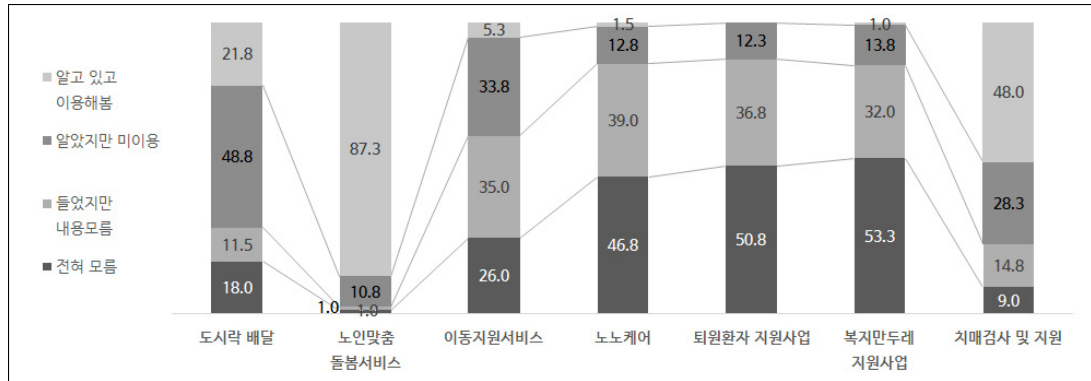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함께 사는 가족		떨어져 있는 자녀나 가족		동행정 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돌봄인력		지역사회 공식자원		이웃, 친구 등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문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 유무	있음	74	2	2.7	10	13.5	20	27.0	1	1.4	8	10.8	24	32.4	3	4.1	1	1.4	-	-	5	6.8
	없음	326	3	0.9	52	16.0	40	12.3	14	4.3	76	23.3	67	20.6	42	12.9	27	8.3	1	0.3	4	1.2
권역	동구	88	1	1.1	13	14.8	11	12.5	9	10.2	17	19.3	12	13.6	3	3.4	20	22.7	1	1.1	1	1.1
	중구	79	1	1.3	27	34.2	4	5.1	-	-	7	8.9	34	43.0	2	2.5	2	2.5	-	-	2	2.5
	서구	78	2	2.6	11	14.1	7	9.0	1	1.3	36	46.2	15	19.2	3	3.8	2	2.6	-	-	1	1.3
	유성구	76	1	1.3	8	10.5	20	26.3	4	5.3	8	10.5	13	17.1	17	22.4	1	1.3	-	-	4	5.3
	대덕구	79	-	-	3	3.8	18	22.8	1	1.3	16	20.3	17	21.5	20	25.3	3	3.8	-	-	1	1.3
주거 상태	자가	129	1	0.8	24	18.6	19	14.7	5	3.9	33	25.6	23	17.8	10	7.8	12	9.3	1	0.8	1	0.8
	전세	49	-	-	8	16.3	8	16.3	3	6.1	6	12.2	11	22.4	7	14.3	4	8.2	-	-	2	4.1
	월세	169	3	1.8	21	12.4	29	17.2	5	3.0	33	19.5	50	29.6	13	7.7	9	5.3	-	-	6	3.6
	무료	53	1	1.9	9	17.0	4	7.5	2	3.8	12	22.6	7	13.2	15	28.3	3	5.7	-	-	-	-
독거 유무	독거	358	3	0.8	58	16.2	48	13.4	15	4.2	74	20.7	82	22.9	42	11.7	27	7.5	1	0.3	8	2.2
	비독거	42	2	4.8	4	9.5	12	28.6	-	-	10	23.8	9	21.4	3	7.1	1	2.4	-	-	1	2.4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26	-	-	26	20.6	19	15.1	2	1.6	24	19.0	17	13.5	28	22.2	7	5.6	-	-	3	2.4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4	1.6	31	12.3	38	15.1	12	4.8	51	20.2	73	29.0	16	6.3	20	7.9	1	0.4	6	2.4
	100만원 이상	22	1	4.5	5	22.7	3	13.6	1	4.5	9	40.9	1	4.5	1	4.5	1	4.5	-	-	-	-
	100만원 이상	22	1	4.5	5	22.7	3	13.6	1	4.5	9	40.9	1	4.5	1	4.5	1	4.5	-	-	-	-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2	2.7	11	14.9	17	23.0	1	1.4	5	6.8	32	43.2	1	1.4	4	5.4	-	-	1	1.4
	없음	326	3	0.9	51	15.6	43	13.2	14	4.3	79	24.2	59	18.1	44	13.5	24	7.4	1	0.3	8	2.5

4) 대전광역시 돌봄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여부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2-42>와 같다. 가장 많은 분포로 알고 있고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87.3%)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다수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인 점이 반영된 응답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알고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률이 높은 서비스는 ‘치매검사 및 지원(48.0%)’와 ‘도시락 배달(21.8%)’ 서비스이다. 반면에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었지만 모른다는 노인의 응답률이 높은 서비스는 ‘퇴원환자 지원사업(87.6%)’이며 그 외에 ‘복지만두레 지원사업(87.3%)’, ‘노노케어(85.8%)’, ‘이동지원 서비스(61.0%)’에 대해서 다수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11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

(단위: %)



〈 표 4-2-42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시락 배달	72	18.0	46	11.5	195	48.8	87	21.8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4	1.0	4	1.0	43	10.8	349	87.3
이동지원서비스	104	26.0	140	35.0	135	33.8	21	5.3
노노케어	187	46.8	156	39.0	51	12.8	6	1.5
퇴원환자 지원사업	203	50.8	147	36.8	49	12.3	1	0.3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213	53.3	128	32.0	55	13.8	4	1.0
치매검사 및 지원	36	9.0	59	14.8	113	28.3	192	48.0

도시락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21.8%가 ‘알고 있고 이용해봄’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용해 본 노인의 비율이 87.3%이며, 전혀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는 노인은 응답자의 2.0%이다. 종교, 배우자 유무, 독거여부, 정부지원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표 4-2-43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4	1.0	4	1.0	43	10.8	349	87.3
종교	없음	186	2	1.1	2	1.1	15	8.1	167	89.8
	불교	100	1	1.0	-	-	11	11.0	88	88.0
	개신교	83	1	1.2	1	1.2	8	9.6	73	88.0
	천주교	30	-	-	1	3.3	8	26.7	21	70.0
	기타	1	-	-	-	-	1	100.0	-	-

〈 표 4-2-43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배우자 유무	있음	25	-	-	-	-	8	32.0	17	68.0
	없음	375	4	1.1	4	1.1	35	9.3	332	88.5
독거여부	독거	358	4	1.1	4	1.1	28	7.8	322	89.9
	비독거	42	-	-	-	-	15	35.7	27	64.3
정부지원	있음	384	4	1.0	4	1.0	38	9.9	338	88.0
	없음	16	-	-	-	-	5	31.3	11	68.8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었지만 내용을 모르는 비율이 61%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후기노인의 경우 전혀 모름(31.3%), 들었지만 내용 모름(41.4%)의 분포가 다른 연령보다 높았고, 장애가 있는 노인은 알고 이용한 분포가 20.3%로 비교적 높지만, 전혀 모르는 분포도 51.4%로 높았다.

〈 표 4-2-44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04	26.0	140	35.0	135	33.8	21	5.3
성별	남자	106	28	26.4	30	28.3	36	34.0	12	11.3
	여자	294	76	25.9	110	37.4	99	33.7	9	3.1
나이	전기	66	15	22.7	17	25.8	24	36.4	10	15.2
	중기	235	58	24.7	82	34.9	85	36.2	10	4.3
	후기	99	31	31.3	41	41.4	26	26.3	1	1.0
장애유무	있음	74	38	51.4	7	9.5	14	18.9	15	20.3
	없음	326	66	20.2	133	40.8	121	37.1	6	1.8
권역	동구	88	25	28.4	29	33.0	32	36.4	2	2.3
	중구	79	16	20.3	40	50.6	21	26.6	2	2.5
	서구	78	23	29.5	32	41.0	18	23.1	5	6.4
	유성구	76	31	40.8	21	27.6	18	23.7	6	7.9
	대덕구	79	9	11.4	18	22.8	46	58.2	6	7.6
주거상태	자가	129	29	22.5	48	37.2	47	36.4	5	3.9
	전세	49	11	22.4	18	36.7	17	34.7	3	6.1
	월세	169	56	33.1	53	31.4	47	27.8	13	7.7
	무료	53	8	15.1	21	39.6	24	45.3	-	-
독거여부	독거	358	86	24.0	130	36.3	125	34.9	17	4.7
	비독거	42	18	42.9	10	23.8	10	23.8	4	9.5

〈 표 4-2-44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29	23.0	44	34.9	51	40.5	2	1.6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71	28.2	87	34.5	78	31.0	16	6.3
	100만원 이상	22	4	18.2	9	40.9	6	27.3	3	13.6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43	58.1	8	10.8	12	16.2	11	14.9
	없음	326	61	18.7	132	40.5	123	37.7	10	3.1

노노케어서비스에 대해서는 46.8%가 ‘전혀모름’, 39.0%가 ‘들었지만 내용모름’이라고 응답하여 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퇴원환자지원사업에 대해서 50.8%가 ‘전혀모름’, 36.8%가 ‘들었지만 내용모름’이라고 응답하여 지원사업 중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장애가 있는 노인(86.5%)이, 유성구(73.7%)와 동구(60.2%) 지역 거주 노인이, 월세 거주 노인(62.7%)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 노인(68.2%)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78.4%)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분포로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45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퇴원환자 지원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03	50.8	147	36.8	49	12.3	1	0.3
장애유무	있음	74	64	86.5	4	5.4	6	8.1	-	-
	없음	326	139	42.6	143	43.9	43	13.2	1	0.3
권역	동구	88	53	60.2	27	30.7	8	9.1	-	-
	중구	79	30	38.0	40	50.6	9	11.4	-	-
	서구	78	35	44.9	33	42.3	9	11.5	1	1.3
	유성구	76	56	73.7	14	18.4	6	7.9	-	-
	대덕구	79	29	36.7	33	41.8	17	21.5	-	-
종교	없음	186	81	43.5	78	41.9	27	14.5	-	-
	불교	100	53	53.0	40	40.0	6	6.0	1	1.0
	개신교	83	49	59.0	22	26.5	12	14.5	-	-
	천주교	30	20	66.7	6	20.0	4	13.3	-	-
	기타	1	-	-	1	100.0	-	-	-	-
주거상태	자가	129	61	47.3	47	36.4	21	16.3	-	-
	전세	49	18	36.7	24	49.0	6	12.2	1	2.0
	월세	169	106	62.7	44	26.0	19	11.2	-	-
	무료	53	18	34.0	32	60.4	3	5.7	-	-

〈 표 4-2-45 〉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돌봄 서비스(퇴원환자 지원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358	174	48.6	139	38.8	45	12.6	-	-
	비독거	42	29	69.0	8	19.0	4	9.5	1	2.4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44	34.9	61	48.4	21	16.7	-	-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44	57.1	80	31.7	27	10.7	1	0.4
	100만원 이상	22	15	68.2	6	27.3	1	4.5	-	-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58	78.4	10	13.5	5	6.8	1	1.4
	없음	326	145	44.5	137	42.0	44	13.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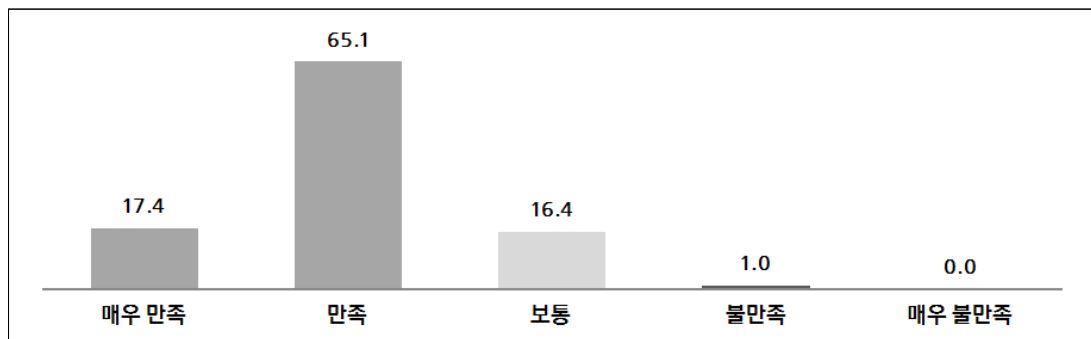
복지만두레 지원사업에 대해 53.3%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고 이용하는 노인도 응답자 중 1%로 인지도와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 치매검사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48.0%가 알고 있고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다양한 사업 중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비록 다른 사업보다는 분포가 낮으나 ‘전혀 모름(9%)’과 ‘들었지만 내용 모름(14.8%)’라고 응답한 노인이 여전히 있어 홍보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한편 ‘알았지만 미이용’의 분포가 28.3%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5) 돌봄 서비스 만족도

이용했거나 지금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0점이며, 매우 불만족은 전혀 없고, 불만족의 응답만 1.0%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이용 서비스에 대해 중간수준 이상으로 만족하였다. 동구, 서구, 중구에서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응답한 노인이 없었고,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3.7점)를 보였다.

〈 그림 4-2-12 〉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표 4-2-46 〉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84	67	17.4	250	65.1	63	16.4	4	1.0	-	-	4.0
성별	남자	98	14	14.3	62	63.3	20	20.4	2	2.0	-	-	3.9
	여자	286	53	18.5	188	65.7	43	15.0	2	0.7	-	-	4.0
장애유무	있음	67	5	7.5	43	64.2	16	23.9	3	4.5	-	-	3.8
	없음	317	62	19.6	207	65.3	47	14.8	1	0.3	-	-	4.0
권역	동구	83	22	26.5	52	62.7	9	10.8	-	-	-	-	4.2
	중구	79	14	17.7	53	67.1	12	15.2	-	-	-	-	4.0
	서구	77	21	27.3	41	53.2	15	19.5	-	-	-	-	4.1
	유성구	70	3	4.3	52	74.3	13	18.6	2	2.9	-	-	3.8
	대덕구	75	7	9.3	52	69.3	14	18.7	2	2.7	-	-	3.9
배우자 유무	있음	21	-	-	16	76.2	5	23.8	-	-	-	-	3.8
	없음	363	67	18.5	234	64.5	58	16.0	4	1.1	-	-	4.0
주거상태	자가	124	30	24.2	82	66.1	12	9.7	-	-	-	-	4.2
	전세	48	12	25.0	26	54.2	9	18.8	1	2.1	-	-	4.0
	월세	160	15	9.4	107	66.9	35	21.9	3	1.9	-	-	3.8
	무료	52	10	19.2	35	67.3	7	13.5	-	-	-	-	4.1
독거여부	독거	347	67	19.3	224	64.6	52	15.0	4	1.2	-	-	4.0
	비독거	37	-	-	26	70.3	11	29.7	-	-	-	-	3.7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2	5	6.9	42	58.3	23	31.9	2	2.8	-	-	3.7
	없음	312	62	19.9	208	66.7	40	12.8	2	0.6	-	-	4.1

이용했거나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4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각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돌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보여서’라고 응답하였다.

6) 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유

돌봄 서비스의 인지도 질문에서 ‘알고 있고 이용해 봄’을 응답하지 않은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를 문의하자 16명이 응답하였고, ‘나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아니어서(37.5%)’와 ‘신청방법을 몰라서(3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4-2-47 〉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신청방법을 몰라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돌봄 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아니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6	5	31.3	2	12.5	1	6.3	6	37.5	2	12.5

7) 경로식당 또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앞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중 도시락 배달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복지관 등의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서비스의 이용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고, 응답노인의 77.3%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였다. 대전광역시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알고 이용한 22.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 노인 중에서는 '한달에 1~2회 정도(6.5%)', '주4회 이상의 거의 매일(5.0%)', '일주일에 1회 정도(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구 거주 노인은 93.7%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동구의 노인은 12.5%가 '한달에 1~2회 정도' 라고 응답한 분포가 12.5%로 다른 구보다 높았다. 서구의 경우에는 노인의 16.7%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라고 응답하였다.

〈 표 4-2-48 〉 경로식당 또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1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09	77.3	15	3.8	26	6.5	20	5.0	10	2.5	20	5.0
권역	동구	88	64	72.7	3	3.4	11	12.5	1	1.1	4	4.5	5	5.7
	중구	79	74	93.7	2	2.5	1	1.3	-	-	1	1.3	1	1.3
	서구	78	53	67.9	1	1.3	6	7.7	13	16.7	2	2.6	3	3.8
	유성구	76	53	69.7	4	5.3	5	6.6	6	7.9	1	1.3	7	9.2
	대덕구	79	65	82.3	5	6.3	3	3.8	-	-	2	2.5	4	5.1
종교	없음	186	144	77.4	9	4.8	14	7.5	7	3.8	3	1.6	9	4.8
	불교	100	81	81.0	1	1.0	5	5.0	6	6.0	2	2.0	5	5.0
	개신교	83	63	75.9	3	3.6	5	6.0	4	4.8	3	3.6	5	6.0
	천주교	30	21	70.0	1	3.3	2	6.7	3	10.0	2	6.7	1	3.3
	기타	1	-	-	1	100.0	-	-	-	-	-	-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8	61.5	-	-	2	15.4	1	7.7	-	-	2	15.4
	공무원	7	4	57.1	-	-	-	-	1	14.3	2	28.6	-	-
	회사원	42	35	83.3	1	2.4	2	4.8	3	7.1	-	-	1	2.4
	자영업	102	78	76.5	7	6.9	5	4.9	3	2.9	-	-	9	8.8
	교사	3	3	100.0	-	-	-	-	-	-	-	-	-	-
	일용직	59	40	67.8	4	6.8	4	6.8	5	8.5	4	6.8	2	3.4
	없음	167	134	80.2	3	1.8	13	7.8	7	4.2	4	2.4	6	3.6
	기타	7	7	100.0	-	-	-	-	-	-	-	-	-	-
주거상태	자가	129	108	83.7	3	2.3	9	7.0	5	3.9	2	1.6	2	1.6
	전세	49	39	79.6	-	-	4	8.2	2	4.1	1	2.0	3	6.1
	월세	169	121	71.6	9	5.3	9	5.3	13	7.7	3	1.8	14	8.3
	무료	53	41	77.4	3	5.7	4	7.5	-	-	4	7.5	1	1.9

8)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기입하는 항목에서 밀반찬(18.9%), 식사지원(18.1%), 도시락 배달(8.9%) 등 식사와 관련된 욕구가 가장 높았다.

〈 표 4-2-49 〉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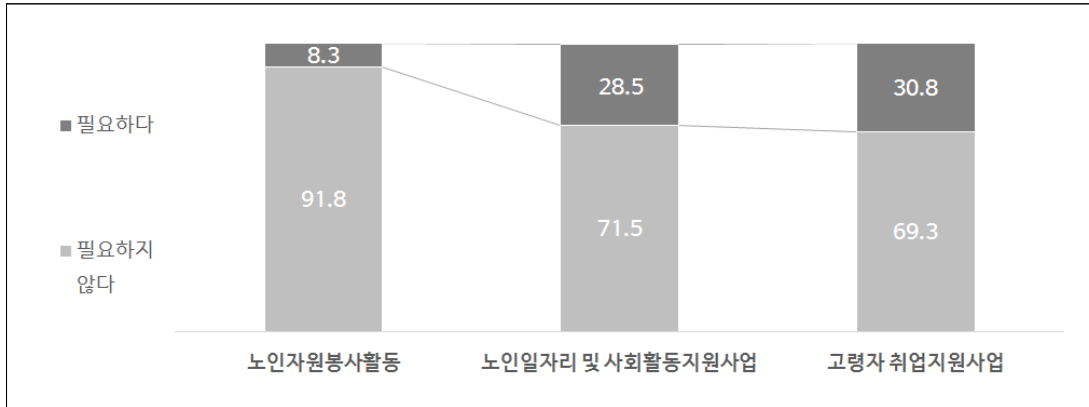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59	100.0
밀반찬	49	18.9
식사지원	47	18.1
가사서비스	29	11.2
도시락 배달	23	8.9
말벗 서비스	22	8.5
모름/무응답	13	5.0
요양보호사 방문	10	3.9
집 청소	10	3.9
이동지원 서비스	6	2.3
생활지도사 돌봄	5	1.9
생활비 지원	4	1.5
세탁서비스	4	1.5
난방비 지원	4	1.5
무거운 짐 운반서비스	4	1.5
방문간호서비스	4	1.5
수급비 확대	3	1.2
김치 지원	3	1.2
장보기	2	0.8
활동 지원서비스 방문시간 확대	2	0.8
AI 지원	2	0.8
냉방용품 지원	2	0.8
우유지원	2	0.8
병원비 지원	1	0.4
주말 돌봄 서비스	1	0.4
베란다 사시	1	0.4
외출시 용변 실수 했을 때 돌봄 받을수 있는 서비스	1	0.4
복지용구 제공	1	0.4
가전용품 지원	1	0.4
쌀지원	1	0.4
영양제 지원	1	0.4
위험시 벨누르면 119출동 서비스	1	0.4

9) 대전광역시 지원 프로그램 필요 여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중 ‘식사지원(도시락, 밑반찬 등)’으로 7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중 ‘말벗, 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48.8%)’, ‘가사, 세탁 등 돌봄 서비스(45.5%)’, ‘요양보호사 & 생활지원사 방문(45.5%)’ 순으로 응답하여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컸다. 사회참여서비스 중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사업(3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족관계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 1% 미만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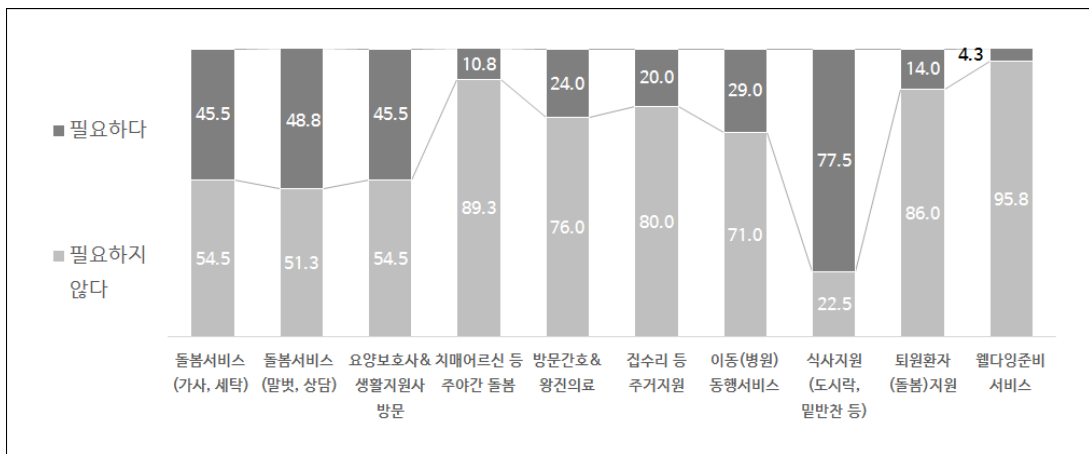
〈 그림 4-2-13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사회참여 서비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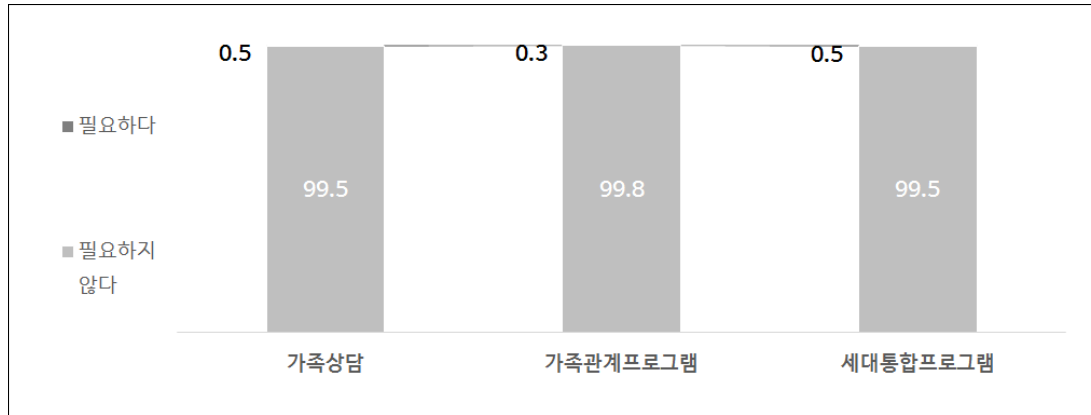
〈 그림 4-2-14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돌봄 서비스)

(단위: %)



〈 그림 4-2-15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가족관계 서비스)

(단위: %)



〈 표 4-2-50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참여 서비스	노인자원봉사활동	33	8.3	367	9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4	28.5	286	71.5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123	30.8	277	69.3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사, 세탁)	182	45.5	218	54.5
	돌봄 서비스(밀벗, 상담)	195	48.8	205	51.3
	요양보호사 & 생활지원사 방문	182	45.5	218	54.5
	치매어르신 등 주간 돌봄	43	10.8	357	89.3
	방문간호 & 왕진의료	96	24.0	304	76.0
	집수리 등 주거지원	80	20.0	320	80.0
	이동(병원)동행서비스	116	29.0	284	71.0
	식사지원(도시락, 밀반찬 등)	310	77.5	90	22.5
	퇴원환자(돌봄)지원	56	14.0	344	86.0
	웰다잉준비 서비스	17	4.3	383	95.8
	가족상담	2	0.5	398	99.5
가족관계 서비스	가족관계프로그램	1	0.3	399	99.8
	세대통합프로그램	2	0.5	398	99.5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사회참여 서비스 중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은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30.8%)’이다. 권역별로 동구(68.2%)와 중구(58.2%)가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주거상태가 자가인 노인의 4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28.5%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중구에서는 8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의 정도는 8.3%로 높지는 않았으나, 중구 거주 노인의 29.1%가 비교적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51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참여 서비스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3	8.3	114	28.5	123	30.8
성별	남자	106	13	12.3	32	30.2	34	32.1
	여자	294	20	6.8	82	27.9	89	30.3
장애유무	있음	74	4	5.4	15	20.3	13	17.6
	없음	326	29	8.9	99	30.4	110	33.7
권역	동구	88	1	1.1	27	30.7	60	68.2
	중구	79	23	29.1	65	82.3	46	58.2
	서구	78	5	6.4	7	9.0	5	6.4
	유성구	76	1	1.3	7	9.2	5	6.6
	대덕구	79	3	3.8	8	10.1	7	8.9
종교	없음	186	18	9.7	44	23.7	54	29.0
	불교	100	9	9.0	41	41.0	36	36.0
	개신교	83	5	6.0	22	26.5	26	31.3
	천주교	30	1	3.3	7	23.3	7	23.3
	기타	1	-	-	-	-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4	30.8	3	23.1
	공무원	7	-	-	1	14.3	1	14.3
	회사원	42	1	2.4	9	21.4	4	9.5
	자영업	102	8	7.8	27	26.5	30	29.4
	교사	3	-	-	1	33.3	1	33.3
	일용직	59	3	5.1	13	22.0	18	30.5
	없음	167	21	12.6	58	34.7	65	38.9
	기타	7	-	-	1	14.3	1	14.3
배우자 유무	있음	25	3	12.0	6	24.0	3	12.0
	없음	375	30	8.0	108	28.8	120	32.0
주거상태	자가	129	14	10.9	46	35.7	52	40.3
	전세	49	4	8.2	9	18.4	13	26.5
	월세	169	10	5.9	45	26.6	40	23.7
	무료	53	5	9.4	14	26.4	18	34.0

〈 표 4-2-51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참여 서비스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358	30	8.4	103	28.8	115	32.1
	비독거	42	3	7.1	11	26.2	8	19.0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7	5.6	27	21.4	36	28.6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25	9.9	85	33.7	83	32.9
	100만원 이상	22	1	4.5	2	9.1	4	18.2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2	2.7	8	10.8	6	8.1
	없음	326	31	9.5	106	32.5	117	35.9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돌봄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식도시락, 밑반찬 등 식사지원(77.5%)’이다. 유성구 거주 노인의 92.1%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의 90.5%가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말벗, 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는 4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후기 노인(85세 이상, 60.6%), 서구거주 노인(74.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의 노인(72.7%)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세탁 등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45.5%로 후기 노인(55.6%), 동구 거주 노인(64.8%), 그리고 서구 거주 노인(57.7%)이 비교적 높은 분포의 욕구를 보였다. 같은 분포의 욕구를 나타낸 ‘요양보호사 & 생활지원사 방문(45.5%)’은 전기노인(57.6%), 장애가 있는 노인(71.6%), 월세거주 노인(56.8%),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받은 노인(82.4%)이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동(병원)동행서비스’는 중구 거주 노인의 44.3%와 유성구 노인의 4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52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1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식사지원 (도사락, 밑반찬 등)		돌봄 서비스 (말벗, 상담)		돌봄 서비스 (가사, 세탁)		요양보호사&생활 지원사 방문		이동동행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10	77.5	195	48.8	182	45.5	182	45.5	116	29.0
나이	전기	66	53	80.3	26	39.4	28	42.4	38	57.6	22	33.3
	중기	235	179	76.2	109	46.4	99	42.1	96	40.9	62	26.4
	후기	99	78	78.8	60	60.6	55	55.6	48	48.5	32	32.3
장애 유무	있음	74	65	87.8	23	31.1	19	25.7	53	71.6	22	29.7
	없음	326	245	75.2	172	52.8	163	50.0	129	39.6	94	28.8

〈 표 4-2-52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1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등)		돌봄 서비스 (말벗, 상담)		돌봄 서비스 (가사, 세탁)		요양보호사&생활 지원사 방문		이동동행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88	59	67.0	50	56.8	57	64.8	22	25.0	20	22.7
	중구	79	62	78.5	24	30.4	23	29.1	45	57.0	35	44.3
	서구	78	53	67.9	58	74.4	45	57.7	38	48.7	14	17.9
	유성구	76	70	92.1	21	27.6	24	31.6	47	61.8	31	40.8
	대덕구	79	66	83.5	42	53.2	33	41.8	30	38.0	16	20.3
종교	없음	186	155	83.3	99	53.2	103	55.4	80	43.0	59	31.7
	불교	100	72	72.0	44	44.0	34	34.0	45	45.0	33	33.0
	개신교	83	65	78.3	40	48.2	32	38.6	41	49.4	19	22.9
	천주교	30	17	56.7	12	40.0	13	43.3	16	53.3	5	16.7
	기타	1	1	100.0	-	-	-	-	-	-	-	-
주거 형태	단독주택	71	55	77.5	34	47.9	38	53.5	32	45.1	17	23.9
	다세대/빌라	124	100	80.6	60	48.4	51	41.1	62	50.0	44	35.5
	아파트	203	153	75.4	101	49.8	92	45.3	86	42.4	53	26.1
	기타	2	2	100.0	-	-	1	50.0	2	100.0	2	100.0
과거의 직업	농업	13	5	38.5	6	46.2	2	15.4	7	53.8	1	7.7
	공무원	7	6	85.7	3	42.9	4	57.1	1	14.3	-	-
	회사원	42	33	78.6	16	38.1	21	50.0	16	38.1	13	31.0
	자영업	102	85	83.3	45	44.1	42	41.2	49	48.0	33	32.4
	교사	3	-	-	1	33.3	-	-	-	-	-	-
	일용직	59	49	83.1	30	50.8	30	50.8	27	45.8	10	16.9
	없음	167	126	75.4	90	53.9	80	47.9	76	45.5	59	35.3
	기타	7	6	85.7	4	57.1	3	42.9	6	85.7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20	80.0	8	32.0	5	20.0	9	36.0	8	32.0
	없음	375	290	77.3	187	49.9	177	47.2	173	46.1	108	28.8
주거 상태	자가	129	82	63.6	72	55.8	59	45.7	49	38.0	30	23.3
	전세	49	38	77.6	21	42.9	26	53.1	22	44.9	11	22.4
	월세	169	152	89.9	73	43.2	69	40.8	96	56.8	59	34.9
	무료	53	38	71.7	29	54.7	28	52.8	15	28.3	16	30.2
독거 유무	독거	358	276	77.1	184	51.4	173	48.3	164	45.8	104	29.1
	비독거	42	34	81.0	11	26.2	9	21.4	18	42.9	12	28.6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26	104	82.5	72	57.1	63	50.0	46	36.5	43	34.1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93	76.6	107	42.5	110	43.7	130	51.6	65	25.8
	100만원 이상	22	13	59.1	16	72.7	9	40.9	6	27.3	8	36.4
정부 지원	있음	384	302	78.6	188	49.0	177	46.1	179	46.6	112	29.2
	없음	16	8	50.0	7	43.8	5	31.3	3	18.8	4	25.0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67	90.5	28	37.8	14	18.9	61	82.4	29	39.2
	없음	326	243	74.5	167	51.2	168	51.5	121	37.1	87	26.7

2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방문간호 & 왕진의료’ 프로그램은 서구 거주 노인이 가장 높은 분포(33.3%)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집수리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2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서구지역의 노인(30.8%)와 단독주택 거주 노인(32.4%)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퇴원환자 지원(14.0%)’ 프로그램은 특히 중구 거주 노인의 4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치매어르신 등 주야간 돌봄(10.8%)’ 프로그램도 역시 중구 거주 노인이 19.0% 필요하다고 가장 높은 분포로 응답하였다. 비교적 낮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웰다잉 준비 서비스(4.3%)는 동구 거주 노인이 13.6%로 가장 높은 분포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53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2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방문간호 & 왕진의료		집수리 등 주거지원		퇴원환자 지원		치매 어르신 등 주야간 돌봄		웰다잉준비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96	24.0	80	20.0	56	14.0	43	10.8	17	4.3
성별	남자	106	24	22.6	23	21.7	15	14.2	12	11.3	1	0.9
	여자	294	72	24.5	57	19.4	41	13.9	31	10.5	16	5.4
장애 유무	있음	74	13	17.6	10	13.5	7	9.5	3	4.1	1	1.4
	없음	326	83	25.5	70	21.5	49	15.0	40	12.3	16	4.9
권역	동구	88	21	23.9	19	21.6	12	13.6	3	3.4	12	13.6
	중구	79	18	22.8	21	26.6	32	40.5	15	19.0	4	5.1
	서구	78	26	33.3	24	30.8	6	7.7	8	10.3	1	1.3
	유성구	76	11	14.5	7	9.2	3	3.9	6	7.9	-	-
	대덕구	79	20	25.3	9	11.4	3	3.8	11	13.9	-	-
종교	없음	186	49	26.3	41	22.0	25	13.4	25	13.4	8	4.3
	불교	100	27	27.0	25	25.0	19	19.0	12	12.0	5	5.0
	개신교	83	15	18.1	9	10.8	10	12.0	3	3.6	1	1.2
	천주교	30	4	13.3	5	16.7	2	6.7	2	6.7	3	10.0
	기타	1	1	100.0	-	-	-	-	1	100.0	-	-
주거 형태	단독주택	71	20	28.2	23	32.4	14	19.7	7	9.9	7	9.9
	다세대/빌라	124	35	28.2	30	24.2	26	21.0	19	15.3	6	4.8
	아파트	203	41	20.2	27	13.3	16	7.9	17	8.4	4	2.0
	기타	2	-	-	-	-	-	-	-	-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4	16.0	1	4.0	3	12.0	4	16.0	-	-
	없음	375	92	24.5	79	21.1	53	14.1	39	10.4	17	4.5
독거 유무	독거	358	91	25.4	77	21.5	51	14.2	39	10.9	17	4.7
	비독거	42	5	11.9	3	7.1	5	11.9	4	9.5	-	-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26	20	15.9	21	16.7	16	12.7	15	11.9	8	6.3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70	27.8	55	21.8	39	15.5	27	10.7	9	3.6
	100만원 이상	22	6	27.3	4	18.2	1	4.5	1	4.5	-	-

10) 추가 필요 대전광역시 프로그램

위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의견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30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4-2-54 〉 그 외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3	100.0
방문목욕서비스	30	69.8
병원비 지원	3	7.0
말뼂 서비스	2	4.7
식사지원	1	2.3
이동지원 서비스	1	2.3
가사서비스	1	2.3
AI 지원	1	2.3
취미활동지원	1	2.3
의료서비스	1	2.3
냉방용품 지원	1	2.3
위험시 벨누르면 119출동 서비스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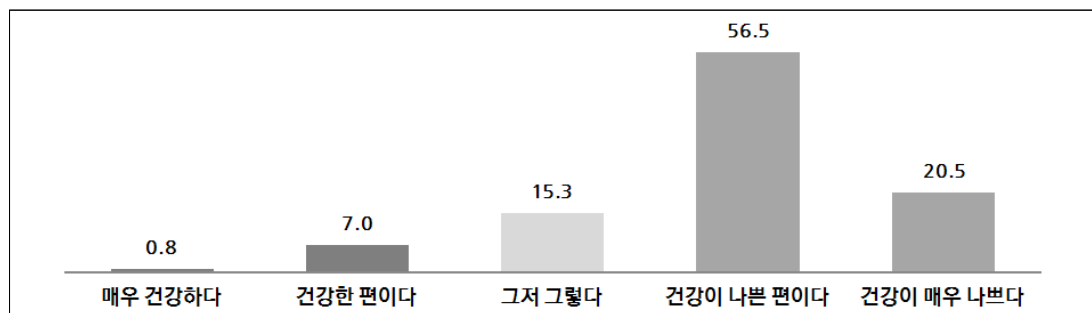
6. 건강 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 5점 척도에서 2.1점의 수준을 보이고 매우 건강과 건강한 편의 응답률이 7.8%에 그쳐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임을 알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노인(1.8점), 유성구 거주 노인(1.8점), 전세에 사는 노인(2.0점)은 2점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그림 4-2-16 〉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

(단위: %)



〈 표 4-2-55 〉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	0.8	28	7.0	61	15.3	226	56.5	82	20.5	2.1
장애유무	있음	74	-	-	3	4.1	11	14.9	31	41.9	29	39.2	1.8
	없음	326	3	0.9	25	7.7	50	15.3	195	59.8	53	16.3	2.2
권역	동구	88	3	3.4	6	6.8	11	12.5	54	61.4	14	15.9	2.2
	중구	79	-	-	8	10.1	19	24.1	46	58.2	6	7.6	2.4
	서구	78	-	-	4	5.1	13	16.7	46	59.0	15	19.2	2.1
	유성구	76	-	-	4	5.3	9	11.8	30	39.5	33	43.4	1.8
	대덕구	79	-	-	6	7.6	9	11.4	50	63.3	14	17.7	2.1
종교	없음	186	2	1.1	10	5.4	21	11.3	120	64.5	33	17.7	2.1
	불교	100	-	-	7	7.0	21	21.0	54	54.0	18	18.0	2.2
	개신교	83	-	-	10	12.0	13	15.7	35	42.2	25	30.1	2.1
	천주교	30	1	3.3	1	3.3	6	20.0	16	53.3	6	20.0	2.2
	기타	1	-	-	-	-	-	-	1	100.0	-	-	2.0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	-	5	7.0	6	8.5	54	76.1	6	8.5	2.1
	다세대/빌라	124	-	-	8	6.5	19	15.3	67	54.0	30	24.2	2.0
	아파트	203	3	1.5	15	7.4	36	17.7	104	51.2	45	22.2	2.2
	기타	2	-	-	-	-	-	-	1	50.0	1	50.0	1.5
주거상태	자가	129	1	0.8	11	8.5	27	20.9	75	58.1	15	11.6	2.3
	전세	49	-	-	3	6.1	5	10.2	28	57.1	13	26.5	2.0
	월세	169	2	1.2	12	7.1	24	14.2	85	50.3	46	27.2	2.1
	무료	53	-	-	2	3.8	5	9.4	38	71.7	8	15.1	2.0

2) 만성질환

의사의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65.0%), 당뇨(40.0%), 고지혈(26.3%) 순으로 응답하였고, 5.0%만이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2-5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심장장애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60	65.0	160	40.0	105	26.3	60	15.0	26	6.5	20	5.0
성별	남자	106	67	63.2	44	41.5	21	19.8	9	8.5	3	2.8	7	6.6
	여자	294	193	65.6	116	39.5	84	28.6	51	17.3	23	7.8	13	4.4
나이	전기	66	45	68.2	30	45.5	16	24.2	7	10.6	3	4.5	3	4.5
	중기	235	147	62.6	94	40.0	69	29.4	37	15.7	17	7.2	11	4.7
	후기	99	68	68.7	36	36.4	20	20.2	16	16.2	6	6.1	6	6.1
장애유무	있음	74	43	58.1	28	37.8	22	29.7	6	8.1	5	6.8	4	5.4
	없음	326	217	66.6	132	40.5	83	25.5	54	16.6	21	6.4	16	4.9
권역	동구	88	60	68.2	36	40.9	14	15.9	3	3.4	3	3.4	5	5.7
	중구	79	37	46.8	28	35.4	19	24.1	24	30.4	4	5.1	2	2.5
	서구	78	54	69.2	28	35.9	25	32.1	19	24.4	5	6.4	7	9.0
	유성구	76	47	61.8	31	40.8	18	23.7	7	9.2	7	9.2	4	5.3
	대덕구	79	62	78.5	37	46.8	29	36.7	7	8.9	7	8.9	2	2.5
종교	없음	186	124	66.7	84	45.2	49	26.3	21	11.3	11	5.9	8	4.3
	불교	100	66	66.0	39	39.0	26	26.0	18	18.0	7	7.0	4	4.0
	개신교	83	52	62.7	29	34.9	21	25.3	16	19.3	7	8.4	4	4.8
	천주교	30	17	56.7	7	23.3	9	30.0	4	13.3	1	3.3	4	13.3
	기타	1	1	100.0	1	100.0	-	-	1	100.0	-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71	43	60.6	23	32.4	17	23.9	9	12.7	2	2.8	4	5.6
	다세대/빌라	124	80	64.5	52	41.9	31	25.0	25	20.2	6	4.8	5	4.0
	아파트	203	137	67.5	85	41.9	57	28.1	25	12.3	18	8.9	11	5.4
	기타	2	-	-	-	-	-	-	1	50.0	-	-	-	-
과거의 직업	농업	13	7	53.8	5	38.5	4	30.8	2	15.4	1	7.7	2	15.4
	공무원	7	2	28.6	2	28.6	1	14.3	1	14.3	-	-	1	14.3
	회사원	42	27	64.3	15	35.7	14	33.3	4	9.5	5	11.9	3	7.1
	자영업	102	78	76.5	38	37.3	30	29.4	12	11.8	4	3.9	3	2.9
	교사	3	1	33.3	1	33.3	1	33.3	-	-	-	-	-	-
	일용직	59	39	66.1	21	35.6	10	16.9	5	8.5	3	5.1	4	6.8
	없음	167	101	60.5	77	46.1	43	25.7	34	20.4	13	7.8	7	4.2
	기타	7	5	71.4	1	14.3	2	28.6	2	28.6	-	-	-	-
배우자 유무	있음	25	15	60.0	13	52.0	9	36.0	5	20.0	1	4.0	2	8.0
	없음	375	245	65.3	147	39.2	96	25.6	55	14.7	25	6.7	18	4.8
주거상태	자가	129	82	63.6	41	31.8	29	22.5	20	15.5	4	3.1	10	7.8
	전세	49	37	75.5	25	51.0	11	22.4	6	12.2	3	6.1	2	4.1
	월세	169	106	62.7	71	42.0	49	29.0	28	16.6	14	8.3	6	3.6
	무료	53	35	66.0	23	43.4	16	30.2	6	11.3	5	9.4	2	3.8

〈 표 4-2-5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심장장애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358	233	65.1	144	40.2	89	24.9	53	14.8	23	6.4	18	5.0
	비독거	42	27	64.3	16	38.1	16	38.1	7	16.7	3	7.1	2	4.8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94	74.6	58	46.0	35	27.8	15	11.9	10	7.9	5	4.0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51	59.9	93	36.9	66	26.2	43	17.1	14	5.6	14	5.6
	100만원 이상	22	15	68.2	9	40.9	4	18.2	2	9.1	2	9.1	1	4.5
정부지원	있음	384	254	66.1	156	40.6	99	25.8	57	14.8	25	6.5	18	4.7
	없음	16	6	37.5	4	25.0	6	37.5	3	18.8	1	6.3	2	12.5

그 외 만성질환으로 ‘골다공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증(13명)’, ‘우울증(1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 표 4-2-57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기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22	55.5
골다공증	17	4.3
협착증	13	3.3
우울증	11	2.8
뇌졸중 (중풍)	10	2.5
허리통증	10	2.5
협심증	10	2.5
전립선	10	2.5
허리디스크	9	2.3
신장질환	8	2.0
뇌경색	8	2.0
신경과	6	1.5
신장장애	5	1.3
심혈관 질환	5	1.3
척추질환	5	1.3
통풍	5	1.3
위염	5	1.3
고관절	4	1.0
목디스크	4	1.0
천식	4	1.0
복내장	4	1.0

〈 표 4-2-57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_기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저혈압	3	0.8
허리 협착증	3	0.8
동맥경화	3	0.8
갑상선 항진증	3	0.8
치매	3	0.8
정신질환	3	0.8
신장 투석	2	0.5
신부전증	2	0.5
심장판막증	2	0.5
파킨슨	2	0.5
뇌병변	2	0.5
척추협착증	2	0.5
어지럼증	2	0.5
암	2	0.5
간경화	2	0.5
부정맥	2	0.5
다리통증	2	0.5
호흡기 질환	2	0.5
모름/무응답	2	0.5
기타	25	6.3

3) 필요 진료 못 받은 경험 및 이유

지난 1년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97.0%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료를 받지 못한 노인 전부 정부지원을 받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 표 4-2-58 〉 지난 1년간 진료를 못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2	3.0	388	97.0
장애유무	있음	74	5	6.8	69	93.2
	없음	326	7	2.1	319	97.9
정부지원	있음	384	12	3.1	372	96.9
	없음	16	-	-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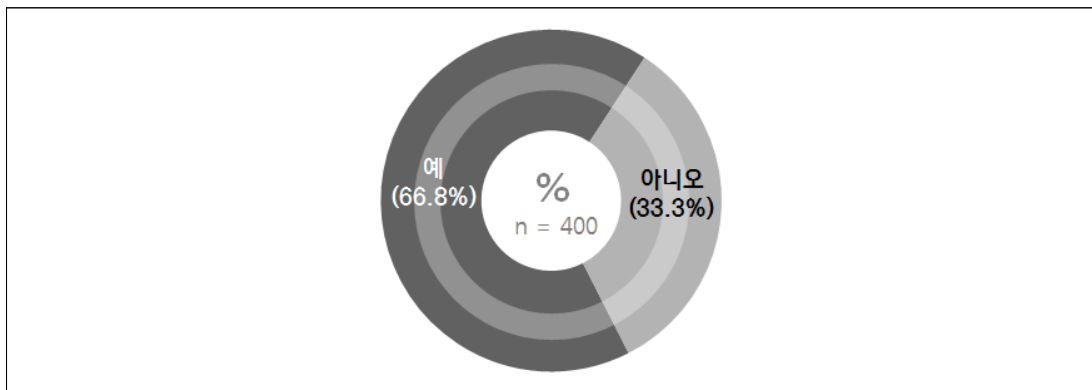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12명의 노인은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 간병인 등이 없어서)’의 6명, ‘경제적 어려움’의 5명, 그리고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의 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4)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병원 입퇴원시 가족 또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33.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구에 거주하는 87.5%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구에 거주하는 81.0%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34.7%)이,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34.9%)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 그림 4-2-17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단위: %)



〈 표 4-2-59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267	66.8	133	33.3
권역	동구	88	77	87.5	11	12.5
	중구	79	15	19.0	64	81.0
	서구	78	49	62.8	29	37.2
	유성구	76	61	80.3	15	19.7
	대덕구	79	65	82.3	14	17.7
종교	없음	186	131	70.4	55	29.6
	불교	100	54	54.0	46	46.0
	개신교	83	62	74.7	21	25.3
	천주교	30	19	63.3	11	36.7
	기타	1	1	100.0	-	-

〈 표 4-2-59 〉 병원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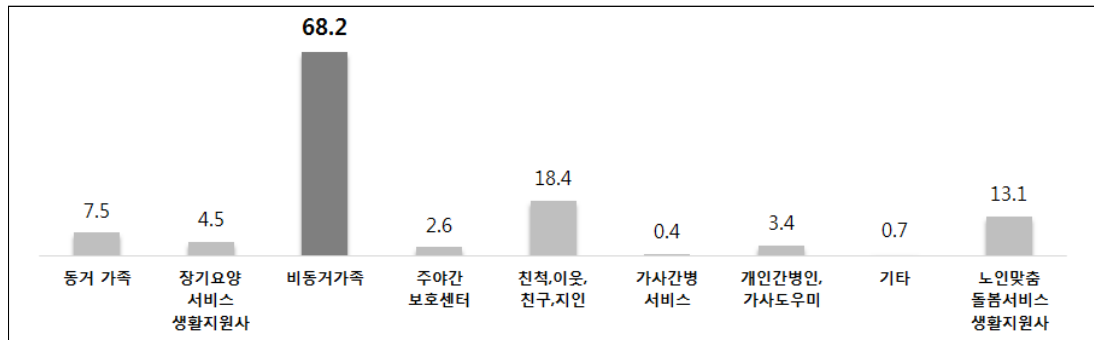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배우자 유무	있음	25	22	88.0	3	12.0
	없음	375	245	65.3	130	34.7
독거여부	독거	358	233	65.1	125	34.9
	비독거	42	34	81.0	8	19.0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91	72.2	35	27.8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57	62.3	95	37.7
	100만원 이상	22	19	86.4	3	13.6

5)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병원 입퇴원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노인에게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비동거 가족(68.2%)’이다. 그 다음으로 ‘친척, 이웃·친구·지인(18.4%)’,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13.1%)’, ‘동거가족(7.5%)’ 순으로 응답하였다.

〈 그림 4-2-18 〉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단위: %)



〈 표 4-2-60 〉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 수	동거 가족		장기요양 서비스 생활지원사		비동거 가족		주야간 보호센터		친척, 이웃·친구·지인		가사간병 서비스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기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67	20	7.5	12	4.5	182	68.2	7	2.6	49	18.4	1	0.4	9	3.4	2	0.7	35	13.1
성별	남자	65	9	13.8	4	6.2	31	47.7	1	1.5	12	18.5	-	-	3	4.6	-	-	13	20.0
	여자	202	11	5.4	8	4.0	151	74.8	6	3.0	37	18.3	1	0.5	6	3.0	2	1.0	22	10.9

〈 표 4-2-60 〉 입퇴원시 도움제공자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 수	동거 가족		장기요양 서비스 생활지원사		비동거 가족		주야간 보호센터		친척, 이웃·친구·지인		가사간병 서비스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기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 유무	있음	54	11	20.4	6	11.1	27	50.0	-	-	4	7.4	-	-	1	1.9	1	1.9	9	16.7
	없음	213	9	4.2	6	2.8	155	72.8	7	3.3	45	21.1	1	0.5	8	3.8	1	0.5	26	12.2
권역	동구	77	4	5.2	-	-	54	70.1	-	-	16	20.8	-	-	-	-	-	-	13	16.9
	중구	15	-	-	-	-	13	86.7	-	-	-	-	-	-	-	-	-	-	3	20.0
	서구	49	2	4.1	6	12.2	41	83.7	2	4.1	3	6.1	1	2.0	-	-	-	-	1	2.0
	유성구	61	7	11.5	3	4.9	40	65.6	-	-	8	13.1	-	-	5	8.2	2	3.3	9	14.8
	대덕구	65	7	10.8	3	4.6	34	52.3	5	7.7	22	33.8	-	-	4	6.2	-	-	9	13.8
배우자 유무	있음	22	15	68.2	-	-	5	22.7	-	-	2	9.1	-	-	-	-	-	-	2	9.1
	없음	245	5	2.0	12	4.9	177	72.2	7	2.9	47	19.2	1	0.4	9	3.7	2	0.8	33	13.5
독거 유무	독거	233	-	-	12	5.2	171	73.4	7	3.0	45	19.3	1	0.4	8	3.4	2	0.9	33	14.2
	비독거	34	20	58.8	-	-	11	32.4	-	-	4	11.8	-	-	1	2.9	-	-	2	5.9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91	2	2.2	2	2.2	72	79.1	5	5.5	20	22.0	-	-	6	6.6	1	1.1	12	13.2
	50만원~100만원 미만	157	14	8.9	10	6.4	97	61.8	2	1.3	27	17.2	1	0.6	2	1.3	1	0.6	22	14.0
	100만원 이상	19	4	21.1	-	-	13	68.4	-	-	2	10.5	-	-	1	5.3	-	-	1	5.3
정부 지원	있음	256	16	6.3	12	4.7	177	69.1	7	2.7	47	18.4	1	0.4	9	3.5	2	0.8	33	12.9
	없음	11	4	36.4	-	-	5	45.5	-	-	2	18.2	-	-	-	-	-	-	2	18.2

6) 입퇴원시 도움 유형

병원 입퇴원시 주로 받는 도움은 ‘간호, 간병(4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입퇴원수속(25.1%)’, ‘가사일(13.5%)’, ‘식사준비(음식 준비)(11.2%)’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61 〉 입퇴원시 도움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입퇴원수속		간호, 간병		식사 준비 (음식 준비)		가사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67	67	25.1	131	49.1	30	11.2	36	13.5	3	1.1
장애 유무	있음	54	25	46.3	15	27.8	12	22.2	1	1.9	1	1.9
	없음	213	42	19.7	116	54.5	18	8.5	35	16.4	2	0.9

〈 표 4-2-61 〉 입퇴원시 도움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입퇴원수속		간호, 간병		식사 준비 (음식 준비)		가사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7	15	19.5	44	57.1	4	5.2	11	14.3	3	3.9
	중구	15	7	46.7	5	33.3	1	6.7	2	13.3	-	-
	서구	49	13	26.5	34	69.4	1	2.0	1	2.0	-	-
	유성구	61	20	32.8	26	42.6	14	23.0	1	1.6	-	-
	대덕구	65	12	18.5	22	33.8	10	15.4	21	32.3	-	-
종교	없음	131	27	20.6	66	50.4	13	9.9	25	19.1	-	-
	불교	54	16	29.6	25	46.3	6	11.1	7	13.0	-	-
	개신교	62	18	29.0	32	51.6	8	12.9	3	4.8	1	1.6
	천주교	19	5	26.3	8	42.1	3	15.8	1	5.3	2	10.5
	기타	1	1	100.0	-	-	-	-	-	-	-	-
주거 형태	단독주택	44	12	27.3	14	31.8	5	11.4	13	29.5	-	-
	다세대/빌라	81	16	19.8	41	50.6	11	13.6	12	14.8	1	1.2
	아파트	140	39	27.9	76	54.3	12	8.6	11	7.9	2	1.4
	기타	2	-	-	-	-	2	100.0	-	-	-	-

7) 가족 또는 돌봄 서비스 충분성

가족 또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받는 돌봄이 충분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균 3.2점의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동구 거주 노인의 31.2%가 '부족하다 및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월세에 거주하는 노인의 32.0%가 '부족하다 및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62 〉 가족 또는 돌봄 서비스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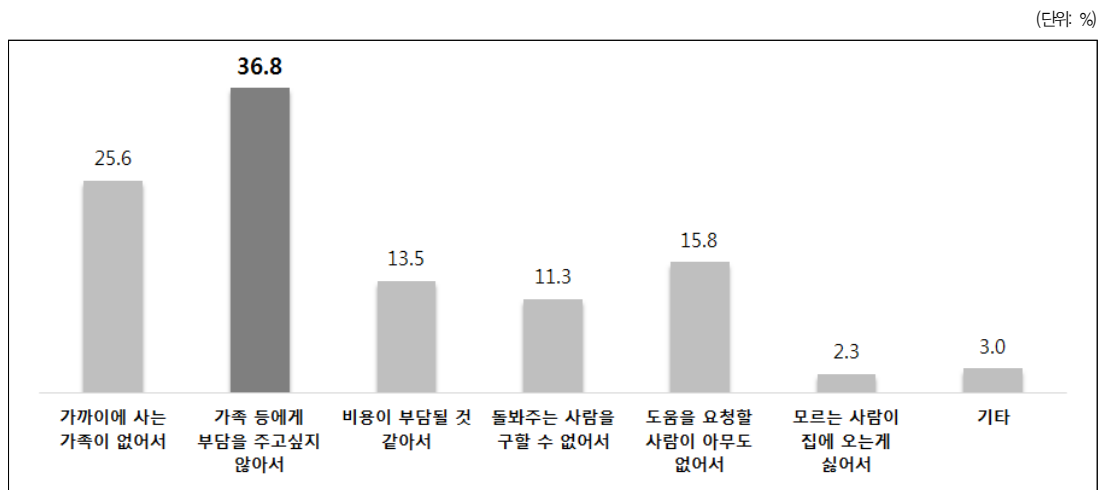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67	9	3.4	104	39.0	95	35.6	55	20.6	4	1.5	3.2
권역	동구	77	-	-	5	6.5	48	62.3	23	29.9	1	1.3	2.8
	중구	15	3	20.0	4	26.7	4	26.7	4	26.7	-	-	3.4
	서구	49	4	8.2	19	38.8	19	38.8	6	12.2	1	2.0	3.4
	유성구	61	-	-	30	49.2	13	21.3	16	26.2	2	3.3	3.2
	대덕구	65	2	3.1	46	70.8	11	16.9	6	9.2	-	-	3.7
주거상태	자가	87	5	5.7	33	37.9	31	35.6	17	19.5	1	1.1	3.3
	전세	37	1	2.7	15	40.5	15	40.5	5	13.5	1	2.7	3.3
	월세	103	2	1.9	35	34.0	33	32.0	31	30.1	2	1.9	3.0
	무료	40	1	2.5	21	52.5	16	40.0	2	5.0	-	-	3.5

8)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36.8%는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까이에 사는 가족이 없어서(25.6%)’,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15.8%)’,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13.5%)’ 순이었다.

〈 그림 4-2-19 〉 도움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 표 4-2-63 〉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까이에 사는 가족이 없어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돌봐주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33	34	25.6	49	36.8	18	13.5	15	11.3	21	15.8	3	2.3	4	3.0
장애 유무	있음	20	8	40.0	4	20.0	1	5.0	1	5.0	7	35.0	-	-	-
	없음	113	26	23.0	45	39.8	17	15.0	14	12.4	14	12.4	3	2.7	4
권역	동구	11	5	45.5	3	27.3	1	9.1	-	-	1	9.1	-	-	1
	중구	64	8	12.5	31	48.4	13	20.3	11	17.2	6	9.4	3	4.7	-
	서구	29	9	31.0	12	41.4	1	3.4	3	10.3	5	17.2	-	-	2
	유성구	15	6	40.0	1	6.7	-	-	1	6.7	7	46.7	-	-	-
	대덕구	14	6	42.9	2	14.3	3	21.4	-	-	2	14.3	-	-	1

〈 표 4-2-63 〉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까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돌봐주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교	없음	55	11	20.0	25	45.5	5	9.1	6	10.9	8	14.5	2	3.6	1	1.8
	불교	46	9	19.6	12	26.1	10	21.7	9	19.6	7	15.2	1	2.2	2	4.3
	개신교	21	10	47.6	11	52.4	2	9.5	-	-	1	4.8	-	-	-	-
	천주교	11	4	36.4	1	9.1	1	9.1	-	-	5	45.5	-	-	1	9.1
	기타	-	-	-	-	-	-	-	-	-	-	-	-	-	-	-
주거 형태	단독주택	27	8	29.6	12	44.4	4	14.8	1	3.7	2	7.4	3	11.1	-	-
	다세대/빌라	43	11	25.6	11	25.6	10	23.3	10	23.3	5	11.6	-	-	1	2.3
	아파트	63	15	23.8	26	41.3	4	6.3	4	6.3	14	22.2	-	-	3	4.8
	기타	-	-	-	-	-	-	-	-	-	-	-	-	-	-	-
독거 여부	독거	125	34	27.2	43	34.4	18	14.4	14	11.2	21	16.8	3	2.4	3	2.4
	비독거	8	-	-	6	75.0	-	-	1	12.5	-	-	-	-	1	12.5

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응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적이 있는 노인은 18.5%이다. 장애가 있는 노인 신청 비율이 51.4%로 가장 많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노인이 많은 유성구(35.5%)의 신청 노인의 비율도 높다.

〈 표 4-2-64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있다)		아니오(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74	18.5	326	81.5
장애유무	있음	74	38	51.4	36	48.6
	없음	326	36	11.0	290	89.0
권역	동구	88	9	10.2	79	89.8
	중구	79	9	11.4	70	88.6
	서구	78	15	19.2	63	80.8
	유성구	76	27	35.5	49	64.5
	대덕구	79	14	17.7	65	82.3
주거상태	자가	129	12	9.3	117	90.7
	전세	49	9	18.4	40	81.6
	월세	169	48	28.4	121	71.6
	무료	53	5	9.4	48	90.6
독거여부	독거	358	61	17.0	297	83.0
	비독거	42	13	31.0	29	69.0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신청을 한 74명의 노인 중, 가장 최근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4등급(40.5%)’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등급(23.0%)’, ‘5등급(10.8%)’ 순으로 많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는 ‘3등급(42.9%)’ 판정을 받은 노인의 분포가 높았다.

〈 표 4-2-65 〉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외		기타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74	3	4.1	6	8.1	17	23.0	30	40.5	8	10.8	5	6.8	5	6.8

11)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75.7%)’이다. 그 다음으로 ‘복지용구(48.6%)’, ‘방문목욕(12.2%)’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12.2%)도 있었다.

〈 표 4-2-66 〉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단위: 명, %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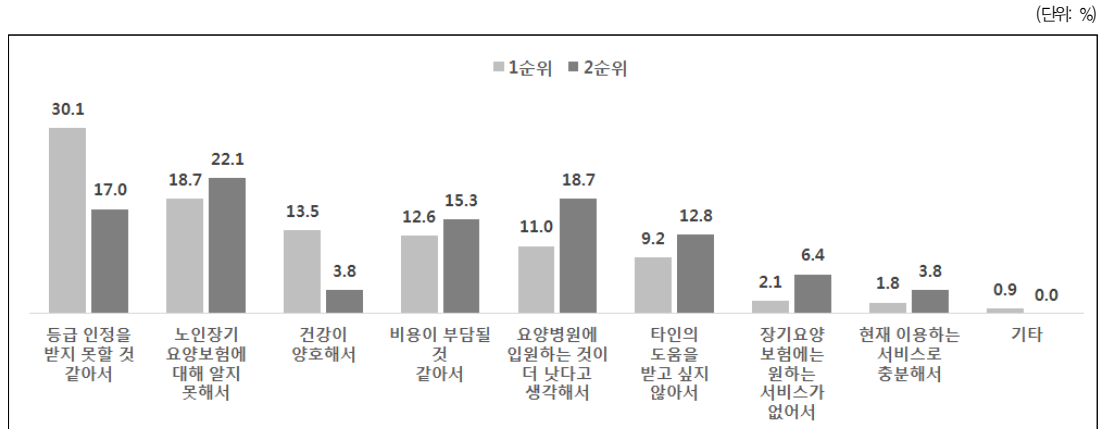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복지용구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74	56	75.7	6	8.1	9	12.2	1	1.4	2	2.7	36	48.6	9	12.2
나이	전기	14	11	78.6	4	28.6	2	14.3	-	1	7.1	7	50.0	-	-
	중기	42	31	73.8	2	4.8	4	9.5	1	2.4	-	19	45.2	8	19.0
	후기	18	14	77.8	-	-	3	16.7	-	1	5.6	10	55.6	1	5.6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신청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30.1%가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순위에서도 이 응답이 17.0%로 세 번째로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1순위에서 18.7%, 2순위에서 22.1%의 분포로 응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비록 1순위에서는 11.0%가 응답하였으나 2순위의 응답률(18.7%)까지 감안하면,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하는 응답률도 높았고, 비용부담도 1순위, 2순위 합쳐서 27.9%가 미신청 이유로 꼽았다.

〈 그림 4-2-20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안 한 이유



〈 표 4-2-67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안 한 이유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98	30.1	40	17.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61	18.7	52	22.1
건강이 양호해서	44	13.5	9	3.8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41	12.6	36	15.3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36	11.0	44	18.7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30	9.2	30	12.8
장기요양보험에는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7	2.1	15	6.4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로 충분해서	6	1.8	9	3.8
기타	3	0.9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다른 양상이 있는데, 1순위 응답에서 장애인노인의 44.4%가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중구 거주 노인의 51.4%가 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월세로 거주하는 노인 중 가장 높은 분포로 응답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30.6%)’ 이며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노인 중 가장 많이 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25.0%)을 하였으나 두 번째 많은 응답은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20.4%)’ 이었다.

〈 표 4-2-68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안 한 이유_1순위

(단위: 명,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건강이 양호해서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노인요양 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장기요양 보험에는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로 충분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26	44	13.5	98	30.1	61	18.7	30	9.2	41	12.6	36	11.0	7	2.1	6	1.8	3	0.9
나이	전기	52	7	13.5	13	25.0	10	19.2	3	5.8	8	15.4	7	13.5	1	1.9	-	-	3	5.8
	중기	193	32	16.6	58	30.1	36	18.7	14	7.3	23	11.9	22	11.4	4	2.1	4	2.1	-	-
	후기	81	5	6.2	27	33.3	15	18.5	13	16.0	10	12.3	7	8.6	2	2.5	2	2.5	-	-
장애 유무	있음	36	4	11.1	8	22.2	16	44.4	3	8.3	1	2.8	1	2.8	-	-	-	-	3	8.3
	없음	290	40	13.8	90	31.0	45	15.5	27	9.3	40	13.8	35	12.1	7	2.4	6	2.1	-	-
권역	동구	79	15	19.0	26	32.9	19	24.1	4	5.1	11	13.9	1	1.3	3	3.8	-	-	-	-
	중구	70	7	10.0	36	51.4	7	10.0	6	8.6	2	2.9	7	10.0	2	2.9	3	4.3	-	-
	서구	63	8	12.7	24	38.1	10	15.9	11	17.5	8	12.7	-	-	1	1.6	1	1.6	-	-
	유성구	49	2	4.1	12	24.5	19	38.8	3	6.1	6	12.2	4	8.2	1	2.0	1	2.0	1	2.0
	대덕구	65	12	18.5	-	-	6	9.2	6	9.2	14	21.5	24	36.9	-	-	1	1.5	2	3.1
주거 상태	자가	117	20	17.1	30	25.6	17	14.5	12	10.3	19	16.2	13	11.1	3	2.6	3	2.6	-	-
	전세	40	4	10.0	19	47.5	1	2.5	4	10.0	7	17.5	4	10.0	-	-	-	-	1	2.5
	월세	121	13	10.7	36	29.8	37	30.6	8	6.6	7	5.8	14	11.6	3	2.5	1	0.8	2	1.7
	무료	48	7	14.6	13	27.1	6	12.5	6	12.5	8	16.7	5	10.4	1	2.1	2	4.2	-	-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원 미만	108	10	9.3	27	25.0	14	13.0	8	7.4	20	18.5	22	20.4	3	2.8	2	1.9	2	1.9
	50만원~100만원 미만	199	28	14.1	64	32.2	43	21.6	21	10.6	20	10.1	14	7.0	4	2.0	4	2.0	1	0.5
	100만원 이상	19	6	31.6	7	36.8	4	21.1	1	5.3	1	5.3	-	-	-	-	-	-	-	-
정부 지원	있음	312	41	13.1	95	30.4	60	19.2	27	8.7	39	12.5	35	11.2	7	2.2	5	1.6	3	1.0
	없음	14	3	21.4	3	21.4	1	7.1	3	21.4	2	14.3	1	7.1	-	-	1	7.1	-	-

7. 대전광역시 노인관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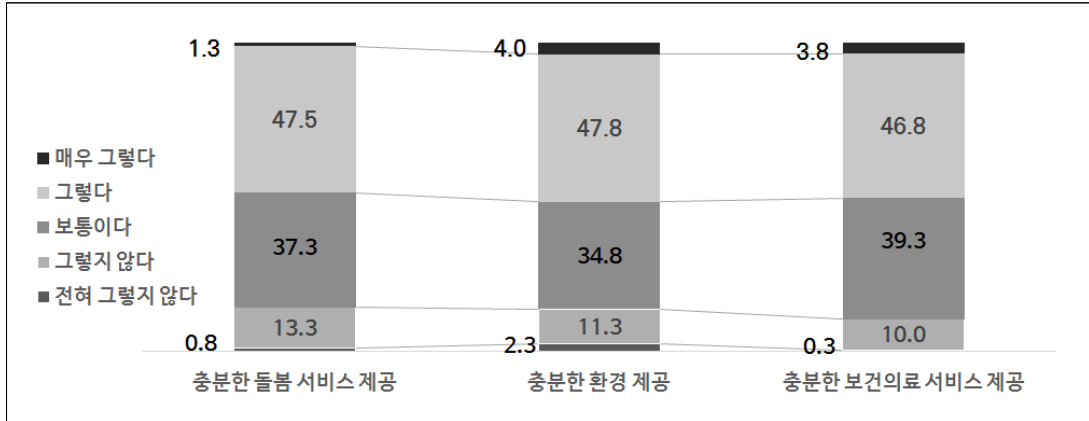
1) 노인관련 서비스 충분성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노인관련 서비스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평균 3.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3%~14.1%이다.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의견은 48.8%, 주거환경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51.8%,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의견은 50.6% 수준이었다.

〈 그림 4-2-21 〉 노인관련 서비스 충분성

(단위: %)



〈 표 4-2-69 〉 노인관련 서비스 충분성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	0.8	13.3	37.3	47.5	1.3	3.4
충분한 환경 제공 (노인주택 등 노인 편의시설)	2.3	11.3	34.8	47.8	4.0	3.4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0.3	10.0	39.3	46.8	3.8	3.4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13.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동구의 노인이 다른 권역보다 높은 비율로(23.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이 53.4%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독거 노인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표 4-2-70 〉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9	2.3	45	11.3	139	34.8	191	47.8	16	4.0	3.4
성별	남자	106	3	2.8	15	14.2	39	36.8	47	44.3	2	1.9	3.3
	여자	294	6	2.0	30	10.2	100	34.0	144	49.0	14	4.8	3.4
장애유무	있음	74	5	6.8	13	17.6	29	39.2	21	28.4	6	8.1	3.1
	없음	326	4	1.2	32	9.8	110	33.7	170	52.1	10	3.1	3.5
권역	동구	88	3	3.4	18	20.5	58	65.9	9	10.2	-	-	2.8
	중구	79	1	1.3	1	1.3	19	24.1	56	70.9	2	2.5	3.7
	서구	78	1	1.3	3	3.8	33	42.3	33	42.3	8	10.3	3.6
	유성구	76	4	5.3	15	19.7	19	25.0	36	47.4	2	2.6	3.2
	대덕구	79	-	-	8	10.1	10	12.7	57	72.2	4	5.1	3.7
주거상태	자가	129	1	0.8	13	10.1	48	37.2	62	48.1	5	3.9	3.4
	전세	49	2	4.1	5	10.2	17	34.7	23	46.9	2	4.1	3.4
	월세	169	6	3.6	24	14.2	58	34.3	72	42.6	9	5.3	3.3
	무료	53	-	-	3	5.7	16	30.2	34	64.2	-	-	3.6
독거여부	독거	358	7	2.0	38	10.6	122	34.1	176	49.2	15	4.2	3.4
	비독거	42	2	4.8	7	16.7	17	40.5	15	35.7	1	2.4	3.1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	-	20	27.0	30	40.5	23	31.1	1	1.4	3.1
	없음	326	3	0.9	33	10.1	119	36.5	167	51.2	4	1.2	3.4

노인주택 등 노인 편의시설 같은 환경이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충분한지에 대해 14.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25.7%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고, 권역별로 보면 대덕구 거주 노인의 74.7%가 ‘그렇다’ 고 대답한 반면, 동구 거주 노인의 14.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표 4-2-71 〉 충분한 환경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3	0.8	53	13.3	149	37.3	190	47.5	5	1.3	3.4
성별	남자	106	-	-	21	19.8	40	37.7	44	41.5	1	0.9	3.2
	여자	294	3	1.0	32	10.9	109	37.1	146	49.7	4	1.4	3.4

〈 표 4-2-71 〉 충분한 환경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무	있음	74	-	-	19	25.7	37	50.0	16	21.6	2	2.7	3.0
	없음	326	3	0.9	34	10.4	112	34.4	174	53.4	3	0.9	3.4
권역	동구	88	1	1.1	16	18.2	58	65.9	13	14.8	-	-	2.9
	중구	79	1	1.3	3	3.8	21	26.6	53	67.1	1	1.3	3.6
	서구	78	-	-	2	2.6	34	43.6	39	50.0	3	3.8	3.6
	유성구	76	-	-	24	31.6	25	32.9	26	34.2	1	1.3	3.1
	대덕구	79	1	1.3	8	10.1	11	13.9	59	74.7	-	-	3.6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2	15.4	4	30.8	5	38.5	2	15.4	3.5
	공무원	7	-	-	1	14.3	2	28.6	4	57.1	-	-	3.4
	회사원	42	-	-	5	11.9	7	16.7	29	69.0	1	2.4	3.6
	자영업	102	-	-	18	17.6	36	35.3	47	46.1	1	1.0	3.3
	교사	3	-	-	1	33.3	1	33.3	1	33.3	-	-	3.0
	일용직	59	1	1.7	3	5.1	29	49.2	26	44.1	-	-	3.4
	없음	167	2	1.2	21	12.6	66	39.5	77	46.1	1	0.6	3.3
	기타	7	-	-	2	28.6	4	57.1	1	14.3	-	-	2.9
주거상태	자가	129	1	0.8	8	6.2	51	39.5	66	51.2	3	2.3	3.5
	전세	49	-	-	7	14.3	17	34.7	23	46.9	2	4.1	3.4
	월세	169	2	1.2	34	20.1	68	40.2	65	38.5	-	-	3.2
	무료	53	-	-	4	7.5	13	24.5	36	67.9	-	-	3.6
독거여부	독거	358	2	0.6	44	12.3	133	37.2	174	48.6	5	1.4	3.4
	비독거	42	1	2.4	9	21.4	16	38.1	16	38.1	-	-	3.1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1	0.8	17	13.5	33	26.2	75	59.5	-	-	3.4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2	0.8	32	12.7	111	44.0	102	40.5	5	2.0	3.3
	100만원 이상	22	-	-	4	18.2	5	22.7	13	59.1	-	-	3.4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6	8.1	17	23.0	25	33.8	21	28.4	5	6.8	3.3
	없음	326	3	0.9	28	8.6	114	35.0	170	52.1	11	3.4	3.5

대전광역시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노인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충분한지에 대해 10.3%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17.6%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고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72.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반면, 동구 거주 노인의 10.2%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혼자 사는 노인의 5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노인의 65.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의 23.0%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의 응답이 많았다.

〈 표 4-2-72 〉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400	1	0.3	40	10.0	157	39.3	187	46.8	15	3.8	3.4
장애유무	있음	74	-	-	13	17.6	37	50.0	20	27.0	4	5.4	3.2
	없음	326	1	0.3	27	8.3	120	36.8	167	51.2	11	3.4	3.5
권역	동구	88	1	1.1	13	14.8	65	73.9	9	10.2	-	-	2.9
	중구	79	-	-	-	-	22	27.8	54	68.4	3	3.8	3.8
	서구	78	-	-	5	6.4	32	41.0	34	43.6	7	9.0	3.6
	유성구	76	-	-	16	21.1	26	34.2	32	42.1	2	2.6	3.3
	대덕구	79	-	-	6	7.6	12	15.2	58	73.4	3	3.8	3.7
과거의 직업	농업	13	-	-	1	7.7	3	23.1	5	38.5	4	30.8	3.9
	공무원	7	-	-	-	-	3	42.9	4	57.1	-	-	3.6
	회사원	42	-	-	2	4.8	11	26.2	28	66.7	1	2.4	3.7
	자영업	102	-	-	11	10.8	33	32.4	55	53.9	3	2.9	3.5
	교사	3	-	-	-	-	2	66.7	-	-	1	33.3	3.7
	일용직	59	-	-	1	1.7	31	52.5	25	42.4	2	3.4	3.5
	없음	167	1	0.6	25	15.0	69	41.3	68	40.7	4	2.4	3.3
	기타	7	-	-	-	-	5	71.4	2	28.6	-	-	3.3
독거여부	독거	358	1	0.3	32	8.9	136	38.0	175	48.9	14	3.9	3.5
	비독거	42	-	-	8	19.0	21	50.0	12	28.6	1	2.4	3.1
월평균 가구수입	50만원 미만	126	-	-	15	11.9	28	22.2	79	62.7	4	3.2	3.6
	50만원~100만원 미만	252	1	0.4	21	8.3	123	48.8	96	38.1	11	4.4	3.4
	100만원 이상	22	-	-	4	18.2	6	27.3	12	54.5	-	-	3.4
장기요양 등급여부	있음	74	1	1.4	16	21.6	28	37.8	26	35.1	3	4.1	3.2
	없음	326	-	-	24	7.4	129	39.6	161	49.4	12	3.7	3.5

3) 노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대전광역시에서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유 의견 60건 중 밑반찬(9건), 도시락 배달(6건), 병원비 지원(5건), 생활비 지원(4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 4-2-73 〉 노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빈도	비율
전체	60	100.0
밀반찬	9	15.0
도시락 배달	6	10.0
병원비 지원	5	8.3
생활비 지원	4	6.7
수급비 확대	3	5.0
주말 돌봄 서비스	3	5.0
활동 지원서비스 방문시간 확대	3	5.0
방문목욕서비스	3	5.0
교통비 지원	3	5.0
식사지원	2	3.3
김치 지원	2	3.3
이동지원 서비스	1	1.7
간병비 확대	1	1.7
노령연금 상향	1	1.7
보건소에서 나와 혈압 당뇨 관리	1	1.7
집 청소	1	1.7
난방비 지원	1	1.7
주택지원서비스	1	1.7
생활 물품 지원	1	1.7
AI 지원	1	1.7
수시 방문 서비스	1	1.7
지원확대	1	1.7
복지용구 제공	1	1.7
식료품비 지원	1	1.7
쌀지원	1	1.7
우유지원	1	1.7
시각장애인 버스 요금 할인	1	1.7
위험시 벨누르면 119출동 서비스	1	1.7

제3절 소결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400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73.5%가 여성이며, 연령별로 중기(75세-84세) 노인이 58.8%로 절반 이상이다. 18.5%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93.8%이며, 독거노인이 89.5%이며 96.0%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노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분야는 건강상의 문제(5점 척도에서 평균 4.0점)와 경제적인 어려움(4.0점)이었다. 지출의 비중에서 볼 때에도 1순위로 병원비 및 약값(42.2%)과 식료품비(30.0%)의 지출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출도 많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식생활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음에도 주로 식사준비는 80.8%가 본인이 한다고 하여서인지, 여전히 식사준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로 하는 활동으로 가사관리(39.5%)를 응답하였다.

대체로 남자노인과 월세에 살거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거나, 혼자사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남자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높은 비율로 영양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23.6%)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거나(4.1점 수준), 외로움을 더 경험하고(3.8점 수준), 식사준비에서도 어려움(4.1점 수준)을 더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의 노인, 혼자 사는 노인 등이 일부 영역에서 다른 집단보다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건강과 관련해서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7.8%에 그쳐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수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고(79.3%), 치매(40.0%)와 만성질환(29.8%)에 대해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 45.8%가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5.3%가 여전히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3.0%만이 진료가 필요한데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이 76.3% 응답하여 필요시에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병원 입퇴원시에는 노인의 33.3%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나(36.8%) 가까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 (25.6%)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도움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시에는 주로 비동거 가족(68.2%)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유형은 주로 ‘간호, 간병(49.1%)’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한 노인은 18.5%로 신청한 노인 중에서는 4등급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75.7%)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은 그 이유로 필요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할까봐(30.1%) 또는 제도 자체에 대해 잘 몰라서(18.7%)라는 응답이 많아 본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보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자녀와의 교류는 1주일에 한번 이상(35.9%)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족 또는 이웃과의 교류에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대화하는 노인이 36.3%, 이웃과 말벗 정도로 지낸다가 49.8%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반면 가족 또는 이웃과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5.3%, 이웃과 인사정도만 또는 잘 모르는 분포가 39.8%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남자노인, 장애가 있는 노인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교류가 적은 집단이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된 활동으로 ‘교제 및 여가(1순위 27.3%, 2순위 27.1%)’로 다수 응답했으나, 노인의 68.3%는 외로움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외로움 등의 어려움 해소에 대해 좀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은 가족(45.8%)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도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반 이상이 조금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41.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장애가 있는 노인, 혼자사는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 등 취약한 노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다만 복지서비스의 정보는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인력(22.8%), 복지관/복지사(21.0%) 등으로부터 얻는다는 분포가 높아,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및 노인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잘 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중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치매검사 및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률(48.0%)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외의 사업 중 ‘이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80% 정도 잘 모르거나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신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30%이상이다. 단, 이용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0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에게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21.3%)는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48.8% 정도이다.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 77.3%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밑반찬,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 등 식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도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한 것도 식사지원이었다. 종합해 보면, 식사에 대한 욕구는 높는데,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50%에 가깝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외 말벗, 가사, 요양보호사 등 순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필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사회참여 서비스 중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을 꼽았다. 앞서 주된 활동이 가사활동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과 가사 관련 욕구가 많은 점도 주목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노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21.3%가, 주택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13.6%가,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10.3%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는가와 추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견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식사와 관련된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제5장

장애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장애인의 돌봄현황 및 욕구

제1절 조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전광역시 내의 5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스마트돌봄 서비스 이용자)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의 유형도 고려하여 총 36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표 5-1-1>과 같다.

〈 표 5-1-1 〉 조사 대상

(단위: 명)

자치구	대상자 구분					조사 대상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기타	
동구	30	19	17	12	16	94
중구	2	5	4	-	1	12
서구	61	22	28	15	11	137
유성구	31	9	6	10	10	66
대덕구	17	11	3	11	10	52
총합계	141	66	58	48	48	361

2) 자료수집방법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 전문 면접조사원이 1:1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하여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방역을 철저히 한 후 방문을 하고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은 응답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답하였다. 조사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조사 항목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설문 누락 등 확인하여 응답시설에 설문 보완을 요청하고, 데이터 정제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원인 규명 및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검증이 모두 완료된 설문지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여 361명 중 81.1%의 응답률로 총 3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조사 분석

최종 검증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ANOVA 분석 및 t-검증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표 5-1-2>와 같다.

< 표 5-1-2 > 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A.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출생년도, 장애유형, 중복장애 여부, 가구원 수, 거주 가족, 의사소통 수행능력, 최종학력 및 학교 종류, 결혼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월평균소득
B. 의료 및 건강	- 장애 발생 원인, 평소 본인 건강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만성질환 치료 여부, 만성질환 치료하지 않은 이유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C. 일상생활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여부, 주로 도와주는 사람 - 일상생활 도움 충분성, 도움 부족한 이유, 도움이 필요한 영역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집밖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D. 주거 및 취업지원	- 주거안정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분야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E. 소득 및 경제적지원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
F. 안전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
G. 노후 준비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 노후계획 준비 정도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H. 돌봄	- 희망 거주형태, 희망 거주형태 선택 이유 - 혼자 살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 여부, 혼자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필요한 돌봄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정보습득경로,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 도움신청 경로 -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도, 통합돌봄 서비스 충분성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I. 정신 장애인 영역	- 입원력, 입원기간, 재입원, 자살사고, 타해경험, 외래치료 여부, 약물복용 형태 - 지각된 사회적지지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전진아 (2021) 12문항) 신뢰도 $\alpha = .969$ - 정신장애인 욕구사정(CANSAS: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Short Appraisal Scheduel, 전진아 (2021) 29문항), 신뢰도 $\alpha =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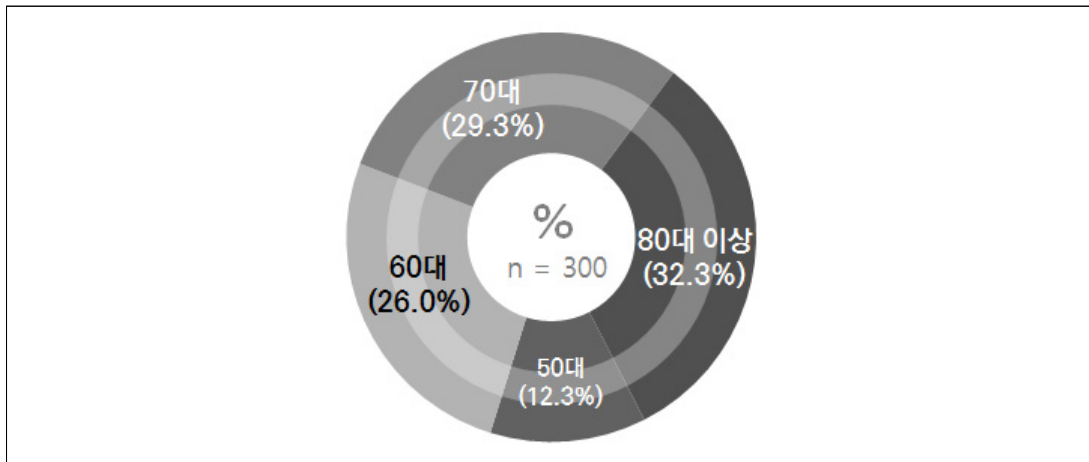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300명의 특성은 <표 5-2-1>과 같다. 중고령 장애인으로 80대 이상이 32.3%로 가장 많고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인(42.0%)’이 가장 많고 94.0%가 중복장애가 없으며, 64.3%가 혼자 살고 있으며, 56.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67.7%가 모든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3%가 사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8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응답하였다.

< 그림 5-2-1 > 나이 분포

(단위: %)



< 표 5-2-1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N	%
합계		300	100.0
성별	남자	138	46.0
	여자	162	54.0
나이	50대	37	12.3
	60대	78	26.0
	70대	88	29.3
	80대 이상	97	32.3

〈 표 5-2-1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N	%
장애유형	지체	126	42.0
	뇌병변	42	14.0
	지적	11	3.7
	시각	53	17.7
	청각	41	13.7
	언어	3	1.0
	정신	11	3.7
	내부 신체장애	13	4.3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6.0
	없음	282	94.0
권역	동구	73	24.3
	중구	6	2.0
	서구	124	41.3
	유성구	53	17.7
	대덕구	44	14.7
독거여부	독거	193	64.3
	비독거	107	35.7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7.0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4.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1.0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67.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6.0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5.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3
결혼상태	기혼(동거 포함)	80	26.7
	이혼	60	20.0
	별거	7	2.3
	사별	124	41.3
	미혼	29	9.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5.0
	비수급	45	15.0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2.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9.3
	100만원 이상	56	18.7

권역별 응답자의 특성은 <표 5-2-2>와 같다. 권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 내의 장애인복지관의 수와도 연관이 있어 모집단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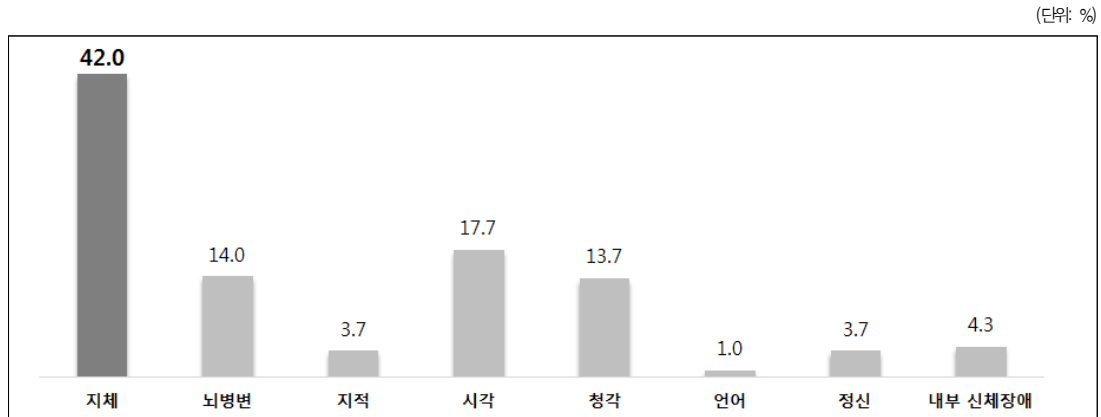
〈 표 5-2-2 〉 권역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3	24.3	6	2.0	124	41.3	53	17.7	44	14.7
성별	남자	138	50	68.5	4	66.7	45	36.3	20	37.7	19	43.2
	여자	162	23	31.5	2	33.3	79	63.7	33	62.3	25	56.8
나이	50대	37	11	15.1	5	83.3	6	4.8	8	15.1	7	15.9
	60대	78	24	32.9	1	16.7	27	21.8	17	32.1	9	20.5
	70대	88	19	26.0	-	-	42	33.9	17	32.1	10	22.7
	80대 이상	97	19	26.0	-	-	49	39.5	11	20.8	18	40.9
장애유형	지체	126	26	35.6	1	16.7	59	47.6	25	47.2	15	34.1
	뇌병변	42	10	13.7	-	-	15	12.1	8	15.1	9	20.5
	지적	11	5	6.8	1	16.7	2	1.6	2	3.8	1	2.3
	시각	53	15	20.5	4	66.7	25	20.2	6	11.3	3	6.8
	청각	41	8	11.0	-	-	17	13.7	6	11.3	10	22.7
	언어	3	-	-	-	-	1	0.8	1	1.9	1	2.3
	정신	11	4	5.5	-	-	2	1.6	1	1.9	4	9.1
	내부 신체장애	13	5	6.8	-	-	3	2.4	4	7.5	1	2.3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4	5.5	2	33.3	6	4.8	3	5.7	3	6.8
	없음	282	69	94.5	4	66.7	118	95.2	50	94.3	41	93.2
독거여부	독거	193	51	69.9	3	50.0	86	69.4	24	45.3	29	65.9
	비독거	107	22	30.1	3	50.0	38	30.6	29	54.7	15	34.1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5	6.8	1	16.7	12	9.7	1	1.9	2	4.5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2	16.4	1	16.7	9	7.3	7	13.2	14	31.8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0	13.7	-	-	8	6.5	7	13.2	8	18.2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46	63.0	4	66.7	95	76.6	38	71.7	20	45.5
최종 학력	초졸 이하	168	48	85.5	1	16.7	68	54.8	24	45.3	27	61.4
	중학교 이상~고졸 이하	107	20	27.4	2	33.3	48	38.7	24	45.3	13	29.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5	6.8	3	50.0	8	6.5	5	9.4	4	9.1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5	20.5	2	33.3	32	25.8	19	35.8	12	27.3
	이혼	60	26	35.6	2	33.3	14	11.3	9	17.0	9	20.5
	별거	7	3	4.1	1	16.7	-	-	2	3.8	1	2.3
	사별	124	18	24.7	-	-	71	57.3	17	32.1	18	40.9
	미혼	29	11	15.1	1	16.7	7	5.6	6	11.3	4	9.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67	91.8	4	66.7	101	81.5	41	77.4	42	95.5
	비수급	45	6	8.2	2	33.3	23	18.5	12	22.6	2	4.5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5.5	-	-	16	12.9	15	28.3	1	2.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7	78.1	2	33.3	84	67.7	26	49.1	39	88.6
	100만원 이상	56	12	16.4	4	66.7	24	19.4	12	22.6	4	9.1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유형을 보면 <표 5-2-3>와 같다.

〈 그림 5-2-2 〉 장애유형



〈 표 5-2-3 〉 응답자 특성별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내부 신체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6	42.0	42	14.0	11	3.7	53	17.7	41	13.7	3	1.0	11	3.7	13	4.3
성별	남자	138	55	39.9	22	15.9	6	4.3	21	15.2	21	15.2	2	1.4	5	3.6	6	4.3
	여자	162	71	43.8	20	12.3	5	3.1	32	19.8	20	12.3	1	0.6	6	3.7	7	4.3
나이	50대	37	10	27.0	7	18.9	4	10.8	11	29.7	1	2.7	-	-	4	10.8	-	-
	60대	78	36	46.2	10	12.8	5	6.4	15	19.2	4	5.1	1	1.3	4	5.1	3	3.8
	70대	88	35	39.8	16	18.2	2	2.3	14	15.9	10	11.4	2	2.3	3	3.4	6	6.8
	80대 이상	97	45	46.4	9	9.3	-	-	13	13.4	26	26.8	-	-	-	-	4	4.1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1	5.6	5	27.8	2	11.1	5	27.8	2	11.1	2	11.1	-	-	1	5.6
	없음	282	125	44.3	37	13.1	9	3.2	48	17.0	39	13.8	1	0.4	11	3.9	12	4.3
권역	동구	73	26	35.6	10	13.7	5	6.8	15	20.5	8	11.0	-	-	4	5.5	5	6.8
	중구	6	1	16.7	-	-	1	16.7	4	66.7	-	-	-	-	-	-	-	-
	서구	124	59	47.6	15	12.1	2	1.6	25	20.2	17	13.7	1	0.8	2	1.6	3	2.4
	유성구	53	25	47.2	8	15.1	2	3.8	6	11.3	6	11.3	1	1.9	1	1.9	4	7.5
	대덕구	44	15	34.1	9	20.5	1	2.3	3	6.8	10	22.7	1	2.3	4	9.1	1	2.3
독거여부	독거	193	85	44.0	26	13.5	6	3.1	29	15.0	28	14.5	1	0.5	7	3.6	11	5.7
	비독거	107	41	38.3	16	15.0	5	4.7	24	22.4	13	12.1	2	1.9	4	3.7	2	1.9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7	33.3	1	4.8	2	9.5	2	9.5	7	33.3	1	4.8	-	-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4	9.3	6	14.0	3	7.0	7	16.3	19	44.2	-	-	1	2.3	3	7.0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0	30.3	5	15.2	3	9.1	4	12.1	6	18.2	-	-	2	6.1	3	9.1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105	51.7	30	14.8	3	1.5	40	19.7	9	4.4	2	1.0	8	3.9	6	3.0

〈 표 5-2-3 〉 응답자 특성별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내부 신체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73	43.5	23	13.7	7	4.2	22	13.1	33	19.6	-	-	4	2.4	6	3.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4	41.1	14	13.1	4	3.7	22	20.6	8	7.5	3	2.8	5	4.7	7	6.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9	36.0	5	20.0	-	-	9	36.0	-	-	-	-	2	8.0	-	-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31	38.8	8	10.0	2	2.5	22	27.5	11	13.8	2	2.5	2	2.5	2	2.5
	이혼	60	28	46.7	11	18.3	2	3.3	11	18.3	3	5.0	-	-	3	5.0	2	3.3
	별거	7	4	57.1	-	-	1	14.3	2	28.6	-	-	-	-	-	-	-	-
	사별	124	55	44.4	18	14.5	1	0.8	14	11.3	26	21.0	1	0.8	2	1.6	7	5.6
	미혼	29	8	27.6	5	17.2	5	17.2	4	13.8	1	3.4	-	-	4	13.8	2	6.9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118	46.3	36	14.1	11	4.3	31	12.2	36	14.1	2	0.8	10	3.9	11	4.3
	비수급	45	8	17.8	6	13.3	-	-	22	48.9	5	11.1	1	2.2	1	2.2	2	4.4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5	41.7	8	22.2	2	5.6	5	13.9	3	8.3	-	-	1	2.8	2	5.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92	44.2	28	13.5	7	3.4	30	14.4	31	14.9	2	1.0	8	3.8	10	4.8
	100만원 이상	56	19	33.9	6	10.7	2	3.6	18	32.1	7	12.5	1	1.8	2	3.6	1	1.8

2. 의료 및 건강

1) 장애 발생 원인

장애발생원인은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52.7%로 가장 많았고,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21.3%, ‘선천적 원인’이 14.3%, 그리고 ‘출생 시 원인’이 11.7%로 응답자의 다수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4 〉 장애 발생 원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43	14.3	35	11.7	158	52.7	64	21.3
성별	남자	138	19	13.8	11	8.0	70	50.7	38	27.5
	여자	162	24	14.8	24	14.8	88	54.3	26	16.0
나이	50대	37	12	32.4	5	13.5	12	32.4	8	21.6
	60대	78	13	16.7	8	10.3	39	50.0	18	23.1
	70대	88	8	9.1	7	8.0	49	55.7	24	27.3
	80대 이상	97	10	10.3	15	15.5	58	59.8	14	14.4

〈 표 5-2-4 〉 장애 발생 원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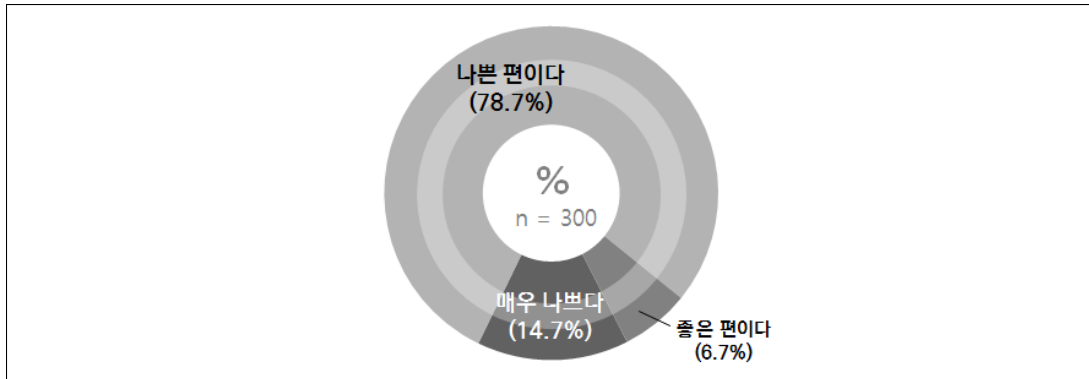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형	지체	126	15	11.9	11	8.7	59	46.8	41	32.5
	뇌병변	42	3	7.1	4	9.5	29	69.0	6	14.3
	지적	11	6	54.5	2	18.2	3	27.3	-	-
	시각	53	9	17.0	8	15.1	27	50.9	9	17.0
	청각	41	6	14.6	7	17.1	25	61.0	3	7.3
	언어	3	-	-	1	33.3	2	66.7	-	-
	정신	11	2	18.2	-	-	6	54.5	3	27.3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2	15.4	7	53.8	2	15.4
권역	동구	73	8	11.0	7	9.6	39	53.4	19	26.0
	중구	6	3	50.0	1	16.7	2	33.3	-	-
	서구	124	11	8.9	8	6.5	77	62.1	28	22.6
	유성구	53	17	32.1	8	15.1	17	32.1	11	20.8
	대덕구	44	4	9.1	11	25.0	23	52.3	6	13.6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2	9.5	4	19.0	9	42.9	6	28.6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7	16.3	12	27.9	20	46.5	4	9.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7	21.2	4	12.1	19	57.6	3	9.1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27	13.3	15	7.4	110	54.2	51	25.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2	13.1	25	14.9	92	54.8	29	17.3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8	16.8	9	8.4	49	45.8	31	29.0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3	12.0	1	4.0	17	68.0	4	16.0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5	41.7	5	13.9	10	27.8	6	16.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20	9.6	28	13.5	121	58.2	39	18.8
	100만원 이상	56	8	14.3	2	3.6	27	48.2	19	33.9

2) 주관적 건강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해 4점 척도에서 1.9점, 그리고 응답자의 93.4%가 ‘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를 응답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이 매우 낮다.

〈 그림 5-2-3 〉 평소 본인 건강

(단위: %)



〈 표 5-2-5 〉 평소 본인 건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44	14.7	236	78.7	20	6.7	-	-	1.9
권역	동구	73	16	21.9	55	75.3	2	2.7	-	-	1.8
	중구	6	2	33.3	4	66.7	-	-	-	-	1.7
	서구	124	13	10.5	100	80.6	11	8.9	-	-	2.0
	유성구	53	8	15.1	42	79.2	3	5.7	-	-	1.9
	대덕구	44	5	11.4	35	79.5	4	9.1	-	-	2.0

3)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77.7%)’, ‘당뇨병(39.7%)’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응답자의 분포가 많았다. 기타 내용으로는 ‘없다(20건)’와 ‘뇌졸중/중풍(19건)’ 등이 있다.

〈 표 5-2-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단위: 명, %, 복수응답(상위 5개 항목))

구분		사례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상지혈증		골다공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33	77.7	119	39.7	53	17.7	49	16.3	27	9.0
나이	50대	37	19	51.4	5	13.5	5	13.5	1	2.7	3	8.1
	60대	78	57	73.1	29	37.2	15	19.2	8	10.3	7	9.0
	70대	88	74	84.1	32	36.4	20	22.7	16	18.2	8	9.1
	80대 이상	97	83	85.6	53	54.6	13	13.4	24	24.7	9	9.3

〈 표 5-2-6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단위: 명, %, 복수응답(상위 5개항목))

구분		사례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상지혈증		골다공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51	69.9	19	26.0	5	6.8	8	11.0	1	1.4
	중구	6	3	50.0	2	33.3	2	33.3	1	16.7	-	-
	서구	124	107	86.3	52	41.9	33	26.6	21	16.9	13	10.5
	유성구	53	39	73.6	20	37.7	6	11.3	15	28.3	4	7.5
	대덕구	44	33	75.0	26	59.1	7	15.9	4	9.1	9	20.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140	83.3	78	46.4	21	12.5	37	22.0	15	8.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74	69.2	34	31.8	25	23.4	9	8.4	8	7.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9	76.0	7	28.0	7	28.0	3	12.0	4	16.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63	78.8	29	36.3	19	23.8	13	16.3	12	15.0
	이혼	60	43	71.7	12	20.0	4	6.7	9	15.0	4	6.7
	별거	7	4	57.1	3	42.9	3	42.9	-	-	1	14.3
	사별	124	108	87.1	66	53.2	24	19.4	23	18.5	7	5.6
	미혼	29	15	51.7	9	31.0	3	10.3	4	13.8	3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203	79.6	102	40.0	42	16.5	47	18.4	23	9.0
	비수급	45	30	66.7	17	37.8	11	24.4	2	4.4	4	8.9

〈 표 5-2-7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기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54	51.3
없음	20	6.7
뇌졸중(중풍)	19	6.3
협심증	16	5.3
우울증	15	5.0
고지혈증	15	5.0
위염 및 위십이지장궤양	9	3.0
갑상선장애	7	2.3
천식	7	2.3
심근경색증	6	2.0
신부전	5	1.7
치주질환	5	1.7
백내장	3	1.0
치아우식(충치)	3	1.0
전립선	3	1.0
암	2	0.7
뇌경색	2	0.7
하리디스크	2	0.7
기타	15	5.0

4) 만성질환 치료 여부 및 미치료 이유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96.1%가 치료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해 본 적 없는 응답자도 있으며 소득과도 연관이 있었다.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1순위 36.4%, 2순위 2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표 5-2-8 〉 만성질환 치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하다가 중단한 상태		치료해본적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80	269	96.1	9	3.2	2	0.7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5	31	88.6	4	11.4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95	191	97.9	3	1.5	1	0.5
	100만원 이상	50	47	94.0	2	4.0	1	2.0

〈 표 5-2-9 〉 만성질환 치료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	36.4	2	22.2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3	27.3	1	11.1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2	18.2	1	11.1
병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1	9.1	3	33.3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1	9.1	-	-
의료기관의 장애인 시설·설비 설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	-	1	11.1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	-	1	11.1
치료받기 싫어서	-	-	-	-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	-	-	-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할지 몰라서	-	-	-	-
기타	-	-	-	-

〈 표 5-2-10 〉 만성질환 치료하지 않은 이유_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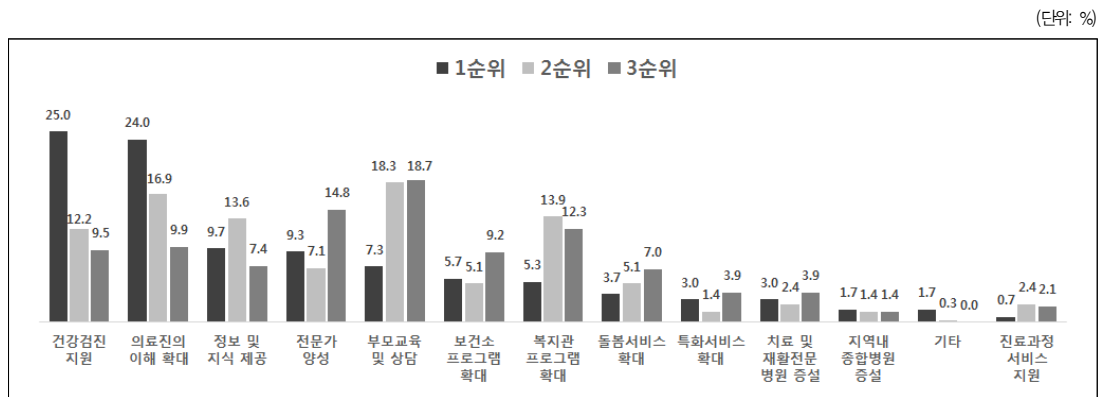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1	2	18.2	1	9.1	4	36.4	3	27.3	1	9.1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4	-	-	-	-	3	75.0	-	-	1	25.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	2	50.0	-	-	1	25.0	1	25.0	-	-
	100만원 이상	3	-	-	1	33.3	-	-	2	66.7	-	-

5) 건강증진 및 유지 위한 지원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25.0%)’과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24.0%)’이며,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건강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18.3%)’과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16.9%)’, 그리고 3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건강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18.7%)’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재활전문가) 양성(14.8%)’으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

〈 그림 5-2-4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 표 5-2-11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75	25.0	36	12.2	27	9.5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72	24.0	50	16.9	28	9.9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29	9.7	40	13.6	21	7.4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재활전문가) 양성	28	9.3	21	7.1	42	14.8
건강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22	7.3	54	18.3	53	18.7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17	5.7	15	5.1	26	9.2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16	5.3	41	13.9	35	12.3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 확대	11	3.7	15	5.1	20	7.0
장애인 특화서비스(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9	3.0	4	1.4	11	3.9
치료 및 재활전문병원 증설	9	3.0	7	2.4	11	3.9
지역 내 종합(대학)병원의 증설	5	1.7	4	1.4	4	1.4
기타	5	1.7	1	0.3	-	-
진료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2	0.7	7	2.4	6	2.1

1순위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는 학력이 높거나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3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80대 이상 응답자는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32.0%)’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1순위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재활전문가) 양성(19.4%)’과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19.4%)’가 중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5-2-12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_1순위

(단위: 명, %, 상위 10개)

구분		사례 수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건강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 (재활 전문가) 양성		보건소에 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특화 서비스 (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치료 및 재활 전문병원 증설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 확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5	25.0	72	24.0	29	9.7	22	7.3	16	5.3	28	9.3	17	5.7	9	3.0	9	3.0	11	3.7
나이	50대	37	10	27.0	6	16.2	5	13.5	1	2.7	3	8.1	2	5.4	3	8.1	1	2.7	2	5.4	2	5.4
	60대	78	19	24.4	12	15.4	11	14.1	7	9.0	4	5.1	7	9.0	4	5.1	3	3.8	3	3.8	7	9.0
	70대	88	28	31.8	23	26.1	9	10.2	5	5.7	4	4.5	6	6.8	6	6.8	-	-	-	-	1	1.1
	80대 이상	97	18	18.6	31	32.0	4	4.1	9	9.3	5	5.2	13	13.4	4	4.1	5	5.2	4	4.1	1	1.0
장애 유형	지체	126	34	27.0	30	23.8	10	7.9	12	9.5	8	6.3	9	7.1	5	4.0	5	4.0	4	3.2	3	2.4
	뇌병변	42	9	21.4	10	23.8	8	19.0	1	2.4	1	2.4	7	16.7	3	7.1	1	2.4	2	4.8	-	-
	지적	11	3	27.3	2	18.2	1	9.1	2	18.2	-	-	-	-	1	9.1	-	-	-	-	1	9.1
	시각	53	17	32.1	13	24.5	3	5.7	2	3.8	3	5.7	3	5.7	1	1.9	1	1.9	1	1.9	7	13.2
	청각	41	8	19.5	12	29.3	4	9.8	3	7.3	1	2.4	6	14.6	1	2.4	2	4.9	2	4.9	-	-
	언어	3	-	-	-	-	-	-	-	-	-	-	2	66.7	1	33.3	-	-	-	-	-	-
	정신	11	3	27.3	1	9.1	1	9.1	1	9.1	2	18.2	-	-	3	27.3	-	-	-	-	-	-
	내부 신체장애	13	1	7.7	4	30.8	2	15.4	1	7.7	1	7.7	1	7.7	2	15.4	-	-	-	-	-	-
권역	동구	73	29	39.7	23	31.5	1	1.4	4	5.5	6	8.2	1	1.4	2	2.7	1	1.4	-	-	4	5.5
	중구	6	5	83.3	-	-	-	-	-	-	-	-	-	-	-	-	-	-	-	-	1	16.7
	서구	124	27	21.8	41	33.1	15	12.1	8	6.5	4	3.2	6	4.8	9	7.3	3	2.4	4	3.2	3	2.4
	유성구	53	9	17.0	4	7.5	8	15.1	5	9.4	3	5.7	10	18.9	6	11.3	-	-	3	5.7	1	1.9
	대덕구	44	5	11.4	4	9.1	5	11.4	5	11.4	3	6.8	11	25.0	-	-	5	11.4	2	4.5	2	4.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4	26.2	49	29.2	10	6.0	15	8.9	8	4.8	17	10.1	7	4.2	7	4.2	6	3.6	3	1.8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2	20.6	22	20.6	16	15.0	5	4.7	7	6.5	9	8.4	8	7.5	1	0.9	1	0.9	6	5.6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9	36.0	1	4.0	3	12.0	2	8.0	1	4.0	2	8.0	2	8.0	1	4.0	2	8.0	2	8.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5	13.9	1	2.8	4	11.1	3	8.3	7	19.4	7	19.4	-	-	3	8.3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4	26.0	53	25.5	21	10.1	16	7.7	10	4.8	15	7.2	8	3.8	7	3.4	5	2.4	10	4.8
	100만원 이상	56	17	30.4	14	25.0	7	12.5	2	3.6	3	5.4	6	10.7	2	3.6	2	3.6	1	1.8	1	1.8

3. 일상생활

1)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62.7%가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22.3%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50대의 경우, 40.5%가 대부분 또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13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7	22.3	188	62.7	23	7.7	22	7.3
성별	남자	138	38	27.5	74	53.6	12	8.7	14	10.1
	여자	162	29	17.9	114	70.4	11	6.8	8	4.9
나이	50대	37	5	13.5	17	45.9	9	24.3	6	16.2
	60대	78	13	16.7	48	61.5	7	9.0	10	12.8
	70대	88	27	30.7	53	60.2	4	4.5	4	4.5
	80대 이상	97	22	22.7	70	72.2	3	3.1	2	2.1
장애유형	지체	126	35	27.8	81	64.3	6	4.8	4	3.2
	뇌병변	42	4	9.5	29	69.0	4	9.5	5	11.9
	지적	11	3	27.3	3	27.3	3	27.3	2	18.2
	시각	53	8	15.1	30	56.6	5	9.4	10	18.9
	청각	41	11	26.8	28	68.3	2	4.9	-	-
	언어	3	-	-	2	66.7	1	33.3	-	-
	정신	11	2	18.2	6	54.5	2	18.2	1	9.1
내부 신체장애		13	4	30.8	9	69.2	-	-	-	-
권역	동구	73	33	45.2	29	39.7	6	8.2	5	6.8
	중구	6	1	16.7	3	50.0	-	-	2	33.3
	서구	124	27	21.8	86	69.4	5	4.0	6	4.8
	유성구	53	3	5.7	39	73.6	9	17.0	2	3.8
	대덕구	44	3	6.8	31	70.5	3	6.8	7	15.9
독거여부	독거	193	50	25.9	120	62.2	12	6.2	11	5.7
	비독거	107	17	15.9	68	63.6	11	10.3	11	10.3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8	38.1	8	38.1	1	4.8	4	19.0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	2.3	35	81.4	6	14.0	1	2.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7	21.2	24	72.7	2	6.1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51	25.1	121	59.6	14	6.9	17	8.4

〈 표 5-2-13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2	25.0	112	66.7	9	5.4	5	3.0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4	22.4	66	61.7	10	9.3	7	6.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	4.0	10	40.0	4	16.0	10	40.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6	20.0	49	61.3	6	7.5	9	11.3
	이혼	60	18	30.0	32	53.3	5	8.3	5	8.3
	별거	7	1	14.3	3	42.9	-	-	3	42.9
	사별	124	25	20.2	92	74.2	4	3.2	3	2.4
	미혼	29	7	24.1	12	41.4	8	27.6	2	6.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62	24.3	160	62.7	17	6.7	16	6.3
	비수급	45	5	11.1	28	62.2	6	13.3	6	13.3

2)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여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 233명 중 39.5%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독거(49.7%), 의사소통 시 일부(52.4%) 및 대부분(69.2%) 도움 필요, 초등학교 졸업 이하(48.4%), 사별(5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44.0%), 월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50.3%)인 경우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없다고 응답하여 필요에 비해 도움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표 5-2-14 〉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33	141	60.5	92	39.5
권역	동구	40	20	50.0	20	50.0
	중구	5	4	80.0	1	20.0
	서구	97	46	47.4	51	52.6
	유성구	50	47	94.0	3	6.0
	대덕구	41	24	58.5	17	41.5
독거여부	독거	143	72	50.3	71	49.7
	비독거	90	69	76.7	21	23.3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13	4	30.8	9	69.2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2	20	47.6	22	52.4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26	16	61.5	10	38.5
	모든 의사표현 가능	152	101	66.4	51	33.6

〈 표 5-2-14 〉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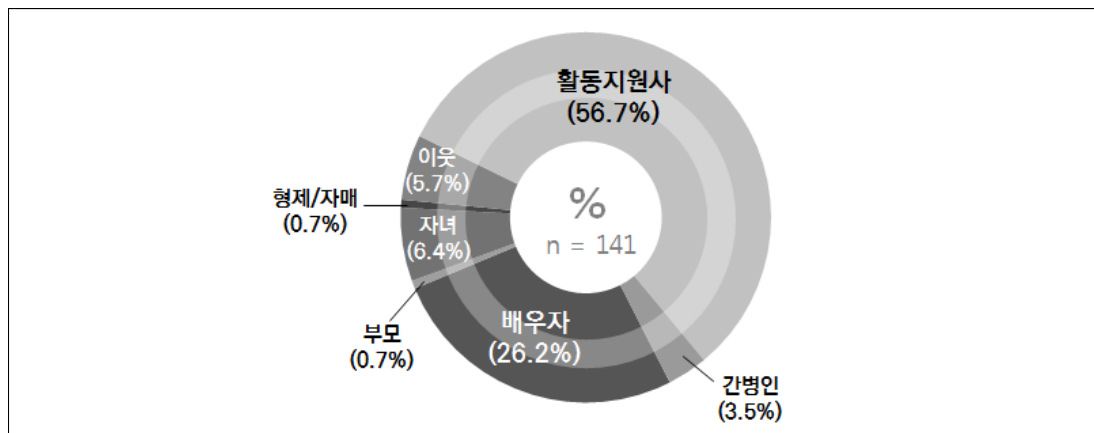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6	65	51.6	61	48.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83	53	63.9	30	36.1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4	23	95.8	1	4.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64	49	76.6	15	23.4
	이혼	42	28	66.7	14	33.3
	별거	6	4	66.7	2	33.3
	사별	99	45	45.5	54	54.5
	미혼	22	15	68.2	7	3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193	108	56.0	85	44.0
	비수급	40	33	82.5	7	17.5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4	27	79.4	7	20.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59	79	49.7	80	50.3
	100만원 이상	40	35	87.5	5	12.5

3) 주로 도와주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56.7%가 ‘활동지원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6.2%가 ‘배우자’라고 응답하였다. ‘기혼(동거)’이면, 배우자가 75.5% 주로 도와 준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역시 배우자(48.6%)가 주로 도와 준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5-2-5 〉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



〈 표 5-2-15 〉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형제/자매		이웃		활동지원사		간병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41	37	26.2	1	0.7	9	6.4	1	0.7	8	5.7	80	56.7	5	3.5
장애유형	지체	55	12	21.8	-	-	4	7.3	-	-	1	1.8	36	65.5	2	3.6
	뇌병변	22	5	22.7	-	-	3	13.6	-	-	1	4.5	12	54.5	1	4.5
	지적	6	2	33.3	-	-	-	-	1	16.7	1	16.7	2	33.3	-	-
	시각	31	11	35.5	-	-	1	3.2	-	-	2	6.5	17	54.8	-	-
	청각	15	4	26.7	-	-	1	6.7	-	-	2	13.3	8	53.3	-	-
	언어	2	1	50.0	-	-	-	-	-	-	-	-	1	50.0	-	-
	정신	6	2	33.3	1	16.7	-	-	-	-	1	16.7	1	16.7	1	16.7
	내부 신체장애	4	-	-	-	-	-	-	-	-	-	-	3	75.0	1	25.0
독거여부	독거	72	-	-	-	-	-	-	-	-	8	11.1	60	83.3	4	5.6
	비독거	69	37	53.6	1	1.4	9	13.0	1	1.4	-	-	20	29.0	1	1.4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	1	25.0	-	-	-	-	1	25.0	-	-	2	50.0	-	-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0	5	25.0	-	-	2	10.0	-	-	2	10.0	10	50.0	1	5.0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16	1	6.3	-	-	1	6.3	-	-	2	12.5	10	62.5	2	12.5
	모든 의사표현 가능	101	30	29.7	1	1.0	6	5.9	-	-	4	4.0	58	57.4	2	2.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49	37	75.5	-	-	-	-	-	-	-	-	11	22.4	1	2.0
	이혼	28	-	-	-	-	3	10.7	-	-	3	10.7	21	75.0	1	3.6
	별거	4	-	-	-	-	-	-	-	-	-	-	4	100.0	-	-
	사별	45	-	-	-	-	6	13.3	-	-	4	8.9	33	73.3	2	4.4
	미혼	15	-	-	1	6.7	-	-	1	6.7	1	6.7	11	73.3	1	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108	21	19.4	-	-	6	5.6	1	0.9	7	6.5	68	63.0	5	4.6
	비수급	33	16	48.5	1	3.0	3	9.1	-	-	1	3.0	12	36.4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27	5	18.5	-	-	-	-	-	-	3	11.1	18	66.7	1	3.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9	15	19.0	-	-	6	7.6	1	1.3	5	6.3	48	60.8	4	5.1
	100만원 이상	35	17	48.6	1	2.9	3	8.6	-	-	-	-	14	40.0	-	-

4) 일상생활 도움 충분성

일상생활에서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서는 72.3%가 ‘부족/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충분성의 정도가 4점 척도에서 2.2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특히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11명), ‘충분/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일 경우, 충분성이 1.9점으로 낮은 편이다.

〈 표 5-2-16 〉 일상생활 도움 충분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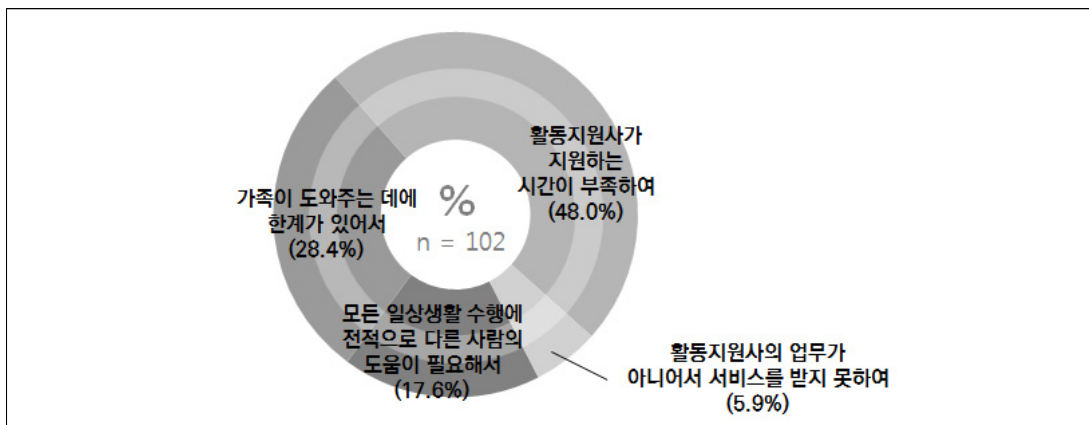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41	13	9.2	89	63.1	36	25.5	3	2.1	2.2
중복장애 여부	있음	11	2	18.2	9	81.8	-	-	-	-	1.8
	없음	130	11	8.5	80	61.5	36	27.7	3	2.3	2.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49	3	6.1	29	59.2	15	30.6	2	4.1	2.3
	이혼	28	2	7.1	23	82.1	3	10.7	-	-	2.0
	별거	4	2	50.0	2	50.0	-	-	-	-	1.5
	사별	45	5	11.1	26	57.8	13	28.9	1	2.2	2.2
	미혼	15	1	6.7	9	60.0	5	33.3	-	-	2.3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27	6	22.2	17	63.0	4	14.8	-	-	1.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9	6	7.6	49	62.0	23	29.1	1	1.3	2.2
	100만원 이상	35	1	2.9	23	65.7	9	25.7	2	5.7	2.3

5) 도움 부족한 이유

일상생활에서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한 이유로는 48.0%가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라고 응답하였다. 활동지원사에게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비독거 장애인의 경우에는 60.4%가 ‘가족이 도와주는데에 한계가 있어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기혼자도 비슷하였다(62.5%).

〈 그림 5-2-6 〉 도움 부족한 이유

(단위: %)



〈 표 5-2-17 〉 도움 부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장애가 심해서 모든 일상생활수행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가족이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02	18	17.6	29	28.4	49	48.0	6	5.9
독거여부	독거	54	11	20.4	-	-	37	68.5	6	11.1
	비독거	48	7	14.6	29	60.4	12	25.0	-	-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32	5	15.6	20	62.5	7	21.9	-	-
	이혼	25	4	16.0	3	12.0	15	60.0	3	12.0
	별거	4	2	50.0	-	-	2	50.0	-	-
	사별	31	5	16.1	4	12.9	19	61.3	3	9.7
	미혼	10	2	20.0	2	20.0	6	60.0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78	14	17.9	16	20.5	43	55.1	5	6.4
	비수급	24	4	16.7	13	54.2	6	25.0	1	4.2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23	5	21.7	3	13.0	11	47.8	4	17.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5	8	14.5	15	27.3	31	56.4	1	1.8
	100만원 이상	24	5	20.8	11	45.8	7	29.2	1	4.2

6) 도움이 필요한 영역

일상생활에서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64.7%는 ‘일상지원 영역(세수, 목욕, 양치질, 배변, 식사 도움 등)’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이동활동영역(16.7%)’, ‘정서활동영역(11.8%)’ 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18 〉 도움이 필요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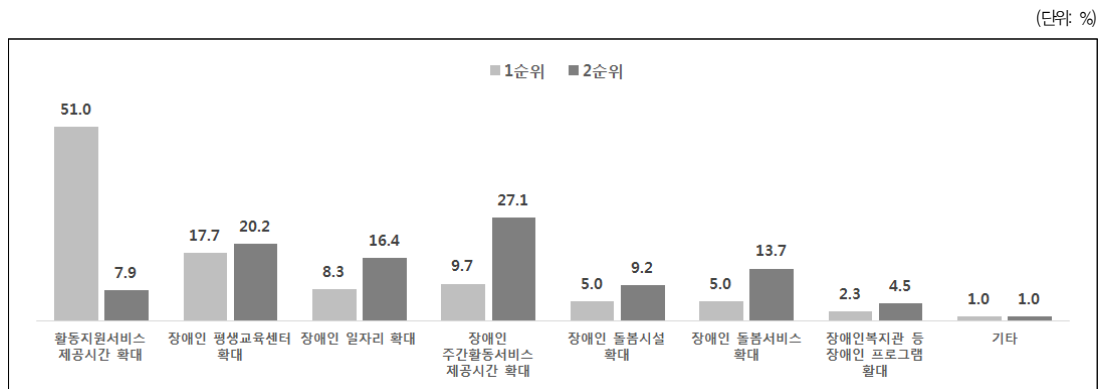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상지원		교육활동		정서활동		이동활동		상담활동		사회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02	66	64.7	2	2.0	12	11.8	17	16.7	3	2.9	2	2.0
나이	50대	17	9	52.9	2	11.8	3	17.6	3	17.6	-	-	-	-
	60대	31	20	64.5	-	-	4	12.9	4	12.9	1	3.2	2	6.5
	70대	29	21	72.4	-	-	1	3.4	7	24.1	-	-	-	-
	80대 이상	25	16	64.0	-	-	4	16.0	3	12.0	2	8.0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	2	50.0	-	-	1	25.0	-	-	-	-	1	25.0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13	8	61.5	-	-	4	30.8	-	-	1	7.7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9	6	66.7	-	-	-	-	3	33.3	-	-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76	50	65.8	2	2.6	7	9.2	14	18.4	2	2.6	1	1.3

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순위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51.0%)’로 앞서 도움이 부족하다는 영역과 일치하였다. 2순위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 중에서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27.1%)’로 시간 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1순위 17.7%, 2순위 20.2%)’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1순위 8.3%, 2순위 16.4%)’가 필요하다고 선택하였다.

〈 그림 5-2-7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표 5-2-19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53	51.0	23	7.9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53	17.7	59	20.2
장애인 일자리 확대	25	8.3	48	16.4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29	9.7	79	27.1
장애인 돌봄시설 확대	15	5.0	27	9.2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15	5.0	40	13.7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7	2.3	13	4.5
기타	3	1.0	3	1.0

〈 표 5-2-20 〉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 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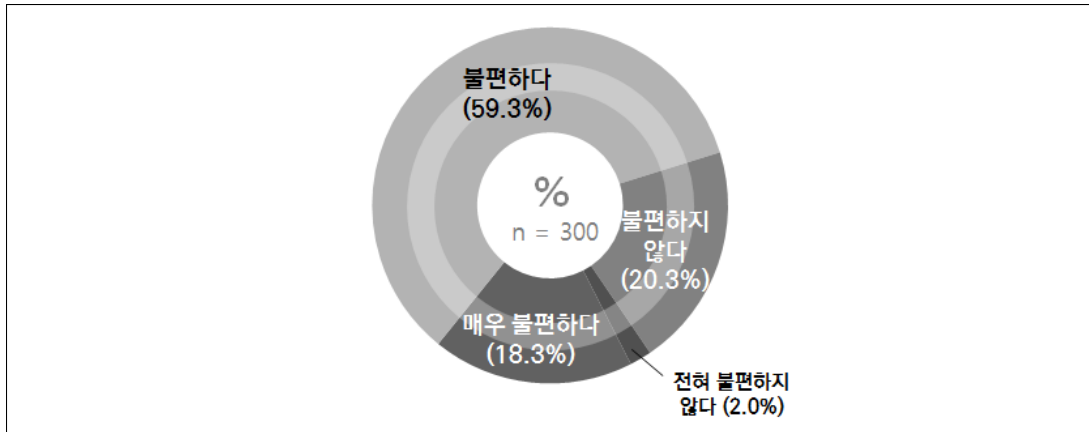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장애인 돌봄시설 확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53	51.0	53	17.7	25	8.3	29	9.7	15	5.0	15	5.0	7	2.3	3	1.0		
장애 유형	지체	126	65	51.6	21	16.7	9	7.1	13	10.3	6	4.8	7	5.6	3	2.4	2	1.6		
	뇌병변	42	22	52.4	4	9.5	6	14.3	4	9.5	3	7.1	3	7.1	-	-	-	-		
	지적	11	4	36.4	3	27.3	1	9.1	1	9.1	1	9.1	1	9.1	-	-	-	-		
	시각	53	32	60.4	6	11.3	6	11.3	3	5.7	1	1.9	3	5.7	1	1.9	1	1.9		
	청각	41	16	39.0	14	34.1	2	4.9	3	7.3	4	9.8	1	2.4	1	2.4	-	-		
	언어	3	2	66.7	1	33.3	-	-	-	-	-	-	-	-	-	-	-	-		
	정신	11	4	36.4	3	27.3	1	9.1	2	18.2	-	-	-	-	1	9.1	-	-		
	내부 신체장애	13	8	61.5	1	7.7	-	-	3	23.1	-	-	-	-	1	7.7	-	-		
권역	동구	73	46	63.0	10	13.7	6	8.2	2	2.7	4	5.5	2	2.7	2	2.7	1	1.4		
	중구	6	5	83.3	-	-	1	16.7	-	-	-	-	-	-	-	-	-	-		
	서구	124	64	51.6	27	21.8	10	8.1	10	8.1	5	4.0	4	3.2	2	1.6	2	1.6		
	유성구	53	13	24.5	8	15.1	6	11.3	15	28.3	5	9.4	5	9.4	1	1.9	-	-		
	대덕구	44	25	56.8	8	18.2	2	4.5	2	4.5	1	2.3	4	9.1	2	4.5	-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1	30.6	4	11.1	2	5.6	10	27.8	8	22.2	1	2.8	-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13	54.3	44	21.2	13	6.3	13	6.3	5	2.4	12	5.8	5	2.4	3	1.4		
	100만원 이상	56	29	51.8	5	8.9	10	17.9	6	10.7	2	3.6	2	3.6	2	3.6	-	-		

8) 집밖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및 이유

집밖 활동이나 외출 시 응답자의 77.6%가 ‘매우 불편하다/불편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37.3%)’, ‘교통이 불편해서(27.9%)’, 그리고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7.9%)’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덕구의 경우 ‘매우 불편하다’의 응답률이 40.9%로 높은 편인데,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에서 54.5%가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으로 불편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 그림 5-2-8 〉 집박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단위: %)



〈 표 5-2-21 〉 집박 활동 및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55	18.3	178	59.3	61	20.3	6	2.0	2.9
성별	남자	138	21	15.2	75	54.3	38	27.5	4	2.9	2.8
	여자	162	34	21.0	103	63.6	23	14.2	2	1.2	3.0
권역	동구	73	7	9.6	35	47.9	29	39.7	2	2.7	2.6
	중구	6	2	33.3	2	33.3	2	33.3	-	-	3.0
	서구	124	22	17.7	92	74.2	8	6.5	2	1.6	3.1
	유성구	53	6	11.3	34	64.2	12	22.6	1	1.9	2.9
	대덕구	44	18	40.9	15	34.1	10	22.7	1	2.3	3.1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4	19.0	11	52.4	6	28.6	-	-	2.9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7	16.3	20	46.5	16	37.2	-	-	2.8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5	15.2	15	45.5	13	39.4	-	-	2.8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39	19.2	132	65.0	26	12.8	6	3.0	3.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0	17.9	101	60.1	34	20.2	3	1.8	2.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6	15.0	64	59.8	24	22.4	3	2.8	2.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9	36.0	13	52.0	3	12.0	-	-	3.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8	22.5	45	56.3	15	18.8	2	2.5	3.0
	이혼	60	8	13.3	37	61.7	15	25.0	-	-	2.9
	별거	7	4	57.1	2	28.6	1	14.3	-	-	3.4
	사별	124	21	16.9	80	64.5	21	16.9	2	1.6	3.0
	미혼	29	4	13.8	14	48.3	9	31.0	2	6.9	2.7

〈 표 5-2-22 〉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통이 불편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33	65	27.9	87	37.3	65	27.9	6	2.6	6	2.6	4	1.7
나이	50대	25	9	36.0	4	16.0	11	44.0	-	-	-	-	1	4.0
	60대	59	10	16.9	22	37.3	22	37.3	1	1.7	3	5.1	1	1.7
	70대	70	20	28.6	33	47.1	12	17.1	3	4.3	1	1.4	1	1.4
	80대 이상	79	26	32.9	28	35.4	20	25.3	2	2.5	2	2.5	1	1.3
장애유형	지체	101	26	25.7	43	42.6	28	27.7	2	2.0	-	-	2	2.0
	뇌병변	33	9	27.3	12	36.4	11	33.3	-	-	-	-	1	3.0
	지적	7	-	-	2	28.6	3	42.9	-	-	2	28.6	-	-
	시각	43	13	30.2	13	30.2	15	34.9	1	2.3	-	-	1	2.3
	청각	32	10	31.3	12	37.5	6	18.8	1	3.1	3	9.4	-	-
	언어	3	-	-	1	33.3	1	33.3	-	-	1	33.3	-	-
	정신	6	3	50.0	-	-	1	16.7	2	33.3	-	-	-	-
	내부 신체장애	8	4	50.0	4	50.0	-	-	-	-	-	-	-	-
중복장애 여부	있음	12	1	8.3	3	25.0	5	41.7	-	-	2	16.7	1	8.3
	없음	221	64	29.0	84	38.0	60	27.1	6	2.7	4	1.8	3	1.4
권역	동구	42	19	45.2	15	35.7	5	11.9	2	4.8	1	2.4	-	-
	중구	4	1	25.0	-	-	3	75.0	-	-	-	-	-	-
	서구	114	20	17.5	56	49.1	32	28.1	3	2.6	2	1.8	1	0.9
	유성구	40	7	17.5	11	27.5	20	50.0	-	-	1	2.5	1	2.5
	대덕구	33	18	54.5	5	15.2	5	15.2	1	3.0	2	6.1	2	6.1
독거여부	독거	150	40	26.7	60	40.0	43	28.7	5	3.3	-	-	2	1.3
	비독거	83	25	30.1	27	32.5	22	26.5	1	1.2	6	7.2	2	2.4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15	2	13.3	5	33.3	5	33.3	-	-	3	20.0	-	-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7	8	29.6	10	37.0	4	14.8	1	3.7	3	11.1	1	3.7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20	8	40.0	4	20.0	7	35.0	1	5.0	-	-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171	47	27.5	68	39.8	49	28.7	4	2.3	-	-	3	1.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1	38	29.0	53	40.5	30	22.9	5	3.8	4	3.1	1	0.8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80	20	25.0	30	37.5	26	32.5	-	-	2	2.5	2	2.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2	7	31.8	4	18.2	9	40.9	1	4.5	-	-	1	4.5

9)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3.0%)’,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신설(32.0%)’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28.0%)’, ‘편의시설 확대(22.6%)’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23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9	33.0	29	9.8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신설	96	32.0	48	16.2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27	9.0	83	28.0
편의시설 확대	20	6.7	67	22.6
교통 등 이동수단 확대	30	10.0	37	12.5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27	9.0	32	10.8
기타	1	0.3	-	-

〈 표 5-2-24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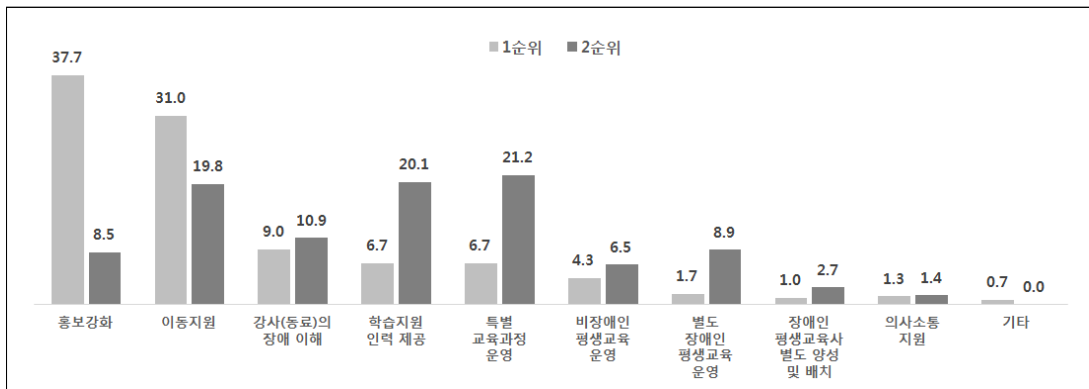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신설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편의시설 확대		교통 등 이동수단 확대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9	33.0	96	32.0	27	9.0	20	6.7	30	10.0	27	9.0	1	0.3
권역	동구	73	31	42.5	20	27.4	4	5.5	5	6.8	8	11.0	4	5.5	1	1.4
	중구	6	1	16.7	1	16.7	-	-	1	16.7	2	33.3	1	16.7	-	-
	서구	124	45	36.3	45	36.3	10	8.1	8	6.5	7	5.6	9	7.3	-	-
	유성구	53	15	28.3	10	18.9	11	20.8	5	9.4	7	13.2	5	9.4	-	-
	대덕구	44	7	15.9	20	45.5	2	4.5	1	2.3	6	13.6	8	18.2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68	40.5	58	34.5	11	6.5	8	4.8	6	3.6	16	9.5	1	0.6
	중학교 이상~	107	27	25.2	34	31.8	13	12.1	9	8.4	18	16.8	6	5.6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	4	16.0	4	16.0	3	12.0	3	12.0	6	24.0	5	20.0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4	16.0	4	16.0	3	12.0	3	12.0	6	24.0	5	20.0	-	-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9	25.0	6	16.7	6	16.7	5	13.9	4	11.1	6	16.7	-	-
	50만원 이상~	208	72	34.6	73	35.1	18	8.7	10	4.8	19	9.1	16	7.7	-	-
	100만원 미만	208	72	34.6	73	35.1	18	8.7	10	4.8	19	9.1	16	7.7	-	-
	100만원 이상	56	18	32.1	17	30.4	3	5.4	5	8.9	7	12.5	5	8.9	1	1.8

10)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37.7%)’와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31.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21.2%)’, ‘학습지원 인력제공(20.1%)’과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19.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 그림 5-2-9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 표 5-2-25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113	37.7	25	8.5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93	31.0	58	19.8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27	9.0	32	10.9
학습지원 인력 제공	20	6.7	59	20.1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20	6.7	62	21.2
비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13	4.3	19	6.5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5	1.7	26	8.9
장애인 평생교육사 별도 양성 및 배치	3	1.0	8	2.7
의사소통 지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4	1.3	4	1.4
기타	2	0.7	-	-

〈 표 5-2-26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교육기관 까지의 이동지원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학습지원 인력 제공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비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평 생교육사 별도 양성 및 배치		의사소통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3	37.7	93	31.0	27	9.0	20	6.7	20	6.7	13	4.3	5	1.7	3	1.0	4	1.3	2	0.7
나이	50대	37	12	32.4	15	40.5	1	2.7	4	10.8	1	2.7	1	2.7	-	-	1	2.7	2	5.4	-	-
	60대	78	34	43.6	18	23.1	12	15.4	4	5.1	7	9.0	1	1.3	1	1.3	-	-	1	1.3	-	-
	70대	88	34	38.6	28	31.8	6	6.8	7	8.0	4	4.5	2	2.3	3	3.4	1	1.1	1	1.1	2	2.3
	80대 이상	97	33	34.0	32	33.0	8	8.2	5	5.2	8	8.2	9	9.3	1	1.0	1	1.0	-	-	-	-
장애 유형	지체	126	49	38.9	40	31.7	11	8.7	7	5.6	8	6.3	4	3.2	2	1.6	2	1.6	1	0.8	2	1.6
	뇌병변	42	18	42.9	13	31.0	3	7.1	2	4.8	3	7.1	1	2.4	1	2.4	-	-	1	2.4	-	-
	지적	11	5	45.5	2	18.2	1	9.1	1	9.1	1	9.1	1	9.1	-	-	-	-	-	-	-	-
	시각	53	19	35.8	17	32.1	3	5.7	6	11.3	5	9.4	2	3.8	-	-	-	-	1	1.9	-	-
	청각	41	13	31.7	11	26.8	6	14.6	2	4.9	3	7.3	4	9.8	1	2.4	1	2.4	-	-	-	-
	언어	3	1	33.3	-	-	-	-	1	33.3	-	-	-	-	-	-	-	-	1	33.3	-	-
	정신	11	4	36.4	3	27.3	2	18.2	-	-	-	-	1	9.1	1	9.1	-	-	-	-	-	-
	내부 신체장애	13	4	30.8	7	53.8	1	7.7	1	7.7	-	-	-	-	-	-	-	-	-	-	-	-
권역	동구	73	34	46.6	23	31.5	4	5.5	4	5.5	4	5.5	2	2.7	1	1.4	-	-	-	-	1	1.4
	중구	6	3	50.0	2	33.3	-	-	-	-	-	-	-	-	-	-	-	-	1	16.7	-	-
	서구	124	49	39.5	36	29.0	14	11.3	9	7.3	9	7.3	5	4.0	1	0.8	-	-	-	-	1	0.8
	유성구	53	11	20.8	19	35.8	9	17.0	5	9.4	3	5.7	3	5.7	-	-	2	3.8	1	1.9	-	-
	대덕구	44	16	36.4	13	29.5	-	-	2	4.5	4	9.1	3	6.8	3	6.8	1	2.3	2	4.5	-	-
가구원 수	독거	193	79	40.9	62	32.1	13	6.7	11	5.7	11	5.7	6	3.1	5	2.6	3	1.6	1	0.5	2	1.0
	비독거	107	34	31.8	31	29.0	14	13.1	9	8.4	9	8.4	7	6.5	-	-	-	-	3	2.8	-	-

4. 주거 및 취업지원

1) 주거안정 위한 정책분야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45.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21.3%)’, ‘주택개조 사업 확대(1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택제공에 대한 욕구는 서구(55.6%)에서 높았고, 유성구는 ‘주택자금 제공(34.0%)’에 대한 욕구가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 표 5-2-27 〉 주거안정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분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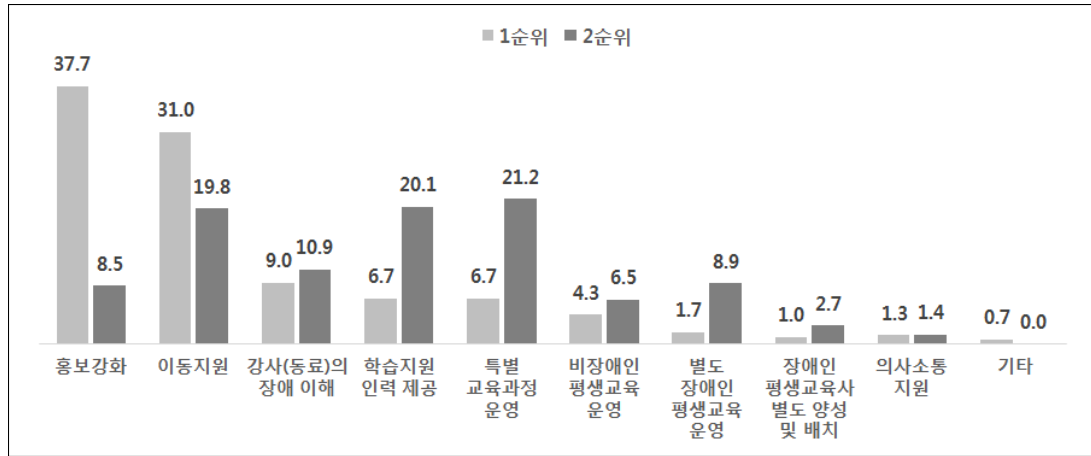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주택자금 제공		주택개조 사업 확대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37	45.7	64	21.3	58	19.3	40	13.3	1	0.3
권역	동구	73	40	54.8	5	6.8	22	30.1	6	8.2	-	-
	중구	6	1	16.7	3	50.0	1	16.7	-	-	1	16.7
	서구	124	69	55.6	31	25.0	14	11.3	10	8.1	-	-
	유성구	53	16	30.2	18	34.0	7	13.2	12	22.6	-	-
	대덕구	44	11	25.0	7	15.9	14	31.8	12	27.3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79	47.0	30	17.9	39	23.2	20	11.9	-	-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51	47.7	23	21.5	16	15.0	17	15.9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7	28.0	11	44.0	3	12.0	3	12.0	1	4.0
결혼 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30	37.5	20	25.0	14	17.5	16	20.0	-	-
	이혼	60	26	43.3	12	20.0	15	25.0	7	11.7	-	-
	별거	7	2	28.6	2	28.6	2	28.6	-	-	1	14.3
	사별	124	66	53.2	26	21.0	19	15.3	13	10.5	-	-
	미혼	29	13	44.8	4	13.8	8	27.6	4	13.8	-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5	41.7	11	30.6	4	11.1	6	16.7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02	49.0	40	19.2	35	16.8	31	14.9	-	-
	100만원 이상	56	20	35.7	13	23.2	19	33.9	3	5.4	1	1.8

2) 장애인 취업 위한 지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지원고용의 확대(41.7%)’와 ‘직업재활시설 확충(32.3%)’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는 ‘취업정보 제공 창구의 확대(29.5%)’와 ‘지원고용의 확대(22.0%)’를 응답하여 지원고용의 확대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다.

〈 그림 5-2-10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 표 5-2-28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원고용의 확대	125	41.7	65	22.0
직업재활시설 확충	97	32.3	41	13.9
취업정보 제공 창구의 확대	18	6.0	87	29.5
취업박람회 개최	16	5.3	28	9.5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15	5.0	12	4.1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11	3.7	20	6.8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9	3.0	32	10.8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6	2.0	10	3.4
기타	3	1.0	-	-

일부 도움받아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1순위로 필요한 지원을 ‘직업재활시설 확충(16.3%)’ 보다는 ‘지원고용의 확대(62.8%)’를 많이 응답하였고,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16.0%)’에 대한 필요성도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 표 5-2-29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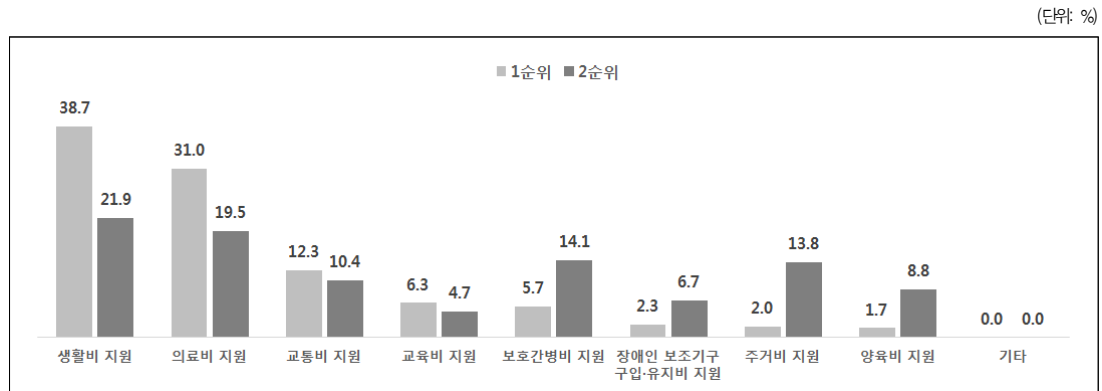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직업재활 시설 확충		자원고용의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 제공 창구의 확대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7	32.3	125	41.7	16	5.3	18	6.0	15	5.0	11	3.7	9	3.0	6	2.0	3	1.0
성별	남자	138	39	28.3	63	45.7	8	5.8	11	8.0	4	2.9	2	1.4	5	3.6	3	2.2	3	2.2
	여자	162	58	35.8	62	38.3	8	4.9	7	4.3	11	6.8	9	5.6	4	2.5	3	1.9	-	-
장애유형	지체	126	49	38.9	48	38.1	4	3.2	4	3.2	8	6.3	4	3.2	3	2.4	3	2.4	3	2.4
	뇌병변	42	16	38.1	16	38.1	4	9.5	2	4.8	1	2.4	1	2.4	1	2.4	1	2.4	-	-
	지적	11	-	-	9	81.8	-	-	1	9.1	1	9.1	-	-	-	-	-	-	-	-
	시각	53	11	20.8	24	45.3	2	3.8	6	11.3	2	3.8	3	5.7	3	5.7	2	3.8	-	-
	청각	41	19	46.3	16	39.0	3	7.3	1	2.4	-	-	1	2.4	1	2.4	-	-	-	-
	언어	3	-	-	1	33.3	1	33.3	1	33.3	-	-	-	-	-	-	-	-	-	-
	정신	11	1	9.1	6	54.5	1	9.1	1	9.1	1	9.1	1	9.1	-	-	-	-	-	-
	내부 신체장애	13	1	7.7	5	38.5	1	7.7	2	15.4	2	15.4	1	7.7	1	7.7	-	-	-	-
권역	동구	73	12	16.4	41	56.2	3	4.1	6	8.2	1	1.4	1	1.4	3	4.1	5	6.8	1	1.4
	중구	6	-	-	5	83.3	-	-	-	-	-	-	-	-	1	16.7	-	-	-	-
	서구	124	56	45.2	42	33.9	5	4.0	9	7.3	4	3.2	4	3.2	1	0.8	1	0.8	2	1.6
	유성구	53	15	28.3	17	32.1	6	11.3	1	1.9	9	17.0	4	7.5	1	1.9	-	-	-	-
	대덕구	44	14	31.8	20	45.5	2	4.5	2	4.5	1	2.3	2	4.5	3	6.8	-	-	-	-
가구원 수	독거	193	67	34.7	82	42.5	4	2.1	12	6.2	10	5.2	7	3.6	4	2.1	4	2.1	3	1.6
	비독거	107	30	28.0	43	40.2	12	11.2	6	5.6	5	4.7	4	3.7	5	4.7	2	1.9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7	33.3	7	33.3	1	4.8	3	14.3	-	-	1	4.8	-	-	-	-	2	9.5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7	16.3	27	62.8	4	9.3	2	4.7	1	2.3	2	4.7	-	-	-	-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2	36.4	8	24.2	4	12.1	3	9.1	2	6.1	2	6.1	1	3.0	1	3.0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71	35.0	83	40.9	7	3.4	10	4.9	12	5.9	6	3.0	8	3.9	5	2.5	1	0.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7	33.9	78	46.4	9	5.4	9	5.4	8	4.8	6	3.6	-	-	1	0.6	-	-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6	33.6	40	37.4	5	4.7	7	6.5	5	4.7	3	2.8	5	4.7	4	3.7	2	1.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4	16.0	7	28.0	2	8.0	2	8.0	2	8.0	2	8.0	4	16.0	1	4.0	1	4.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6	33.7	113	44.3	9	3.5	12	4.7	12	4.7	9	3.5	6	2.4	5	2.0	3	1.2
	비수급	45	11	24.4	12	26.7	7	15.6	6	13.3	3	6.7	2	4.4	3	6.7	1	2.2	-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9	25.0	11	30.6	3	8.3	4	11.1	5	13.9	3	8.3	-	-	1	2.8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4	35.6	91	43.8	7	3.4	11	5.3	9	4.3	6	2.9	5	2.4	3	1.4	2	1.0
	100만원 이상	56	14	25.0	23	41.1	6	10.7	3	5.4	1	1.8	2	3.6	4	7.1	2	3.6	1	1.8

5. 소득 및 경제적지원

1) 경제적 지원 욕구

경제적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에서 모두 ‘생활비 지원(38.7%, 21.9%)’과 ‘의료비 지원(31.0%, 19.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유성구 거주 장애인의 경우, ‘교통비 지원(32.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동구 거주 장애인은 ‘생활비 지원’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63.0%로 매우 많았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생활비 지원보다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그림 5-2-11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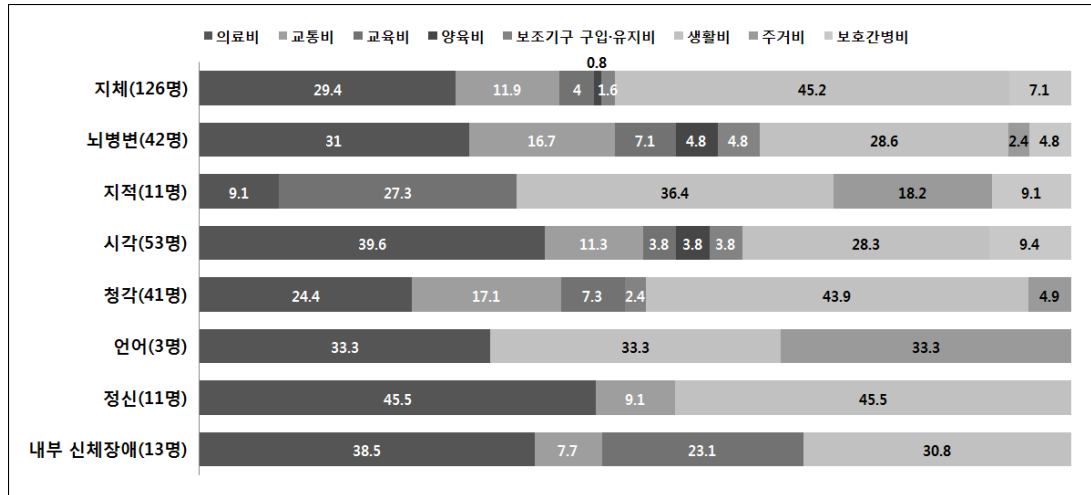
〈 표 5-2-30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활비 지원	116	38.7	65	21.9
의료비 지원	93	31.0	58	19.5
교통비 지원	37	12.3	31	10.4
교육비 지원(교재비, 준비물, 학원비 등)	19	6.3	14	4.7
보호간병비 지원	17	5.7	42	14.1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지원	7	2.3	20	6.7
주거비 지원	6	2.0	41	13.8
양육비 지원	5	1.7	26	8.8
기타	-	-	-	-

〈 그림 5-2-12 〉 장애유형별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_1순위

(단위: %)



〈 표 5-2-31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_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보호 간병비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3	31.0	37	12.3	19	6.3	5	1.7	7	2.3	116	38.7	6	2.0	17	5.7
장애유형	지체	126	37	29.4	15	11.9	5	4.0	1	0.8	2	1.6	57	45.2	-	-	9	7.1
	뇌병변	42	13	31.0	7	16.7	3	7.1	2	4.8	2	4.8	12	28.6	1	2.4	2	4.8
	지적	11	1	9.1	-	-	3	27.3	-	-	-	-	4	36.4	2	18.2	1	9.1
	시각	53	21	39.6	6	11.3	2	3.8	2	3.8	2	3.8	15	28.3	-	-	5	9.4
	청각	41	10	24.4	7	17.1	3	7.3	-	-	1	2.4	18	43.9	2	4.9	-	-
	언어	3	1	33.3	-	-	-	-	-	-	-	-	1	33.3	1	33.3	-	-
	정신	11	5	45.5	1	9.1	-	-	-	-	-	-	5	45.5	-	-	-	-
	내부 신체장애	13	5	38.5	1	7.7	3	23.1	-	-	-	-	4	30.8	-	-	-	-
권역	동구	73	11	15.1	4	5.5	1	1.4	-	-	-	-	46	63.0	-	-	11	15.1
	중구	6	2	33.3	-	-	-	-	-	-	1	16.7	3	50.0	-	-	-	-
	서구	124	57	46.0	10	8.1	6	4.8	4	3.2	3	2.4	37	29.8	3	2.4	4	3.2
	유성구	53	13	24.5	17	32.1	11	20.8	1	1.9	1	1.9	8	15.1	1	1.9	1	1.9
	대덕구	44	10	22.7	6	13.6	1	2.3	-	-	2	4.5	22	50.0	2	4.5	1	2.3

〈 표 5-2-31 〉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것_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보호 간병비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원 수	독거	193	67	34.7	20	10.4	12	6.2	2	1.0	1	0.5	74	38.3	4	2.1	13	6.7
	비독거	107	26	24.3	17	15.9	7	6.5	3	2.8	6	5.6	42	39.3	2	1.9	4	3.7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7	33.3	1	4.8	2	9.5	-	-	1	4.8	9	42.9	1	4.8	-	-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8	18.6	9	20.9	4	9.3	1	2.3	-	-	20	46.5	1	2.3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4	12.1	8	24.2	3	9.1	-	-	1	3.0	15	45.5	1	3.0	1	3.0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74	36.5	19	9.4	10	4.9	4	2.0	5	2.5	72	35.5	3	1.5	16	7.9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6	27.4	25	14.9	9	5.4	3	1.8	-	-	72	42.9	4	2.4	9	5.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1	38.3	8	7.5	9	8.4	2	1.9	3	2.8	35	32.7	2	1.9	7	6.5
최종 학력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6	24.0	4	16.0	1	4.0	-	-	4	16.0	9	36.0	-	-	1	4.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2	27.5	11	13.8	6	7.5	3	3.8	2	2.5	32	40.0	1	1.3	3	3.8
	이혼	60	16	26.7	7	11.7	5	8.3	-	-	3	5.0	24	40.0	-	-	5	8.3
	별거	7	-	-	-	-	2	28.6	-	-	1	14.3	2	28.6	-	-	2	28.6
	사별	124	47	37.9	17	13.7	6	4.8	2	1.6	1	0.8	42	33.9	3	2.4	6	4.8
	미혼	29	8	27.6	2	6.9	-	-	-	-	-	-	16	55.2	2	6.9	1	3.4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77	30.2	28	11.0	17	6.7	3	1.2	4	1.6	105	41.2	6	2.4	15	5.9
	비수급	45	16	35.6	9	20.0	2	4.4	2	4.4	3	6.7	11	24.4	-	-	2	4.4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9	25.0	8	22.2	7	19.4	2	5.6	-	-	8	22.2	-	-	2	5.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4	35.6	22	10.6	6	2.9	2	1.0	3	1.4	86	41.3	5	2.4	10	4.8
	100만원 이상	56	10	17.9	7	12.5	6	10.7	1	1.8	4	7.1	22	39.3	1	1.8	5	8.9

6. 안전

1) 안전한 삶 위한 지원 욕구

안전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49.7%)’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29.3%)’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43.5%)’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경제적 지원과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표 5-2-32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149	49.7	38	13.4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88	29.3	123	43.5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32	10.7	45	15.9
장애인 위치표시(GPS배회감지기)보급 확대	18	6.0	51	18.0
장애인 비상·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교육	13	4.3	26	9.2
기타	-	-	-	-

〈 표 5-2-33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장애인 위치표시 (GPS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장애인 비상·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교육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49	49.7	88	29.3	32	10.7	18	6.0	13	4.3
성별	남자	138	80	58.0	34	24.6	14	10.1	8	5.8	2	1.4
	여자	162	69	42.6	54	33.3	18	11.1	10	6.2	11	6.8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11	61.1	1	5.6	-	-	4	22.2	2	11.1
	없음	282	138	48.9	87	30.9	32	11.3	14	5.0	11	3.9
권역	동구	73	44	60.3	22	30.1	3	4.1	4	5.5	-	-
	중구	6	2	33.3	2	33.3	-	-	1	16.7	1	16.7
	서구	124	66	53.2	40	32.3	11	8.9	5	4.0	2	1.6
	유성구	53	18	34.0	10	18.9	10	18.9	7	13.2	8	15.1
	대덕구	44	19	43.2	14	31.8	8	18.2	1	2.3	2	4.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124	48.6	82	32.2	24	9.4	15	5.9	10	3.9
	비수급	45	25	55.6	6	13.3	8	17.8	3	6.7	3	6.7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3	36.1	7	19.4	7	19.4	6	16.7	3	8.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05	50.5	66	31.7	19	9.1	12	5.8	6	2.9
	100만원 이상	56	31	55.4	15	26.8	6	10.7	-	-	4	7.1

2)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점으로는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 이용의 어려움(12.3%)’, 2순위로는 ‘복지시설 이용 제한(25.9%)’과 ‘병원 이용의 어려움(25.3%)’ 순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에서 불편함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5-2-34 〉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 어려움	159	53.0	39	13.3
병원 이용의 어려움	37	12.3	74	25.3
외부활동 제한	33	11.0	43	14.7
복지시설 이용 제한	29	9.7	76	25.9
전염병 불안감	14	4.7	32	10.9
물품구입 어려움	14	4.7	23	7.8
도전적 행동 증가	12	4.0	6	2.0
기타	2	0.7	-	-

〈 표 5-2-35 〉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_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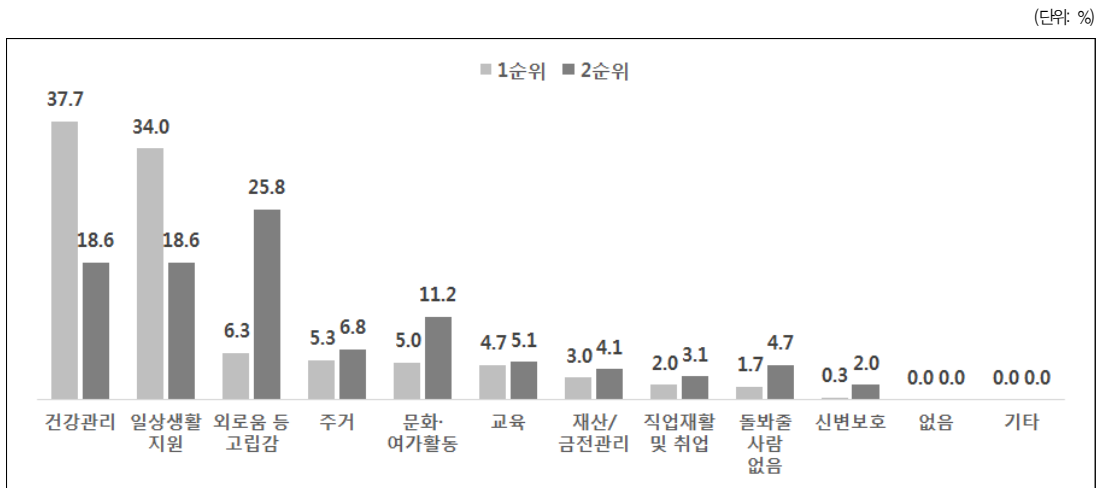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병원 이용의 어려움		외부활동 제한		복지시설 이용 제한		전염병 불안감		물품구입 어려움		도전적 행동 증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59	53.0	37	12.3	33	11.0	29	9.7	14	4.7	14	4.7	12	4.0	2	0.7
성별	남자	138	78	56.5	12	8.7	12	8.7	15	10.9	8	5.8	9	6.5	2	1.4	2	1.4
	여자	162	81	50.0	25	15.4	21	13.0	14	8.6	6	3.7	5	3.1	10	6.2	-	-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5	27.8	1	5.6	4	22.2	5	27.8	2	11.1	1	5.6	-	-	-	-
	없음	282	154	54.6	36	12.8	29	10.3	24	8.5	12	4.3	13	4.6	12	4.3	2	0.7
권역	동구	73	43	58.9	8	11.0	7	9.6	6	8.2	4	5.5	5	6.8	-	-	-	-
	중구	6	3	50.0	1	16.7	2	33.3	-	-	-	-	-	-	-	-	-	-
	서구	124	77	62.1	13	10.5	10	8.1	7	5.6	8	6.5	5	4.0	4	3.2	-	-
	유성구	53	13	24.5	10	18.9	7	13.2	15	28.3	-	-	1	1.9	7	13.2	-	-
	대덕구	44	23	52.3	5	11.4	7	15.9	1	2.3	2	4.5	3	6.8	1	2.3	2	4.5

7. 노후 준비

1)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노후와 관련한 주된 걱정으로 1순위 기준으로는 ‘건강관리(37.7%)’와 ‘일상생활 지원(돌봄 등)(34.0%)’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 기준으로는 ‘외로움 등 고립감’이 25.8%로 가장 높았다.

〈 그림 5-2-13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 표 5-2-36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관리	113	37.7	55	18.6
일상생활 지원(돌봄 등)	102	34.0	55	18.6
외로움 등 고립감	19	6.3	76	25.8
주거	16	5.3	20	6.8
문화·여가활동	15	5.0	33	11.2
교육	14	4.7	15	5.1
재산/금전관리	9	3.0	12	4.1
직업재활 및 취업	6	2.0	9	3.1
돌봐줄 사람 없음	5	1.7	14	4.7
신변보호	1	0.3	6	2.0
없음	-	-	-	-
기타	-	-	-	-

〈 표 5-2-37 〉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_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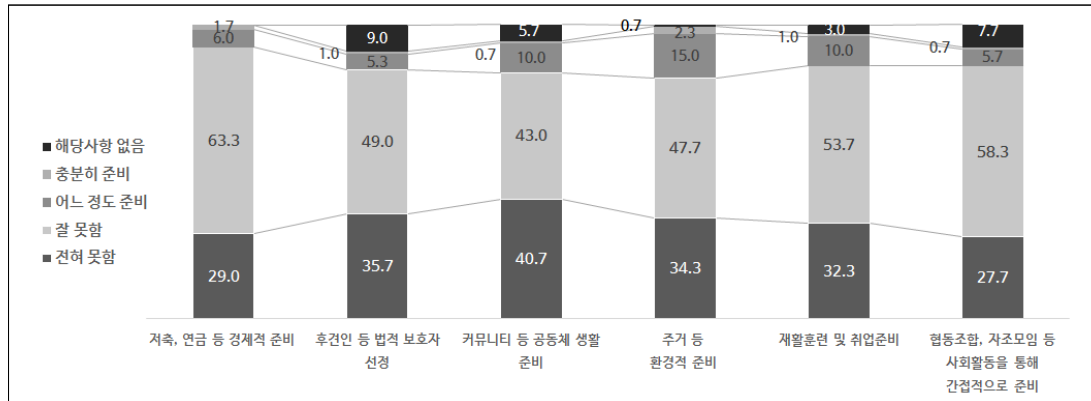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돌봄 등)		교육		문화· 여가활동		외로움 등 고립감		주거		직업재활 및 취업		재산/ 금전관리		신변보호		돌봐줄 사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3	37.7	102	34.0	14	4.7	15	5.0	19	6.3	16	5.3	6	2.0	9	3.0	1	0.3	5	1.7
성별	남자	138	52	37.7	44	31.9	4	2.9	8	5.8	14	10.1	5	3.6	5	3.6	3	2.2	-	-	3	2.2
	여자	162	61	37.7	58	35.8	10	6.2	7	4.3	5	3.1	11	6.8	1	0.6	6	3.7	1	0.6	2	1.2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9	50.0	1	5.6	-	-	-	-	3	16.7	2	11.1	2	11.1	-	-	-	-	1	5.6
	없음	282	104	36.9	101	35.8	14	5.0	15	5.3	16	5.7	14	5.0	4	1.4	9	3.2	1	0.4	4	1.4
권역	동구	73	15	20.5	40	54.8	-	-	6	8.2	6	8.2	-	-	3	4.1	-	-	-	-	3	4.1
	중구	6	3	50.0	2	33.3	-	-	-	-	1	16.7	-	-	-	-	-	-	-	-	-	-
	서구	124	57	46.0	38	30.6	8	6.5	4	3.2	5	4.0	4	3.2	-	-	8	6.5	-	-	-	-
	유성구	53	19	35.8	9	17.0	6	11.3	1	1.9	5	9.4	9	17.0	2	3.8	1	1.9	-	-	1	1.9
	대덕구	44	19	43.2	13	29.5	-	-	4	9.1	2	4.5	3	6.8	1	2.3	-	-	1	2.3	1	2.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9	29.2	70	41.7	10	6.0	12	7.1	9	5.4	11	6.5	4	2.4	2	1.2	-	-	1	0.6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4	41.1	31	29.0	3	2.8	3	2.8	8	7.5	5	4.7	2	1.9	6	5.6	1	0.9	4	3.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20	80.0	1	4.0	1	4.0	-	-	2	8.0	-	-	-	-	1	4.0	-	-	-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96	37.6	96	37.6	7	2.7	13	5.1	14	5.5	15	5.9	4	1.6	6	2.4	1	0.4	3	1.2
	비수급	45	17	37.8	6	13.3	7	15.6	2	4.4	5	11.1	1	2.2	2	4.4	3	6.7	-	-	2	4.4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2	33.3	7	19.4	6	16.7	3	8.3	3	8.3	4	11.1	-	-	1	2.8	-	-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8	85	40.9	76	36.5	4	1.9	8	3.8	11	5.3	11	5.3	4	1.9	5	2.4	1	0.5	3	1.4
	100만원 이상	56	16	28.6	19	33.9	4	7.1	4	7.1	5	8.9	1	1.8	2	3.6	3	5.4	-	-	2	3.6

2) 노후계획 준비정도

노후와 관련하여 영역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점 척도에서 모두 2점 미만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의 준비도는 1.8점 정도이지만, ‘전혀 못함’과 ‘잘 못함’을 통틀어 92.3%가 응답하였다. 그 중 비교적 준비수준이 높은 것은 ‘주거 등 환경적 준비’가 평균 1.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해 82%가 노후 계획의 준비 정도에서 ‘전혀 못함/잘 못함’이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준비 정도가 낮았다.

〈 그림 5-2-14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

(단위: %)



〈 표 5-2-38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	87	29.0	190	63.3	18	6.0	5	1.7	-	-	1.8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선정	107	35.7	147	49.0	16	5.3	3	1.0	27	9.0	1.7
커뮤니티 등 공동체 생활 준비	122	40.7	129	43.0	30	10.0	2	0.7	17	5.7	1.7
주거 등 환경적 준비	103	34.3	143	47.7	45	15.0	7	2.3	2	0.7	1.9
재활훈련 및 취업준비	97	32.3	161	53.7	30	10.0	3	1.0	9	3.0	1.8
협동조합,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준비	83	27.7	175	58.3	17	5.7	2	0.7	23	7.7	1.8

노후와 관련하여 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서 평균 1.8점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2.3%가 ‘전혀 못함/잘 못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덕구 거주 장애인의 경우, 97.7%가 ‘전혀 못함/잘 못함’이라고 응답하여 준비도가 매우 낮았다.

〈 표 5-2-39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7	29.0	190	63.3	18	6.0	5	1.7	1.8
권역	동구	73	22	30.1	46	63.0	2	2.7	3	4.1	1.8
	중구	6	3	50.0	1	16.7	2	33.3	-	-	1.8
	서구	124	37	29.8	85	68.5	2	1.6	-	-	1.7
	유성구	53	6	11.3	34	64.2	11	20.8	2	3.8	2.2
	대덕구	44	19	43.2	24	54.5	1	2.3	-	-	1.6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23	63.9	7	19.4	1	2.8	2.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9	33.2	130	62.5	6	2.9	3	1.4	1.7
	100만원 이상	56	13	23.2	37	66.1	5	8.9	1	1.8	1.9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평균 1.7점 정도의 수준으로 84.7%가 ‘전혀 못함/잘 못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40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선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07	35.7	147	49.0	16	5.3	3	1.0	27	9.0	1.7
권역	동구	73	26	35.6	39	53.4	6	8.2	1	1.4	1	1.4	1.8
	중구	6	3	50.0	1	16.7	-	-	1	16.7	1	16.7	1.8
	서구	124	36	29.0	75	60.5	8	6.5	-	-	5	4.0	1.8
	유성구	53	11	20.8	23	43.4	2	3.8	1	1.9	16	30.2	1.8
	대덕구	44	31	70.5	9	20.5	-	-	-	-	4	9.1	1.2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8	38.1	11	52.4	-	-	-	-	2	9.5	1.6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23	53.5	15	34.9	1	2.3	-	-	4	9.3	1.4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4	42.4	9	27.3	5	15.2	1	3.0	4	12.1	1.8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62	30.5	112	55.2	10	4.9	2	1.0	17	8.4	1.7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8	22.2	21	58.3	1	2.8	1	2.8	5	13.9	1.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85	40.9	97	46.6	11	5.3	-	-	15	7.2	1.6
	100만원 이상	56	14	25.0	29	51.8	4	7.1	2	3.6	7	12.5	1.9

노후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등 공동체 생활 준비에 대해서는 평균 1.7점 수준으로 준비하였고, 83.7%가 ‘전혀 못함/잘 못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41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커뮤니티 등 공동체 생활 준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2	40.7	129	43.0	30	10.0	2	0.7	17	5.7	1.7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10	55.6	6	33.3	-	-	-	-	2	11.1	1.4
	없음	282	112	39.7	123	43.6	30	10.6	2	0.7	15	5.3	1.7
권역	동구	73	27	37.0	32	43.8	11	15.1	2	2.7	1	1.4	1.8
	중구	6	4	66.7	1	16.7	1	16.7	-	-	-	-	1.5
	서구	124	41	33.1	67	54.0	14	11.3	-	-	2	1.6	1.8
	유성구	53	17	32.1	19	35.8	4	7.5	-	-	13	24.5	1.7
	대덕구	44	33	75.0	10	22.7	-	-	-	-	1	2.3	1.2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2	33.3	14	38.9	5	13.9	-	-	5	13.9	1.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93	44.7	88	42.3	16	7.7	2	1.0	9	4.3	1.6
	100만원 이상	56	17	30.4	27	48.2	9	16.1	-	-	3	5.4	1.9

노후와 관련하여 주거 등 환경적 준비에 대해서는 평균 1.9점의 수준의 준비를 보였고, 82.0%가 ‘전혀 못함/잘 못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응답자(90.5%), 중복장애가 있는 응답자(94.4%)는 90% 이상이 준비를 ‘전혀 못함/잘 못함’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42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주거 등 환경적 준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03	34.3	143	47.7	45	15.0	7	2.3	2	0.7	1.9
장애유형	지체	126	46	36.5	61	48.4	16	12.7	3	2.4	-	-	1.8
	뇌병변	42	15	35.7	23	54.8	3	7.1	-	-	1	2.4	1.7
	지적	11	3	27.3	4	36.4	4	36.4	-	-	-	-	2.1
	시각	53	12	22.6	27	50.9	12	22.6	2	3.8	-	-	2.1
	청각	41	17	41.5	20	48.8	2	4.9	2	4.9	-	-	1.7
	언어	3	3	100.0	-	-	-	-	-	-	-	-	1.0
	정신	11	4	36.4	3	27.3	4	36.4	-	-	-	-	2.0
	내부 신체장애	13	3	23.1	5	38.5	4	30.8	-	-	1	7.7	2.1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11	61.1	6	33.3	1	5.6	-	-	-	-	1.4
	없음	282	92	32.6	137	48.6	44	15.6	7	2.5	2	0.7	1.9
권역	동구	73	21	28.8	34	46.6	16	21.9	1	1.4	1	1.4	2.0
	중구	6	3	50.0	-	-	2	33.3	1	16.7	-	-	2.2
	서구	124	36	29.0	76	61.3	12	9.7	-	-	-	-	1.8
	유성구	53	18	34.0	18	34.0	11	20.8	5	9.4	1	1.9	2.1
	대덕구	44	25	56.8	15	34.1	4	9.1	-	-	-	-	1.5
독거여부	독거	193	70	36.3	93	48.2	27	14.0	2	1.0	1	0.5	1.8
	비독거	107	33	30.8	50	46.7	18	16.8	5	4.7	1	0.9	2.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7	33.8	34	42.5	14	17.5	5	6.3	-	-	2.0
	이혼	60	21	35.0	27	45.0	10	16.7	2	3.3	-	-	1.9
	별거	7	2	28.6	3	42.9	2	28.6	-	-	-	-	2.0
	사별	124	45	36.3	67	54.0	10	8.1	-	-	2	1.6	1.7
	미혼	29	8	27.6	12	41.4	9	31.0	-	-	-	-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92	36.1	120	47.1	38	14.9	3	1.2	2	0.8	1.8
	비수급	45	11	24.4	23	51.1	7	15.6	4	8.9	-	-	2.1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6	44.4	15	41.7	4	11.1	1	2.8	-	-	1.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4	35.6	101	48.6	28	13.5	3	1.4	2	1.0	1.8
	100만원 이상	56	13	23.2	27	48.2	13	23.2	3	5.4	-	-	2.1

노후계획 중 재활훈련 및 취업준비는 평균 1.8점의 수준으로 86.0%가 '전혀 못함/잘 못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성구의 28.3%가 '어느 정도 준비/충분히 준비' 라고 응답하여 권역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준비도가 높았다.

〈 표 5-2-43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재활훈련 및 취업준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7	32.3	161	53.7	30	10.0	3	1.0	9	3.0	1.8
권역	동구	73	19	26.0	43	58.9	9	12.3	1	1.4	1	1.4	1.9
	중구	6	4	66.7	1	16.7	-	-	1	16.7	-	-	1.7
	서구	124	42	33.9	75	60.5	4	3.2	-	-	3	2.4	1.7
	유성구	53	15	28.3	22	41.5	14	26.4	1	1.9	1	1.9	2.0
	대덕구	44	17	38.6	20	45.5	3	6.8	-	-	4	9.1	1.7

노후준비 계획 중 협동조합,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을 위해 간접 준비는 평균 1.8점의 수준으로 86.0%가 '전혀 못함/잘 못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44 〉 노후계획의 준비정도_협동조합,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준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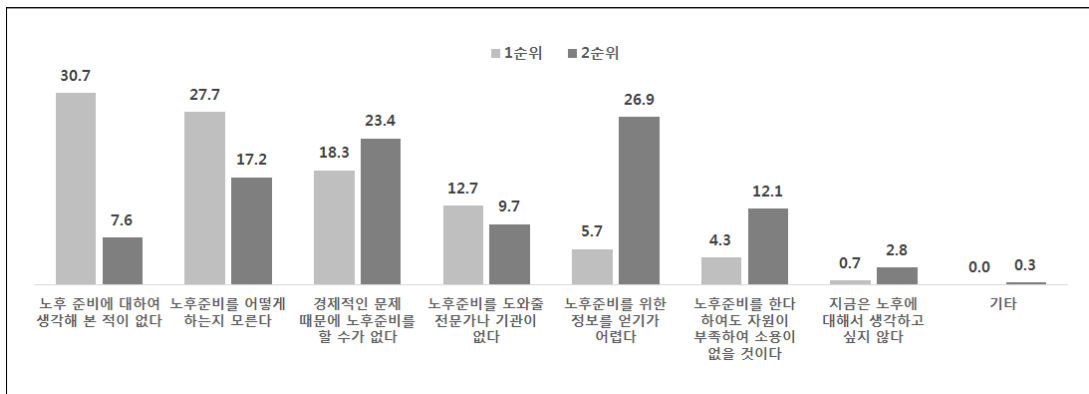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평균 (4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3	27.7	175	58.3	17	5.7	2	0.7	23	7.7	1.8
권역	동구	73	17	23.3	45	61.6	6	8.2	1	1.4	4	5.5	1.9
	중구	6	3	50.0	2	33.3	-	-	-	-	1	16.7	1.4
	서구	124	31	25.0	83	66.9	6	4.8	-	-	4	3.2	1.8
	유성구	53	12	22.6	26	49.1	3	5.7	1	1.9	11	20.8	1.8
	대덕구	44	20	45.5	19	43.2	2	4.5	-	-	3	6.8	1.6
독거 여부	독거	193	46	23.8	119	61.7	12	6.2	1	0.5	15	7.8	1.8
	비독거	107	37	34.6	56	52.3	5	4.7	1	0.9	8	7.5	1.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9	23.2	105	62.5	12	7.1	1	0.6	11	6.5	1.8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2	29.9	61	57.0	5	4.7	1	0.9	8	7.5	1.8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2	48.0	9	36.0	-	-	-	-	4	16.0	1.4

3)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노후 준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27.7%)’,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18.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 기준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26.9%)’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23.4%)’ 순으로 응답하여 노후준비에 인지도가 낮거나 준비여건이 부족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장애인은 33.3%가 ‘노후준비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고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 그림 5-2-15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표 5-2-45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후 준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2	30.7	22	7.6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83	27.7	50	17.2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	55	18.3	68	23.4
노후준비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	38	12.7	28	9.7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7	5.7	78	26.9
노후준비를 한다 하여도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이다	13	4.3	35	12.1
지금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2	0.7	8	2.8
기타	-	-	1	0.3

〈 표 5-2-46 〉 노후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_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노후 준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		노후준비를 한다 하여도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노후준비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		지금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2	30.7	83	27.7	17	5.7	55	18.3	13	4.3	38	12.7	2	0.7	-	-
성별	남자	138	45	32.6	37	26.8	3	2.2	31	22.5	8	5.8	12	8.7	2	1.4	-	-
	여자	162	47	29.0	46	28.4	14	8.6	24	14.8	5	3.1	26	16.0	-	-	-	-
나이	50대	37	8	21.6	11	29.7	1	2.7	10	27.0	3	8.1	4	10.8	-	-	-	-
	60대	78	29	37.2	15	19.2	7	9.0	20	25.6	4	5.1	1	1.3	2	2.6	-	-
	70대	88	29	33.0	24	27.3	5	5.7	14	15.9	4	4.5	12	13.6	-	-	-	-
	80대 이상	97	26	26.8	33	34.0	4	4.1	11	11.3	2	2.1	21	21.6	-	-	-	-
권역	동구	73	27	37.0	24	32.9	3	4.1	16	21.9	1	1.4	2	2.7	-	-	-	-
	중구	6	2	33.3	-	-	1	16.7	3	50.0	-	-	-	-	-	-	-	-
	서구	124	40	32.3	40	32.3	8	6.5	17	13.7	6	4.8	13	10.5	-	-	-	-
	유성구	53	18	34.0	4	7.5	4	7.5	11	20.8	4	7.5	12	22.6	-	-	-	-
	대덕구	44	5	11.4	15	34.1	1	2.3	8	18.2	2	4.5	11	25.0	2	4.5	-	-
가구원 수	독거	193	63	32.6	62	32.1	10	5.2	27	14.0	9	4.7	20	10.4	2	1.0	-	-
	비독거	107	29	27.1	21	19.6	7	6.5	28	26.2	4	3.7	18	16.8	-	-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4	32.1	53	31.5	11	6.5	16	9.5	6	3.6	27	16.1	1	0.6	-	-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2	29.9	28	26.2	5	4.7	26	24.3	7	6.5	8	7.5	1	0.9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6	24.0	2	8.0	1	4.0	13	52.0	-	-	3	12.0	-	-	-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4	38.9	4	11.1	-	-	4	11.1	2	5.6	12	33.3	-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1	29.3	64	30.8	13	6.3	39	18.8	9	4.3	20	9.6	2	1.0	-	-
	100만원 이상	56	17	30.4	15	26.8	4	7.1	12	21.4	2	3.6	6	10.7	-	-	-	-

8. 돌봄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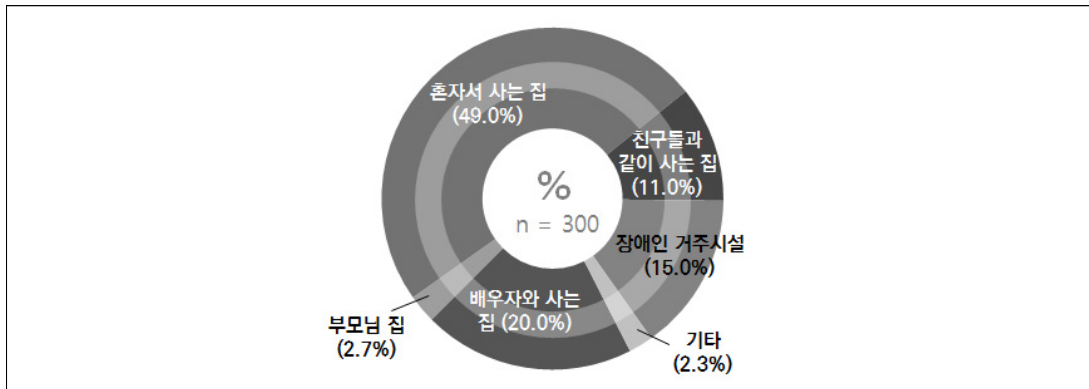
1) 희망 거주형태

희망하는 거주형태로는 ‘혼자서 사는 집’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사는 집(20.0%)’, ‘장애인 거주시설(15.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성구 거주 장애인은 ‘배우자와 사는 집(34.0%)’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의사소통 시 일부 도움을 받아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20.9%)과 대부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21.2%)은 두 번째로 ‘친구들과 같이 사는 집’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15.7%)’을 두 번째로,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 응답자는 첫 번째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수가 매우 적으나(11명),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36.4%)’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그림 5-2-16 〉 희망 거주형태

(단위: %)



〈 표 5-2-47 〉 희망 거주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배우자와 사는 집		부모님 집		혼자서 사는 집		친구들과 같이 사는 집		장애인 거주 시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0	20.0	8	2.7	147	49.0	33	11.0	45	15.0	7	2.3
장애유형	지체	126	23	18.3	5	4.0	63	50.0	13	10.3	19	15.1	3	2.4
	뇌병변	42	7	16.7	-	-	22	52.4	5	11.9	6	14.3	2	4.8
	지적	11	2	18.2	1	9.1	2	18.2	1	9.1	4	36.4	1	9.1
	시각	53	17	32.1	1	1.9	25	47.2	4	7.5	6	11.3	-	-
	청각	41	7	17.1	-	-	22	53.7	4	9.8	7	17.1	1	2.4
	언어	3	1	33.3	-	-	-	-	2	66.7	-	-	-	-
	정신	11	1	9.1	1	9.1	4	36.4	3	27.3	2	18.2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	-	9	69.2	1	7.7	1	7.7	-	-
권역	동구	73	11	15.1	2	2.7	46	63.0	5	6.8	8	11.0	1	1.4
	중구	6	1	16.7	-	-	5	83.3	-	-	-	-	-	-
	서구	124	27	21.8	2	1.6	65	52.4	11	8.9	17	13.7	2	1.6
	유성구	53	18	34.0	1	1.9	12	22.6	4	7.5	15	28.3	3	5.7
	대덕구	44	3	6.8	3	6.8	19	43.2	13	29.5	5	11.4	1	2.3
독거여부	독거	193	-	-	5	2.6	131	67.9	23	11.9	34	17.6	-	-
	비독거	107	60	56.1	3	2.8	16	15.0	10	9.3	11	10.3	7	6.5

〈 표 5-2-47 〉 희망 거주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배우자와 사는 집		부모님 집		혼자서 사는 집		친구들과 같이 사는 집		장애인 거주 시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3	14.3	-	-	13	61.9	1	4.8	2	9.5	2	9.5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5	11.6	1	2.3	22	51.2	9	20.9	6	14.0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4	12.1	2	6.1	12	36.4	7	21.2	7	21.2	1	3.0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48	23.6	5	2.5	100	49.3	16	7.9	30	14.8	4	2.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60	75.0	-	-	9	11.3	8	10.0	3	3.8	-	-
	이혼	60	-	-	-	-	39	65.0	10	16.7	8	13.3	3	5.0
	별거	7	-	-	2	28.6	4	57.1	-	-	1	14.3	-	-
	사별	124	-	-	4	3.2	76	61.3	12	9.7	29	23.4	3	2.4
	미혼	29	-	-	2	6.9	19	65.5	3	10.3	4	13.8	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38	14.9	7	2.7	137	53.7	29	11.4	40	15.7	4	1.6
	비수급	45	22	48.9	1	2.2	10	22.2	4	8.9	5	11.1	3	6.7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2	5.6	12	33.3	4	11.1	13	36.1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28	13.5	5	2.4	115	55.3	28	13.5	29	13.9	3	1.4
	100만원 이상	56	27	48.2	1	1.8	20	35.7	1	1.8	3	5.4	4	7.1

2) 희망 거주형태 선택 이유

본인이 거주하고 싶다고 선택한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22.3%)’, ‘혼자 살기는 외로울 것 같아서(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덕구의 응답자의 38.6%가 ‘혼자 살기는 외로울 것 같아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독거 장애인은 67.4%의 높은 응답률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48 〉 희망 거주형태 선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자 살기는 외로울 것 같아서		시설에 사는 것이 편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7	22.3	146	48.7	41	13.7	12	4.0	30	10.0	4	1.3
나이	50대	37	7	18.9	15	40.5	7	18.9	-	-	6	16.2	2	5.4
	60대	78	24	30.8	36	46.2	10	12.8	2	2.6	5	6.4	1	1.3
	70대	88	22	25.0	41	46.6	8	9.1	7	8.0	9	10.2	1	1.1
	80대 이상	97	14	14.4	54	55.7	16	16.5	3	3.1	10	10.3	-	-

〈 표 5-2-48 〉 희망 거주형태 선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자 살기는 외로울 것 같아서		시설에 사는 것이 편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형	지체	126	28	22.2	63	50.0	18	14.3	4	3.2	12	9.5	1	0.8
	뇌병변	42	8	19.0	20	47.6	6	14.3	2	4.8	4	9.5	2	4.8
	지적	11	3	27.3	2	18.2	2	18.2	2	18.2	2	18.2	-	-
	시각	53	15	28.3	26	49.1	6	11.3	-	-	6	11.3	-	-
	청각	41	8	19.5	23	56.1	3	7.3	3	7.3	4	9.8	-	-
	언어	3	1	33.3	-	-	2	66.7	-	-	-	-	-	-
	정신	11	2	18.2	3	27.3	3	27.3	1	9.1	1	9.1	1	9.1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9	69.2	1	7.7	-	-	1	7.7	-	-
권역	동구	73	11	15.1	46	63.0	8	11.0	4	5.5	4	5.5	-	-
	중구	6	1	16.7	4	66.7	-	-	-	-	-	-	1	16.7
	서구	124	28	22.6	67	54.0	11	8.9	6	4.8	12	9.7	-	-
	유성구	53	21	39.6	13	24.5	5	9.4	1	1.9	13	24.5	-	-
	대덕구	44	6	13.6	16	36.4	17	38.6	1	2.3	1	2.3	3	6.8
독거여부	독거	193	3	1.6	130	67.4	29	15.0	11	5.7	17	8.8	3	1.6
	비독거	107	64	59.8	16	15.0	12	11.2	1	0.9	13	12.1	1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9	17.3	89	53.0	23	13.7	10	6.0	17	10.1	-	-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0	28.0	47	43.9	17	15.9	2	1.9	11	10.3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	32.0	10	40.0	1	4.0	-	-	2	8.0	4	16.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55	68.8	10	12.5	9	11.3	1	1.3	5	6.3	-	-
	이혼	60	3	5.0	40	66.7	10	16.7	2	3.3	4	6.7	1	1.7
	별거	7	-	-	3	42.9	1	14.3	-	-	2	28.6	1	14.3
	사별	124	7	5.6	75	60.5	17	13.7	7	5.6	17	13.7	1	0.8
	미혼	29	2	6.9	18	62.1	4	13.8	2	6.9	2	6.9	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45	17.6	135	52.9	37	14.5	11	4.3	23	9.0	4	1.6
	비수급	45	22	48.9	11	24.4	4	8.9	1	2.2	7	15.6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7	19.4	13	36.1	3	8.3	1	2.8	12	33.3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31	14.9	113	54.3	35	16.8	11	5.3	15	7.2	3	1.4
	100만원 이상	56	29	51.8	20	35.7	3	5.4	-	-	3	5.4	1	1.8

3) 혼자 살 때 도움 줄 사람 여부

혼자 살 경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59.0%가 없다고 응답하고, 39.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덕구 거주 장애인의 72.7%가, 독거 장애인의 72.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장애인의 68.5%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장애인의 64.7%가,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의 70.2%가 높은 수준으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49 〉 혼자 살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7	39.0	177	59.0	6	2.0
권역	동구	73	19	26.0	50	68.5	4	5.5
	중구	6	3	50.0	3	50.0	-	-
	서구	124	39	31.5	83	66.9	2	1.6
	유성구	53	44	83.0	9	17.0	-	-
	대덕구	44	12	27.3	32	72.7	-	-
독거여부	독거	193	49	25.4	139	72.0	5	2.6
	비독거	107	68	63.6	38	35.5	1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0	29.8	115	68.5	3	1.8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9	45.8	55	51.4	3	2.8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8	72.0	7	28.0	-	-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50	62.5	29	36.3	1	1.3
	이혼	60	17	28.3	42	70.0	1	1.7
	별거	7	5	71.4	2	28.6	-	-
	사별	124	34	27.4	86	69.4	4	3.2
	미혼	29	11	37.9	18	62.1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6	33.7	165	64.7	4	1.6
	비수급	45	31	68.9	12	26.7	2	4.4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29	80.6	7	19.4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7	27.4	146	70.2	5	2.4
	100만원 이상	56	31	55.4	24	42.9	1	1.8

4) 혼자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 줄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활동지원사’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배우자(19.7%)’, ‘형제자매(1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독거 장애인의 75.5%가, 그리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의 69.0%가 매우 높은 응답률로 ‘활동지원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50 〉 혼자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활동지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17	2	1.7	23	19.7	22	18.8	14	12.0	56	47.9
권역	동구	19	1	5.3	6	31.6	2	10.5	4	21.1	6	31.6
	중구	3	-	-	-	-	-	-	-	-	3	100.0
	서구	39	-	-	11	28.2	6	15.4	5	12.8	17	43.6
	유성구	44	-	-	3	6.8	13	29.5	4	9.1	24	54.5
	대덕구	12	1	8.3	3	25.0	1	8.3	1	8.3	6	50.0

〈 표 5-2-50 〉 혼자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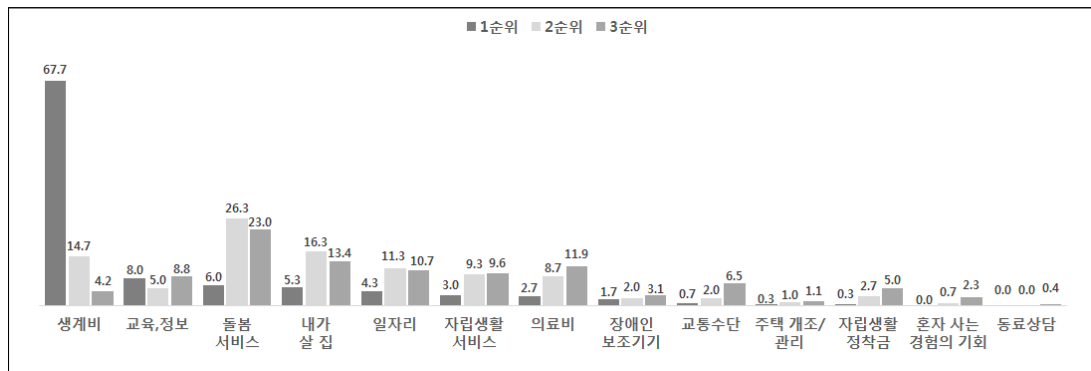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활동지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49	-	-	-	-	8	16.3	4	8.2	37	75.5
	비독거	68	2	2.9	23	33.8	14	20.6	10	14.7	19	27.9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7	-	-	1	14.3	1	14.3	1	14.3	4	57.1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12	-	-	2	16.7	5	41.7	2	16.7	3	25.0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14	2	14.3	-	-	4	28.6	1	7.1	7	50.0
	모든 의사표현 가능	84	-	-	20	23.8	12	14.3	10	11.9	42	50.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50	-	-	23	46.0	11	22.0	5	10.0	11	22.0
	이혼	17	-	-	-	-	1	5.9	5	29.4	11	64.7
	별거	5	-	-	-	-	-	-	-	-	5	100.0
	사별	34	1	2.9	-	-	7	20.6	4	11.8	22	64.7
	미혼	11	1	9.1	-	-	3	27.3	-	-	7	63.6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29	2	6.9	-	-	7	24.1	-	-	20	69.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7	-	-	12	21.1	9	15.8	9	15.8	27	47.4
	100만원 이상	31	-	-	11	35.5	6	19.4	5	16.1	9	29.0

5) 서비스 욕구

다양한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1순위 기준 ‘생계비(돈)’가 67.7%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기준으로 ‘돌봄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가 26.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순위로는 ‘돌봄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를 23.0%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경제적인 것과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유성구 거주 장애인의 28.3%가 ‘나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의 36.1%가 ‘나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생계비(38.9%)’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5-2-17 〉 필요 서비스

(단위: %)



〈 표 5-2-51 〉 필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계비(돈)	203	67.7	44	14.7	11	4.2
나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24	8.0	15	5.0	23	8.8
돌봄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	18	6.0	79	26.3	60	23.0
내가 살 집	16	5.3	49	16.3	35	13.4
일자리	13	4.3	34	11.3	28	10.7
자립생활서비스	9	3.0	28	9.3	25	9.6
의료비(병원)	8	2.7	26	8.7	31	11.9
장애인 보조기기	5	1.7	6	2.0	8	3.1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2	0.7	6	2.0	17	6.5
주택 개조/관리	1	0.3	3	1.0	3	1.1
자립생활 정착금	1	0.3	8	2.7	13	5.0
혼자 사는 경험의 기회	-	-	2	0.7	6	2.3
동료상담	-	-	-	-	1	0.4
신변보호	-	-	-	-	-	-
기타	-	-	-	-	-	-

〈 표 5-2-52 〉 필요 서비스_1순위

(단위: 명, %, 상위7개 항목)

구분		사례수	생계비 (돈)		내가 살 집		돌봄 서비스		일자리		의료비		나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자립생활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03	67.7	16	5.3	18	6.0	13	4.3	8	2.7	24	8.0	9	3.0
장애 유형	지체	126	92	73.0	8	6.3	7	5.6	3	2.4	2	1.6	10	7.9	2	1.6
	뇌병변	42	25	59.5	3	7.1	2	4.8	5	11.9	1	2.4	5	11.9	1	2.4
	지적	11	4	36.4	1	9.1	2	18.2	-	-	-	-	1	9.1	2	18.2
	시각	53	37	69.8	1	1.9	4	7.5	3	5.7	1	1.9	2	3.8	2	3.8
	청각	41	26	63.4	2	4.9	3	7.3	1	2.4	2	4.9	4	9.8	1	2.4
	언어	3	3	100.0	-	-	-	-	-	-	-	-	-	-	-	-
	정신	11	9	81.8	-	-	-	-	-	-	2	18.2	-	-	-	-
	내부 신체장애	13	7	53.8	1	7.7	-	-	1	7.7	-	-	2	15.4	1	7.7
권역	동구	73	51	69.9	8	11.0	4	5.5	3	4.1	1	1.4	2	2.7	2	2.7
	중구	6	4	66.7	-	-	1	16.7	-	-	1	16.7	-	-	-	-
	서구	124	95	76.6	6	4.8	7	5.6	1	0.8	3	2.4	6	4.8	4	3.2
	유성구	53	13	24.5	1	1.9	5	9.4	9	17.0	3	5.7	15	28.3	3	5.7
	대덕구	44	40	90.9	1	2.3	1	2.3	-	-	-	-	1	2.3	-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14	38.9	-	-	1	2.8	3	8.3	-	-	13	36.1	4	11.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51	72.6	13	6.3	13	6.3	9	4.3	5	2.4	7	3.4	4	1.9
	100만원 이상	56	38	67.9	3	5.4	4	7.1	1	1.8	3	5.4	4	7.1	1	1.8

6) 서비스 정보습득경로

다양한 서비스의 정보는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통해서(32.0%)’, ‘장애인기관,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직원, 활동가로부터(28.3%)’,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지인을 통해(2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구 거주 응답자의 42.7%가 ‘장애인 기관,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직원, 활동가로부터’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53 〉 서비스 정보습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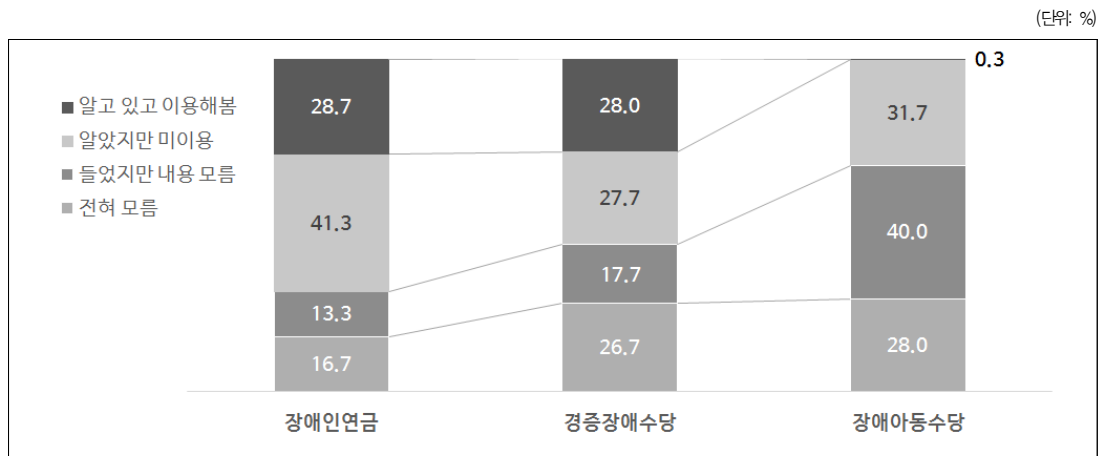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지인을 통해		장애인 친구나 동료를 통해		장애인기관, 장애인단체의 직원, 활동가로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거의 찾아보지 않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6	32.0	66	22.0	39	13.0	85	28.3	2	0.7	9	3.0	3	1.0
권역	동구	73	31	42.5	20	27.4	3	4.1	16	21.9	1	1.4	2	2.7	-	-
	중구	6	4	66.7	-	-	1	16.7	1	16.7	-	-	-	-	-	-
	서구	124	28	22.6	24	19.4	16	12.9	53	42.7	-	-	3	2.4	-	-
	유성구	53	9	17.0	18	34.0	16	30.2	8	15.1	1	1.9	-	-	1	1.9
	대덕구	44	24	54.5	4	9.1	3	6.8	7	15.9	-	-	4	9.1	2	4.5
독거여부	독거	193	64	33.2	33	17.1	24	12.4	60	31.1	2	1.0	8	4.1	2	1.0
	비독거	107	32	29.9	33	30.8	15	14.0	25	23.4	-	-	1	0.9	1	0.9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9	42.9	1	4.8	2	9.5	7	33.3	-	-	2	9.5	-	-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7	39.5	7	16.3	6	14.0	8	18.6	-	-	5	11.6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5	45.5	7	21.2	4	12.1	6	18.2	1	3.0	-	-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55	27.1	51	25.1	27	13.3	64	31.5	1	0.5	2	1.0	3	1.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61	36.3	42	25.0	17	10.1	40	23.8	1	0.6	6	3.6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9	27.1	22	20.6	13	12.1	39	36.4	1	0.9	2	1.9	1	0.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6	24.0	2	8.0	9	36.0	6	24.0	-	-	1	4.0	1	4.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4	30.0	25	31.3	10	12.5	20	25.0	-	-	1	1.3	-	-
	이혼	60	26	43.3	7	11.7	8	13.3	15	25.0	2	3.3	1	1.7	1	1.7
	별거	7	-	-	1	14.3	3	42.9	2	28.6	-	-	1	14.3	-	-
	사별	124	36	29.0	28	22.6	15	12.1	39	31.5	-	-	5	4.0	1	0.8
	미혼	29	10	34.5	5	17.2	3	10.3	9	31.0	-	-	1	3.4	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8	34.5	52	20.4	27	10.6	74	29.0	2	0.8	9	3.5	3	1.2
	비수급	45	8	17.8	14	31.1	12	26.7	11	24.4	-	-	-	-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7	19.4	12	33.3	13	36.1	4	11.1	-	-	-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4	35.6	35	16.8	15	7.2	70	33.7	2	1.0	9	4.3	3	1.4
	100만원 이상	56	15	26.8	19	33.9	11	19.6	11	19.6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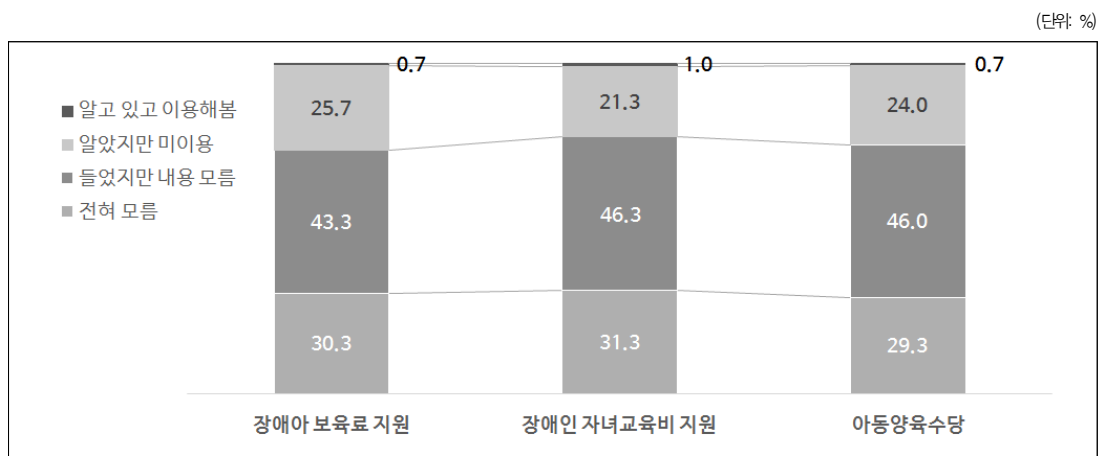
7) 서비스/제도 인지도 및 이용 여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여부에서 56.3%가 ‘공공요금 감면’을, 49.3%가 ‘각종 세제혜택’을 알고 이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10% 이상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5-2-1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연금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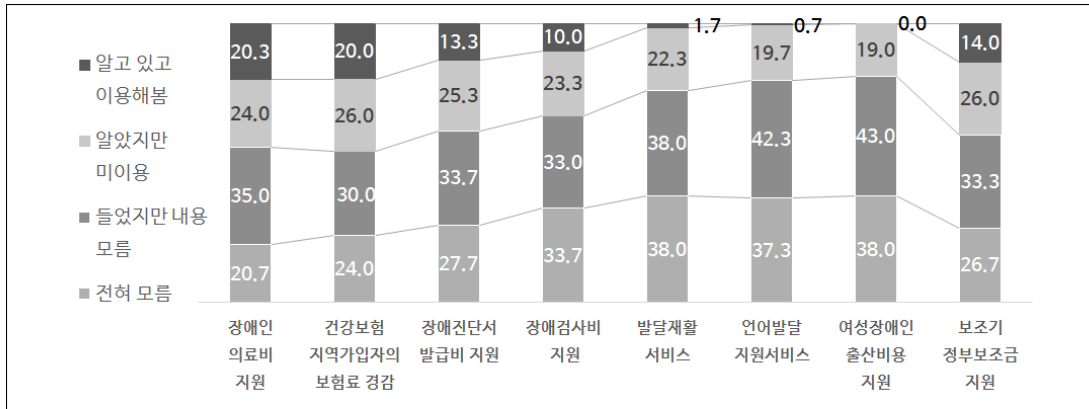


〈 그림 5-2-1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보육·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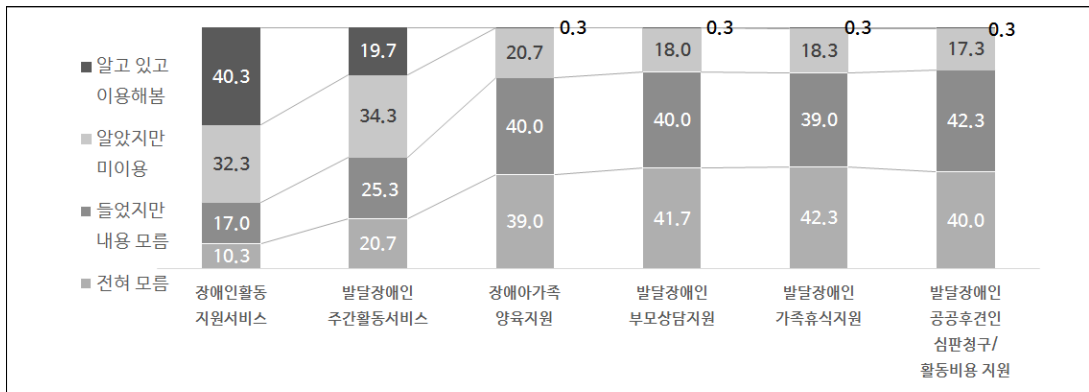
〈 그림 5-2-2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의료 및 재활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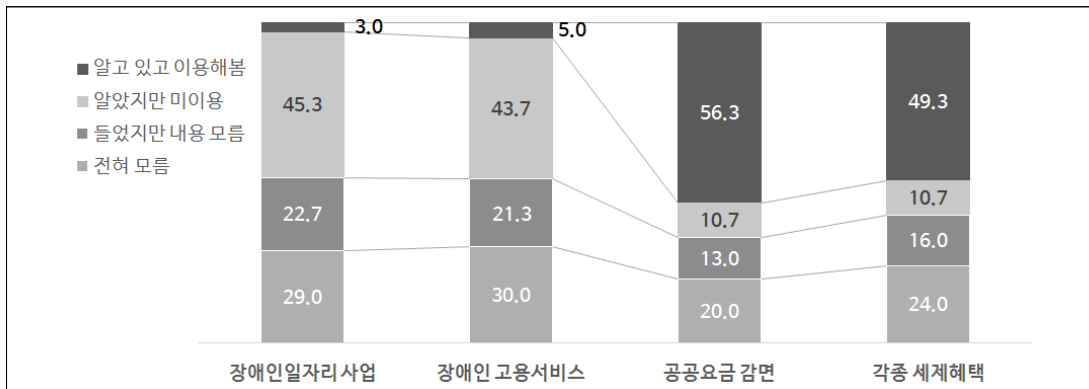
〈 그림 5-2-2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돌봄지원)

(단위: %)



〈 그림 5-2-2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일자리 및 기타)

(단위: %)



〈 표 5-2-5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50	16.7	40	13.3	124	41.3	86	28.7
	경증장애수당	80	26.7	53	17.7	83	27.7	84	28.0
	장애인동수당	84	28.0	120	40.0	95	31.7	1	0.3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91	30.3	130	43.3	77	25.7	2	0.7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94	31.3	139	46.3	64	21.3	3	1.0
	아동양육수당	88	29.3	138	46.0	72	24.0	2	0.7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	20.7	105	35.0	72	24.0	61	20.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72	24.0	90	30.0	78	26.0	60	20.0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83	27.7	101	33.7	76	25.3	40	13.3
	장애검사비 지원	101	33.7	99	33.0	70	23.3	30	10.0
	발달재활서비스	114	38.0	114	38.0	67	22.3	5	1.7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12	37.3	127	42.3	59	19.7	2	0.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14	38.0	129	43.0	57	19.0	-	-
	보조기(전동휠체어 등) 정부보조금 지원	80	26.7	100	33.3	78	26.0	42	14.0
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1	10.3	51	17.0	97	32.3	121	40.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2	20.7	76	25.3	103	34.3	59	19.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17	39.0	120	40.0	62	20.7	1	0.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25	41.7	120	40.0	54	18.0	1	0.3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127	42.3	117	39.0	55	18.3	1	0.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120	40.0	127	42.3	52	17.3	1	0.3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87	29.0	68	22.7	136	45.3	9	3.0
	장애인 고용서비스	90	30.0	64	21.3	131	43.7	15	5.0
기타	공공요금 감면	60	20.0	39	13.0	32	10.7	169	56.3
	각종 세제혜택	72	24.0	48	16.0	32	10.7	148	49.3

연금수당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28.7%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서구 거주 장애인의 34.7%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의 52.8%가 알았지만 미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8.9%가 들었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5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연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50	16.7	40	13.3	124	41.3	86	28.7
권역	동구	73	1	1.4	6	8.2	40	54.8	26	35.6
	중구	6	-	-	-	-	2	33.3	4	66.7
	서구	124	43	34.7	24	19.4	41	33.1	16	12.9
	유성구	53	-	-	10	18.9	38	71.7	5	9.4
	대덕구	44	6	13.6	-	-	3	6.8	35	79.5
독거여부	독거	193	40	20.7	25	13.0	75	38.9	53	27.5
	비독거	107	10	9.3	15	14.0	49	45.8	33	30.8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6	28.6	3	14.3	5	23.8	7	33.3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2	4.7	8	18.6	9	20.9	24	55.8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4	12.1	3	9.1	14	42.4	12	36.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38	18.7	26	12.8	96	47.3	43	21.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0	11.9	20	11.9	74	44.0	54	32.1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7	25.2	19	17.8	38	35.5	23	21.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3	12.0	1	4.0	12	48.0	9	36.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7	8.8	12	15.0	36	45.0	25	31.3
	이혼	60	3	5.0	7	11.7	33	55.0	17	28.3
	별거	7	1	14.3	1	14.3	3	42.9	2	28.6
	사별	124	35	28.2	18	14.5	41	33.1	30	24.2
	미혼	29	4	13.8	2	6.9	11	37.9	12	41.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43	16.9	32	12.5	99	38.8	81	31.8
	비수급	45	7	15.6	8	17.8	25	55.6	5	11.1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	2.8	14	38.9	19	52.8	2	5.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44	21.2	22	10.6	72	34.6	70	33.7
	100만원 이상	56	5	8.9	4	7.1	33	58.9	14	25.0

연금수당제도 중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알고있고 이용해봄’이 28.0%로 가장 높았으나 26.7%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5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경증장애수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0	26.7	53	17.7	83	27.7	84	28.0
권역	동구	73	9	12.3	12	16.4	21	28.8	31	42.5
	중구	6	2	33.3	2	33.3	-	-	2	33.3
	서구	124	52	41.9	20	16.1	27	21.8	25	20.2
	유성구	53	5	9.4	17	32.1	29	54.7	2	3.8
	대덕구	44	12	27.3	2	4.5	6	13.6	24	54.5
독거여부	독거	193	51	26.4	31	16.1	45	23.3	66	34.2
	비독거	107	29	27.1	22	20.6	38	35.5	18	16.8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9	42.9	2	9.5	6	28.6	4	19.0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2	4.7	13	30.2	15	34.9	13	30.2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7	21.2	5	15.2	13	39.4	8	24.2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62	30.5	33	16.3	49	24.1	59	29.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9	17.3	29	17.3	48	28.6	62	36.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9	36.4	19	17.8	29	27.1	20	18.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2	48.0	5	20.0	6	24.0	2	8.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65	25.5	41	16.1	67	26.3	82	32.2
	비수급	45	15	33.3	12	26.7	16	35.6	2	4.4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	2.8	10	27.8	21	58.3	4	11.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5	31.3	37	17.8	42	20.2	64	30.8
	100만원 이상	56	14	25.0	6	10.7	20	35.7	16	28.6

연금 수당제도 중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이 40.0%, ‘알았지만 미이용’ 31.7%, ‘전혀 모름’ 28.0%로 장애아동 수당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는 매우 낮았다.

〈 표 5-2-5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동수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4	28.0	120	40.0	95	31.7	1	0.3
권역	동구	73	12	16.4	28	38.4	32	43.8	1	1.4
	중구	6	2	33.3	2	33.3	2	33.3	-	-
	서구	124	53	42.7	46	37.1	25	20.2	-	-
	유성구	53	5	9.4	20	37.7	28	52.8	-	-
	대덕구	44	12	27.3	24	54.5	8	18.2	-	-

〈 표 5-2-5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동수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193	55	28.5	89	46.1	49	25.4	-	-
	비독거	107	29	27.1	31	29.0	46	43.0	1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2	19.0	73	43.5	62	36.9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0	37.4	39	36.4	28	26.2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2	48.0	8	32.0	5	20.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2	5.6	17	47.2	17	47.2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9	33.2	86	41.3	53	25.5	-	-
	100만원 이상	56	13	23.2	17	30.4	25	44.6	1	1.8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중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43.3%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46.3%가, 그리고 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는 46.0%가 ‘들었지만 내용모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5-2-5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1	30.3	130	43.3	77	25.7	2	0.7
권역	동구	73	15	20.5	35	47.9	22	30.1	1	1.4
	중구	6	2	33.3	2	33.3	2	33.3	-	-
	서구	124	55	44.4	44	35.5	25	20.2	-	-
	유성구	53	5	9.4	24	45.3	23	43.4	1	1.9
	대덕구	44	14	31.8	25	56.8	5	11.4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8	22.6	83	49.4	45	26.8	2	1.2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0	37.4	38	35.5	29	27.1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3	52.0	9	36.0	3	12.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13	36.1	18	50.0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2	34.6	94	45.2	40	19.2	2	1.0
	100만원 이상	56	14	25.0	23	41.1	19	33.9	-	-

〈 표 5-2-5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4	31.3	139	46.3	64	21.3	3	1.0
권역	동구	73	16	21.9	35	47.9	21	28.8	1	1.4
	중구	6	2	33.3	2	33.3	1	16.7	1	16.7
	서구	124	56	45.2	54	43.5	14	11.3	-	-
	유성구	53	7	13.2	25	47.2	20	37.7	1	1.9
	대덕구	44	13	29.5	23	52.3	8	18.2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0	23.8	85	50.6	41	24.4	2	1.2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1	38.3	46	43.0	20	18.7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3	52.0	8	32.0	3	12.0	1	4.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9	36.3	35	43.8	15	18.8	1	1.3
	이혼	60	12	20.0	37	61.7	11	18.3	-	-
	별거	7	2	28.6	2	28.6	2	28.6	1	14.3
	사별	124	40	32.3	52	41.9	31	25.0	1	0.8
	미혼	29	11	37.9	13	44.8	5	17.2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4	38.9	19	52.8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5	36.1	97	46.6	34	16.3	2	1.0
	100만원 이상	56	16	28.6	28	50.0	11	19.6	1	1.8

〈 표 5-2-6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아동양육수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8	29.3	138	46.0	72	24.0	2	0.7
장애유형	지체	126	36	28.6	54	42.9	35	27.8	1	0.8
	뇌병변	42	11	26.2	22	52.4	9	21.4	-	-
	지적	11	1	9.1	8	72.7	2	18.2	-	-
	시각	53	23	43.4	19	35.8	11	20.8	-	-
	청각	41	12	29.3	22	53.7	7	17.1	-	-
	언어	3	-	-	-	-	3	100.0	-	-
	정신	11	3	27.3	5	45.5	3	27.3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8	61.5	2	15.4	1	7.7

〈 표 5-2-6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아동양육수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15	20.5	35	47.9	22	30.1	1	1.4
	중구	6	2	33.3	2	33.3	1	16.7	1	16.7
	서구	124	53	42.7	50	40.3	21	16.9	-	-
	유성구	53	6	11.3	26	49.1	21	39.6	-	-
	대덕구	44	12	27.3	25	56.8	7	15.9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6	21.4	86	51.2	45	26.8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0	37.4	44	41.1	23	21.5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2	48.0	8	32.0	4	16.0	1	4.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8	35.0	33	41.3	19	23.8	-	-
	이혼	60	10	16.7	37	61.7	13	21.7	-	-
	별거	7	2	28.6	1	14.3	3	42.9	1	14.3
	사별	124	38	30.6	55	44.4	30	24.2	1	0.8
	미혼	29	10	34.5	12	41.4	7	24.1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14	38.9	17	47.2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8	32.7	97	46.6	42	20.2	1	0.5
	100만원 이상	56	15	26.8	27	48.2	13	23.2	1	1.8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20.3%가 ‘알고 있고 이용해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5.0%가 ‘들었지만 내용모름’이라고, 그리고 20.7%가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 서구 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혀 모름(34.7%)’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표 5-2-6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2	20.7	105	35.0	72	24.0	61	20.3
성별	남자	138	24	17.4	46	33.3	30	21.7	38	27.5
	여자	162	38	23.5	59	36.4	42	25.9	23	14.2
권역	동구	73	3	4.1	26	35.6	15	20.5	29	39.7
	중구	6	-	-	1	16.7	3	50.0	2	33.3
	서구	124	43	34.7	40	32.3	25	20.2	16	12.9
	유성구	53	2	3.8	19	35.8	26	49.1	6	11.3
	대덕구	44	14	31.8	19	43.2	3	6.8	8	18.2

〈 표 5-2-6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거여부	독거	193	39	20.2	76	39.4	37	19.2	41	21.2
	비독거	107	23	21.5	29	27.1	35	32.7	20	18.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8	16.7	72	42.9	41	24.4	27	16.1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8	26.2	28	26.2	24	22.4	27	25.2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6	24.0	5	20.0	7	28.0	7	28.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9	23.8	23	28.8	25	31.3	13	16.3
	이혼	60	5	8.3	21	35.0	12	20.0	22	36.7
	별거	7	1	14.3	-	-	4	57.1	2	28.6
	사별	124	32	25.8	51	41.1	26	21.0	15	12.1
	미혼	29	5	17.2	10	34.5	5	17.2	9	31.0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53	20.8	90	35.3	54	21.2	58	22.7
	비수급	45	9	20.0	15	33.3	18	40.0	3	6.7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7	47.2	12	33.3	4	11.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49	23.6	74	35.6	41	19.7	44	21.2
	100만원 이상	56	10	17.9	14	25.0	19	33.9	13	23.2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는 20.0%가 알고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장 많은 응답자(30.0%)는 들었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6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2	24.0	90	30.0	78	26.0	60	20.0
권역	동구	73	7	9.6	21	28.8	17	23.3	28	38.4
	중구	6	1	16.7	1	16.7	2	33.3	2	33.3
	서구	124	52	41.9	30	24.2	23	18.5	19	15.3
	유성구	53	1	1.9	15	28.3	32	60.4	5	9.4
	대덕구	44	11	25.0	23	52.3	4	9.1	6	13.6
독거여부	독거	193	53	27.5	59	30.6	41	21.2	40	20.7
	비독거	107	19	17.8	31	29.0	37	34.6	20	18.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5	20.8	59	35.1	49	29.2	25	14.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1	29.0	27	25.2	21	19.6	28	26.2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6	24.0	4	16.0	8	32.0	7	28.0

〈 표 5-2-6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5	18.8	25	31.3	27	33.8	13	16.3
	이혼	60	10	16.7	17	28.3	13	21.7	20	33.3
	별거	7	2	28.6	1	14.3	2	28.6	2	28.6
	사별	124	42	33.9	35	28.2	30	24.2	17	13.7
	미혼	29	3	10.3	12	41.4	6	20.7	8	27.6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11	30.6	16	44.4	4	11.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9	28.4	64	30.8	44	21.2	41	19.7
	100만원 이상	56	8	14.3	15	26.8	18	32.1	15	26.8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 진단서 발급비 지원’에 대해서는 13.3%가 알고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지만, ‘들었지만 내용 모름(33.7%)’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표 5-2-63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3	27.7	101	33.7	76	25.3	40	13.3
권역	동구	73	10	13.7	21	28.8	19	26.0	23	31.5
	중구	6	2	33.3	1	16.7	3	50.0	-	-
	서구	124	52	41.9	35	28.2	23	18.5	14	11.3
	유성구	53	6	11.3	22	41.5	24	45.3	1	1.9
	대덕구	44	13	29.5	22	50.0	7	15.9	2	4.5
독거여부	독거	193	57	29.5	58	30.1	45	23.3	33	17.1
	비독거	107	26	24.3	43	40.2	31	29.0	7	6.5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0	25.0	36	45.0	17	21.3	7	8.8
	이혼	60	9	15.0	19	31.7	17	28.3	15	25.0
	별거	7	1	14.3	-	-	6	85.7	-	-
	사별	124	46	37.1	35	28.2	32	25.8	11	8.9
	미혼	29	7	24.1	11	37.9	4	13.8	7	2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70	27.5	81	31.8	65	25.5	39	15.3
	비수급	45	13	28.9	20	44.4	11	24.4	1	2.2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4	38.9	16	44.4	3	8.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9	33.2	71	34.1	40	19.2	28	13.5
	100만원 이상	56	11	19.6	16	28.6	20	35.7	9	16.1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10%가 알고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나 33.7%가 전혀 모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대덕구 거주 장애인 중에서는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 표 5-2-6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검사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01	33.7	99	33.0	70	23.3	30	10.0
장애유형	지체	126	47	37.3	32	25.4	31	24.6	16	12.7
	뇌병변	42	15	35.7	13	31.0	14	33.3	-	-
	지적	11	1	9.1	5	45.5	3	27.3	2	18.2
	시각	53	24	45.3	17	32.1	9	17.0	3	5.7
	청각	41	10	24.4	19	46.3	6	14.6	6	14.6
	언어	3	-	-	3	100.0	-	-	-	-
	정신	11	2	18.2	4	36.4	4	36.4	1	9.1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6	46.2	3	23.1	2	15.4
권역	동구	73	12	16.4	22	30.1	19	26.0	20	27.4
	중구	6	2	33.3	1	16.7	3	50.0	-	-
	서구	124	56	45.2	35	28.2	24	19.4	9	7.3
	유성구	53	10	18.9	23	43.4	19	35.8	1	1.9
	대덕구	44	21	47.7	18	40.9	5	11.4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3	25.6	70	41.7	37	22.0	18	10.7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6	43.0	26	24.3	24	22.4	11	10.3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2	48.0	3	12.0	9	36.0	1	4.0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4	32.9	78	30.6	63	24.7	30	11.8
	비수급	45	17	37.8	21	46.7	7	15.6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6	44.4	16	44.4	1	2.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81	38.9	64	30.8	40	19.2	23	11.1
	100만원 이상	56	17	30.4	19	33.9	14	25.0	6	10.7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는 1.7%만이 알고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각각 ‘전혀 모름(38.0%)’과 ‘들었지만 내용 모름(38.0%)’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6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재활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4	38.0	114	38.0	67	22.3	5	1.7
장애유형	지체	126	54	42.9	41	32.5	27	21.4	4	3.2
	뇌병변	42	13	31.0	15	35.7	14	33.3	-	-
	지적	11	-	-	7	63.6	4	36.4	-	-
	시각	53	27	50.9	20	37.7	6	11.3	-	-
	청각	41	13	31.7	19	46.3	9	22.0	-	-
	언어	3	1	33.3	1	33.3	1	33.3	-	-
	정신	11	4	36.4	2	18.2	4	36.4	1	9.1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9	69.2	2	15.4	-	-
권역	동구	73	18	24.7	33	45.2	20	27.4	2	2.7
	중구	6	4	66.7	2	33.3	-	-	-	-
	서구	124	59	47.6	39	31.5	23	18.5	3	2.4
	유성구	53	9	17.0	25	47.2	19	35.8	-	-
	대덕구	44	24	54.5	15	34.1	5	11.4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8	28.6	76	45.2	40	23.8	4	2.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50	46.7	34	31.8	22	20.6	1	0.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6	64.0	4	16.0	5	20.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15	41.7	16	44.4	1	2.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90	43.3	74	35.6	40	19.2	4	1.9
	100만원 이상	56	20	35.7	25	44.6	11	19.6	-	-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0.7%만이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사소통 시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한 응답자의 52.4%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52.8%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6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2	37.3	127	42.3	59	19.7	2	0.7
장애유형	지체	126	50	39.7	54	42.9	20	15.9	2	1.6
	뇌병변	42	13	31.0	19	45.2	10	23.8	-	-
	지적	11	-	-	8	72.7	3	27.3	-	-
	시각	53	26	49.1	19	35.8	8	15.1	-	-
	청각	41	16	39.0	15	36.6	10	24.4	-	-
	언어	3	1	33.3	-	-	2	66.7	-	-
	정신	11	4	36.4	5	45.5	2	18.2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7	53.8	4	30.8	-	-

〈 표 5-2-6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복장애 여부	있음	18	8	44.4	3	16.7	7	38.9	-	-
	없음	282	104	36.9	124	44.0	52	18.4	2	0.7
권역	동구	73	19	26.0	36	49.3	17	23.3	1	1.4
	중구	6	3	50.0	3	50.0	-	-	-	-
	서구	124	57	46.0	43	34.7	24	19.4	-	-
	유성구	53	7	13.2	32	60.4	13	24.5	1	1.9
	대덕구	44	26	59.1	13	29.5	5	11.4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1	52.4	6	28.6	3	14.3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3	30.2	17	39.5	13	30.2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8	24.2	21	63.6	4	12.1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80	39.4	83	40.9	39	19.2	1	0.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7	28.0	81	48.2	39	23.2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50	46.7	41	38.3	15	14.0	1	0.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5	60.0	5	20.0	5	20.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9	52.8	14	38.9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89	42.8	82	39.4	35	16.8	2	1.0
	100만원 이상	56	20	35.7	26	46.4	10	17.9	-	-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알고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혀 없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43.0%)’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6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4	38.0	129	43.0	57	19.0	-	-
성별	남자	138	58	42.0	63	45.7	17	12.3	-	-
	여자	162	56	34.6	66	40.7	40	24.7	-	-
장애유형	지체	126	53	42.1	48	38.1	25	19.8	-	-
	뇌병변	42	14	33.3	19	45.2	9	21.4	-	-
	지적	11	2	18.2	8	72.7	1	9.1	-	-
	시각	53	27	50.9	18	34.0	8	15.1	-	-
	청각	41	11	26.8	22	53.7	8	19.5	-	-
	언어	3	-	-	-	-	3	100.0	-	-
	정신	11	5	45.5	4	36.4	2	18.2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10	76.9	1	7.7	-	-

〈 표 5-2-6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18	24.7	42	57.5	13	17.8	-	-
	중구	6	3	50.0	3	50.0	-	-	-	-
	서구	124	57	46.0	52	41.9	15	12.1	-	-
	유성구	53	11	20.8	22	41.5	20	37.7	-	-
	대덕구	44	25	56.8	10	22.7	9	20.5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5	26.8	87	51.8	36	21.4	-	-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52	48.6	38	35.5	17	15.9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7	68.0	4	16.0	4	16.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21	58.3	11	30.6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89	42.8	84	40.4	35	16.8	-	-
	100만원 이상	56	21	37.5	24	42.9	11	19.6	-	-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제도 중 ‘보조기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14.0%가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응답자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33.3%)’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라 이용률이 달랐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응답자의 41.7%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47.2%가 ‘들었지만 내용 모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5-2-6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보조기 정부보조금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0	26.7	100	33.3	78	26.0	42	14.0
나이	50대	37	7	18.9	10	27.0	8	21.6	12	32.4
	60대	78	19	24.4	23	29.5	20	25.6	16	20.5
	70대	88	27	30.7	35	39.8	19	21.6	7	8.0
	80대 이상	97	27	27.8	32	33.0	31	32.0	7	7.2
장애유형	지체	126	29	23.0	34	27.0	40	31.7	23	18.3
	뇌병변	42	10	23.8	15	35.7	11	26.2	6	14.3
	지적	11	2	18.2	7	63.6	1	9.1	1	9.1
	시각	53	21	39.6	13	24.5	12	22.6	7	13.2
	청각	41	11	26.8	18	43.9	8	19.5	4	9.8
	언어	3	-	-	2	66.7	-	-	1	33.3
	정신	11	3	27.3	5	45.5	3	27.3	-	-
	내부 신체장애	13	4	30.8	6	46.2	3	23.1	-	-

〈 표 5-2-6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보조기 정부보조금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9	12.3	31	42.5	26	35.6	7	9.6
	중구	6	-	-	2	33.3	1	16.7	3	50.0
	서구	124	50	40.3	40	32.3	20	16.1	14	11.3
	유성구	53	9	17.0	16	30.2	21	39.6	7	13.2
	대덕구	44	12	27.3	11	25.0	10	22.7	11	25.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8	22.6	70	41.7	50	29.8	10	6.0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7	34.6	26	24.3	24	22.4	20	18.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5	20.0	4	16.0	4	16.0	12	48.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5	31.3	27	33.8	16	20.0	12	15.0
	이혼	60	4	6.7	24	40.0	21	35.0	11	18.3
	별거	7	1	14.3	1	14.3	3	42.9	2	28.6
	사별	124	41	33.1	39	31.5	32	25.8	12	9.7
	미혼	29	9	31.0	9	31.0	6	20.7	5	17.2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7	47.2	13	36.1	3	8.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6	31.7	63	30.3	50	24.0	29	13.9
	100만원 이상	56	11	19.6	20	35.7	15	26.8	10	17.9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40.3%가 알고 이용해 보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2.3%가 ‘알았지만 미이용’이라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동구(11.0%)와 대덕구(13.6%)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동구에서는 ‘알았지만 미 이용(46.6%)’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는 ‘전혀 모름(36.4%)’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 표 5-2-6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31	10.3	51	17.0	97	32.3	121	40.3
나이	50대	37	2	5.4	9	24.3	12	32.4	14	37.8
	60대	78	3	3.8	9	11.5	31	39.7	35	44.9
	70대	88	6	6.8	16	18.2	27	30.7	39	44.3
	80대 이상	97	20	20.6	17	17.5	27	27.8	33	34.0

〈 표 5-2-69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형	지체	126	13	10.3	15	11.9	41	32.5	57	45.2
	뇌병변	42	2	4.8	9	21.4	16	38.1	15	35.7
	지적	11	-	-	5	45.5	4	36.4	2	18.2
	시각	53	4	7.5	8	15.1	16	30.2	25	47.2
	청각	41	9	22.0	7	17.1	10	24.4	15	36.6
	언어	3	1	33.3	1	33.3	-	-	1	33.3
	정신	11	2	18.2	1	9.1	5	45.5	3	27.3
	내부 신체장애	13	-	-	5	38.5	5	38.5	3	23.1
권역	동구	73	8	11.0	23	31.5	34	46.6	8	11.0
	중구	6	-	-	-	-	2	33.3	4	66.7
	서구	124	7	5.6	8	6.5	35	28.2	74	59.7
	유성구	53	-	-	7	13.2	17	32.1	29	54.7
	대덕구	44	16	36.4	13	29.5	9	20.5	6	13.6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3	14.3	3	14.3	5	23.8	10	47.6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0	23.3	13	30.2	11	25.6	9	20.9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5	15.2	6	18.2	11	33.3	11	33.3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13	6.4	29	14.3	70	34.5	91	44.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2	13.1	34	20.2	63	37.5	49	29.2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8	7.5	15	14.0	26	24.3	58	54.2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	4.0	2	8.0	8	32.0	14	56.0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19.7%가 알고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알았지만 미이용’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40.5%가 ‘들었지만 내용모름’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덕구 거주 응답자의 52.3%는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하였고 서구거주 장애인(45.2%)과 의사소통 시 대부분 도움받아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38.1%) 등은 비교적 높은 분포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7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2	20.7	76	25.3	103	34.3	59	19.7
나이	50대	37	11	29.7	15	40.5	9	24.3	2	5.4
	60대	78	17	21.8	19	24.4	24	30.8	18	23.1
	70대	88	12	13.6	17	19.3	37	42.0	22	25.0
	80대 이상	97	22	22.7	25	25.8	33	34.0	17	17.5

〈 표 5-2-70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형	지체	126	25	19.8	27	21.4	45	35.7	29	23.0
	뇌병변	42	8	19.0	10	23.8	17	40.5	7	16.7
	지적	11	-	-	5	45.5	5	45.5	1	9.1
	시각	53	16	30.2	12	22.6	16	30.2	9	17.0
	청각	41	9	22.0	11	26.8	13	31.7	8	19.5
	언어	3	1	33.3	-	-	1	33.3	1	33.3
	정신	11	2	18.2	2	18.2	5	45.5	2	18.2
	내부 신체장애	13	1	7.7	9	69.2	1	7.7	2	15.4
권역	동구	73	15	20.5	20	27.4	36	49.3	2	2.7
	중구	6	3	50.0	1	16.7	2	33.3	-	-
	서구	124	17	13.7	17	13.7	34	27.4	56	45.2
	유성구	53	4	7.5	22	41.5	26	49.1	1	1.9
	대덕구	44	23	52.3	16	36.4	5	11.4	-	-
독거여부	독거	193	37	19.2	41	21.2	71	36.8	44	22.8
	비독거	107	25	23.4	35	32.7	32	29.9	15	14.0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5	23.8	2	9.5	6	28.6	8	38.1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2	27.9	16	37.2	12	27.9	3	7.0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7	21.2	11	33.3	12	36.4	3	9.1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38	18.7	47	23.2	73	36.0	45	22.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8	16.7	44	26.2	69	41.1	27	16.1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8	16.8	29	27.1	28	26.2	32	29.9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6	64.0	3	12.0	6	24.0	-	-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3	28.8	27	33.8	21	26.3	9	11.3
	이혼	60	11	18.3	16	26.7	27	45.0	6	10.0
	별거	7	2	28.6	1	14.3	4	57.1	-	-
	사별	124	21	16.9	22	17.7	40	32.3	41	33.1
	미혼	29	5	17.2	10	34.5	11	37.9	3	10.3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	2.8	12	33.3	21	58.3	2	5.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49	23.6	50	24.0	59	28.4	50	24.0
	100만원 이상	56	12	21.4	14	25.0	23	41.1	7	12.5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에 대해서 0.3%만이 알고 이용 한다고 응답하였고, ‘들었지만 내용 모름(40.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표 5-2-71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아가족양육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17	39.0	120	40.0	62	20.7	1	0.3
권역	동구	73	20	27.4	32	43.8	20	27.4	1	1.4
	중구	6	3	50.0	1	16.7	2	33.3	-	-
	서구	124	58	46.8	44	35.5	22	17.7	-	-
	유성구	53	9	17.0	29	54.7	15	28.3	-	-
	대덕구	44	27	61.4	14	31.8	3	6.8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1	52.4	4	19.0	5	23.8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5	34.9	15	34.9	13	30.2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1	33.3	17	51.5	5	15.2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80	39.4	84	41.4	39	19.2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3	31.5	78	46.4	36	21.4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7	43.9	38	35.5	22	20.6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7	68.0	4	16.0	4	16.0	-	-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33	41.3	30	37.5	16	20.0	1	1.3
	이혼	60	16	26.7	28	46.7	16	26.7	-	-
	별거	7	2	28.6	2	28.6	3	42.9	-	-
	사별	124	55	44.4	46	37.1	23	18.5	-	-
	미혼	29	11	37.9	14	48.3	4	13.8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22	61.1	10	27.8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95	45.7	71	34.1	41	19.7	1	0.5
	100만원 이상	56	18	32.1	27	48.2	11	19.6	-	-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이 41.7%로 가장 높았고 0.3%만이 알고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덕구 거주 장애인은 72.7%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의 응답자의 68.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7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5	41.7	120	40.0	54	18.0	1	0.3
장애유형	지체	126	57	45.2	49	38.9	19	15.1	1	0.8
	뇌병변	42	15	35.7	14	33.3	13	31.0	-	-
	지적	11	-	-	7	63.6	4	36.4	-	-
	시각	53	27	50.9	16	30.2	10	18.9	-	-
	청각	41	16	39.0	20	48.8	5	12.2	-	-
	언어	3	1	33.3	2	66.7	-	-	-	-
	정신	11	5	45.5	5	45.5	1	9.1	-	-
	내부 신체장애	13	4	30.8	7	53.8	2	15.4	-	-

〈 표 5-2-72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19	26.0	35	47.9	18	24.7	1	1.4
	중구	6	3	50.0	2	33.3	1	16.7	-	-
	서구	124	61	49.2	46	37.1	17	13.7	-	-
	유성구	53	10	18.9	30	56.6	13	24.5	-	-
	대덕구	44	32	72.7	7	15.9	5	11.4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2	57.1	5	23.8	3	14.3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6	37.2	16	37.2	11	25.6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0	30.3	15	45.5	8	24.2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87	42.9	84	41.4	32	15.8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7	33.9	82	48.8	28	16.7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51	47.7	35	32.7	21	19.6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7	68.0	3	12.0	5	20.0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21	58.3	12	33.3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02	49.0	70	33.7	35	16.8	1	0.5
	100만원 이상	56	20	35.7	29	51.8	7	12.5	-	-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9.0%가 들었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73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7	42.3	117	39.0	55	18.3	1	0.3
장애유형	지체	126	57	45.2	48	38.1	20	15.9	1	0.8
	뇌병변	42	13	31.0	18	42.9	11	26.2	-	-
	지적	11	1	9.1	7	63.6	3	27.3	-	-
	시각	53	26	49.1	15	28.3	12	22.6	-	-
	청각	41	19	46.3	14	34.1	8	19.5	-	-
	언어	3	1	33.3	2	66.7	-	-	-	-
	정신	11	5	45.5	6	54.5	-	-	-	-
	내부 신체장애	13	5	38.5	7	53.8	1	7.7	-	-

〈 표 5-2-73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18	24.7	39	53.4	15	20.5	1	1.4
	중구	6	4	66.7	2	33.3	-	-	-	-
	서구	124	60	48.4	46	37.1	18	14.5	-	-
	유성구	53	10	18.9	25	47.2	18	34.0	-	-
	대덕구	44	35	79.5	5	11.4	4	9.1	-	-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2	57.1	5	23.8	3	14.3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9	44.2	13	30.2	11	25.6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1	33.3	14	42.4	8	24.2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85	41.9	85	41.9	33	16.3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61	36.3	71	42.3	35	20.8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8	44.9	41	38.3	18	16.8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8	72.0	5	20.0	2	8.0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108	42.4	105	41.2	41	16.1	1	0.4
	비수급	45	19	42.2	12	26.7	14	31.1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15	41.7	17	47.2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04	50.0	75	36.1	28	13.5	1	0.5
	100만원 이상	56	19	33.9	27	48.2	10	17.9	-	-

돌봄 지원 서비스/제도 중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42.3%)’, ‘전혀 모름(40.0%)’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5-2-7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0	40.0	127	42.3	52	17.3	1	0.3
장애유형	지체	126	55	43.7	52	41.3	18	14.3	1	0.8
	뇌병변	42	12	28.6	15	35.7	15	35.7	-	-
	지적	11	1	9.1	8	72.7	2	18.2	-	-
	시각	53	27	50.9	17	32.1	9	17.0	-	-
	청각	41	18	43.9	16	39.0	7	17.1	-	-
	언어	3	1	33.3	2	66.7	-	-	-	-
	정신	11	4	36.4	7	63.6	-	-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10	76.9	1	7.7	-	-

〈 표 5-2-74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16	21.9	44	60.3	12	16.4	1	1.4
	중구	6	4	66.7	2	33.3	-	-	-	-
	서구	124	56	45.2	51	41.1	17	13.7	-	-
	유성구	53	8	15.1	25	47.2	20	37.7	-	-
	대덕구	44	36	81.8	5	11.4	3	6.8	-	-
독거여부	독거	193	75	38.9	91	47.2	27	14.0	-	-
	비독거	107	45	42.1	36	33.6	25	23.4	1	0.9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2	57.1	5	23.8	3	14.3	1	4.8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7	39.5	17	39.5	9	20.9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0	30.3	17	51.5	6	18.2	-	-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81	39.9	88	43.3	34	16.7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7	33.9	79	47.0	31	18.5	1	0.6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46	43.0	43	40.2	18	16.8	-	-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17	68.0	5	20.0	3	12.0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102	40.0	114	44.7	38	14.9	1	0.4
	비수급	45	18	40.0	13	28.9	14	31.1	-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2	5.6	17	47.2	17	47.2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99	47.6	83	39.9	25	12.0	1	0.5
	100만원 이상	56	19	33.9	27	48.2	10	17.9	-	-

일자리 서비스/제도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는 ‘알았지만 미이용 (45.3%)’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7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일자리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7	29.0	68	22.7	136	45.3	9	3.0
나이	50대	37	5	13.5	17	45.9	10	27.0	5	13.5
	60대	78	12	15.4	17	21.8	46	59.0	3	3.8
	70대	88	27	30.7	21	23.9	40	45.5	-	-
	80대 이상	97	43	44.3	13	13.4	40	41.2	1	1.0

〈 표 5-2-75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일자리 사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유형	지체	126	38	30.2	17	13.5	65	51.6	6	4.8
	뇌병변	42	10	23.8	14	33.3	18	42.9	-	-
	지적	11	-	-	5	45.5	6	54.5	-	-
	시각	53	14	26.4	15	28.3	21	39.6	3	5.7
	청각	41	19	46.3	7	17.1	15	36.6	-	-
	언어	3	1	33.3	1	33.3	1	33.3	-	-
	정신	11	3	27.3	5	45.5	3	27.3	-	-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4	30.8	7	53.8	-	-
권역	동구	73	7	9.6	18	24.7	45	61.6	3	4.1
	중구	6	-	-	1	16.7	3	50.0	2	33.3
	서구	124	51	41.1	24	19.4	47	37.9	2	1.6
	유성구	53	2	3.8	17	32.1	32	60.4	2	3.8
	대덕구	44	27	61.4	8	18.2	9	20.5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3	31.5	34	20.2	79	47.0	2	1.2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1	29.0	27	25.2	46	43.0	3	2.8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3	12.0	7	28.0	11	44.0	4	16.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4	30.0	15	18.8	37	46.3	4	5.0
	이혼	60	6	10.0	13	21.7	39	65.0	2	3.3
	별거	7	1	14.3	1	14.3	4	57.1	1	14.3
	사별	124	50	40.3	30	24.2	43	34.7	1	0.8
	미혼	29	6	20.7	9	31.0	13	44.8	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79	31.0	54	21.2	116	45.5	6	2.4
	비수급	45	8	17.8	14	31.1	20	44.4	3	6.7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5	13.9	15	41.7	16	44.4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5	36.1	42	20.2	87	41.8	4	1.9
	100만원 이상	56	7	12.5	11	19.6	33	58.9	5	8.9

일자리 지원 서비스/제도 중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미이용’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는 전혀 모른다고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50대의 경우 35.1%는 들었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76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장애인 고용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90	30.0	64	21.3	131	43.7	15	5.0
나이	50대	37	5	13.5	13	35.1	11	29.7	8	21.6
	60대	78	13	16.7	15	19.2	46	59.0	4	5.1
	70대	88	28	31.8	20	22.7	39	44.3	1	1.1
	80대 이상	97	44	45.4	16	16.5	35	36.1	2	2.1
장애유형	지체	126	37	29.4	22	17.5	62	49.2	5	4.0
	뇌병변	42	11	26.2	13	31.0	18	42.9	-	-
	지적	11	-	-	3	27.3	8	72.7	-	-
	시각	53	17	32.1	9	17.0	20	37.7	7	13.2
	청각	41	18	43.9	8	19.5	14	34.1	1	2.4
	언어	3	1	33.3	-	-	2	66.7	-	-
	정신	11	4	36.4	4	36.4	2	18.2	1	9.1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5	38.5	5	38.5	1	7.7
권역	동구	73	8	11.0	18	24.7	43	58.9	4	5.5
	중구	6	-	-	-	-	2	33.3	4	66.7
	서구	124	52	41.9	22	17.7	49	39.5	1	0.8
	유성구	53	2	3.8	18	34.0	29	54.7	4	7.5
	대덕구	44	28	63.6	6	13.6	8	18.2	2	4.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56	33.3	33	19.6	76	45.2	3	1.8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1	29.0	27	25.2	45	42.1	4	3.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3	12.0	4	16.0	10	40.0	8	32.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6	32.5	15	18.8	33	41.3	6	7.5
	이혼	60	6	10.0	10	16.7	40	66.7	4	6.7
	별거	7	1	14.3	-	-	4	57.1	2	28.6
	사별	124	52	41.9	28	22.6	43	34.7	1	0.8
	미혼	29	5	17.2	11	37.9	11	37.9	2	6.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81	31.8	50	19.6	116	45.5	8	3.1
	비수급	45	9	20.0	14	31.1	15	33.3	7	15.6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3	8.3	13	36.1	20	55.6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77	37.0	42	20.2	81	38.9	8	3.8
	100만원 이상	56	10	17.9	9	16.1	30	53.6	7	12.5

기타 서비스/제도 중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용해 봄’이 56.3%로 다양한 서비스/제도 중 가장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았다. 서구 거주 응답자 중 43.5%가 알고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모른다(33.1%)의 응답률도 높았다. 의사소통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록 전혀 모르는 응답률이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 표 5-2-77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공공요금 감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0	20.0	39	13.0	32	10.7	169	56.3
나이	50대	37	5	13.5	5	13.5	2	5.4	25	67.6
	60대	78	9	11.5	10	12.8	15	19.2	44	56.4
	70대	88	18	20.5	12	13.6	8	9.1	50	56.8
	80대 이상	97	28	28.9	12	12.4	7	7.2	50	51.5
장애유형	지체	126	29	23.0	12	9.5	8	6.3	77	61.1
	뇌병변	42	6	14.3	7	16.7	8	19.0	21	50.0
	지적	11	-	-	1	9.1	3	27.3	7	63.6
	시각	53	9	17.0	7	13.2	8	15.1	29	54.7
	청각	41	12	29.3	5	12.2	1	2.4	23	56.1
	언어	3	-	-	1	33.3	1	33.3	1	33.3
	정신	11	3	27.3	1	9.1	1	9.1	6	54.5
권역	내부 신체장애	13	1	7.7	5	38.5	2	15.4	5	38.5
	동구	73	6	8.2	11	15.1	7	9.6	49	67.1
	중구	6	-	-	-	-	1	16.7	5	83.3
	서구	124	41	33.1	11	8.9	18	14.5	54	43.5
	유성구	53	-	-	14	26.4	5	9.4	34	64.2
	대덕구	44	13	29.5	3	6.8	1	2.3	27	61.4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7	33.3	1	4.8	3	14.3	10	47.6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0	23.3	8	18.6	7	16.3	18	41.9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8	24.2	8	24.2	6	18.2	11	33.3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35	17.2	22	10.8	16	7.9	130	64.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4	20.2	26	15.5	15	8.9	93	55.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6	24.3	12	11.2	16	15.0	53	49.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	-	1	4.0	1	4.0	23	92.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1	13.8	7	8.8	11	13.8	51	63.8
	이혼	60	4	6.7	5	8.3	8	13.3	43	71.7
	별거	7	-	-	-	-	1	14.3	6	85.7
	사별	124	41	33.1	21	16.9	10	8.1	52	41.9
	미혼	29	4	13.8	6	20.7	2	6.9	17	58.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53	20.8	30	11.8	18	7.1	154	60.4
	비수급	45	7	15.6	9	20.0	14	31.1	15	33.3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2	5.6	11	30.6	7	19.4	16	44.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2	25.0	22	10.6	17	8.2	117	56.3
	100만원 이상	56	6	10.7	6	10.7	8	14.3	36	64.3

기타 서비스/제도 중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용해 봄’이 49.3%로 가장 높았으나 24.0%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았고, 의사소통 수행에서 대부분 도움받아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의 47.6%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았다.

〈 표 5-2-78 〉 서비스/제도 이용경험_각종 세제혜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2	24.0	48	16.0	32	10.7	148	49.3
나이	50대	37	6	16.2	6	16.2	2	5.4	23	62.2
	60대	78	13	16.7	11	14.1	13	16.7	41	52.6
	70대	88	21	23.9	13	14.8	7	8.0	47	53.4
	80대 이상	97	32	33.0	18	18.6	10	10.3	37	38.1
권역	동구	73	7	9.6	10	13.7	7	9.6	49	67.1
	중구	6	-	-	-	-	1	16.7	5	83.3
	서구	124	47	37.9	12	9.7	13	10.5	52	41.9
	유성구	53	-	-	12	22.6	7	13.2	34	64.2
	대덕구	44	18	40.9	14	31.8	4	9.1	8	18.2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0	47.6	1	4.8	3	14.3	7	33.3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0	23.3	13	30.2	10	23.3	10	23.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8	24.2	8	24.2	5	15.2	12	36.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44	21.7	26	12.8	14	6.9	119	58.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39	23.2	35	20.8	16	9.5	78	46.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30	28.0	13	12.1	14	13.1	50	46.7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3	12.0	-	-	2	8.0	20	80.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6	20.0	14	17.5	12	15.0	38	47.5
	이혼	60	5	8.3	7	11.7	7	11.7	41	68.3
	별거	7	-	-	-	-	1	14.3	6	85.7
	사별	124	45	36.3	21	16.9	10	8.1	48	38.7
	미혼	29	6	20.7	6	20.7	2	6.9	15	51.7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64	25.1	42	16.5	16	6.3	133	52.2
	비수급	45	8	17.8	6	13.3	16	35.6	15	33.3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4	11.1	9	25.0	7	19.4	16	44.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61	29.3	35	16.8	15	7.2	97	46.6
	100만원 이상	56	7	12.5	4	7.1	10	17.9	35	62.5

8)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

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1순위로 ‘정보부족(26.0%)’, ‘서비스·프로그램 부족(22.7%)’ 순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 (27.6%)’, ‘서비스·프로그램 부족(17.3%)’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 응답에서 50대 응답자는 ‘정보부족’과 같은 응답률로 가장 많이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을 27.0%가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 중 36.1%가 ‘시설의 거절’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표 5-2-79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보부족	78	26.0	45	15.9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68	22.7	49	17.3
시설의 절대적 부족	38	12.7	43	15.2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	35	11.7	78	27.6
시설의 거절	30	10.0	15	5.3
비용부담	16	5.3	26	9.2
기타	15	5.0	5	1.8
전문가(전문성) 부족	9	3.0	16	5.7
장기간 대기문제	7	2.3	2	0.7
낮은 서비스 질	3	1.0	2	0.7
이용자격이 되지 않음	1	0.3	2	0.7

〈 표 5-2-80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_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보부족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절대적 부족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		전문가 (전문성) 부족		시설의 거절		비용부담		장기간 대기문제		이용자격이 되지 않음		낮은 서비스 질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8	26.0	68	22.7	38	12.7	35	11.7	9	3.0	30	10.0	16	5.3	7	2.3	1	0.3	3	1.0	15	5.0
성별	남자	138	39	28.3	28	20.3	22	15.9	16	11.6	1	0.7	9	6.5	6	4.3	3	2.2	1	0.7	1	0.7	12	8.7
	여자	162	39	24.1	40	24.7	16	9.9	19	11.7	8	4.9	21	13.0	10	6.2	4	2.5	-	-	2	1.2	3	1.9
나이	50대	37	10	27.0	5	13.5	7	18.9	10	27.0	1	2.7	1	2.7	1	2.7	-	-	-	-	-	-	2	5.4
	60대	78	22	28.2	16	20.5	9	11.5	5	6.4	3	3.8	4	5.1	6	7.7	1	1.3	-	-	1	1.3	11	14.1
	70대	88	17	19.3	22	25.0	14	15.9	11	12.5	3	3.4	10	11.4	5	5.7	2	2.3	1	1.1	1	1.1	2	2.3
	80대 이상	97	29	29.9	25	25.8	8	8.2	9	9.3	2	2.1	15	15.5	4	4.1	4	4.1	-	-	1	1.0	-	-

〈 표 5-2-80 〉 복지관련 기관 이용시 어려움_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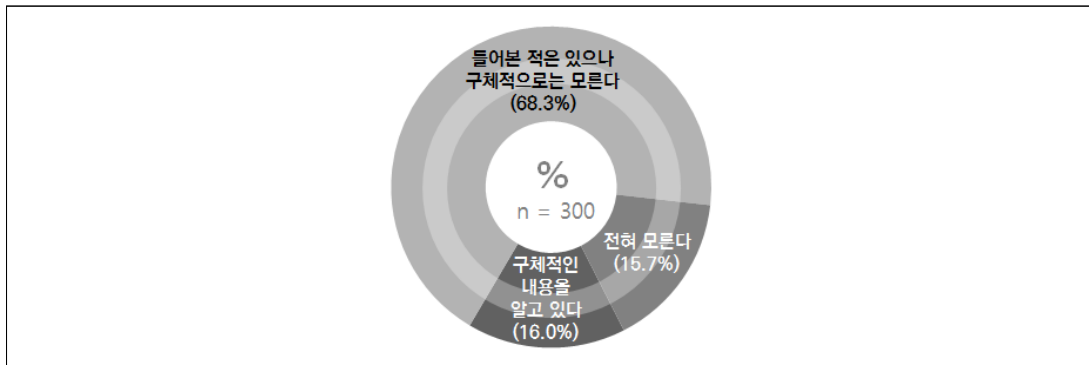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정보부족		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절대적 부족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		전문가 (전문성) 부족		시설의 거절		비용부담		장기간 대기문제		이용자격 이 되지 않음		낮은 서비스 질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21	28.8	14	19.2	20	27.4	10	13.7	1	1.4	1	1.4	4	5.5	-	-	-	-	1	1.4	1	1.4
	중구	6	-	-	2	33.3	3	50.0	-	-	-	-	-	-	-	-	-	-	-	-	-	1	16.7	
	서구	124	34	27.4	36	29.0	12	9.7	7	5.6	2	1.6	14	11.3	7	5.6	5	4.0	-	-	2	1.6	5	4.0
	유성구	53	12	22.6	10	18.9	3	5.7	11	20.8	3	5.7	13	24.5	-	-	-	-	-	-	-	-	1	1.9
	대덕구	44	11	25.0	6	13.6	-	-	7	15.9	3	6.8	2	4.5	5	11.4	2	4.5	1	2.3	-	-	7	15.9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5	23.8	4	19.0	5	23.8	2	9.5	-	-	-	-	-	-	1	4.8	-	-	1	4.8	3	14.3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0	23.3	9	20.9	1	2.3	3	7.0	3	7.0	7	16.3	8	18.6	1	2.3	1	2.3	-	-	-	-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0	30.3	5	15.2	2	6.1	7	21.2	2	6.1	3	9.1	3	9.1	-	-	-	-	-	-	1	3.0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53	26.1	50	24.6	30	14.8	23	11.3	4	2.0	20	9.9	5	2.5	5	2.5	-	-	2	1.0	11	5.4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4	26.2	43	25.6	26	15.5	14	8.3	5	3.0	20	11.9	8	4.8	3	1.8	1	0.6	1	0.6	3	1.8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9	27.1	22	20.6	10	9.3	15	14.0	3	2.8	9	8.4	7	6.5	4	3.7	-	-	2	1.9	6	5.6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5	20.0	3	12.0	2	8.0	6	24.0	1	4.0	1	4.0	1	4.0	-	-	-	-	-	-	6	24.0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3	28.8	11	13.8	13	16.3	13	16.3	-	-	8	10.0	4	5.0	2	2.5	-	-	2	2.5	4	5.0
	이혼	60	11	18.3	14	23.3	14	23.3	6	10.0	2	3.3	4	6.7	2	3.3	-	-	1	1.7	-	-	6	10.0
	별거	7	2	28.6	2	28.6	1	14.3	1	14.3	-	-	-	-	-	-	-	-	-	-	-	-	1	14.3
	사별	124	33	26.6	37	29.8	7	5.6	12	9.7	7	5.6	12	9.7	8	6.5	5	4.0	-	-	1	0.8	2	1.6
	미혼	29	9	31.0	4	13.8	3	10.3	3	10.3	-	-	6	20.7	2	6.9	-	-	-	-	-	-	2	6.9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63	24.7	63	24.7	35	13.7	31	12.2	6	2.4	21	8.2	11	4.3	7	2.7	1	0.4	3	1.2	14	5.5
	비수급	45	15	33.3	5	11.1	3	6.7	4	8.9	3	6.7	9	20.0	5	11.1	-	-	-	-	-	-	1	2.2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8	22.2	3	8.3	3	8.3	5	13.9	1	2.8	13	36.1	2	5.6	1	2.8	-	-	-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56	26.9	55	26.4	24	11.5	22	10.6	5	2.4	13	6.3	12	5.8	6	2.9	1	0.5	2	1.0	12	5.8
	100만원 이상	56	14	25.0	10	17.9	11	19.6	8	14.3	3	5.4	4	7.1	2	3.6	-	-	-	-	1	1.8	3	5.4

9) 도움신청 경로 인지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16.0%)’, ‘전혀 모른다(15.7%)’ 순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의 거주자의 47.2%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보다는 받지 않는 사람이 더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 그림 5-2-23 〉 도움신청 경로

(단위: %)



〈 표 5-2-81 〉 도움신청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47	15.7	205	68.3	48	16.0
권역	동구	73	13	17.8	60	82.2	-	-
	중구	6	1	16.7	4	66.7	1	16.7
	서구	124	10	8.1	93	75.0	21	16.9
	유성구	53	6	11.3	22	41.5	25	47.2
	대덕구	44	17	38.6	26	59.1	1	2.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20	11.9	126	75.0	22	13.1
	중학교 이상~	107	19	17.8	70	65.4	18	16.8
	고등학교 졸업 이하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	32.0	9	36.0	8	3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41	16.1	179	70.2	35	13.7
	비수급	45	6	13.3	26	57.8	13	28.9

10)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도

통합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들어봤지만 어떤 서비스인지 모른다’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다(19.0%)’,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고 있다(16.0%)’,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5-2-82 〉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봤지만 어떤 서비스인지 모른다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다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고 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35	11.7	160	53.3	57	19.0	48	16.0
성별	남자	138	20	14.5	70	50.7	32	23.2	16	11.6
	여자	162	15	9.3	90	55.6	25	15.4	32	19.8
권역	동구	73	12	16.4	50	68.5	9	12.3	2	2.7
	중구	6	-	-	6	100.0	-	-	-	-
	서구	124	6	4.8	66	53.2	28	22.6	24	19.4
	유성구	53	4	7.5	10	18.9	17	32.1	22	41.5
	대덕구	44	13	29.5	28	63.6	3	6.8	-	-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18	10.7	100	59.5	25	14.9	25	14.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9	8.4	48	44.9	27	25.2	23	21.5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	32.0	12	48.0	5	20.0	-	-

11) 통합돌봄 서비스 충분성

통합돌봄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55.2%가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로 3.4점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 표 5-2-83 〉 통합돌봄 서비스 충분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05	2	1.9	15	14.3	30	28.6	56	53.3	2	1.9	3.4
나이	50대	9	-	-	-	-	2	22.2	7	77.8	-	-	3.8
	60대	27	-	-	9	33.3	8	29.6	10	37.0	-	-	3.0
	70대	37	1	2.7	6	16.2	10	27.0	20	54.1	-	-	3.3
	80대 이상	32	1	3.1	-	-	10	31.3	19	59.4	2	6.3	3.7

〈 표 5-2-83 〉 통합돌봄 서비스 충분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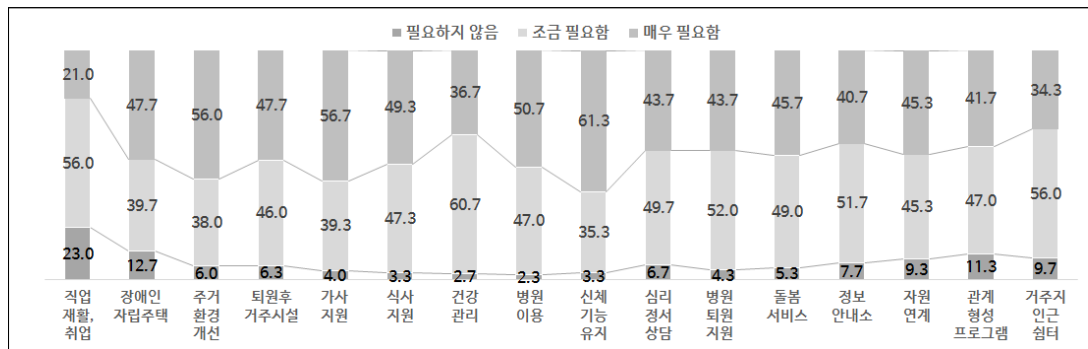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11	1	9.1	-	-	4	36.4	6	54.5	-	-	3.4
	서구	52	-	-	14	26.9	17	32.7	20	38.5	1	1.9	3.2
	유성구	39	-	-	-	-	8	20.5	30	76.9	1	2.6	3.8
	대덕구	3	1	33.3	1	33.3	1	33.3	-	-	-	-	2.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8	-	-	2	7.1	5	17.9	19	67.9	2	7.1	3.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9	2	3.4	11	18.6	23	39.0	23	39.0	-	-	3.1
	100만원 이상	18	-	-	2	11.1	2	11.1	14	77.8	-	-	3.7

12) 대전광역시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향후 대전광역시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가 평균 2.6점으로 96.6%가 ‘조금 필요함/매우 필요함’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사지원(2.5점)’, ‘주거환경개선(문턱, 냉난방 등)(2.5점)’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5-2-24 〉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표 5-2-84 〉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점)

구분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	69	23.0	168	56.0	63	21.0	2.0
주거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38	12.7	119	39.7	143	47.7	2.4
	주거환경개선(문턱, 냉난방 등)	18	6.0	114	38.0	168	56.0	2.5
	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시설	19	6.3	138	46.0	143	47.7	2.4

〈 표 5-2-84 〉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점)

구분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상생활	가사지원	12	4.0	118	39.3	170	56.7	2.5
	도시락 등 식사지원	10	3.3	142	47.3	148	49.3	2.5
건강 및 보건의료	건강관리(약물복용 포함)	8	2.7	182	60.7	110	36.7	2.3
	병원이용	7	2.3	141	47.0	152	50.7	2.5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	10	3.3	106	35.3	184	61.3	2.6
	우울 등 심리정서 상담	20	6.7	149	49.7	131	43.7	2.4
보호 및 돌봄요양	병원 퇴원지원	13	4.3	156	52.0	131	43.7	2.4
	간병 등 돌봄 서비스	16	5.3	147	49.0	137	45.7	2.4
기타 서비스	자립생활 등 정보 안내소	23	7.7	155	51.7	122	40.7	2.3
	자원 연계(병원, 식당, 이마용 등)	28	9.3	136	45.3	136	45.3	2.4
	관계형성 프로그램	34	11.3	141	47.0	125	41.7	2.3
	거주지 인근의 쉼터(정보교류, 친목도모 등)	29	9.7	168	56.0	103	34.3	2.3

일자리 분야 중 ‘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77.0%가 ‘조금 필요함/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대덕구의 경우 68.2%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독거 장애인의 경우 8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2.1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필요의 수준이 높았다.

〈 표 5-2-85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69	23.0	168	56.0	63	21.0	2.0
나이	50대	37	6	16.2	15	40.5	16	43.2	2.3
	60대	78	11	14.1	45	57.7	22	28.2	2.1
	70대	88	22	25.0	50	56.8	16	18.2	1.9
	80대 이상	97	30	30.9	58	59.8	9	9.3	1.8
권역	동구	73	9	12.3	41	56.2	23	31.5	2.2
	중구	6	1	16.7	1	16.7	4	66.7	2.5
	서구	124	15	12.1	84	67.7	25	20.2	2.1
	유성구	53	14	26.4	32	60.4	7	13.2	1.9
	대덕구	44	30	68.2	10	22.7	4	9.1	1.4
독거여부	독거	193	35	18.1	109	56.5	49	25.4	2.1
	비독거	107	34	31.8	59	55.1	14	13.1	1.8

〈 표 5-2-85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5	23.8	12	57.1	4	19.0	2.0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9	44.2	17	39.5	7	16.3	1.7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9	27.3	20	60.6	4	12.1	1.9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36	17.7	119	58.6	48	23.6	2.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46	27.4	98	58.3	24	14.3	1.9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5	14.0	63	58.9	29	27.1	2.1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	32.0	7	28.0	10	40.0	2.1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25	31.3	44	55.0	11	13.8	1.8
	이혼	60	8	13.3	37	61.7	15	25.0	2.1
	별거	7	1	14.3	3	42.9	3	42.9	2.3
	사별	124	26	21.0	77	62.1	21	16.9	2.0
	미혼	29	9	31.0	7	24.1	13	44.8	2.1

주거 영역 중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에 대해서는 87.4%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대덕구 거주 장애인의 36.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62.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86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38	12.7	119	39.7	143	47.7	2.4
나이	50대	37	3	8.1	11	29.7	23	62.2	2.5
	60대	78	10	12.8	31	39.7	37	47.4	2.4
	70대	88	10	11.4	31	35.2	47	53.4	2.4
	80대 이상	97	15	15.5	46	47.4	36	37.1	2.2
권역	동구	73	7	9.6	22	30.1	44	60.3	2.5
	중구	6	1	16.7	-	-	5	83.3	2.7
	서구	124	7	5.6	50	40.3	67	54.0	2.5
	유성구	53	7	13.2	29	54.7	17	32.1	2.2
	대덕구	44	16	36.4	18	40.9	10	22.7	1.9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6	1	2.8	20	55.6	15	41.7	2.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32	15.4	83	39.9	93	44.7	2.3
	100만원 이상	56	5	8.9	16	28.6	35	62.5	2.5

주거 영역 중 ‘주거환경개선(문턱, 냉난방 등)’에 대해서는 9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3점 척도에서 2.5점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 표 5-2-87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주거환경개선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8	6.0	114	38.0	168	56.0	2.5
나이	50대	37	1	2.7	11	29.7	25	67.6	2.7
	60대	78	4	5.1	24	30.8	50	64.1	2.6
	70대	88	6	6.8	33	37.5	49	55.7	2.5
	80대 이상	97	7	7.2	46	47.4	44	45.4	2.4
권역	동구	73	4	5.5	12	16.4	57	78.1	2.7
	중구	6	1	16.7	-	-	5	83.3	2.7
	서구	124	4	3.2	52	41.9	68	54.8	2.5
	유성구	53	-	-	29	54.7	24	45.3	2.5
	대덕구	44	9	20.5	21	47.7	14	31.8	2.1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3	14.3	6	28.6	12	57.1	2.4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7	16.3	21	48.8	15	34.9	2.2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3	9.1	15	45.5	15	45.5	2.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5	2.5	72	35.5	126	62.1	2.6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5	6.3	37	46.3	38	47.5	2.4
	이혼	60	5	8.3	14	23.3	41	68.3	2.6
	별거	7	-	-	1	14.3	6	85.7	2.9
	사별	124	7	5.6	54	43.5	63	50.8	2.5
	미혼	29	1	3.4	8	27.6	20	69.0	2.7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	-	19	52.8	17	47.2	2.5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16	7.7	80	38.5	112	53.8	2.5
	100만원 이상	56	2	3.6	15	26.8	39	69.6	2.7

주거 영역 중 ‘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 시설’에 대해서 9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 표 5-2-88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시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9	6.3	138	46.0	143	47.7	2.4
나이	50대	37	2	5.4	7	18.9	28	75.7	2.7
	60대	78	9	11.5	34	43.6	35	44.9	2.3
	70대	88	6	6.8	48	54.5	34	38.6	2.3
	80대 이상	97	2	2.1	49	50.5	46	47.4	2.5

〈 표 5-2-88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시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5	6.8	19	26.0	49	67.1	2.6
	중구	6	2	33.3	-	-	4	66.7	2.3
	서구	124	5	4.0	61	49.2	58	46.8	2.4
	유성구	53	3	5.7	30	56.6	20	37.7	2.3
	대덕구	44	4	9.1	28	63.6	12	27.3	2.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8	10.0	38	47.5	34	42.5	2.3
	이혼	60	7	11.7	26	43.3	27	45.0	2.3
	별거	7	-	-	2	28.6	5	71.4	2.7
	사별	124	3	2.4	63	50.8	58	46.8	2.4
	미혼	29	1	3.4	9	31.0	19	65.5	2.6

일상생활 영역 중 ‘가사지원’에 대해 9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필요도의 수준이 3점 척도에서 평균 2.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의사소통 시 대부분 도움을 받아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의 71.4%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의 욕구를 보였다.

〈 표 5-2-89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가사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2	4.0	118	39.3	170	56.7	2.5
권역	동구	73	3	4.1	16	21.9	54	74.0	2.7
	중구	6	1	16.7	-	-	5	83.3	2.7
	서구	124	3	2.4	51	41.1	70	56.5	2.5
	유성구	53	4	7.5	23	43.4	26	49.1	2.4
	대덕구	44	1	2.3	28	63.6	15	34.1	2.3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	4.8	5	23.8	15	71.4	2.7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	2.3	27	62.8	15	34.9	2.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1	3.0	19	57.6	13	39.4	2.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9	4.4	67	33.0	127	62.6	2.6

일상생활 영역 중 ‘도시락 등 식사 지원’은 9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2.5점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2.6점)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0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도시락 등 식사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0	3.3	142	47.3	148	49.3	2.5
권역	동구	73	3	4.1	20	27.4	50	68.5	2.6
	중구	6	1	16.7	1	16.7	4	66.7	2.5
	서구	124	1	0.8	67	54.0	56	45.2	2.4
	유성구	53	4	7.5	28	52.8	21	39.6	2.3
	대덕구	44	1	2.3	26	59.1	17	38.6	2.4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 중 ‘건강관리(약물복용 포함)’ 관련 지원에 대해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도의 수준이 높았다.

〈 표 5-2-91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건강관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8	2.7	182	60.7	110	36.7	2.3
나이	50대	37	-	-	18	48.6	19	51.4	2.5
	60대	78	5	6.4	43	55.1	30	38.5	2.3
	70대	88	3	3.4	61	69.3	24	27.3	2.2
	80대 이상	97	-	-	60	61.9	37	38.1	2.4
권역	동구	73	1	1.4	39	53.4	33	45.2	2.4
	중구	6	-	-	-	-	6	100.0	3.0
	서구	124	3	2.4	77	62.1	44	35.5	2.3
	유성구	53	2	3.8	36	67.9	15	28.3	2.3
	대덕구	44	2	4.5	30	68.2	12	27.3	2.2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 중 ‘병원이용’에 대해서는 9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동구 거주자(67.1%)와 의사소통에서 대부분 도움받아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66.7%)은 높은 분포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2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이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7	2.3	141	47.0	152	50.7	2.5
권역	동구	73	-	-	24	32.9	49	67.1	2.7
	중구	6	-	-	-	-	6	100.0	3.0
	서구	124	2	1.6	64	51.6	58	46.8	2.5
	유성구	53	4	7.5	28	52.8	21	39.6	2.3
	대덕구	44	1	2.3	25	56.8	18	40.9	2.4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1	4.8	6	28.6	14	66.7	2.6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1	2.3	28	65.1	14	32.6	2.3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4	12.1	11	33.3	18	54.5	2.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1	0.5	96	47.3	106	52.2	2.5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 중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에 9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2.6점의 수준이었다. 의사소통 수행 시 대부분 도움받아 표현 가능한 장애인의 76.2%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3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0	3.3	106	35.3	184	61.3	2.6
나이	50대	37	-	-	7	18.9	30	81.1	2.8
	60대	78	5	6.4	25	32.1	48	61.5	2.6
	70대	88	4	4.5	38	43.2	46	52.3	2.5
	80대 이상	97	1	1.0	36	37.1	60	61.9	2.6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2	9.5	3	14.3	16	76.2	2.7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	-	23	53.5	20	46.5	2.5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3	9.1	15	45.5	15	45.5	2.4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5	2.5	65	32.0	133	65.5	2.6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6	-	-	13	36.1	23	63.9	2.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8	8	3.8	81	38.9	119	57.2	2.5
	100만원 이상	56	2	3.6	12	21.4	42	75.0	2.7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 중 ‘우울 등 심리정서 상담’에 대해서 9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4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우울 등 심리정서 상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0	6.7	149	49.7	131	43.7	2.4
장애유형	지체	126	11	8.7	68	54.0	47	37.3	2.3
	뇌병변	42	-	-	17	40.5	25	59.5	2.6
	지적	11	-	-	6	54.5	5	45.5	2.5
	시각	53	6	11.3	22	41.5	25	47.2	2.4
	청각	41	1	2.4	24	58.5	16	39.0	2.4
	언어	3	-	-	1	33.3	2	66.7	2.7
	정신	11	-	-	2	18.2	9	81.8	2.8
	내부 신체장애	13	2	15.4	9	69.2	2	15.4	2.0
권역	동구	73	2	2.7	35	47.9	36	49.3	2.5
	중구	6	2	33.3	2	33.3	2	33.3	2.0
	서구	124	4	3.2	63	50.8	57	46.0	2.4
	유성구	53	9	17.0	25	47.2	19	35.8	2.2
	대덕구	44	3	6.8	24	54.5	17	38.6	2.3

보호 및 돌봄요양 영역 중 ‘병원 퇴원지원’에 대해서는 9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5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병원 퇴원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3	4.3	156	52.0	131	43.7	2.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1	0.6	89	53.0	78	46.4	2.5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8	7.5	61	57.0	38	35.5	2.3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4	16.0	6	24.0	15	60.0	2.4

보호 및 돌봄요양 영역 중 ‘간병 등 돌봄 서비스’는 9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6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간병 등 돌봄 서비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16	5.3	147	49.0	137	45.7	2.4
권역	동구	73	4	5.5	21	28.8	48	65.8	2.6
	중구	6	2	33.3	2	33.3	2	33.3	2.0
	서구	124	3	2.4	79	63.7	42	33.9	2.3
	유성구	53	5	9.4	23	43.4	25	47.2	2.4
	대덕구	44	2	4.5	22	50.0	20	45.5	2.4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8	10.0	42	52.5	30	37.5	2.3
	이혼	60	2	3.3	25	41.7	33	55.0	2.5
	별거	7	1	14.3	2	28.6	4	57.1	2.4
	사별	124	5	4.0	67	54.0	52	41.9	2.4
	미혼	29	-	-	11	37.9	18	62.1	2.6

기타 영역 중 ‘자립생활 등 정보 안내소’에 대해서 9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7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자립생활 등 정보 안내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3	7.7	155	51.7	122	40.7	2.3
나이	50대	37	3	8.1	15	40.5	19	51.4	2.4
	60대	78	11	14.1	42	53.8	25	32.1	2.2
	70대	88	6	6.8	48	54.5	34	38.6	2.3
	80대 이상	97	3	3.1	50	51.5	44	45.4	2.4
권역	동구	73	5	6.8	43	58.9	25	34.2	2.3
	중구	6	1	16.7	1	16.7	4	66.7	2.5
	서구	124	7	5.6	54	43.5	63	50.8	2.5
	유성구	53	6	11.3	29	54.7	18	34.0	2.2
	대덕구	44	4	9.1	28	63.6	12	27.3	2.2
의사소통 수행능력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21	3	14.3	8	38.1	10	47.6	2.3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43	2	4.7	24	55.8	17	39.5	2.4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33	3	9.1	25	75.8	5	15.2	2.1
	모든 의사표현 가능	203	15	7.4	98	48.3	90	44.3	2.4

기타 영역 중 ‘자원 연계(병원, 식당, 이미용 등)’를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포는 90.6%였다.
동구 거주 장애인의 61.6%, 독거 장애인의 52.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8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자원 연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8	9.3	136	45.3	136	45.3	2.4
나이	50대	37	5	13.5	12	32.4	20	54.1	2.4
	60대	78	11	14.1	35	44.9	32	41.0	2.3
	70대	88	9	10.2	47	53.4	32	36.4	2.3
	80대 이상	97	3	3.1	42	43.3	52	53.6	2.5
권역	동구	73	4	5.5	24	32.9	45	61.6	2.6
	중구	6	4	66.7	1	16.7	1	16.7	1.5
	서구	124	6	4.8	57	46.0	61	49.2	2.4
	유성구	53	10	18.9	29	54.7	14	26.4	2.1
	대덕구	44	4	9.1	25	56.8	15	34.1	2.3
독거여부	독거	193	15	7.8	76	39.4	102	52.8	2.5
	비독거	107	13	12.1	60	56.1	34	31.8	2.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2	15.0	43	53.8	25	31.3	2.2
	이혼	60	5	8.3	23	38.3	32	53.3	2.5
	별거	7	2	28.6	3	42.9	2	28.6	2.0
	사별	124	5	4.0	56	45.2	63	50.8	2.5
	미혼	29	4	13.8	11	37.9	14	48.3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55	20	7.8	115	45.1	120	47.1	2.4
	비수급	45	8	17.8	21	46.7	16	35.6	2.2

기타 영역 중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포는 88.7%로 50대의 64.9%,
동구 거주 장애인의 56.2%가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99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관계형성 프로그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34	11.3	141	47.0	125	41.7	2.3
나이	50대	37	5	13.5	8	21.6	24	64.9	2.5
	60대	78	12	15.4	37	47.4	29	37.2	2.2
	70대	88	11	12.5	51	58.0	26	29.5	2.2
	80대 이상	97	6	6.2	45	46.4	46	47.4	2.4

〈 표 5-2-99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관계형성 프로그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권역	동구	73	6	8.2	26	35.6	41	56.2	2.5
	중구	6	2	33.3	1	16.7	3	50.0	2.2
	서구	124	7	5.6	63	50.8	54	43.5	2.4
	유성구	53	7	13.2	32	60.4	14	26.4	2.1
	대덕구	44	12	27.3	19	43.2	13	29.5	2.0
독거여부	독거	193	15	7.8	90	46.6	88	45.6	2.4
	비독거	107	19	17.8	51	47.7	37	34.6	2.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8	9	5.4	85	50.6	74	44.0	2.4
	중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17	15.9	52	48.6	38	35.5	2.2
	특수학교 전공과 이상	25	8	32.0	4	16.0	13	52.0	2.2
결혼여부	기혼(동거 포함)	80	16	20.0	38	47.5	26	32.5	2.1
	이혼	60	5	8.3	23	38.3	32	53.3	2.5
	별거	7	1	14.3	2	28.6	4	57.1	2.4
	사별	124	4	3.2	71	57.3	49	39.5	2.4
	미혼	29	8	27.6	7	24.1	14	48.3	2.2

기타 영역 중 ‘거주지 인근의 쉼터(정보교류, 친목도모 등)’에 대해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0대 이상의 54.1%는 ‘매우 필요함’, 70대(60.2%)와 80대(60.8%)의 다수가 ‘조금 필요함’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5-2-100 〉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_거주지 인근의 쉼터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3점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300	29	9.7	168	56.0	103	34.3	2.3
나이	50대	37	3	8.1	14	37.8	20	54.1	2.5
	60대	78	12	15.4	42	53.8	24	30.8	2.2
	70대	88	9	10.2	53	60.2	26	29.5	2.2
	80대 이상	97	5	5.2	59	60.8	33	34.0	2.3
권역	동구	73	6	8.2	36	49.3	31	42.5	2.3
	중구	6	1	16.7	2	33.3	3	50.0	2.3
	서구	124	8	6.5	75	60.5	41	33.1	2.3
	유성구	53	4	7.5	30	56.6	19	35.8	2.3
	대덕구	44	10	22.7	25	56.8	9	20.5	2.0

13)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식사 지원(3명)’, ‘방문 목욕 서비스 지원(2명)’, ‘간호사 가정 방문(2명)’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 5-2-101 〉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7	100.0
식사 지원	3	17.6
방문 목욕 서비스 지원	2	11.8
간호사 가정 방문	2	11.8
의료서비스 지원	1	5.9
가사서비스 지원	1	5.9
도시락 지원금액 늘리기	1	5.9
문턱 지원서비스	1	5.9
형제자매가 장애인 가족 돌볼 경우에도 금전적 혜택 제공	1	5.9
활동보조사 지원	1	5.9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1	5.9
활동지원서비스 나이제한 폐지	1	5.9
비장애인과의 함께하는 일반 문화행사 개최	1	5.9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5.9

제3절 소결

대전광역시의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50세 이상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중고령 장애인으로 80대 이상이 32.3%로 가장 많고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2.0%)’이 가장 많고, 64.3%가 혼자살고 있으며, 56.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67.6%가 모든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3%가 사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응답자의 특성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동구에는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68.5%)이며, 서구에는 70대와 80대의 비율이 높으며(73.4%), 유성구는 혼자사는 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편(45.3%)이다. 다만, 권역별 층화표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답자의 대부분(93.4%)가 평소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편이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다(96.1%)고 응답하였다.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는 다양하여,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25.0%)’이나,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통틀어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과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응답률도 높았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일부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응답자의 77.7%이며, 이중 39.5%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56.7%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독거이거나, 사별을 한 장애인, 저소득, 그리고 저학력 등의 계층의 장애인의 다수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도움을 받는 장애인의 72.3%는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시간의 부족(48.0%)’을 다수 응답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비독거 장애인이나 기혼자는 가족이 도와 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60% 이상 응답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세수, 목욕, 양치질, 배변, 식사 도움 등’의 일상지원 영역이라고 다수 응답하였고,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51.0%)’,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27.1%)’ 등, 시간적인 제공의 확대와 관련된 응답률이 높았다. 일상에서 집 밖 활동이나 외출 시 77.6%가 ‘불편/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불편을 경험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부족(37.3%)’, ‘교통불편(27.9%)’,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7.9%)’ 등 순으로 응답하여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위한 지원욕구가 높았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바우처 제도의 신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교육 기관까지의 이동 등 접근성에 대한 욕구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학습지원 인력제공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넷째,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제공(45.7%)’, ‘주택자금 (21.0%)’, 그리고 ‘주택개조사업(19.3%)’ 등 다양한 욕구가 있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원고용의 확대(41.7%)’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32.3%)’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생활비(38.7%)’와 ‘의료비(31.0%)’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생활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이용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경제적인 것과 의료관련 어려움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은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통틀어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외로움 등 고립감’이라고 다수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것과 일상생활의 도움의 욕구가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노후 준비는 모든 영역에서 90%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분야(저축, 연금 등)에 대한 준비가 가장 취약하였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30.7%)’,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27.7%)’ 등 인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다(18.3%)는 여건과 관련된 어려움도 다수 응답하였다.

여섯째, 응답자의 다수는 거주 형태로 ‘혼자서 사는 집(49.0%)’과 ‘배우자와 사는 집(20%)’을 선호하였고, 그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8.7%)’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22.3%)’를 꼽았다. 다만, 혼자서 살 때 도와줄 사람은 59.0%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혼자 살거나, 저소득, 저학력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는 ‘활동지원사(47.9%)’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의 욕구를 보면, 응답자의 67.7%가 생계비로 응답하여 경제적인 부문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 외 돌봄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분산되어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32.0%)’, ‘장애인기관, 장애인단체의 직원 활동가(28.3%)’,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지인(2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를 볼 때,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인지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수당 관련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수당에 대해 10% 이상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 아직도 모르는 응답자가 있었다. 보육

교육 지원은 응답자가 50대 이상 중고령자를 감안하면, 인지도/이용도가 낮을 수 있다. 의료 및 재활지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도 20% 이상 전혀 모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대해 20% 정도 알고 이용하고 있었다. 돌봄지원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자 43.0%로 서비스 중 비교적 높은 분포로 알고 이용하고 있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었으나 장애인 일자리 서비스나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해 30% 내외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미이용’의 응답률도 45% 내외여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50% 내외로 알고 이용하고 있어서 서비스 중 인지도/이용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20% 정도는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복지기관 이용에서의 어려움은 정보부족(26.0%), 서비스·프로그램 부족(22.7%), 시설 부족 또는 가까운 시설의 부족(24.0%) 등으로 응답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도움신청 경로에 대해서도 16.0%만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19.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며, 알면서 이용하는 응답자는 16.0%정도였다.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아는 응답자의 55.2%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에 요구하는 것은,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96.6%, 조금 필요함/매우 필요함)’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에 23.0%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것 외에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90%에 가깝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제2절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설문지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시의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의 특성별로 돌봄현황 및 욕구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현황과 욕구조사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0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3.8%가 저학년으로 저학년의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정 아동은 62.8%이며, 부모와 자녀 구성의 가정이 77.8%이나, 한부모가정이 15.0%, 조손가정이 6.3%로 약 20% 이상이다.

방과후 돌봄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5점 만점 중 4점을 웃돌 정도이며, 불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나온 항목은 ‘물리적 환경(1.4%)’ 정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돌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와 만족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부모는 아동돌봄에서 아동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선생님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돌봄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 순으로 응답하였고, 돌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질문 중 만족도가 높은 항목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생의 자질과 전문성’, ‘활동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이었으며, 그에 비해 ‘전담 선생님 대비 아동수’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함’,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 ‘선생님 처우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에서의 돌봄현황을 보면, 등하교 시 아동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키는 보호자로는 기타, 즉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등하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등하교 시의 아동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교 후에 부모 귀가시까지 자녀의 돌봄

방법 중 돌봄기관 이용이 44.4%로 돌봄시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돌봄기관 외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동의 어머니가 70.5%였다.

현존하는 돌봄정책에 관한 인지도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약 50% 이상이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44.4%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는 것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담당 기관이나 부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경험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보통이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 정도인데, 특히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돌봄의 정보 습득 순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시간과 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돌봄 공백 상황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볼 때, 방학 중에 자녀를 맡길 곳, 긴급한 상황에서 맡길 곳이 없다는 것 등이며,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 여러 항목에서 외벌이 가정보다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결과를 보였다. 휴직 또는 사직 경험에서는 아이 양육으로 휴직 중이거나 휴직 및 사직 계획은 90% 이상 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아이 양육으로 휴직 사용이나 사직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사직을 한 부모 중 어머니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육아 휴직 23.7%, 사직 34.3%).

대전광역시의 돌봄 서비스 개선사항과 관련된 현황과 욕구를 보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대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하며, 도로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돌봄 공간으로 주거지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학교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건물도 응답한 것으로 보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돌봄 공간에서 희망하는 것은 다수의 아동이 등하교를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등하원/등하교 서비스 지원을 다수 희망함을 밝혔다.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돌봄 시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꼽았는데, 이는 돌봄 공간을 주거지역이나 학교를 선호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 외 프로그램과 돌봄 인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에서도 질적인 향상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욕구에서 다자녀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두 곳 이상 분리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400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73.5%가 여성이며, 연령별로 중기(75세-84세) 노인이 58.8%로 절반 이상이다. 18.5%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93.8%이며, 독거 노인이 89.5%이며 96.0%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노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분야는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지출의 비중에서도 1순위로 병원비 및 약값과 식료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았다. 주로 하는 활동으로 가사 관리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식사준비는 주로 자신이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에 따른 식사준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다수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치매와 만성질환에 대해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 45.8%가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5.3%가 여전히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3.0%만이 진료가 필요한데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이 76.3% 응답하여 필요시에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입퇴원 시에는 노인의 33.3%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나 가까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한 노인은 18.5%로 신청한 노인 중에서는 4등급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은 그 이유로 필요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할까봐 또는 제도 자체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녀와의 교류는 1주일에 한번 이상(35.9%)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웃과 말벗 정도로 지낸다가 49.8%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반면 가족 또는 이웃과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5.3%, 이웃과 인사 정도만 또는 잘 모르는 분포가 39.8%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된 활동으로 '교제 및 여가(1순위 27.3%, 2순위 27.1%)'로 다수 응답했으나, 노인의 68.3%는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족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도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반 이상이 조금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41.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복지서비스의 정보는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22.8%), 복지관/복지사(21.0%) 등으로부터 얻는다는 분포가 높다.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중에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매검사 및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외의 사업 중 '이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80% 정도 잘 모르거나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신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용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0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21.3%정도가 알고 있었으나,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으며,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이용경험과 관련해서 77.3%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밑반찬,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 등 식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도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한 것도 식사지원이었다. 그 외 말벗, 가사, 요양보호사 등 순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필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사회참여 서비스 중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을 꼽았다. 앞서 주된 활동이 가사 활동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과 가사 관련 욕구가 많은 점도 주목할 점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노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21.3%가, 주택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13.6%가,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10.3%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는가와 추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대전광역시의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사회내의 50세 이상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중고령 장애인으로 80대 이상이 32.3%로 가장 많고 장애유형별 중 ‘지체장애 (42.0%)’이 가장 많고, 64.3%가 혼자살고 있으며, 56.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67.6%가 모든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3%가 사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96.1%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는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 ‘건강유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일부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다수였으나, 이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가 39.5%로 다수였다.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많았다. 반면 도움을 받는 장애인의 다수는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시간의 부족 (48.0%)’이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비독거 장애인이나 기혼자는 60% 이상 가족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다수 시간적인 제공의 확대(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응답하였다.

일상에서 집밖활동이나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부족’, ‘교통 불편’,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바우처 제도의 신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등 접근성에 대한 욕구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학습지원 인력제공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거와 관련해서 ‘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제공’, ‘주택자금’, 그리고 ‘주택개조사업’ 등 다양한 욕구가 있었으며,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원고용의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생활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이용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경제적인 것과 의료관련 어려움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노후와 관련해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것이 주된 걱정사항이라 응답하였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는 관련 영역에서 모두 90%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경제적 분야(저축, 연금 등)에 대한 준비가 가장 취약하였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등 인식이 낮았다.

거주에 대해서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집을 선호하였으나 혼자서 살 때 도와 줄 사람은 59.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의 욕구에서는,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의 욕구가 높았으며, 그 외 돌봄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는 분산되어 ‘행정부지센터, 구청 등(32.0%)’, ‘장애인기관, 장애인단체의 직원 활동가(28.3%)’,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지인(2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를 볼 때,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인지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금수당 관련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수당에 대해 10% 이상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 아직도 모르는 응답자가 있었다. 돌봄 지원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지 43.0%로 서비스 중 비교적 높은 분포로 알고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요금 감면과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50% 내외로 알고 이용하고 있어서 서비스 중 인지도/이용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20% 정도는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의료 및 재활지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도 20% 이상 전혀 모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대해 20% 정도 알고 이용하고 있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30% 내외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거나, 보육교육지원의 낮은 인지도 등은 응답자가 50대 이상

중고령자이며, 80대 이상이 30%이상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기관 이용에서의 어려움은 정보부족,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시설 부족 또는 가까운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다.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19.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며, 알면서 이용하는 응답자는 16.0%였다.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아는 응답자의 55.2%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에 요구하는 것은,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96.6%, 조금 필요함/매우 필요함)’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에 23.0%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것 외에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90%에 가깝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제언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 현황과 돌봄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의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조사 대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을 통해 조사를 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본 조사의 문항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진행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높은 만족도가 함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이용 폭을 넓혀 방학이나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초등돌봄 교실 운영의 확대나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의 30분 추가 등 시간의 연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 등 언제든지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욕구가 높다.

셋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비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여전히 아동을 믿고 맡기는 것의 조건은 질 좋은 프로그램이며, 그러한 양질의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선생님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담 선생님 대비 적절한 아동수와 선생님의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대에 대한 요구이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종사자의 처우는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도하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다수의 아동이 도보로 등하교를 하며, 특히 하교 시에는 돌봄 제공자 없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하교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돌봄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으나, 그 중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물리적 환경이었다. 즉, 아동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구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에서 코레일 철도 공익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2019년 급식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민관자원을 활용하여 일부 개선하였으나, 이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모색 및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응답자의 다수가 방과후 아카데미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정책에 대해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고학년의 돌봄이 가능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보공유 등이 가능한 돌봄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돌봄의 사각 지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돌봄 정보의 습득에 대해 다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나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다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담당 기관이나 부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가정의 특성별로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성별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는 출장, 야근 등의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는 간식의 질에 대한 욕구가 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두 곳 이상 분리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욕구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구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재로 그 지역 해당 아동의 이용이 불가하며, 서구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으므로 권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돌봄 사각지대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또는 않는 아동을 파악하여 이들의 돌봄욕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대전광역시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가정에서의 주 돌봄자는 아동의 어머니, 즉 여성이라는 점은, 사회적 돌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돌봄 부담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60%를 차지하는 맞벌이 가정 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동 돌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양성 평등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노인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전광역시의 노인에게도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은 건강과 경제, 그리고 외로움이다. 이 세가지 요인의 극복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 노인돌봄 정책을 구축할 때, 이 세가지 요인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응답자 대다수가 현재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다. 특히, 식사와 관련된 욕구가 높았다. 다수가 본인이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식사준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도 다수가 있으며, 경로식당의 이용 경험도 다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밑반찬,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식사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높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욕구와 서비스의 불일치가 높은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욕구 파악 및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 장애가 있거나, 혼자 살거나, 월세로 거주하거나, 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인이 다양한 부문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열악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의 73.5%가 여성이지만,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 보다 높은 비율로 영양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거나, 외로움을 더 경험하고, 식사 준비에서도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현재 권역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정책이 이러한 취약한 계층에 있는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앞서 취약한 계층의 노인의 욕구 미충족 원인 중에 낮은 인지도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도움 신청의 경로에 대해 장애가 있는 노인과 월세 거주 노인의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이 일부 인지도가 높은 사업이 있다. 역으로 이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집단의 노인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수가 가족에게 의존하는데, 다만 일부 복지관이나 요양보호사, 또는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여,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등급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퇴원 시의 지원과 관련해서, 입퇴원 시 1/3 정도가 돌봐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강과 관련해서 비록 3.0%만이 진료가 필요한데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진정한 통합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그 3.0%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꼽는데, 입퇴원시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로 주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거나 가까이 사는 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도움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입원 중인 노인이 퇴원 이후의 환경적 변화 또는 돌봄자의 변경 등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으며(염정희·신용순, 2017), 특히 장기 입원을 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일상생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황윤희, 이가연, 2021), 입퇴원시의 다양한 지원은 노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퇴원할 경우 재가 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병원 3곳의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및 욕구를 파악하여 퇴원계획을 수립 후 5개 자치구로 연계하면 LH공사와 자활센터 등에서 집수리 등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점 복지관이 도시락 등 영양급식을 제공,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돌봄을 제공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및 거점복지관은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또한 주민참여 조직인 복지만두레는 각각의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키트를 만들어 퇴원 직후의 초기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서구와 대덕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덕구와 동구의 경우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서 입퇴원 시

도움 제공자가 대전광역시의 평균보다는 높은 비율로 있다고 응답하고, 그 도움제공자 중, 생활 지원사가 16.9%로 약간 높은 비율이 있으나, 그 도움 유형의 57.1%가 간호, 간병인 것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사업이 조사 당시 시행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추후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집단 내에도 성별, 거주 권역, 장애여부, 월세 거주, 독거, 월평균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있고 이에 따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를 각 욕구에 맞춰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홍보 및 정보 제공 또는 자격 조건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현재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는가와 추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 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대전광역시의 중고령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 의료, 돌봄에 대하여 두루 욕구가 높았고, 특히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본 조사에서 권역이나 장애유형별 분석에서 대상자 수가 적어서 논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장애인 중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집단의 돌봄현황과 욕구를 조사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미충족 욕구가 많은 것에 반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가 낮았다. 즉, 기존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일부 서비스는 중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일 수도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10%나 20%, 많게는 30%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접근성에서는 평생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집 밖 활동에서의 불편함, 복지기관 이용의 어려움 등에서 정보 부족과 접근성의 문제점이 두각 되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애분야 전문 인력의 배치, 또는 동반자와 같은 보조 인력증가 등 개선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가 고령자이며, 50%이상 초등학교 학력 이하인 것을 고려하여, 중고령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활동지원사가 응답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지원 시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50% 이상이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혼자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지원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활동지원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등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

넷째, 미충족 욕구 중 경제적인 것 외에도 건강 관련 욕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고령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편이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병원 이용의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컸으며, 노후 준비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건강관리였다. 물론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96.1%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는 다양하였다. 대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도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고령 장애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건강 관련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고령화에 맞춰 장애인지원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면서 중고령 장애인의 생애주기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 장애인으로서 노후 준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년 ‘장애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 09. 29. 연합뉴스), 이러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장애인 대상의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노후 준비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장애인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독거, 저소득, 저학력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서도 인지도 및 이용률을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발굴 및 대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가희(2021). 제5기 대전광역시지역사회보장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김기수·김이배·진수빈(2021). 통계로보는 대전의 사회보장.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김이배·김동기·신희정·류선화(2020).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연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김지영·김성한·류진석·윤경아·정지운·최권호·송은주·손민영(2019). 대전형 돌봄 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대전복지재단.
- 김지영·김일영·신영미·우성구·이형배·유서정(2020).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대전복지재단.
- 송지현·유미영·임은정(2021). 대전광역시거주시설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염정희·신용순. (2017). 퇴원을 앞둔 노인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질병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9(3). 246-255.
- 양성욱·류우선·김상우·이종호·김경현(2020),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 및 수요조사. 대전세종연구원.
- 오단이·조은아(2021), 대전광역시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황윤희·이가연. (2021).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의 재가 전환 경험: 지역사회 통합돌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2(3). 382-395.
- 2021년 춘천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행정안전부.
-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2022년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2022년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2022년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2022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2022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2022년 대전광역시 인구현황.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의 통계.

<https://www.daejeon.go.kr/sta/StaStatisticsFldList.do?menuSeq=180>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맞춤 노후준비서비스 시범사업(2020. 9. 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69100530?section=search>

[초등학생 가정용]

조사표번호			
입력 ID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욕구조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대전지역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 연구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박란이 복지협력부장)
 - 조사기관: ~~서울~~유니온리서치 (담당자 : 어인선 과장, 02-2090-1243/ 성지현 대리, 02-2090-1223)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7길 16(양평동 4가, 오오1004빌딩 3층)

〈 개인정보 제공 및 면접참여 동의서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설문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5 월 일

응답자 :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귀하

응답자	아동 보호자	☐	대리 응답자	☐
조사자	(인)	관리자	(인)	

A.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문1. 귀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문2. 다음은 아동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3) 연 령	만() 세	
4) 장애유무	① 있음	② 없음

문3. 귀 닥의 자녀가 하루 중 방과후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입니까?

- ① 다함께돌봄센터 ② 지역아동센터 ③ 초등돌봄교실
④ 아이돌보미 ⑤ 유료 돌봄 인력(베이비시터, 친인척, 이웃 등)
⑥ 학원 ⑦ 기타(적어주세요:)

문4. 위의 3번 문항에서 선택한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① 아이의 아버지 | ② 아이의 어머니 |
| ③ 아이의 친조부모 | ④ 아이의 외조부모 |
| ⑤ 친인척 | ⑥ 이웃 |
| ⑦ 아이돌봄 서비스 | ⑧ 베이비시터 |
| ⑨ 가사도우미 | ⑩ 아이훈자 |
| ⑪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문5. 귀하가 방과후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 | | |
|-------------------------|-------------------|
| ①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② 특기적성 개발을 위하여 |
| ③ 학습 및 숙제지도 등 실력향상을 위하여 | ④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
| ⑤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 ⑥ 식사 및 간식해결 |
| ⑦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 ⑧ 사회성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
| ⑩ 기타 (적어주세요:) | |

문6. 귀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이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문7. 귀하의 자녀는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몇 시쯤 귀가합니까? 또한 하루 평균 방과후 돌봄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등원시간: ()시 ()분
하원시간: ()시 ()분
▷ 예시: 오후 9시 30분에 하원할 경우 ⇒ (21)시 (30)분
② 방과후 돌봄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하루 평균()시간 ()분

문8. 귀하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방과후 돌봄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만족도					비고 불만족 이유 (매우불만족/불만족 으로 답한 경우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물리적 환경 (면적, 환경구성, 쾌적성, 이동거리 등)	①	②	③	④	⑤	
2) 이용할 수 있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담당 선생님의 자질과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활동내용과 프로그램의 질	①	②	③	④	⑤	
5) 간식의 질	①	②	③	④	⑤	
6) 전담 선생님 대비 이용아동 수	①	②	③	④	⑤	
7) 이용 비용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대전광역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2순위 ()
- ① 특별대상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② 야간 돌봄시간을 더 연장해야 함
③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
④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
⑤ 선생님 1명 당 아동 수를 줄여야 함
⑥ 선생님 처우(급여수준 포함)를 향상시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 ⑦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야 함
 ⑧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해야 함
 ⑨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⑩ 그 외 의견(적어주세요:)

B. 가정에서의 돌봄현황

문1.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일마다 다를 경우 평균시간을 적어주세요(집에서 나서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① 등교시간: ()시 ()분

하교시간: ()시 ()분

▷ 예시: 오후 9시 30분에 하교할 경우 ⇒ (21)시 (30)분

② 하루 평균 학교에 머무는 시간(면접원이 산출하여 기입): 총()시간 ()분

문2. 귀하의 자녀가 등학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돌보는 사람에 대해 적어주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① 도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 ④ 통학차량 ⑤ 기타(적어주세요:)	
등학교 시키는 보호자 (한분만)	등교 시	① 아이 어머니 ② 아이 아버지 ③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담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기타(적어주세요:)
	하교 시	① 아이의 어머니 ② 아이 아버지 ③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담 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3.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부모 또는 부모 중의 한분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
녀의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있음 ②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
 ③ 아이돌보미가 돌봄 ④ 유료 돌봄 인력(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이 돌봄
 ⑤ 학원 (학습지 등 포함) 수강 ⑥ 아이 혼자 기다림
 ⑦ 형제자매와 함께 있음 ⑧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⑨ 기타 (적어주세요:)

C. 돌봄 어려움 경험

문1. 귀하는 다음의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지만서비스 미이용	알고있으며 서비스 이용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2) 방과후 학교	①	②	③	④
3) 방과후 아카데미	①	②	③	④
4)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5) 다함께돌봄센터	①	②	③	④
6) 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7)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③	④

문2. 귀하는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 ① 주변 지인을 통해서
- ②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 ③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 ⑤ 가정통신문 등 학교 알리미를 통해서
- ⑥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3. 위에서 이용하시는 돌봄 외에 현재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돌봄 공백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4로)
- ② 없음 (⇒ 문8로)

문4.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각 경우에 따른 지원 필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1) 부모 아침출근~자녀 등교까지(등교전 준비)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정규수업 이후 학원 이동시까지 공백	①	②	③	④	⑤
3) 학원과 학원사이 남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4) 학원 또는 돌봄 이후 부모 귀가시간 전까지	①	②	③	④	⑤
5) 야근으로 퇴근이 늦을 때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6) 방학기간	①	②	③	④	⑤
7) 주말근무 시	①	②	③	④	⑤
8) 긴급출장/회의 등 긴급상황 시	①	②	③	④	⑤
9) 아플 때나 병원입원 또는 아픈가족 간호 시	①	②	③	④	⑤

문5. 위의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6.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초등돌봄교실에서 ② 다함께돌봄센터에서
③ 아동돌봄 서비스로 ④ 지역아동센터에서
⑤ 돌봄공동체(품앗이, 협동조합 등)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7. 추가로 받는 돌봄 서비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십니까?

보기를 참조하여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숙제지도 ② 인성교육 ③ 예·체능프로그램 ④ 체험학습
⑤ 자유놀이 ⑥ 간식 및 급식 ⑦ 문화 활동 ⑧ 상담
⑨ 특기적성 ⑩ 건강 및 운동 ⑪ 기타(적어주세요:)

문8.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돌봄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 이용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안전관리(아동학대, 폭력, 유괴 등)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의 아동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①	②	③	④	⑤
6) 돌봄비용 부담(교육비, 돌봄 서비스 비용 포함)	①	②	③	④	⑤
7)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①	②	③	④	⑤

문2. 지역 내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돌봄 공간을 마련한다면, 다음 중 어느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① 영아만 이용 ② 영유아 이용 ③ 초등 1-3학년 이용
④ 초등 4-6학년 이용 ⑤ 영유아와 초등아동 모두 이용 ⑥ 모든 연령의 자녀 이용

문3. 대전광역시 지역 내 아이들의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돌봄 공간을 마련한다면 다음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내 ② 초등학교 내
③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내 ④ 주거지역 (아파트 등) 내
⑤ 지역 내 작은 도서관 활용
⑥ 그 외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

문4. 자녀의 자녀 보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돌봄 공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래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학교/ 학원에 데려다주거나, 하교/하원 시간에 아이를 공동돌봄 공간으로 데려오기(등하원/등하교 서비스)
② 학교숙제 및 학습지 풀기, 준비물 챙겨주기
③ 준비물 챙겨주기
④ 간식 제공
⑤ 아침, 저녁식사 제공
⑥ 돌봄기관 시간에 맞추어 차량 태워 보내기
⑦ 아픈 아이 병원에 데려가기
⑧ 부모가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보살핌 외에는 특별한 요구 없음
⑨ 기타(적어주세요:)

문5. 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초등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용해 보신 유사한 기관 및 서비스 중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세요.

① 있음	기관명: 서비스 내용:
② 없음	

문6. 돌봄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 | |
|--------------------------------|----------------------|
| ① 돌봄시설 접근성 | ②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
| ③ 공공돌봄 대상자 확대 | ④ 돌봄 인력의 전문성 |
| 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⑥ 돌봄 이용 시간 확대 |
| ⑦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 |
| ⑧ 기타(적어주세요:) | |

문7. 귀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가족도움(조부모, 외조부모 등) | ② 개인 연차 사용 |
| ③ 재택근무 활용 | ④ 가족돌봄휴가 사용 |
| 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 |
| ⑥ 기타(적어주세요:) | |

문8.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되는 돌봄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가정 돌봄 | ② 공공서비스(돌봄교실 등) |
| ③ 민간서비스(학원 등) | ④ 돌봄공동체(품앗이 등) |
| ⑤ 아이돌보미(베이비 시터) | ⑥ 기타(적어주세요:) |

문9.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십니까?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 | | |
|---------------------------|--------|
| 1) 긴급한 상황 | (응답:) |
| 2) 아이가 아플 때 | (응답:) |
| 3) 부모 등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플 때 | (응답:) |

〈보 기〉

① 아이의 부모	⑦ 아이돌보미
② 아이의 형제자매	⑧ 유료 돌봄 인력(베이비시터, 이웃 등)
③ 아이의 친조부모	⑨ 도움받기 힘들
④ 아이의 외조부모	⑩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기관
⑤ 친인척	⑪ 기타(적어주세요:)
⑥ 이웃	

문10. 대전광역시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E. [2명이상 자녀 돌봄현황] 다자녀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 다음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의 현황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응답해 주세요.[자녀가 1명일 경우 F의 문1로 가시오.]

문1. 귀댁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문2. 귀댁 자녀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문3. 앞의 초등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 외에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아래 빈칸에 써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관	사람	기타	기관	사람	기타	기관	사람	기타	기관	사람	기타

보 기		
주 이용 돌봄 기관	돌보는 사람	기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아이돌봄 서비스 ④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 ⑤ 초등돌봄교실 ⑥ 방과후 학교/교실 ⑦ 방과후 아카데미 ⑧ 공동육아나눔터 ⑨ 그 외(적어주세요:)	① 아이의 아버지 ② 아이의 어머니 ③ 아이의 친조부모 ④ 아이의 외조부모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아이혼자 ⑪ 기타 (적어주세요:)	① 그 외 이용 (적어주세요:) ② 없음

문4.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에 경험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돌봄 서비스 이용에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F. 기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내용

문1. 자녀의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바라는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연령	부 : 만 ()세 / 모 : 만 ()세		맞벌이 여부	① 외벌이 ② 맞벌이
최종 학력	부: () / 모: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3년제) 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졸			
자녀 연령	1) 자녀 수 _____명 2) 미취학 영유아 _____명 3) 초등학생 _____명 ① 첫째: 만 _____세 ② 둘째: 만 _____세 ③ 셋째: 만 _____세 ④ 넷째: 만 _____세			
가족 유형	① 부모+자녀 ② 부+자녀 ③ 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조부모 +한부모 + 손자녀 ⑥ 조부모 + 손자녀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⑩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자녀 방과후 돌봄 서비스로 지출되는 비용	첫째 자녀 : 월 평균()만원 둘째 자녀 : 월 평균()만원 셋째 자녀 : 월 평균()만원 넷째 자녀 : 월 평균()만원			
부	근무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④ 휴직중 ⑤ 무직(주부 포함)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근무일수	주 _____ 일		
	출퇴근 시간	집에서 출발시간 ()시 ~ ()시	퇴근 후 집에 도착 시간 ()시 ~ ()시	
	하루 평균 근무시간	주중 _____ 시간	주말 _____ 시간	
	종사상 지위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주부, 학생포함) ⑧ 비해당(부재)		
모	근무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④ 휴직중 ⑤ 무직(주부 포함)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근무일수	주 _____ 일		
	출퇴근 시간	집에서 출발시간 ()시 ~ ()시	퇴근 후 집에 도착 시간 ()시 ~ ()시	
	하루 평균 근무시간	주중 _____ 시간	주말 _____ 시간	
	종사상 지위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중(주부, 학생포함) ⑧ 비해당(부재)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인 대상]

조사표번호			
입력 ID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돌봄에 대한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어르신의 돌봄욕구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 연구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박란이 복지협력부장)
- 조사기관: ㈜유니온리서치 (담당자 : 어인선 과장, 02-2090-1243/ 성지현 대리, 02-2090-1223)

〈 개인정보 제공 및 면접참여 동의서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설문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5 월 일

응답자 :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귀하

응답자	어르신 본인	☐	대리 응답자	☐
조사자	(인)		관리자	(인)

A.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리 응답자의 경우, 어르신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다음의 보기 중에서 어르신께 해당되는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출생년도	년
3. 장애여부	① 있음(장애유형:)	② 없음
4. 종 교	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
5.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빌라 ③ 아파트 ④ 기타()
6. 과거의 직업	① 농업 ② 공무원 ③ 회사원 ④ 자영업 ⑤ 교사 ⑥ 일용직 ⑦ 없음 ⑧ 기타()	
7. 배우자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8. 주거상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료 ⑤ 기타()

B. 일상생활

문1.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에 모두 응답해주세요.

[복수 응답]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혼자 ④ 형제, 자매
⑤ 기타 (적을 것:)

문2. 식사준비는 주로 누가 하십니까?[단일 응답]

- ① 스스로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복지관 지원 ⑤ 기타(적을 것:)

문3. 어르신은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복수 응답]

- ①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② 병원에서 준 치료약만 먹는다
③ 식사를 통해 섭취하려고 하고 있다 ④ 거의 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적을 것:)

문4.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단일 응답]

- ① 일을 해서 ② 퇴직금, 연금
③ 정부지원금 ④ 자녀의 도움
⑤ 이자 및 임대수입 ⑥ 정부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⑦ 기타(적을 것:)

문5. 어르신께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활동 2가지만 선택 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일 ②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③ 교제 및 여가활동
 ④ 학습 ⑤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⑥ 종교활동
 ⑦ 가사관리(청소, 빨래, 밥하기, 은행업무 등) ⑧ 기타(적을 것:)

문6. 다음은 어르신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항입니다. 어려움의 정도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어려움의 종류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1) 경제적인 어려움(생활비, 부채상환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상의 문제(건강 및 질병치료)	①	②	③	④	⑤
3) 장애 등 신체활동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가족갈등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여가활용 등 사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외로움	①	②	③	④	⑤
8) 식사준비	①	②	③	④	⑤
9) 일상적인 주거시설	①	②	③	④	⑤

C. 건강관리

문1.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V)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구분	있다.
1)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2)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이동에 대한 불편함	
3)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등 정서적 불편함	
4) 배우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5) 옷 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의 일상생활 불편함	
6) 장보기	
7) 없음	
8) 기타	

문2. 평소 건강관리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시는 편입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V)해주십시오. [복수 응답]

- | | |
|-------------------|--------------|
| ① 아침식사하기(규칙적인 식사) | ② 적정수면 |
| ③ 규칙적 운동 | ④ 정기 건강검진 |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문3.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단일 응답]

- | | | |
|----------------|--------------|-------|
| ① 병원·의원·한의원 | ② 보건소 | ③ 복지관 |
| ④ 인근 체육시설 이용 등 | ⑤ 기타(적을 것:) | |
| ⑥ 특별히 없음 | | |

문4. 가장 걱정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치매 | ② 중풍 |
| ③ 만성질환(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 ④ 고독사 |
| ⑤ 기타(적을 것:) | |

D. 사회적 관계 : 가족 및 이웃관계

문1. 어르신 슬하에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인가요?

- | | |
|-------------|----------------|
| ① 있다(____명) | ② 없다 ⇒ 문3으로 이동 |
|-------------|----------------|

문2. 자녀와의 연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매일 | ② 1주일에 한번이상 |
| ③ 한달에 한번이상 | ④ 생일, 명절, 행사 때 만 |
| ⑤ 거의 없다. | |

문3.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이웃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고 지내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30분 정도 | ② 1시간 정도 |
| ③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 ④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

문4. 어르신께서는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단일 응답]

- ①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다 ② 말벗 정도로 지낸다
 ③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낸다 ④ 잘 모르고 지낸다
 ⑤ 이웃이 누구든 관심 없다

E. 돌봄 서비스 현황

문1. 어르신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가족 ② 이웃, 친구 ③ 종교기관
 ④ 동행정 복지센터 ⑤ 복지관 / 복지사 ⑥ 자원봉사자
 ⑦ 요양보호사 ⑧ 생활지원사 ⑨ 없음
 ⑩ 기타 (적을 것:)

문2. 어르신은 어려울 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아십니까?
[단일 응답]

-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안다 ③ 잘 모른다

문3.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함께 사는 가족 ② 떨어져 있는 자녀나 가족
 ③ 동행정 복지센터(시, 구청) ④ 경로당
 ⑤ 복지관 등 복지시설 ⑥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돌봄인력
 ⑦ 지역사회 공식자원(통반장 등) ⑧ 이웃, 친구 등
 ⑨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문자 ⑩ 기타(적을 것:)

문4. 다음은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현황입니다.

어르신께서 알고 있거나 이용을 하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전광역시 제공 돌봄 서비스 현황 종류	인지 및 이용 여부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1) 도시락 배달	①	②	③	④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3) 이동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4) 노노케어	①	②	③	④

대전광역시 제공 돌봄 서비스 현황 종류	인지 및 이용 여부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 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 있고 이용해봄
5) 퇴원환자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6)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7) 치매검사 및 지원	①	②	③	④
8) 기타	(적을 것 :)			
	④번 응답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문 5번으로 ④번 응답이 없는 경우 문 7번으로			

문5. 어르신께서 이용 하셨거나 지금 이용을 하고있는 돌봄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단일 응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문 6번으로	⑤ 문 6번으로

문6.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③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 ④ 돌봄 시간이 너무 짧아서
⑤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⑥ 돌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⑦ 기타(적을 것:)

문7.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신청방법을 몰라서
② 신청해줄 사람이 없어서
③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⑤ 돌봄 시간 등 서비스량이 너무 작아서
⑥ 돌봄 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⑦ 나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아니어서
⑧ 기타(적을 것:)
⑨ 해당사항 없음(제시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 봄)

문8. 어르신은 복지관 등의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② 1년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정도
⑤ 일주일에 2~3회 정도 ⑥ 거의 매일(주4회 이상)

문9.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다음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다면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V)해주시시오.

영역	구분	필요하다
문10. 사회참여 서비스	1) 노인자원봉사활동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 고령자 취업지원사업	
문11. 돌봄 서비스	1) 돌봄 서비스(가사, 세탁)	
	2) 돌봄 서비스(말벗, 상담)	
	3) 요양보호사 & 생활지원사 방문	
	4) 치매어르신 등 주간 돌봄	
	5) 방문간호 & 왕진의료	
	6) 집수리 등 주거지원	
	7) 이동(병원)동행서비스	
	8) 식사지원(도시락, 밑반찬 등)	
	9) 퇴원환자(돌봄)지원	
	10) 웰다잉준비 서비스	
문12. 가족관계 서비스	1) 가족상담	
	2) 가족관계프로그램	
	3) 세대통합프로그램	

문13. 위 항목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시오.

()

F.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문1.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⑤ 건강이 매우 나쁘다

- ①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까이에서 사는 가족이 없어서
- ②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 ③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④ 도움은 필요하지만, 돌봐주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 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 ⑥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5. 어르신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 문 6번으로 이동

문5-1. (등급 인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은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인지지원등급
⑦ 등급 외 ⑧ 기타(적을 것:)

문5-2. 어르신이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방문요양 ② 방문간호
 - ③ 방문목욕 ④ 주야간보호서비스
 - ⑤ 단기보호 ⑥ 복지용구

문6.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 1순위(), 2순위 ()

- ①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 ②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 ④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 ⑤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⑥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 ⑦ 장기요양보험에는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⑧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로 충분해서
- ⑨ 기타(적을 것)

문7. 다음은 어르신의 건강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해주세요.

항목지표	체크하기	
1) 현재 술은 몇 잔 정도 마십니까?	①안 마신다	②마신다 (종류:) (잔:)
2)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걷기, 스포츠, 사이클링, 등산 등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3) 하루 3끼를 먹을 때, 반찬을 다르게 먹는 편입니까? * 밥과 국을 제외한 반찬을 의미	① 예	② 아니오
4) 평소에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교육이나 검진을 받는 편입니까? * 보건소나 병원 등의 건강교육에 참가하거나 혈압, 당뇨 수치를 측정	① 예	② 아니오
5) 평소에 다른 사람과 만나 어울려 지내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G. 대전광역시의 노인관련 서비스

문1.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노인주택 등 노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3.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4. 귀하가 정부지원을 받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 ① 기초노령연금 ② 기초생활수급 ③ 차상위계층지원
④ 국가유공자보상 ⑤ 받는 것 없음

문5.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없다 | ② 50만원 미만 |
|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150만원 미만 |
| ⑤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⑥ 200만원~300만원 미만 |
| ⑦ 300만원 이상 | |

문6. 귀하의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의 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순위
1) 식료품비	
2) 공과금(전화요금, 전기세 등)	
3) 주거비(월세, 주택대출 등)	
4) 병원비 및 약값	
5) 생활용품 구입	
6) 사회활동비(모임회비 등)	
7) 기타	

문7. 대전광역시가 노인의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장애인 대상]

조사표번호			
입력 ID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장애인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 연구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박란이 복지협력부장)
- 조사기관: ㈜유니온리서치 (담당자 : 어인선 과장, 02-2090-1243/ 성지현 대리, 02-2090-1223)

〈 개인정보 제공 및 면접참여 동의서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설문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5 월 일

응답자 :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귀하

응답자	장애인 본인	☐	대리 응답자	☐
조사자	(인)	관리자	(인)	

A.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리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년			
3. 장애유형	① 지체 ⑤ 청각 ⑨ 신장 ⑬ 안면	② 뇌병변 ⑥ 언어 ⑩ 심장 ⑭ 장루·요루	③ 지적 ⑦ 자폐성 ⑪ 호흡기 ⑮ 뇌전증	④ 시각 ⑧ 정신 ⑫ 간
4. 중복장애 여부	① 있음(4-1문항으로)			
	② 없음			
	4-1.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아래 중 어떤 장애인가요?(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지체 ⑤ 청각 ⑨ 신장 ⑬ 안면	② 뇌병변 ⑥ 언어 ⑩ 심장 ⑭ 장루·요루	③ 지적 ⑦ 자폐성 ⑪ 호흡기 ⑮ 뇌전증	④ 시각 ⑧ 정신 ⑫ 간
5. 가구원 수(본인포함)	() 명			
6. 거주 가족(모두선택)	① 나 ⑤ 배우자 ⑨ 친척	② 아버지 ⑥ 자녀 ⑩ 친구나 동료	③ 어머니 ⑦ 할머니 ⑪ 기타(적을 것:	④ 형제, 자매 ⑧ 할아버지)
7. 의사소통 수행능력	① 대부분 도움 받아 표현 가능 ③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		② 일부 도움 받아 표현 가능 ④ 모든 의사표현 가능	
9. 최종 학력 및 학교종류	학 력		학 교 종 류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특수학교 전공과 ⑥ 대학(2년제 포함) ⑦ 대학원 이상	① 비해당 ② 재학(수료포함) ③ 중퇴 ④ 졸업	① 비해당 ② 일반학교 ③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④ 특수학교 ⑤ 대안학교	
10. 결혼여부	① 기혼(동거 포함)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미혼 ⑥ 기타(적을 것:)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12. 월평균소득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⑦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⑧ 300만원 이상 ⑨ 잘 모름			

문6.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3순위()번
①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②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③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④ 건강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⑤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⑥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재활전문가) 양성	
⑦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⑧ 장애인 특화서비스(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⑨ 지역 내 종합(대학)병원의 증설	⑩ 치료 및 재활전문병원 증설	
⑪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 확대	⑫ 진료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⑬ 기타(적을 것:)		

C. 일상생활

문1.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단일 응답]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5번 문항으로) ②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2.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예 ② 아니요(5번 문항으로)

문3. 일상생활을 하는 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일 응답]

-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활동지원사
 ⑪ 간병인 ⑫ 기타(적을 것:)

문4. 현재 일상생활에서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부족하다
(4-1문항으로)
- ② 부족한 편이다
(4-1문항으로)
- ③ 충분한 편이다
(5문항으로)
- ④ 매우 충분하다
(5문항으로)

4-1.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장애가 심해서 모든 일상생활수행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② 가족이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③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④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의 업무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⑤ 기타(적을 것:)

4-2.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일상지원영역(세수, 목욕, 양치질, 배변, 식사 도움 등)
② 교육활동영역(교육, 치료활동 참여 및 기다림 등)
③ 정서활동영역(대화, 놀아주기, 함께 책보기 등)
④ 이동활동영역(출·퇴근, 등·하교, 복지관 이동 등)
⑤ 상담활동영역(정보 검색 등)
⑥ 사회활동영역(관련 단체 및 모임)
⑦ 기타 영역(적을 것:)

문5.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②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③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④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⑤ 장애인 돌봄시설 확대 ⑥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⑦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⑧ 기타(적을 것:)	

문6. 집밖 활동이나 외출 시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불편하다
(6-1문항으로)
- ② 불편하다
(6-1문항으로)
- ③ 불편하지 않다
(7문항으로)
-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7문항으로)

6-1. 집밖 활동이나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교통이 불편해서 ②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③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④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⑥ 기타(적을 것:)

문7.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신설
③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④ 편의시설 확대
⑤ 교통 등 이동수단 확대	⑥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⑦ 기타(적을 것:)	

문8. 장애인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②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③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④ 학습지원 인력 제공
⑤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⑥ 비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⑦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⑧ 장애인평생교육사 별도 양성 및 배치
⑨ 의사소통 지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⑩ 기타(적을 것:)

D. 주거 및 취업지원

문1.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 ② 주택자금 제공 |
| ③ 주택개조 사업 확대 | ④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
| ⑤ 기타(적을 것:) | |

‘④ 집주변 편의시설’은 슈퍼마켓, 병원, 관공서, 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등을 의미합니다.

문2.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직업재활시설 확충	② 지원고용의 확대
④ 취업정보 제공 창구의 확대	⑤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⑦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⑧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③ 취업바람회 개최
	⑥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⑨ 기타(적을 것:)

E. 소득 및 경제적지원

문1.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의료비 지원	② 교통비 지원
④ 양육비 지원	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지원
⑦ 주거비 지원	⑧ 보호간병비 지원
	③ 교육비 지원(교재비, 준비물, 학원비 등)
	⑥ 생활비 지원
	⑨ 기타(적을 것:)

F. 안전

문1.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②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④ 장애인 위치표시(GPS배회감지기)보급 확대
⑤ 장애인 비상·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교육	⑥ 기타(적을 것:)

문2.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병원 이용의 어려움
④ 복지시설 이용 제한	⑤ 전염병 불안감
⑦ 도전적 행동 증가	⑧ 기타(적을 것:)
	③ 외부활동 제한
	⑥ 물품구입 어려움

G. 노후 준비

문1. 귀하는 노후에 대한 주된 걱정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건강관리	② 일상생활 지원(돌봄 등)
⑤ 외로움 등 고립감	⑥ 주거
⑨ 신변보호	⑩ 돌봐줄 사람 없음
	③ 교육
	④ 문화·여가활동
	⑦ 직업재활 및 취업
	⑧ 재산/금전관리
	⑪ 없음
	⑫ 기타(적을 것:)

문2. 다음은 노후계획의 준비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 준비내용	준비정도				
	전혀 못함	잘 못함	어느 정도 준비	충분히 준비	해당사항 없음
1) 저축, 연금 등 경제적 준비	①	②	③	④	⑤
2)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선정	①	②	③	④	⑤
3) 커뮤니티 등 공동체 생활 준비	①	②	③	④	⑤
4) 주거 등 환경적 준비	①	②	③	④	⑤
5) 재활훈련 및 취업준비	①	②	③	④	⑤
6) 협동조합,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준비	①	②	③	④	⑤
7) 기타(적을 것:)	①	②	③	④	⑤

문3.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노후 준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③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④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
⑤ 노후준비를 한다 하여도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이다	⑥ 노후준비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
⑦ 지금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⑧ 기타(적을 것:)

H . 돌봄

문1. 귀하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단일 응답]

- ① 배우자와 사는 집 ② 부모님 집 ③ 혼자서 사는 집
 ④ 친구들과 같이 사는 집 ⑤ 장애인 거주 시설 ⑥ 기타(적을 것:)

문2. 귀하가 위의 문항에서 선택한 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 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②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③ 혼자 살기는 외로울 것 같아서 ④ 시설에 사는 것이 편해서
 ⑤ 돌봄이 필요해서 ⑥ 기타(적을 것:)

문3. 귀하는 혼자 살 경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예(3-1문항으로) ② 아니요(4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다(4번 문항으로)

문3-1. 혼자 살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일 응답]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자녀 ⑤ 조부모 ⑥ 활동지원사
⑦ 기타(적을 것:)

문4. 귀하가 다음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3순위()번
① 생계비(돈) ④ 일자리 ⑦ 자립생활서비스 ⑩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⑬ 신변보호	② 내가 살 집 ⑤ 의료비(병원) ⑧ 장애인 보조기기 ⑪ 혼자 사는 경험의 기회 ⑭ 동료상담	③ 돌봄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 ⑥ 나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⑨ 주택 개조/관리 ⑫ 자립생활 정착금 ⑮ 기타(적을 것:)

문5. 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통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
②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지인을 통해
③ 장애인 친구나 동료를 통해
④ 장애인기관,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직원, 활동가로부터
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⑥ 정보를 거의 찾아보지 않음
⑦ 기타(적을 것:)

문6. 다음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사업명		인지 및 이용 여부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연금 수당	1) 장애인연금	①	②	③	④
	2) 경증장애수당	①	②	③	④
	3)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③	④
보육· 교육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5)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6) 아동양육수당	①	②	③	④

사업명		인지 및 이용 여부			
		전혀 모름	들었지만 내용모름	알았지만 미이용	알고있고 이용해봄
의료 및 재활 지원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①	②	③	④
	9) 장애인단서 발급비 지원	①	②	③	④
	10) 장애검사비 지원	①	②	③	④
	11) 발달재활서비스	①	②	③	④
	1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1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14) 보조기(전동휠체어 등) 정부보조금 지원	①	②	③	④
돌봄 지원	1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1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①	②	③	④
	1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①	②	③	④
	18)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①	②	③	④
	19)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①	②	③	④
	2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일자리	21) 장애인일자리 사업	①	②	③	④
	22) 장애인 고용서비스	①	②	③	④
기타	23) 공공요금 감면	①	②	③	④
	24) 각종 세제혜택	①	②	③	④

문7. 귀하는 복지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① 정보부족	②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④ 집에서 가까운 시설의 부족	⑤ 전문가(전문성) 부족
⑦ 비용부담	⑧ 장기간 대기문제
⑩ 낮은 서비스 질	⑨ 이용자격이 되지 않음
	⑪ 기타(적을 것:)

문8. 귀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③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문9. 귀하께서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1번 문항으로)
- ② 들어봤지만 어떤 서비스인지 모른다. (11번 문항으로)
- ③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다. (10번 문항으로)
- ④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고 있다. (10번 문항으로)

문10. 귀하께서는 대전광역시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1. 귀하는 향후 대전의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체크해주세요.

* **장애인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

서비스 종류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일 자 리			
1) 직업재활 또는 취업지원	①	②	③
2. 주 거			
1)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①	②	③
2) 주거환경개선(문턱, 냉난방 등)	①	②	③
3) 병원 퇴원 후 일시 거주시설	①	②	③
3. 일 상 생 활			
1) 가사지원	①	②	③
2) 도시락 등 식사지원	①	②	③
4. 건 강 및 보 건 의 료			
1) 건강관리(약물복용 포함)	①	②	③
2) 병원이용	①	②	③
3) 재활, 운동 등 신체기능 유지	①	②	③
4) 우울 등 심리정서 상담	①	②	③
5. 보 호 및 돌 봄 요 양			
1) 병원 퇴원지원	①	②	③
2) 간병 등 돌봄 서비스	①	②	③
6. 기 타 서 비 스			
1) 자립생활 등 정보 안내소	①	②	③
2) 자원 연계(병원, 식당, 이마용 등)	①	②	③
3) 관계형성 프로그램	①	②	③
4) 거주지 인근의 쉼터(정보교류, 친목도모 등)	①	②	③

문12. 위의 서비스 외에 대전의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Ⅰ. 정신 장애인 영역

문1. 다음은 귀하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등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정신건강 현황			
1) 입원력	지난 1년간 입원횟수 ()회 지난 2년간 입원횟수 ()회	2) 입원기간	지난 1년간 총 ()개월
3) 재입원	지난 1년간 퇴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지난 1년간 퇴원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자살사고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타해경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외래치료 여부	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② 치료하다 3주 이상 중단한 상태이다. ③ 치료를 해본 적이 없다.		
7) 약물복용 형태	① 처방대로 복용한다 ② 1달에 1-3번 정도 잇는다 ③ 1주일에 1-2번 잇는다 ④ 1주일에 3번 이상 잇는다 ⑤ 임의로 조정하여 복용한다 ⑥ 거의 먹지 않는다.		

문2.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면서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에만 「」를 해주십시오. 특별한 사람에서 가족은 제외됩니다.

문항	전혀 아님	조금 아님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주위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가족들과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감정에 관해 염려해주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의사결정을 가까이 도와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과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지난 한달 동안의 귀하의 경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각각의 질문을 읽어 보고 해당하는 칸에 ✓를 해 주십시오.

문항	아무 문제없음	별로 문제없음	문제 심각	잘 모르겠음
1) 당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2) 당신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3) 당신은 당신의 집안일을 돌볼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 당신은 몸을 깨끗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당신은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①	②	③	④
6) 당신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7) 당신은 환청을 들었거나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8)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치료약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9) 당신은 최근에 매우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0)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1)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12) 당신은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3) 당신은 처방되지 않은 약물(환각제) 등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4) 당신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5) 당신은 배우자(또는 이성교제 대상자)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6) 당신의 성생활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17) 당신은 돌보아야 할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8) 글을 읽고 쓰고 하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9) 당신은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0) 당신은 버스, 지하철, 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1) 당신은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2) 당신은 자격조건이 되는 모든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3)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보호/옹호를 받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4) 인권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5)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26) 당신의 교육수준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7) 당신의 취업상태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8) 당신은 스스로 약물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29) 부모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자 욕구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발 행 일 : 2022년 9월
- 발 행 인 : 최 용 노
-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 (우 34917)
- 전 화 : 042-331-8925
- 팩 스 : 042-331-8924
- 홈페이지 : <https://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05-0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